

발간등록번호

2023-KIHF-221

가족위기 측정을 통한 가족위기 지원 강화 방안 연구

2023. 11.



한국건강가정진흥원

KOREAN INSTITUTE FOR HEALTHY FAMILY

연구사업 결과보고서

가족위기 측정을 통한 가족위기 지원 강화 방안 연구

2023. 11.

연구기관 : 미래가족연구소
연구책임자 : 정영금 소장
공동연구자 : 정지영 (여주대학교)
: 조성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연구지원 : 윤은영 (미래가족연구소)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보고서는 미래가족연구소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결과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연구요약

I.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연구 필요성

- 경제적 공동체, 상호 돌봄, 정서적 지지, 출산 및 양육 등의 일상을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이자 운명공동체로서, 가족기능의 약화는 일상생활 속에서 가족구성원 중 개인 또는 모든 가족원의 가족위기 경험의 가능성을 증가시킴
- 최근 우리나라는 1인 가구의 확대에 의한 가족구조 변화, 개인주의의 확산과 감염병 및 재난의 장기화 등으로 사회적 고립과 단절이 심화되고 있음.
- 따라서 코로나19 이후 가족관계 갈등 및 가계경제의 악화와 함께 사회적 재난·사고 발생 시 피해 가족에 대한 긴급돌봄·정서 지원 등 가족위기 지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가족센터 내 개인이나 가족 대상 위기 서비스를 보다 적시에 촘촘히 제공하기 위해서, 가족위기의 유형이나 위기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요구됨

□ 연구 목적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족센터의 모든 서비스 이용자의 가족위기의 경험과 수준을 개인의 정서적 측면과 가족의 관계적 측면, 발달적 측면 및 구조적 측면, 그리고 가족 외부에서 영향 미치는 사건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파악하고 가족이 지니는 가족위기 대응자원의 보유도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위기가족 서비스지원 및 연계 수요 요인을 제시할 수 있는 가족위기 측정도구를 개발하고자 함.

II. 관련 연구 고찰

□ 가족위기 서비스 지원 현황

● 가족센터의 가족위기 지원 서비스 방향

- 가족센터를 통해 위기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 중
- 2023년 가족사업안내에서 나타나듯이, 가족센터는 가족 변화에 따른 불안정성과 위기를 예방해 소하기 위해 가족교육, 가족상담, 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가족사례관리지원 등 보편적 생애주기 맞춤형 서비스에 적합하도록 강화하고 있음
- 또한, 다문화가족대상 서비스, 한부모가족대상 서비스와 같은 가족유형별 서비스외에 재난위기 가족서비스와 같은 특화서비스와 별도 사례관리서비스도 제공 중임.

- 가족센터는 실질적으로 재난 위기 시 돌봄서비스 외에 지역 자원의 연계와 지속적인 위기 지원은 사례관리담당자 개인과 센터의 역량에 의존하고 있으며, 지역 내에서 가족위기 지원기관으로서의 인지도는 아직 낮은 상태임

□ 가족위기 유형별 선행 연구

- 가족이 경험하는 위기를 가족생활주기 전 단계에 걸쳐 측정하거나 가족구성원 개인과 가족 전체의 내·외적 위기를 종합적으로 측정한 도구를 개발한 연구는 아직 부재함
- 가족 관계적 위기 측면에 한정된 측정 도구(진미정 외, 2013)이거나 가족위기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가족 기능성 및 건강성 측정척도의 구성을 위한 연구들로 한정되어 있음

□ 가족위기 대응 자원과 지원 선행 연구

● 가족위기 대응 자원에 관한 연구

- 가족의 목표를 성취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고통을 덜고, 생활상의 과업을 달성하고, 또는 자신의 포부와 가치를 실현을 시키기 위해 활용되는 것으로써, 돈, 음식, 주거 등과 같은 유형 자원과 지식, 용기, 희망, 사랑, 지위 등과 같은 무형 자원으로 구분됨(Minahan & Pincus, 1977 : 347; 조만우, 2005).
- 가족이 활용하는 위기 대응자원은 체계론적 관점에서 서비스 공급주체를 중심으로 비공식적 자원체계, 공식적 자원체계, 사회적 자원체계 등으로 분류됨(Minahan & Pincus, 1977 : 347; 김범수·신원우, 2005).

● 가족위기 발생시 서비스 지원이나 연계 및 지원 관련 연구

- 가족위기 시 경제자원의 지원과 연계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는 대표적으로 사회적 원인론(Social Causation Theory)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생활상의 불편과 스트레스 등을 야기하여 정신건강상의 문제를 가져온다고 설명함(장신재, 2017)
- 가족위기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센터가 지역사회 사회복지기관 중 비교적 후발기관으로서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와 자원개발, 사업의 차별화를 통해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응해야 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옴(송혜림·김소영, 2006; 송혜림·김소영, 2007)

III. 가족위기 수준 측정도구 설계

1. 가족위기 측정도구 개발 절차와 분석방법

- 본 연구에서 가족위기의 수준을 평가하고 분석하는 방법은 MADI (Measurement-Analysis-Direction- Implementation)의 단계를 따름

01 **가족위기 측정도구 관련 문항 탐색**

가족 위기 관련 선행연구 및 가족사업을 토대로 관련 문항 추출

02 **가족위기 측정도구 예비 문항 제안**

가족 위기와 가족자원 관련 예비 문항 구성

03 **가족위기 측정도구의 적정성과 타당성 조사**

(1차조사) 예비 문항의 적정성과 타당성 정량 평가

(2차조사) 조정 문항의 적정성과 타당성 정성 평가

04 **가족위기 측정도구의 조정안 제시**

전문가 정성평가 결과와 자문회의를 통해 2차 조정안 도출

05 **가족위기 측정도구 시범 조사**

2차 조정안을 토대로 설문조사 후 문항 그룹핑

06 **가족위기 측정도구 제안**

요인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 최종 측정도구 제시

2. 가족위기 측정도구의 구성

□ 가족위기 측정도구는 가족위기 수준, 대응 자원, 지원에 대한 수요 3개 영역으로 구성함

- 유형 측정 문항은 개인적 위기, 관계적 위기, 가족 구조적 위기, 발달적 위기, 가족 외적 위기 유형으로 구분함
 - 위기 유형은 사망, 발달과업 실패, 질병/중독, 불안/비행, 폭력관련 문항을 구성함
 - 관계적 위기 유형은 부부관계, 부모-자녀간 관계, 소통으로 구분하여 문항을 구성함
 - 가족 구조적 위기 유형은 가족핵화/축소, 저출생/고령화, 가족분거 생활증가 요인으로 구분함
 - 발달적 위기 유형은 신혼기, 자녀 출산 양육기 자녀 교육기, 자녀 성인기, 자녀 결혼기, 축소/소멸기로 구분하여 문항을 구성함
 - 가족 외적 위기 유형은 경제적 요인, 사회 불안 요인, 전염 불안 요인, 사회 재난 요인, 자연재해 요인으로 구분하여 문항을 구성함
- 가족위기 대응자원 측정 문항은 개인 자원, 가족자원, 사회적자원, 민간/공적 자원으로 구분함
 - 개인 자원은 태도, 의지, 역량, 대처자원 측정 가능 문항으로 구성
 - 가족 자원은 위기 극복력, 복원력, 회복력, 유연성(적응력) 측정 문항으로 구성
 - 사회적 자원은 가족, 친구, 지역, 직장 네트워크 측정 문항으로 구성
 - 민간/공적 자원은 지역자원, 민간 자원, 공적 자원, 공적 인프라로 구분
- 가족서비스 지원 및 연계 수요도 측정 문항은 물적 자원, 인적자원, 사회자본 요인으로 구분함

- 동산, 현물/차량, 부동산 문항으로 구성함
- 인적자원 요인은 시간 자원, 정보획득력, 가족지지, 가족탄력성(가족역량) 요인으로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문항을 구성함
- 사회자본 요인은 관계와 네트워크 요인 문항으로 고립, 소원한 관계, 무관심 문항을 구성함

3. 측정도구의 적정성 검토

전문가 대상 문항 적정성 조사

- 정책·현장 전문가 15명을 구성하여, 가족위기 영역, 가족위기 대응자원 영역, 가족 서비스 지원 및 연계 수요 측정 요인 영역별 측정도구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1차 정량, 2차 정성 평가 방식으로 평가함

4. 측정도구 시범조사와 결과

조사개요

- 조사 기간 : 2023년 8월 22일 ~ 9월 22일
- 조사 대상 : 가족센터 이용자 중 사례관리 서비스를 받고 있는 가족위기 지원 서비스 이용자(취약가족 서비스 이용자), 일반 가족역량 강화 교육 등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 이용자(일반가족 서비스 이용자), 1인 가구 서비스 이용자 통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이용자(1인 가구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표집 방법 : 전국 12개 시도 23개 가족센터의 협조를 받아 서비스 이용자별 할당된 설문지를 센터로 261개 배포 후 260개 취합하였으며, 위기 측정 도구의 위기 수준 구별 적정성과 타당성을 확인하고자 가족센터 취약위기 사례관리 대상자를 의도적으로 1/3이상 모집하여, 취약가족서비스 이용자 89명이 포함됨

가족위기 수준 조사 결과

- (개인적 위기) 개인적 위기와 관련해서 13개 지표에 대해 경험여부와 현재 일상생활 유지의 어려움 정도를 응답한 결과, 개인적 위기 중 가장 많이 경험하는 내용은 경제적 어려움(56.2%)이며, 그 다음으로는 시험, 진학, 취업실패의 어려움(51.5%), 소외감이나 우울, 불안의 어려움(49.6%), 생활변화(이전, 이직, 이사)로 인한 부적응(48.8%), 실직과 해고의 어려움(47.3%) 순으로 경험하고 있다고 응답함
- (관계적 위기) 관계적 위기와 관련해서 5개 지표에 대해 경험여부와 현재 일상생활 유지의 어려움 정도를 응답한 결과, 관계적 위기 중 가장 많이 경험하는 내용은 가족간

어려움(42.7%)이며, 그 다음으로 부부갈등의 어려움(31.5%), 가족내 고립이나 단절의 어려움(28.5%), 이혼과 재혼의 어려움(25.4%), 가정폭력의 어려움(16.9%) 순으로 나타남

- (가족 구조적 위기) 가족 구조적 위기와 관련해서 5개 지표에 대해 경험 여부와 현재 일상생활 유지의 어려움 정도를 응답한 결과, 가족 구조적 위기 중 가장 많이 경험하는 내용은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60%)이며, 그 다음으로 일상생활 유지 관리의 어려움(47.3%), 노부모 부양 기간 증가로 인한 어려움(35.8%), 지역인구감소로 인한 어려움(34.6%), 손자녀 돌봄의 어려움(26.9%)으로 나타남
- (발달적 위기) 발달적 위기와 관련해서 12개 지표에 대해 경험여부와 현재 일상생활 유지의 어려움 정도를 응답한 결과, 발달적 위기 중 가장 많이 경험하는 내용은 자녀양육 및 돌봄의 어려움(55.4%)이며, 그 다음으로 부부-부모 역할적응의 어려움(49.6%), 자녀의 진학과 학업의 어려움(46.9%), 노화로 인한 어려움(44.2%), 결혼 및 적응의 어려움(37.3%), 진로 및 이성교제로 인한 어려움(30.4%), 배우자의 사망/홀로되기의 어려움(26.2%) 순으로 나타남
- (가족 외적 위기) 가족 외적 위기와 관련해서 5개 지표에 대해 경험여부와 현재 일상생활 유지의 어려움 정도 응답 결과, 가족 외적 위기 중 가장 많이 경험하는 내용은 장기적 경기침체와 불경기로 인한 어려움(60.8%)이며, 그 다음으로 메르스나 코로나19 등 전염병으로 인한 어려움(55.0%), 사회적 범죄 증가로 인한 어려움(53.1%), 화재나 교통사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어려움(48.5%),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와 어려움(41.5%)으로 나타남

□ 가족위기 유형별 위기수준 산출 결과

- 가족위기 수준을 5가지 유형으로 합산하여 평균 점수로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유형별로 지표 개수가 다르므로 유형별로 가족위기 점수를 합산하여 해당 지표 값으로 나눈 평균값을 각 가족위기의 유형별 점수로 산출하였으며, 0점에서 7점 사이에 분포함
 - 점수가 7점에 가까울수록 위기수준이 높다고 분석되며, 본 연구대상자들은 발달적 위기 수준이 가장 높고, 개인적 위기, 가족 구조적 위기, 가족 외적 위기, 그리고 관계적 위기 순으로 나타남
 - 다문화가족이 비다문화가족에 비해 가족위기 모든 유형에서 평균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남, 다문화가족은 발달적 위기, 개인적 위기 순으로 높게 나타났음
 - 한부모가족이 비한부모가족에 비해 가족위기 모든 유형에서 평균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남, 개인적 위기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비한부모가족과 비교해서 관계적 위기 점수 차이가 가장 큼
 - 서비스 이용 특성에 따른 유형별 가족위기 점수 산출 결과 취약가족 서비스 이용자들이 1인 가구 및 일반가족 서비스 이용자 보다 모든 유형별 가족위기 점수가 높게 나타나 본 측정도구가 가족위기 측정에 적절한 도구임이 확인됨

[서비스이용 특성별 가족위기 유형별 위기 점수]



□ 가족위기 대응 자원 조사 결과

● 대응 자원 문항 타당성 검증

-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위기극복을 위한 대응자원과 관련하여 개인자원 4문항, 가족자원 4문항, 이웃자원 4문항, 공적자원 5문항 등 17개 문항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EFA: 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여, 최종 16개 문항에 대해 개인자원 5문항, 가족자원 3문항, 이웃자원 4문항, 공적자원 5문항으로 가족위기 대응자원 구분을 결정함

● 가족위기 대응자원 산출 결과

- 가족위기 대응자원을 4가지 요인으로 합산하여 평균 점수로 정리한 결과는 각 자원별로 0~7점사이 에 분포하며, 본 조사의 대상자들은 가족자원, 개인자원, 이웃자원, 공적자원 순으로 자원의 평균값이 나타남.

□ 가족서비스 지원 및 연계 수요 조사 결과

- 가족서비스 지원 및 연계 수요 척도는 요인분석을 통해 연구에서는 최종 15개 문항에 대해 가족 지지, 경제 지원, 시간 지원, 사회적 관계망, 정보·기술 지원 등 5개 요인에 대해 각 3개 문항으로 조정함
- 가족서비스 지원 및 연계 수요 산출 결과 각 요인별로 지표 개수가 다르므로 요인별로 가족위기 대응점수를 합산하여 해당 지표값으로 나눈 평균값을 각 가족위기 대응자원의 요인별 점수로 산출함. 위기가 높을수록 경제 지원에 대한 수요가 높고, 맞벌이나 한부모는 시간 지원 수요가 보이며, 가족위기가 낮은 사람들의 가족 지지가 높은 것등을 본 측정도구를 통해 확인후 서비스 연계 가능함

IV. 가족위기 측정도구와 기대성과

1. 가족위기 측정도구

□ 가족위기 수준 측정

- 연구는 가족의 위기 수준을 측정할 도구로 5가지 유형(개인적 위기, 관계적 위기, 가족 구조적 위기, 발달적 위기, 가족 외적 위기)을 제시함
- 가족의 위기 수준은 각 위기 상황에 대해 개인 또는 가족이 경험한 상황에 대해 ‘현재 어려움을 어느 정도 경험하고 있는가?’에 대해 7점 척도로 측정함
- 5가지 유형별 점수 측정은 각 요인별 개인이 응답한 항목의 점수를 합산한 것을 요인의 개수값으로 나누어 산정함. 이 과정은 5가지 가족위기의 유형별 지표값에 대해 표준화(Normalization)하는 작업임.
 - 위기점수 = (개인적 위기 13개 항목 합산점수) / 13
 - 관계적 위기점수 = (관계적 위기 5개 항목 합산 점수) / 5
 - 가족 구조적 위기점수 = (가족 구조적 위기 5개 항목 합산 점수) / 5
 - 발달적 위기점수 = (발달적 위기 12개 항목 합산 점수) / 12
 - 가족 외적 위기점수 = (가족 외적 위기 5개 항목 합산 점수) / 5
- 5가지 유형별 지표값의 기초값에 대해서 가중치는 동일하게 부여함. 즉 개인적 위기 점수의 표준화 값이 5점인 수준과 구조적 위기 점수의 표준화값이 5점인 수준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함

□ 가족위기 대응자원 측정

- 본 연구는 가족의 위기 수준과 함께 가족위기에 대한 대응자원을 측정할 도구로 4가지 요인(개인 자원, 가족 자원, 이웃 자원, 공적 자원)을 제시함
- 가족위기에 대한 대응자원에 대해 ‘가족위기를 극복하기에 자원이 어느 정도 충분한가?’에 대해 7점 척도로 측정함. 당초 4개 항목에 대해 17개 문항을 요인분석한 결과 16개 문항이 최종 포함됨
- 4가지 요인 점수 측정은 각 요인별 개인이 응답한 항목의 점수를 합산한 것을 요인의 개수값으로 나누어 요인별 지표값을 표준화(Normalization)함
 - 개인 자원 점수 = (개인 자원 4개 항목 합산 점수) / 4
 - 가족 자원 점수 = (가족 자원 3개 항목 합산 점수) / 3
 - 이웃 자원 점수 = (이웃 자원 4개 항목 합산 점수) / 4
 - 공적 자원 점수 = (공적 자원 5개 항목 합산 점수) / 5

- 4 요인별 지표값의 기초값에 대해서 가중치는 동일하게 부여함. 즉 개인자원 점수의 표준화 값이 5점인 수준과 관계자원 점수의 표준화값이 5점인 수준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함
- 따라서 가족위기 대응자원의 요인별로 최소값 0에서 최대값 7점까지 산정되며, 각 자원점수가 7점에 가까울수록 충분하다고 분석됨

□ 가족서비스 지원 및 연계 필요성 측정

- 본 연구는 가족서비스 지원 및 연계가 필요한 분야를 측정할 도구로 4가지 요인(가족지지, 경제지원, 시간지원, 사회적관계망 지원, 정보·기술 지원)을 제시함
- 위기 발생시 가족 서비스 지원이나 연계가 필요한 항목에 대해 '가족이 일상생활하는데 필요한 지원의 정도'에 대해 7점 척도로 측정함. 당초 5개 항목에 대해 17개 문항을 요인분석한 결과 2개의 문항을 제외한 15개 문항이 최종 포함됨
- 5가지 요인 점수 측정은 각 요인별 개인이 응답한 항목의 점수를 합산한 것을 요인의 개수값으로 나누어 요인별 지표값을 표준화(Normalization)함
 - 점수 = (가족지지 3개 항목 합산 점수) / 3
 - 경제지원 점수 = (경제 지원 3개 항목 합산 점수) / 3
 - 시간지원 점수 = (시간 지원 3개 항목 합산 점수) / 3
 - 사회적 관계망 점수 = (사회적 관계망 3개 항목 합산 점수) / 3
 - 정보·기술 지원 점수 = (정보·기술 지원 3개 항목 합산 점수) / 3
- 5가지 요인별 지표값의 기초값에 대해서 가중치는 동일하게 부여하였으므로, 가족지지 점수의 표준화 값 5점과 사회적관계망 점수 표준화값 5점은 동일한 수준으로 간주함

2. 가족위기 측정도구 기대성과

□ 가족위기 수준 구분과 특성 파악

- 가족위기의 5개 유형별로 응답한 점수 값(표준화값)을 모두 합산하여 위기수준을 3개 집단으로 구분함
 - 전체 위기 점수=개인적 위기점수+관계적 위기점수+가족 구조적 위기점수+발달적 위기점수+가족 외적 위기점수
 - 전체 위기 점수는 최소 0점에서 최대 35점으로 분포됨. 조사 대상 표집시 위기 가족과 위기가 아닌 가족을 가족센터 위기서비스 이용 여부에 따라 이미 구별하여 조사하였으므로, 표집된 조사대상자 수와 위기 점수대를 고려하여 위기점수 분포에 따라 (1)위기점수 낮은집단(0~15점), (2)위기점수 보통집단(15.01~20점), (3) 위기점수 높은집단(20.01~35점) 등으로 구분함

- 보통집단은 15점~20점사이에 해당하는 구간으로서 향후 위기 지원 서비스 대상자이지만 위기 수준이 낮아진 상태이거나, 또는 가족위기 수준이 높지만, 위기 지원 서비스에는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이 위기 서비스 대상자로서 관찰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구간을 구분한 결과임.

□ 가족위기 수준은 아래 특성에 예측 및 맞춤 지원에 적용 가능

- 특성 : 성별, 소득활동 여부,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수준, 연령별 가족위기 수준 비교가능하며, 추후 자가 진단을 통해 비교 집단 평균 차이 파악에 활용 가능
- 가족위기 수준은 가족서비스 이용 특성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추후 가족서비스의 성과를 가족위기 수준의 감소 점수로 확인할 수 있음
- 가족위기 수준의 집단별로 돌봄 대상자 수의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남($p < .01$). 따라서 향후, 돌봄 대상자 수에 따라 가족정책적 지원 범위와 위기 수준을 파악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음
-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등 가족 유형별 가족위기 유형의 차이가 나타남

□ 가족위기 수준에 따른 가족위기 대응 자원 충분도

- 가족위기 수준의 집단별로 대응 자원 충분도에 대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음
- 위기점수가 높은 집단은 개인 자원, 가족 자원, 이웃 자원, 공적 자원 등 모든 가족위기 대응자원의 충분도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남
- 특히 가족위기 수준 낮은 집단, 보통 집단, 높은 집단 모두 가족 자원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다른 자원에 비해 이웃 자원 점수가 가장 낮았음
- 가족위기 대응 자원 충분도를 고려하여, 가족위기 지원 방향 설계에 활용

□ 가족위기 수준에 따른 가족서비스 지원 및 연계수요 차이

- 가족위기 수준별 가족서비스 지원 및 연계의 필요성 점수 차이는 유의미함($p < .001$)
- 위기점수가 높은 집단은 가족 지지, 경제 지원, 시간 지원, 사회적 관계망, 정보·기술 지원 등 모든 가족서비스 지원과 연계 필요성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위기점수 보통 집단은 시간 지원의 위기점수가 높은 집단과 동일 수준으로 확인됨

□ 가족위기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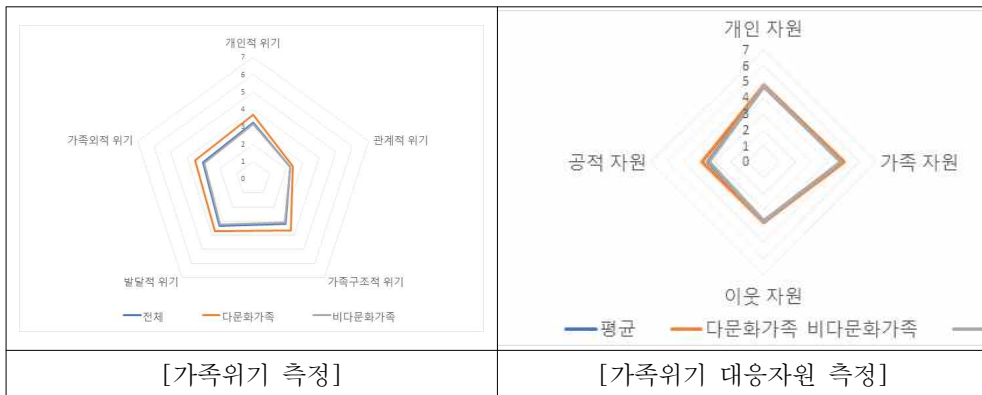
- 전체 가족위기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함

- 가족위기 수준에 한부모 가족, 취약가족, 소득활동하는 경우, 연령, 경제적인 안정적 수준, 개인자원, 가족자원, 관계자원, 시설자원, 돌봄대상자수 등의 요인이 가족위기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F=15.099, p<.001),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약 41.8%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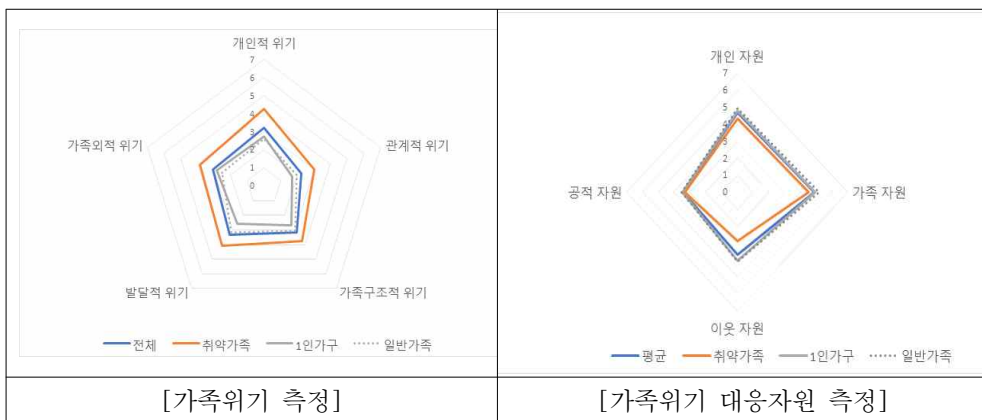
□ 가족위기 측정도구를 활용한 진단 적용 예

- 본 연구의 측정도구를 활용하면, 가족의 위기 수준과 가족위기 유형별 심각성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때 동일 위기수준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가족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응자원이 어느 정도 충분한가 또는 어느 정도 부족한가에 따라 그 가족이 실제 대응하거나 위기로 인식하는 수준이 다른 것까지 고려한 지원을 하는데 유용함

[다문화 가족의 가족위기 수준과 대응자원의 충분도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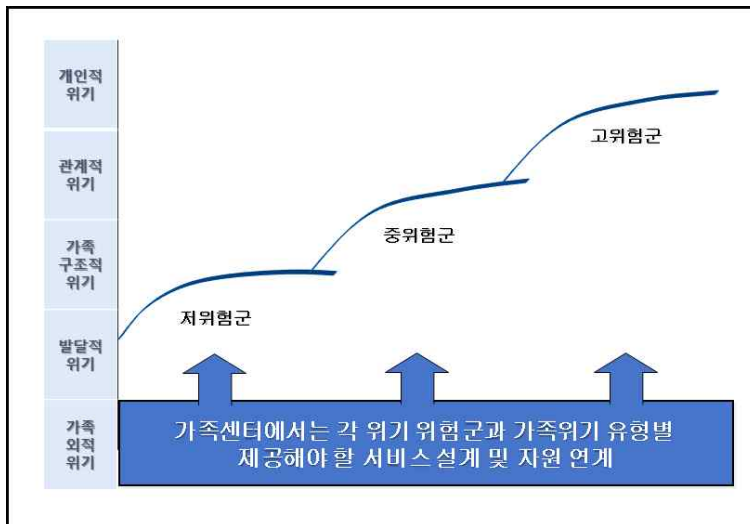
[취약 가족의 가족위기 수준과 대응자원의 충분도 대응]



V. 결론 및 정책 제언

□ 가족위기 수준별 지원 대상 분류

- 연구에서, 전체 가족위기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을 때, 경제적 요인(취약가족, 소득활동 여부, 경제적인 안정적 수준 등), 가족 유형별 요인(취약가족, 한부모가족), 자원 요인(개인자원, 가족자원, 관계자원, 시설자원), 개인적 특성 요인(연령, 돌봄대상자수)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됨.
- 따라서 기존 가족센터의 다문화가족 여부, 한부모가족 여부로 구분되던 가족위기 지원대상을 가족위기 수준에 따라 가족위기 고위험 대상자, 중위험 대상자, 저위험 대상으로 분류하고 그에 맞춘 서비스 설계와 지원을 제안함



□ 가족위기 유형별 서비스 지원

- 가족위기 측정도구를 활용하면 가족위기는 5개 유형으로 분류되며 각 위기를 경험하는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지원 계획 수립이 가능함
 - 위기는 경제적 수준이 불안정할수록 높게 나타나는 위기임
 - 관계적 위기는 한부모가족의 위기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위기이며, 돌봄대상자 수가 많은 경우 나타나기 쉬운 위기임
 - 가족 구조적 위기는 연령이 높을수록, 경제적인 수준이 불안정할수록 위기 수준이 높게 나타나는 특성을 갖고 있음
 - 발달적 위기는 응답자 본인 연령이 높을수록, 경제적인 수준이 불안정할수록, 이웃 자원이 부족할수록, 돌봄대상자 수가 많을수록 커지는 위기임

- 외적 위기는 경제적 상황이 열악한 대상에게 나타는 위기로 가족 외적 위기가 나타난 경우, 개인적 위기, 관계적 위기, 가족 구조적 위기, 발달적 위기가 모두 함께 나타나고 있음.

가족위기 특성화 가족센터 지정 운영

- 조사 결과 전체 대상자 가족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가족 형태, 연령에 따라 가족위기 유형과 수준이 달라짐이 확인됨. 따라서 매해 가족정책 계획 수립 시, 또는 센터별 지역 특성에 맞춘 가족위기 지원 대상자를 특정한 특성화 사업 개발과 운영 가능 선별

경제적 취약자와 한부모 위기관리 패키지 구성

- 한부모가족은 경제적 지원과 함께 관계적 위기 지원 패키지 구성
- 경제적 취약 대상자는 모든 가족위기 영역에서 위험군으로 확인되나 일차적으로 가족센터의 가족위기 사례관리 대상으로 연계되어, 타기관의 경제적 지원 대상이라 할지라도 일상생활 영위를 지원하기 위한 행정망을 통해 가족서비스와 통합지원 패키지 구성

인구학적 특성을 고려한 가족위기 대응자원 지원

- 남성에게는 관계적 위기 지원이 우선 필요함
- 연령에 따라서도 가족위기 유형은 차이가 있어, 중년세대는 개인적 위기와 관계적 위기가 같이 오는 경우, 노년 세대는 구조적 위기와 발달적 위기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가족위기 측정도구를 통해 이러한 복합적 위기 정도를 파악해 낼 수 있음

가족위기 진단과 정보 제공

- 가족위기 측정 도구를 활용해 자가 진단과 해석, 서비스 안내 가능

가족위기 지원을 위한 정책 제언

- 본 연구에서 개발된 가족위기 측정 도구는 가족위기와 관련된 개별적 문제나 단편적 문제가 아닌 가족위기 전반을 통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으며, 나아가, 가족센터가 제공하고 있는 가족서비스가 가족위기를 예방하고 지원하는데 적절하게 연계되고, 적극적인 서비스 지원과 연계가 가능하도록 구성된 타당성 높은 척도임
- 그러나 본 연구에서 개발된 가족위기 측정 도구는 이제 타당한 문항만이 개발된 상태로, 향후 다양한 분석 정보 도출을 위한 후속연구가 필요함
- 향후, 후속과제에서는 구체적으로 자가 진단과 해석, 활용을 위한 연구를 기대함

목 차

제1장 서론	1
I. 필요성 및 목적	3
1. 연구 필요성	3
2. 연구 목적	6
II. 연구 내용 및 방법	7
1. 연구 내용	7
2. 연구 방법	9
제2장 관련 연구 고찰	11
I. 가족위기 서비스 지원 현황	13
1. 한국 가족정책 가족위기 지원 방향	13
2. 가족센터를 통한 가족위기 지원 현황	15
II. 가족위기 유형별 선행 연구	21
1. 개인적 위기 측정 관련 연구	24
2. 관계적 위기 측정 관련 연구	29
3. 가족 구조적 위기 측정 관련 연구	31
4. 발달적 위기 측정 관련 연구	34
5. 가족외적 위기 측정 관련 연구	44
III. 가족위기 대응 자원과 지원 선행 연구	46
1. 가족위기 대응 자원 관련 연구	46
2. 가족위기 서비스 연계 및 지원 관련 연구	57
제3장 가족위기 수준 측정 도구 설계	61
I. 측정 도구 개발 체계의 설정	63
1. 도구 개발의 기본 방향	63
2. 가족위기 측정 도구 구성 절차	66
II. 측정도구의 구성	72
1. 가족위기 측정 도구 문항 검토 범위	72
2. 가족위기 수준 측정 예비 도구	73
III. 측정도구의 적정성 검토	77

1.	검토 절차	77
2.	전문가대상 문항 적정성 조사	79
3.	측정도구 조정안 도출	103
IV.	측정도구 시범조사와 결과	111
1.	조사 개요	111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14
3.	가족위기 수준 조사 결과	118
4.	가족위기 대응 자원 조사 결과	132
5.	가족서비스 지원 및 연계 수요 조사 결과	143
제4장	가족위기 측정도구와 기대성과	153
I.	가족위기 측정도구 제안	155
1.	가족위기 수준 측정	155
2.	가족위기 대응자원 측정	157
3.	가족서비스 지원 및 연계 필요성 측정	161
II.	가족위기 측정도구 기대성과	163
1.	가족위기 수준 구분과 특성 파악	163
2.	가족위기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파악	173
3.	가족위기 수준과 대응자원 충분도 파악	178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85
I.	가족위기 측정을 통한 가족위기 지원 방안	187
1.	가족위기 수준별 지원 대상 분류	189
2.	가족위기 유형별 서비스 지원	191
3.	가족위기 특성화 가족센터 지정 운영	195
4.	경제적 취약자와 한부모 위기관리 패키지 구성	196
5.	인구학적 특성을 고려한 가족위기 대응자원 지원	198
6.	가족위기 진단과 정보제공	199
II.	가족위기 관리를 위한 정책 제언	201
참고문헌	205

부 록 : 전문가 설문지(1차)	215
전문가 설문지(2차)	224
이용자 설문지	235

표 차례

[표 2-1] 개인적 위기 중 개인 상담 서비스 제공 현황	15
[표 2-2] 개인적 위기 중 개인 발달과업 실패 지원 서비스 현황	16
[표 2-3] 2022년 가족관계 프로그램 참여 인원 현황	17
[표 2-4] 가족 구조적 위기 대응 중 가족돌봄분야 프로그램 참여 인원 현황	18
[표 2-5] 가족 구조적 위기 대응 가족생활분야 프로그램 참여 인원 현황	18
[표 2-6] 홈즈와 라헤의 사회재적응 평정척도	25
[표 2-7] 듀발(Duvall)의 핵가족 중심 가족생활주기 8단계	34
[표 2-8] 카터와 맥골드릭의 가족생활주기 6단계와 발달과업	35
[표 2-9] 학자별 가족생활주기 단계	36
[표 2-10] 최규련(2008)의 가족발달 단계와 발달과제	37
[표 2-11] 가족생활주기 단계별 특징과 과업	38
[표 2-12] 가족생활주기 단계별 가족위기 관련 가족발달과업	39
[표 2-13] 청소년 위기 요인에 영향 미치는 가족 특성	42
[표 2-14] 자원의 속성과 지역사회복지 자원의 유형	47
[표 2-15] 공식적 공급체계와 비공식적 공급체계	48
[표 2-16] 공급 주체에 따른 지역사회복지 자원의 유형	49
[표 2-17] 출산·양육 지원 관련 지역사회자원	50
[표 2-18] 지역사회 중심 아동·가족 공공지원서비스 목록	52
[표 2-19] 아동·가족 지원 서비스 유형	53
[표 3-1] 가족위기 수준 측정도구의 기본틀과 요인	66
[표 3-2] 가족위기 수준 영역별 측정 예비문항	80
[표 3-3] 가족위기 대응자원 측정 예비문항	81
[표 3-4] 가족서비스 지원 및 연계 수요 측정 예비문항	82
[표 3-5] 가족위기 측정도구 예비문항 타당성과 적정성 1차 평가 결과	83
[표 3-6] 가족위기 유형별 측정 예비문항의 타당성과 적정성	84
[표 3-7] 가족위기 유형별 측정예비 도구 1차 조정 결과	87
[표 3-8] 가족위기 대응자원 요인별 측정도구의 타당성과 적정성	90
[표 3-9] 가족위기 대응자원 요인 측정 1차 조정 문항	91
[표 3-10] 가족서비스 지원 및 연계 수요 요인별 측정 예비문항의 타당성과 적정성	92
[표 3-11] 가족서비스 지원 및 연계 수요 요인 측정 1차 조정 문항	94
[표 3-12] 가족위기 유형별 수준 측정 1차 조정 문항	97
[표 3-13] 가족위기 대응자원 측정 1차 조정 문항	99
[표 3-14] 가족위기 지원 수요 측정 1차 조정 문항	101
[표 3-15] 가족위기 수준 측정 7점 척도	104

[표 3-16] 개인적 위기 유형 2차 조정 문항	105
[표 3-17] 가족 관계적 위기 유형 2차 조정 문항	106
[표 3-18] 가족 구조적 위기 유형 2차 조정 문항	106
[표 3-19] 발달적 위기 유형 2차 조정 문항	107
[표 3-20] 가족 외적 위기 유형 2차 조정 문항	108
[표 3-21] 가족위기 대응자원 측정 7점 척도	108
[표 3-22] 가족위기 대응자원 2차 조정 문항	109
[표 3-23] 가족 서비스 지원 및 연계 수요 측정 7점 척도	110
[표 3-24] 가족서비스 지원 및 연계 수요 1차 조정안 유지 문항	110
[표 3-25]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1)	114
[표 3-26]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2)	115
[표 3-27] 가족 중 돌봐야 하는 사람	116
[표 3-28] 조사대상자의 정부지원 수급 내용	117
[표 3-29] 가족위기 유형별 수준 측정 결과(1) - 개인적 위기	119
[표 3-30] 가족위기 유형별 수준 측정 결과(2) - 관계적 위기	120
[표 3-31] 가족위기 유형별 수준 측정 결과(3) - 가족 구조적 위기	121
[표 3-32] 가족위기 유형별 수준 측정 결과(4) - 발달적 위기	122
[표 3-33] 가족위기 유형별 수준 측정 결과(5) - 가족 외적 위기	123
[표 3-34] 가족위기 유형별 위기 평균 점수	124
[표 3-35] 다문화가족 여부에 따른 가족위기 유형별 위기 점수	126
[표 3-36] 한부모가족 여부에 따른 가족위기 유형별 위기 점수	127
[표 3-37] 서비스이용 특성별 가족위기 유형별 위기 점수	128
[표 3-38] 성별 가족위기 유형별 위기 점수	129
[표 3-39] 소득활동여부에 따른 가족위기 유형별 위기 점수	130
[표 3-40] 연령별 가족위기 유형별 위기 점수	131
[표 3-41] 가족위기 대응자원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133
[표 3-42] 가족위기 대응자원의 요인별 평균 점수	134
[표 3-43] 다문화가족 여부에 따른 가족위기 대응자원 충분도 점수	136
[표 3-44] 한부모가족 여부에 따른 가족위기 대응자원 충분도 점수	137
[표 3-45] 서비스이용 특성별 가족위기 대응자원 충분도 점수	138
[표 3-46] 성별 가족위기 대응자원 충분도 점수	140
[표 3-47] 소득활동여부에 따른 가족위기 대응자원 충분도 점수	141
[표 3-48] 연령별 가족위기 대응자원 충분도 점수	142
[표 3-49] 가족서비스 지원 및 연계 수요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144
[표 3-50] 가족서비스 지원 및 연계 수요의 요인별 평균 점수	145
[표 3-51] 다문화가족 여부에 따른 가족서비스 지원 및 연계 필요성 점수	147
[표 3-52] 한부모가족 여부에 따른 가족서비스 지원 및 연계 필요성 점수	148
[표 3-53] 서비스이용 특성별 가족서비스 지원 및 연계 필요성 점수	149
[표 3-54] 성별 가족서비스 지원 및 연계 필요성 점수	150

[표 3-55] 소득활동여부에 따른 가족서비스 지원 및 연계 필요성 점수	151
[표 3-56] 연령별 가족서비스 지원 및 연계 필요성 점수	152
[표 4-1] 본 연구에서 제안된 가족위기 수준 측정도구	157
[표 4-2] 본 연구에서 제안된 가족위기 대응자원 충분도 측정도구	160
[표 4-3] 본 연구에서 제안된 가족서비스 지원 및 연계 필요성 측정도구	162
[표 4-4] 가족위기 수준별 집단 구분	163
[표 4-5] 가족위기 수준과 성별의 교차분석	164
[표 4-6] 가족위기 수준과 소득활동 여부의 교차분석	165
[표 4-7] 가족위기 수준별 경제적 안정 수준 점수 차이	165
[표 4-8] 가족위기 수준과 연령별 특성의 교차분석	166
[표 4-9] 가족위기 수준별 평균 연령의 차이	166
[표 4-10] 가족위기 수준과 서비스이용 특성의 교차분석	167
[표 4-11] 가족위기 수준별 돌봄대상자수의 차이	168
[표 4-12] 가족위기 수준과 다문화가족의 교차분석	168
[표 4-13] 가족위기 수준과 한부모가족의 교차분석	169
[표 4-14] 가족위기 수준별 위기유형의 점수 차이	170
[표 4-15] 가족위기 수준별 가족위기 대응자원 충분도 점수 차이	171
[표 4-16] 가족위기 수준별 가족서비스 지원 및 연계 필요성 점수 차이	172
[표 4-17] 전체 가족위기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173
[표 4-18] 개인적 위기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174
[표 4-19] 관계적 위기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175
[표 4-20] 가족 구조적 위기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176
[표 4-21] 발달적 위기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176
[표 4-22] 가족 외적 위기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177

그림 차례

[그림 2-1]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 지원 체계도	54
[그림 3-1] Poter의 다이아몬드 모델을 적용한 여가 경쟁력 구성요소	68
[그림 3-2] 가족위기 결과표 예시(A가족과 B가족)	68
[그림 3-3] 가족위기와 가족위기 대응자원 결과표 예시	69
[그림 3-4] 가족위기 측정도구 개발 절차	70
[그림 3-5] 가족위기 유형 측정도구 배열 변경 전 후 비교	88
[그림 3-6] 가족위기 유형별 위기 평균 점수(1)	125
[그림 3-7] 가족위기 유형별 위기 평균 점수(2)	125
[그림 3-8] 다문화가족 여부에 따른 가족위기 유형별 위기 점수	126
[그림 3-9] 한부모가족 여부에 따른 가족위기 유형별 위기 점수	127
[그림 3-10] 서비스이용 특성별 가족위기 유형별 위기 점수	128
[그림 3-11] 성별 가족위기 유형별 위기 점수	129
[그림 3-12] 소득활동여부에 따른 가족위기 유형별 위기 점수	130
[그림 3-13] 연령별 가족위기 유형별 위기 점수	131
[그림 3-14] 가족위기 대응자원의 요인별 평균 점수(1)	134
[그림 3-15] 가족위기 대응자원의 요인별 평균 점수(2)	135
[그림 3-16] 다문화가족 여부에 따른 가족위기 대응자원 충분도 점수	136
[그림 3-17] 한부모가족 여부에 따른 가족위기 대응자원 충분도 점수	137
[그림 3-18] 서비스이용 특성별 가족위기 대응자원 충분도 점수	139
[그림 3-19] 성별 가족위기 대응자원 충분도 점수	140
[그림 3-20] 소득활동여부에 따른 가족위기 대응자원 충분도 점수	141
[그림 3-21] 연령별 가족위기 대응자원 충분도 점수	142
[그림 3-22] 가족서비스 지원 및 연계 수요의 요인별 평균 점수	145
[그림 3-23] 다문화가족 여부에 따른 가족서비스 지원 및 연계 필요성 점수	147
[그림 3-24] 한부모가족 여부에 따른 가족서비스 지원 및 연계 필요성 점수	148
[그림 3-25] 서비스이용 특성별 가족서비스 지원 및 연계 필요성 점수	149
[그림 3-26] 성별 가족서비스 지원 및 연계 필요성 점수	150
[그림 3-27] 소득활동여부에 따른 가족서비스 지원 및 연계 필요성 점수	151
[그림 3-28] 연령별 가족서비스 지원 및 연계 필요성 점수	152
[그림 4-1] 가족위기 수준 측정 단위	155
[그림 4-2] 가족위기 대응자원 측정 단위	158
[그림 4-3] 다문화 가족의 가족위기 수준과 대응자원의 충분도 대응	178
[그림 4-4] 한부모 가족의 가족위기 수준과 대응자원의 충분도 대응	179
[그림 4-5] 취약 가족의 가족위기 수준과 대응자원의 충분도 대응	180
[그림 4-6] 소득활동 여부에 따른 가족위기 수준과 대응자원의 충분도 대응	181

[그림 4-7] 성별에 따른 가족위기 수준과 대응자원의 충분도 대응	181
[그림 4-8] 연령별 가족위기 수준과 대응자원의 충분도 대응	182
[그림 5-1] 가족위기 측정도구 개발 절차	188
[그림 5-2] 가족위기 수준과 가족위기 유형을 고려한 지원	194
[그림 5-3] 가족위기 수준과 대응자원의 충분도 대응을 통한 진단 결과표 예시	200

제1장 서론

I.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 필요성

- 사회의 기본단위이며 개인의 삶과 안녕을 지지하는 최소 단위이자 1차 방어선으로, 최근 급격한 환경 변화의 영향으로 인해 그 기능과 역할에서 불안정성이 증대하고 있음
 - 자녀 출산 및 양육, 생산·분배·소비의 경제적 기능, 정서적 지지와 관계의 형성, 교육과 돌봄 기능 등 고유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함.
 - 그러나 최근 사회변화와 수요에 맞추어 가족 형태의 다양화, 가족 가치관 및 가족생애주기의 변화, 코로나19 등 사회적 재난과 경제의 불안정 증가 등 가족생활의 다양한 변화에 대응하는 가족 고유의 기능이 빠르게 약화 되면서, 이로 인한 새로운 가족정책의 수요가 증가함
 - 일상생활에서 가족기능의 약화는 가족 안정성을 위협하는 가족위기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취약계층과 같은 특정 가족 유형에서만 가족위기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족이 전 생애에 걸쳐 가족기능이 저하될 시 언제든지 경험할 수 있는 개념으로 정책적 접근이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 가족은 경제적 공동체, 상호 돌봄, 정서적 지지, 출산 및 양육 등의 일상을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이자 운명공동체로서, 가족기능의 약화는 일상생활 속에서 가족 구성원 중 개인 또는 모든 가족원의 가족위기 경험의 가능성을 증가시킴
 - 최근 한국 사회의 인구구조나 사회구조적 변화는 개인과 가족의 생활양식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한국 사회의 높은 자살율과 느슨한 사회적 관계망의 영향으로 나타남
 - 한국의 급격한 개인주의, 고령화, 저출산, 별거, 가출, 이혼율 증가 등은 ‘가족해체’

빠르게 증가시키고 있으며, 자살과 사망 등 가족구성원의 상실로 가족구조가 붕괴되고 정서적 교류 기능이 파괴되어 가족이 제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워 가족위기가 증가하고 있음

- 한국은 OECD BLI(Better Life Index)의 11개 영역별 수준에서 사회적 연결 (Community) 점수가 1.5점으로 가장 낮고, 41개국 가운데 38위로 사회적 관계망이 매우 느슨한 것으로 나타남('20년 기준, www.oecdbetterlifeindex.org)
-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한 고용과 소득 불안정 등의 경제적 문제는 가정불화와 이혼 위기의 원인으로 작용하였으며, 가족해체를 심화시킴
 - 이와같이 외부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가족의 구조 및 기능상의 변화를 가속화하여, 다양한 위기 사건(events)에 대한 가족의 대응 역량 부족 시 여러 가족위기를 경험할 가능성이 증가함
- 가족위기는 “가족기능의 약화로 인해 가족 안정성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개념화할 수 있음
 - 가족위기는 건강가정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위기가족’의 개념에서부터 ‘가족생활주기의 상의 변화와 관련된 위기’, ‘가족구성원의 내·외적 어려움’, ‘갑작스러운 긴장’과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어려움’ 등을 모두 포괄하는 광범위한 위기의 개념이 적용됨
 - 가족위기는 구체적으로 개인적 위기, 관계적 위기, 가족 발달적 위기, 가족 구조적 위기 및 가족 외적 위기 등 5가지로 유형화 되었으며(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22), 일상생활에서 일시적으로 약화된 가족기능이 회복되지 못하고 장기화될 때 가족위기가 발생할 수 있음.
- 최근 우리나라는 1인 가구의 확대에 의한 가족구조 변화, 개인주의의 확산과 감염병 및 재난의 장기화 등으로 사회적 고립과 단절이 심화되고 있음.
 - 통계청(2022) 조사 결과에 따르면, 1인 가구의 비중은 '16년 27.9%에서 '18년 29.3%, '21년 33.4%로 전체 가구의 1/3 이상이 1인 가구로 나타남
 - 1인 가구의 증가는 선진국의 전체적인 추세로, 영국은 '외로움 전담 부처'를 지정('18.1)하고 외로움 대비 정책전략을 발표('18.10)하였으며, 일본도 고독·고립 대책 담당 부서

설치('21.2) 및 중점계획을 발표('21.12) 함으로써 고립과 단절을 사회구조적 문제로 규정함

- 우리나라도 사회적으로 고립된 약자의 어려움지원을 위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또한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 상태로 생활하던 '혼자 사는 사람이 홀로 고립된다'는 고독사 대상자의 개념을 변경하여, 가족 단위 고립과 동거 시 고독사 등 가족 내에서의 고립과 고독 문제까지 가족위기에 포함하여 관련 요인을 검토하기 시작함
- 코로나19 이후 가족관계 갈등 및 가계경제의 악화와 함께 사회적 재난사고 발생 시 피해 가족에 대한 긴급돌봄·정서 지원 등 가족위기 지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가족센터 내 개인이나 가족 대상 위기 서비스를 보다 적시에 촘촘히 제공하기 위해서, 가족위기의 유형이나 위기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요구됨
 - 가족과 가족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개인적 위기, 관계적 위기, 가족 발달적 위기, 가족 외적 위기 등 위기 경험 여부와 이에 대해 개인이 인지하는 위기 수준을 측정하여 가족위기 상황을 파악하고자 하는 필요성이 제기됨
 - 가족위기의 유형과 그 수준 및 가족위기에의 대응자원 보유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를 기초로, 가족위기 해소를 위한 서비스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함

2. 연구 목적

- 본 연구에서는 가족센터의 모든 서비스 이용자의 가족위기의 경험과 수준을 개인의 정서적 측면과 가족의 관계적 측면, 발달적 측면 및 구조적 측면, 그리고 가족 외부에서 영향 미치는 사건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파악하고 가족이 지니는 가족위기 대응자원의 보유도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위기가족 서비스지원 및 연계 수요 요인을 제시할 수 있는 가족위기 측정도구를 개발하고자 함.
- 이를 통해 지역사회 내 가족센터의 이용자 및 잠재적 이용자인 위기가족의 신속한 발굴과 함께, 위기 상황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보편적 서비스지원 체계의 구축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음
- 구체적인 연구의 추진 과정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다양한 가족위기 유형을 기반으로 가족위기의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세부 문항을 개발함
 - 둘째, 가족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가족위기 수준 측정 문항의 적정성을 파악하기 위한 시범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가족위기 수준 측정도구를 개발함.
 - 셋째, 가족위기 측정도구를 통해 가족 서비스 이용자 관련 가족위기 데이터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한 서비스 제공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II.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 기존 서비스의 고찰
 - 중앙관리 기관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가족위기 지원 방향 및 가족센터 가족위기 지원 역할 현황 고찰
 - 가족위기 측정도구 관련 연구 고찰
 - 가족센터 이용자 대상 가족위기 지원 현황과 문제점 파악
 - 가족위기 측정 영역 및 관련 문항 도출
- 가족위기 수준 측정도구 설계 및 세부 문항 개발
 - 가족센터 이용자 대상 가족위기 측정 필요성에 맞춘 위기 범위와 측정 영역을 선정하기 위해, 다양한 가족위기 유형을 기반으로 ‘가족위기 수준’ 측정 문항을 개발하기 위한 기본 틀 설계
 - 가족위기 측정 예비 문항 개발 및 전문가 조사와 시범 조사의 결과 분석
 - 가족위기 유형별 위기 수준의 산출 지표는 5개 위기 유형(개인적 위기, 가족 관계적 위기, 가족 발달적 위기, 가족 구조적 위기, 가족 외적 위기)별 세부 측정 문항을 개발함.
 - 가족위기 수준 해석을 위해 가족위기 대응 자원 측정 문항을 개발함
 - 가족위기 수준에 맞춘 서비스 지원과 연계를 위한 지원 필요 측정 문항을 개발함
- 시범 조사 실시 및 분석
 - 가족위기 측정 영역별 예비 문항 개발 및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한 본 문항 확정
 - 선별된 문항 중심의 시범 조사 실시 및 결과 분석
 - 본 연구에서 개발한 가족위기 수준 측정 문항을 근거로 가족위기의 수준을 평가하고

위해 체계적인 방법론인 MADI(Measurement-Analysis - Direction-Implementation)를 적용함

- 측정을 통한 가족위기 지원 방안 연구 기대 성과
 - 본 연구에서 개발된 도구를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가족센터가 실질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개인과 가족의 위기 지원에 기여하고자 함
 - 본 연구에서 개발된 가족위기 측정도구를 통해 선제적 서비스 발굴과 직접적인 서비스 연계가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가족위기 관련 데이터의 수집, 관리 및 분석을 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위기 측정도구를 통한 가족위기 데이터 수집 시스템의 구축이 가능하며, 가족센터에서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 연계를 구체화하기 위한 설계 지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측정도구를 개발하고자 함
 -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데이터 축적을 통해 가족센터의 가족위기 지원 관련 예측과 선제적 가족위기 지원 서비스 개발이 가능하도록 가족위기 측정도구를 개발하고자 함
 - 이를 통해, 가족위기 측정도구의 활용과 서비스 전후 가족위기도 감소의 성과 비교를 통해 가족센터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가족위기 지원 성과를 계량화할 수 있음
 - 나아가, 성과가 높은 방향으로 가족센터 내 가족위기를 지원하는 다양한 서비스 간 연계 강화, 또는 지역사회 내 민관 유관 기관과의 연계 체계 확대와 로드맵을 고도화함으로써, 가족센터 중심의 지역사회 가족위기 지원체계가 수립되는데 본 연구가 도움이 되길 기대함

2. 연구 방법

- 조사
 - 지원기관(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가족위기 지원 방향 및 가족센터의 가족 위기 지원 수행 현황과 개선 방안 검토
 - 가족정책내 가족위기 관련 측정 및 진단 도구 검토를 통해 국내외 위기 및 가족위기 측정 관련 지표 검토
 - 국내외 측정도구를 활용한 지원 사례 검토
 - 가족위기 유형과 수준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자료 검토
- 연구 협의 및 자문
 - 가족위기 수준 측정 문항의 내용과 측정 방법 검토
 - 가족위기 수준 측정 결과 활용 및 데이터수집 방안과 활용방안 논의
- 전문가 의견조사
 - 가족위기 수준 측정을 위한 기본 틀과 설문조사 문항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2회 실시
 - (1차 조사) 1차 조사는 개발된 가족위기 측정 문항과 항목에 근거하여 문항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질문하여 조사 결과에 따라 항목을 일부 수정
 - (2차 조사) 2차 조사는 1차 조사의 결과를 근거로 일부 수정된 지표의 적정성 여부만 질문하여 분석함.
- 시범 조사
 - 개발 문항 시범 조사를 통해, 최종 문항의 적정성 판단
 - 가족센터의 가족위기 측정도구 최종 문항 확정

제2장 관련 연구 고찰

I. 가족위기 서비스 지원 현황

1. 한국 가족정책 가족위기 지원 방향

-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가족위기 지원 방향은 취약가족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청소년모부자가족, 조손가족 등 가족 유형별 위기 대응 서비스를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이었으나 최근 사회 다변화와 예측 불가능한 사건과 재난 발생이 증가에 따라 전 생애주기에 걸친 보편적 위기 대응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수요가 증가함
 - 약화 및 가족구조 다변화에 따른 가족 불안정성의 증가를 반영하여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3대 전략목표 중 하나로 ‘가족위기 대응강화’를 채택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3대 전략과제를 수립함
 - (1)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확대-한부모 돌봄 위기 지원 확대
 - (전략과제 2) 고위험 가족 발굴 및 지원 확대
 - (전략과제 3) 가족상담 서비스 강화
 - 가족센터의 중앙관리기구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가족서비스 Hub 기능 강화의 일환으로, 가족센터의 가족위기 지원 강화를 통한 가족 성장지원을 도모함
 - 또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고위험 가족에 대한 선제적 발굴과 지원 확대를 위하여, 대규모 가족위기 데이터의 수집과 관리, 그리고 이를 통한 정책 수립과 지원 강화 방안을 적극 모색 중
- 가족센터의 가족위기 지원 서비스 방향
 - 여성가족부는 2023년 가족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지역 가족센터를 통해 위기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 중
 - 가족센터는 2023년 전국 211개소 운영
 - 가족관계사업 영역에서는 고령화에 맞춘 조부모 역할 내용 추가 및 노부모 부양가족 지원을 위한 돌봄 사업을 추가함

- 가족기능이 취약한 한부모·조손가족 및 긴급위기가족, 1인 가구 등에게 가족기능 및 역량 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가족사례관리 방식의 맞춤형 위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대상의 다문화가족사례관리 사업도 수행함
 - 가족상담사업에서는 가족상담전화(1544-6621)를 통해 연계된 내담자 등을 대상으로 심층 심리정서적 위기 상담을 우선 실시하고 정신 병리적 위기상담은 관련기관으로의 연계 등 사례관리 서비스를 확대 중임.
 - 급격히 증가하는 1인 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1인 가구 대상의 고독·고립의 예방과 문제 해결을 위한 심리정서 상담 지원, 돌봄 지원, 사회적 관계망 지원을 위한 신규 인력을 배치하며 사례관리를 확대하고 있음
- 2023 가족사업안내에서 나타나듯이, 가족센터는 가족 변화에 따른 불안정성과 위기를 예방·해소하기 위해 가족교육, 가족상담, 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가족사례관리지원 등 보편적 생애주기 맞춤형 서비스에 적합하도록 강화하고 있음
- 또한, 다문화가족대상 서비스, 한부모가족대상 서비스와 같은 가족유형별 서비스외에 재난위기가족서비스와 같은 특화서비스와 별도 사례관리서비스도 제공 중임.
- 가족센터는 실질적으로 재난 위기 시 돌봄서비스 외에 지역 자원의 연계와 지속적인 위기 지원은 사례관리담당자 개인과 센터의 역량에 의존하고 있으며, 지역 내에서 가족위기 지원기관으로서의 인지도는 아직 낮은 상태임
- 이는 개인의 외로움과 스트레스 등 개인적 위기, 부모-자녀 및 부부 등 가족 관계 갈등에 대한 관계적 상담, 그리고 한부모가족 등 가족 유형에 따른 일부 사례관리 서비스를 통해 가족위기에 대한 서비스 지원을 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에서 부분적, 단편적 서비스가 이뤄질 뿐, 모든 유형의 가족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향후, 가족의 돌봄과 정서적 기능은 가족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또한 가족구성원의 사건, 사고와도 밀접하게 관련되므로, 가족센터에서 가족위기 지원을 확대하고 강화하기 위해서는, 가족위기의 범위와 영역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의 제공 방안이 필요함.

2. 가족센터를 통한 가족위기 지원 현황

- 위기에 대한 지원 현황

- 지원되는 개인적 위기 대응 서비스는 가족원 개인의 질병과 중독, 폭력과 비행, 범죄의 피해, 사망 등 신체 건강과 관련된 위기 및 실직과 취업, 진학 등 발달과업의 실패와 불안 등 심리·정서적 위기를 지원함

[표 2-1] 개인적 위기 중 개인 상담 서비스 제공 현황

대분류	소분류	남	여	비구분	합계	영역별비율	전체비율
개인 문제	정신건강	589	1,834	639	3,062	35.15	8.84
	우울	128	719	245	1,092	12.54	3.15
	자살	9	75	13	97	1.11	0.28
	성격	263	684	308	1,255	14.41	3.62
	대인관계	283	646	695	1,624	18.64	4.69
	사회부적응	36	54	23	113	1.30	0.33
	외상후 스트레스	29	95	27	151	1.73	0.44
	인터넷 중독	4	0	0	4	0.05	0.01
	기타중독	14	19	5	38	0.44	0.11
	경제	1	32	11	44	0.51	0.13
	폭력/성폭력	9	17	11	37	0.42	0.11
	성문제	8	7	36	51	0.59	0.15
	개인가치관	37	112	44	193	2.22	0.56
	기타	110	398	442	950	10.91	2.74
(개인문제) 합계		1,520	4,692	2,499	8,711	100.00	25.16

: 한국건강가정진흥원(2023), 2022년 가족지원사업 연간실적결과보고서

- 개인의 신체적, 심리·정서적 위기에 대한 대응 서비스는 주로 가족센터 가족 상담 중 일반상담 영역(부부, 부모-자녀, 그 외 가족, 개인 상담)에서 개인 상담으로 이루어짐. 그 외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 여성을 대상으로 실직, 취업, 진학 등 발달 과업 실패로 인한 위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는 이루어지지 않음
- 취약 위기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역량강화사업 중 한부모가족 사례관리 서비스와 긴급 위기가족 지원, 이혼 신청 중인 가족 지원 등에서 심리·정서적지원 또는 상

제공됨

- 현재 가족센터의 개인적 위기 대응 서비스의 지원 현황은 별도의 구체적 항목으로 조사, 보고되지 않고 있으므로, 가족 상담의 개인상담 영역 실적과 가족생활 분야의 결혼이민자 대상 초기 정착 및 취업 지원으로 살펴봄.
- 개인적 위기 상담 서비스 지원의 종류는 정신건강, 우울, 대인관계, 외상후 스트레스와 중독, 폭력, 자살, 범죄, 사건 등의 피해에 대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전체 상담 중 개인 문제는 1/4수준(약 25.2%)으로 정신건강, 대인관계, 성격, 우울 순으로 서비스 지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개인의 실직, 취업, 진학 등 발달과업과 관련된 지원은 주로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결혼이민자 취업지원과 초기정착지원(한국어교육 포함 생활적응지원) 서비스가 해당이 됨

[표 2-2] 개인적 위기 중 개인 발달과업 실패 지원 서비스 현황

프로그램명	참여 인원(명)	비중(%)
다문화가족초기정착지원	122,840	21.8
결혼이민자취업지원	167,293	29.7
지역특화사업	273,151	48.5
합계	563,284	100.0

: 한국건강가정진흥원(2023), 2022년 가족지원사업 연간실적결과보고서

● 관계적 위기에 대한 지원 현황

- 지원되는 가족 관계적 위기 대응 서비스는 대표적으로 가족관계 영역의 사업들이 모두 해당이 됨. 부부, 부모-자녀 간 관계의 갈등과 역할 위기 및 소통의 단절(예:은둔형 외톨이), 고립, 부재 등으로 발생 되는 가족위기를 지원하는 서비스가 해당이 됨
 - [표 2-3]과 같이 가족 관계적 위기에 대한 대응서비스는 주로 가족센터의 가족상담과 이혼전·후가족지원, 부부, 부모, 조부모 역할지원 및 다문화가족 관계향상과 자녀성장지원사업의 서비스가 해당이 됨.
 - 현재 가족센터의 관계적 위기 대응 서비스의 지원 현황은 2022년 가족센터와 다문화가족센터의 사업결과보고서의 가족관계 분야 프로그램의 참여 인원으로 살펴볼 수 있음.

[표 2-3] 2022년 가족관계 프로그램 참여 인원 현황

프로그램명	참여 인원(명)	영역별 비중(%)
부모역할지원	142,195	20.48
부부역할지원	29,807	4.29
이혼전·후가족지원	5,685	0.82
다문화가족관계향상지원	61,050	8.79
다문화가족이중언어환경조성	115,010	16.56
다문화가족자녀성장지원	145,308	20.93
가족상담	32,453	4.67
조부모역할지원	4,110	0.59
지역특화사업	158,706	22.86
합계	694,324	100.0

: 한국건강가정진흥원(2023), 2022년 가족지원사업 연간실적결과보고서

- 위한 지역사회 특화사업(22.86%)이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다문화가족을 위한 자녀성장지원(20.93%)과 이중언어환경조성(16.56%), 부모역할지원(20.48 %) 등의 서비스 지원이 많이 제공됨
 - 이혼전·후 가족지원(0.82%)이나 가족상담(4.67%)의 참여자가 전체 가족관계영역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4% 정도로 매우 낮게 나타나 가족 관계적 위기 해소를 위해 사업 비율과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구조적 위기에 대한 지원 현황
- 지원되는 가족 구조적 위기 대응 서비스는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단절 및 가족의 핵화(축소)로 인한 가족분거 생활의 증가,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등 가족생활 영역과 노부모 돌봄 부담과 자녀 및 자기돌봄 등 가족돌봄 영역의 서비스 지원이 포함이 됨
 - 가족 구조적 위기 대응 서비스 중 가족돌봄영역의 참여 인원(741,858명)은 가족생활영역의 프로그램에 비해 약 4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남(173,103명)
 - 가족센터에서 지원하는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가족 구조적 위기 대응 서비스 중 가족돌봄 영역의 서비스는 가족구성원의 일시적·장기적 부재, 상황적 위기 등 약화된 가족돌봄의 기능 지원과 가족 유형 특성에 따른 맞춤형 취약위기가족 지원사업이 해당이 됨(여성가족부, 2023)
 - 가족 구조적 위기 대응 서비스 중 가족돌봄 영역에서는 다문화가족 방문서비스가

많이 제공되고 있으며(62.83%), 그다음으로 가족돌봄 지역특화사업(25.25%),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11.82%)순으로 오히려 취약위기가족을 지원하는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의 비중이 낮게 나타나 가족위기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음

[표 2-4] 가족 구조적 위기 대응 중 가족돌봄분야 프로그램 참여 인원 현황

프로그램명	참여 인원(명)	영역별 비중(%)
가족역량강화지원	87,669	11.82
면접교섭서비스	817	0.11
다문화가족 방문서비스	466,084	62.83
지역특화사업	187,288	25.25
합계	741,858	100.0

: 한국건강가정진흥원(2023), 2022년 가족지원사업 연간실적결과보고서

- 구조적 위기 대응 중 가족생활영역의 서비스는 사회적 단절 및 가족의 핵화로 인한 가족 분거 생활 증가와 일·가정양립의 어려움에 대한 고충 상담, 생활 정보 제공, 적응 지원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해당이 됨
- 맞벌이가정 대상 일·가정 양립지원, 다문화가족 자녀 사회포용안전망사업, 1인 가구 지원사업 등 비교적 최근의 빠른 가족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보편사업이 아니라 일부 센터들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으로 확대되고 있음.
- 맞벌이가정의 일·가정 양립지원 서비스은 2016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2022년 다문화가족 자녀 사회포용 안전망 사업과 1인 가구 지원 사업이 추가되어 서비스 지원이 확대됨

[표 2-5] 가족 구조적 위기 대응 가족생활분야 프로그램 참여 인원 현황

프로그램명	참여 인원(명)	비중(%)
맞벌이가정 일·가정 양립지원	41,461	23.9
1인 가구 지원사업	68,152	39.4
다문화가족 자녀 사회포용 안전망	63,490	36.7
합계	173,103	100.0

자료: 한국건강가정진흥원(2023), 2022년 가족지원사업 연간실적결과보고서

- 발달적 위기에 대한 지원 현황

- 가족센터에서 가족발달주기 전체 단계별 가족위기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상시적 가족위기 예방 및 보편적 위기 지원을 위한 가족센터의 전문화가 부족함
- 현재 서비스 지원 현황은 가족관계 사업 영역에서 부부, 부모, 조부모 역할지원 프로그램을 분절적으로 제공함. 센터별 수요조사에 기반하여 특정 가족발달 단계, 주로 자녀 출산 및 양육기와 자녀교육기(초·중·고등학생 자녀)의 부부, 부모 역할 프로그램에 지원이 집중됨. 부모-자녀 관계 개선을 통한 위기 예방 차원에서는 가족교육 프로그램이, 위기 해소 및 갈등 치료 차원에서는 가족상담 프로그램이 단회기(센터별 평균 6회 무료 상담), 일시적인 집단상담 프로그램으로 제공되고 있음.
- 특히 영유아와 학령기 자녀가 있는 가족 대상의 프로그램이 집중되어 있어, 가족생활주기 중 자녀성인기(진학, 진로, 취업, 이성교제 등)와 자녀 독립기(결혼과 독립, 은퇴적응 등), 노년기(건강 및 노화적응, 홀로되기) 가족 대상의 발달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지원이 매우 부족한 실정임
- 현재, 가족센터의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서비스 지원은 임신기의 임신출산 갈등 상담, 영유아기의 아이돌봄지원(아이돌봄-영아종일제 서비스), 초등학령기의 아이돌봄서비스와 다누리콜센터 다문화가족 부모지원의 사업이 제공되고 있으며, 양육이행원을 통한 부모기 한부모대상 양육비이행지원사업이 제공됨

- 가족 외적 위기에 대한 지원 현황

- 가족센터에서 지원되는 가족 외적 위기 대응 서비스는 가족 내부적 요인이 아니라 가족 외부의 사회환경 변화의 충격을 가족이 수용하고 적응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위기에 해당함
- 가족 외부의 경제적 요인(파산, 부채, 불경기), 사회 불안 요인(범죄, 폭행, 사기, 강도 등), 전염병 요인(코로나, 메르스 등), 사회 재난 요인(화재, 폭발, 교통사고, 환경오염, 기후 위기 등), 자연재해 요인(태풍, 지진, 홍수, 산사태 등)으로 부터 파생되는 위기에 대한 서비스 지원이 해당이 됨
- 가족센터에서 가족 외적 위기에 대응하여 지원되는 서비스는 상시적이고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함. 돌발적인 사회적 위기 또는 재난 상황에서의 법적 서비스 지원

수립하고 있으며, 고정 예산이나 시범사업과 같은 방식의 대응체계가 수립되지 못함

- 일반적으로 사회적 재난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인정된 사건들의 피해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사건 발생 후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위해 일부 해당 지역센터에서만 제공됨
 - 피격사건(2010.3), 금양98호 침몰사건(2010.4), 버스폭발사건(2010.8), 선박해적피랍사건(2011.4), 연평도 포격사건(2011.11),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건(2014.4),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건(2019.5) 등의 피해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자녀 돌봄서비스, 긴급위기자원 상담서비스, 사례관리를 통한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지원함

II. 가족위기 유형별 선행 연구

- 연구에서 논의하는 가족위기의 유형은 2022년 본 연구과제의 선행연구인 「가족위기 지원체계 구축 전략 연구」에서 먼저 논의된 바와 같이, 한국에서 가족위기에 대한 개념 규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유로 인해, 다양한 문헌고찰 및 빅데이터 분석, 가족센터의 가족위기 지원현황 및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성됨
 - 개념의 규정 및 가족위기의 양상을 선행 문헌 고찰을 통해 분석함. 다양한 가족관련 이론들-생태체계이론, 가족구조기능이론, 발달이론, 가족자원관리이론, 가족갈등이론, 가족스트레스이론, 가족위기개입모델, 건강가정 및 가족 강점관점 등-을 기초로 하여 가족이론에 포함된 가족위기의 내용을 도출하고, 가족위기 상황에서의 실태 및 가족구성원의 행동 유형을 규명함
 - 또한 그동안 국내에서 지원된 가족위기 지원서비스의 유형과 대상 및 내용 등을 분석함. 주로 가족 외적 돌발적 상황과 생애주기, 가족유형에 따라 경험하게 되는 가족위기에 대한 국내 가족센터에서 지원되는 서비스와 국외 가족위기 지원 사례를 제시함
 - 국내 가족위기에 대한 개념의 정립을 위하여 선행연구에서는 ‘가족’과 ‘위기’ 관련 2018년~2022년 7월까지 5년간의 언론 및 SNS에서의 빅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족위기 관련 연관 네트워크를 분석함.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기법으로 네트워크 분석(Network Analysis)을 시행하여 가족 유형별, 생애주기별 가족위기 관련 연관 키워드를 도출해냄
 - 마지막으로 가족센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수행 중인 가족위기지원 관련 사업의 현황과 개선 방안 및 수요조사의 결과 등을 토대로 가족위기 지원을 위한 정책적 제안으로 유형이 구성됨.
- 즉 선행연구인 「가족위기 지원체계 구축 전략 연구」에서는 최종적으로 가족위기의 유형과 특성에 근거하여 가족 개인적 위기, 가족관계적 위기, 가족 발달적 위기 및 가족외적 위기 등 4개의 가족위기 유형이 구성됨

- 올해 여성가족부의 저출산·고령화사회에 대한 가족정책 대응의 필요성과 함께,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으로 가족서비스지원에 1인 가구 대상 서비스가 포함 되면서, 저출산·고령화의 사회 구조적 변화에 따른 시대적 요구에 의해 (인구) 가족구조적 위기가 추가됨
- 최종적으로 문헌 고찰과 과거 가족위기 서비스지원 사례 분석, ‘가족’과 ‘위기’ 관련 빅 데이터 분석, 가족센터의 가족위기지원 사업 현황 및 수요조사 분석, 가족정책의 시대적 요구에 따른 부응 등에 의해 가족위기 유형은 가족 개인적 위기, 가족관계적 위기, 가족 발달적 위기, 가족 구조적 위기, 가족외적 위기 등의 5개 유형으로 선정됨
- 가족이 경험하는 위기를 가족생활주기 전 단계에 걸쳐 측정하거나 가족구성원 개인과 가족 전체의 내·외적 위기를 종합적으로 측정한 도구를 개발한 연구는 아직 국내외 모두 부재함
- 가족 관계적 위기 측면에 한정된 측정 도구(진미정 외, 2013)이거나 가족위기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가족 기능성 및 건강성 측정척도의 구성을 위한 연구들로 한정되어 있음
- 김유경 외(2016)의 연구에서는 사회변화에 따른 가족위기 유형을 만성적 위기와 응급적 위기로 구분하고, 이에 대한 건강성을 진단하여 대응 전략을 제시함
 - () 만성적 위기(가족경제위기, 돌봄과 부양위기, 가족관계 위기 등)와 응급적 위기(자살과 재난)로 구분
 - (실태조사) 가족위기에 대한 인식 태도 및 실태조사
 - () 전국 17개 시·도 만 20세 이상 ~ 64세 이하 남녀
 - (표본추출) 지역·성별·연령별 인구비례할당추출법
 - (표본) 1,500명
 - (자료수집방법) 구조화된 조사표 사용 전화조사
 - (조사내용) 응답자 일반사항, 가족위기 인식 및 태도, 가족위기 경험 여부, 원인, 기

, 어려움, 도움 요청 대상 및 효과 정도, 가족위기 해결 여부, 위기 전후 변화, 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 등

- (FGI) 하우스푸어집단과 자살 및 재난위기집단 대상 FGI조사 실시
 - (인터뷰 대상) 하우스푸어(관리공사 하우스푸어 지원 프로그램 수혜자), 자살 위기(자살예방센터 실무자), 재난 위기(재난심리지원센터 실무자, 재난 위기 경험자)
 - (인터뷰 내용) 위기 실태, 가족 건강성, 정책 욕구 등
- (건강성 측정 도구) 적응력과 응집성 및 자율성 측정
 - (척도) ① 가정생활이 원만하다 ② 위기에 잘 대처할 수 있다 ③ 가정 구성원이 건강한 시민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 (측정) 0점(매우 건강하지 않음) ~ 10점(매우 건강함)
 - (가족건강성 정도) 총 10점 중에서 0~3점 가족 건강성이 낮은 수준, 4~6점 가족 건강성이 중간인 수준, 7~10점 가족 건강성이 높은 수준으로 분류(여성가족부(2012, 2015)의 가족실태조사 참고)

● 유영주(2003)는 가족기능성(family functioning) 개념을 사용하여 한국형 가족기능도 척도를 개발함

- (가족기능도 척도 조사) 가족기능도 기준척도로 FACESIII와 FAD를 사용하여 한국형 척도로 개발
 - (문항 구성) 의사소통, 정서적 지지(심리적 안정감), 친밀감(유대감), 자율성(성장성), 가족 규칙(행동규범), 경계선, 시간 공유(여가 및 활동 공유) 등 7가지 기본영역과 그 외 가족의 경제력, 역할수행, 갈등, 친척관계 등 90개의 예비 조사용 척도 구성 후 타당성 검사를 통해 최종 77개 문항으로 본 조사용 가족 기능용 척도를 구성함
 - (응답)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질의·응답
 - (조사 대상) 서울, 경기 및 지방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유치원·초·중·고·대학생 자녀를 둔 주부 500명을 대상으로 질문지 조사하여 최종 350명을 대상으로 분석
 - (요인분석 결과) 정서적 지지(8문항), 생활시간 공유(7문항), 가족원 간의 친밀감(6문항), 가족 의사소통(6문항), 가족 규칙(5문항), 가족원의 자율성 지원(4문항) 등 6개 하위요인 36개 문항으로 가족기능도 척도 구성

1. 개인적 위기 측정 관련 연구

- 위기 유형에 관한 연구들은 가족관계나 가족 발달적 위기를 제외한 개인의 신체적, 정서적 위기 상황에 국한된 연구들로 한정됨
- 개인적 위기는 주로 가족구성원 개인이 경험하게 되는 소외나 불안, 우울 등으로 인한 심리·정서적 위기와 중독과 질병, 장애, 자살과 죽음 등 신체적 위기, 그리고 가출, 비행, 폭력(학교), 범죄 피해 등과 실직, 진학이나 취업의 실패 등 생활상의 다양한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각각 측정척도가 따로 개발되어 있음.
- 일부 연구(Holmes & Rahe, 1967; 은헌정 외, 2005)에서 일정 기간(1달, 1주) 이내 개인이 경험한 각각의 생활 사건들의 스트레스가 모여서 개인적 위기 상황에 이른다는 생활사건척도를 개발함

□ 여성가족부(2023)의 개인 위기성 진단 척도

- 가족센터에서는 여성가족부 2023가족사업안내의 개인 위기성 진단 척도(2023)를 활용하여 개인적 위기를 측정함
 - 서식3의 가족위기성 진단 척도 중 개인위기성 진단 척도를 활용함
 - (척도) 총 15개의 생활사건을 지난 1개월 동안 경험하고 느꼈던 상황에 대하여 5점 리커트 척도(1~5점)로 응답한 점수들을 합하여(4개의 역코딩 문항 포함) 총점을 계산함 (15~75점)
 - (증상) 15~34점 개인 위기성 낮음, 35~54점 개인 위기성 보통, 55~75점 위기성 높음. 특히 개인 위기성 척도의 점수가 60점 이상이면 가족위성 진단 척도 점수가 기준 미만이라도 우선지원대상인 위기가족으로 판정함

□ 홈즈와 라헤(Holmes & Rahe, 1967)의 사회재적응 평정 척도

- 라헤(Holmes & Rahe, 1967)는 개인이 경험하는 생활 변화 사건 43개를 선정하여 ‘사회 재적응 평정척도’를 개발하고, 사건의 스트레스의 총합점수로 개인 위기의 심각성을 판정함(이영호, 2018)
 - () 43개의 생활사건 중 지난 6개월 ~12개월 사이에 경험하게 된 사건의 스트레스 점수를 모두 합산하여 총점을 계산함
 - (증상) 증상은 다음과 같이 점수별로 구분함
 - 0~149점 : 스트레스 수준 낮은 편임
 - 150~199점 : 경미한 생활 위기에 처해있음
 - 200~299점 : 견딜 만한 위기에 있음
 - 300점 이상 : 심각한 위기로 신체적 질병이나 정서적 혼란의 위험이 큼

[표 2-6] 홈즈와 라헤의 사회재적응 평정척도

생활사건	점수	생활사건	점수	생활사건	점수
배우자 사망	100	사업의 재적응	39	개인적 습관의 교정	24
이혼	73	재정적인 변화	38	상사와의 갈등	23
별거	65	친한 친구의 사망	37	근무 시간 및 조건 변화	20
감옥살이	63	다른 분야의 직업으로 전환	36	거주지의 변화	20
친척 혹은 가족의 사망	63	배우자와의 말다툼 횟수 변화	35	학교 변화(전학)	19
본인의 부상 또는 질병	53	1000만 원 이상의 저당	31	여가, 종교활동의 변화	19
결혼	50	저당물의 압수	30	사회활동의 변화	18
직장에서의 해고	47	업무상 책임 변화	29	1000만 원 이하 빚	17
별거 후 재결합	45	자녀의 출가	29	잠자는 습관의 변화	16
은퇴	45	시집 식구와의 문제	29	동거가족 수의 변화	15
가족의 건강변화	44	우수한 개인적 성취	28	식습관 변화	15
임신	40	아내의 취업 또는 퇴직	26	휴가	13
성적 장애/문제	39	학교 입학 또는 졸업	26	성탄절	12
새로운 가족이 생김	39	생활 조건의 변화	25	가벼운 법규 위반	11

: 이영호(2018). 정신건강론. 도서출판 공동체. p. 126

□ 여성가족부(2023)의 (위기)사건충격 척도

- 여성가족부(2023) 2023가족안내사업의 가족희망드림사업-척도 8의 (위기)사건충격 척도(IES-R : Impact of Event Scale-Revised)로 제시된 한국판 사건충격척도 수정판을 사용함(은헌정 외 5인, 2005)
 - () 지난 1주일 동안 외상 사건 노출에 따른 주관적인 스트레스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척도로 22개의 문항에 대하여 5점 리커드 척도로 부여된 각 점수(0~4점)를 합하여 총점을 계산함(0~88점). 22점 이상일 경우, 외상 치료 전문가에게 연계함
 - (증상 판정) 증상은 다음과 같이 점수별로 구분함
 - 0 ~24점 : 정상
 - 25점~39점 : 경도~중등도
 - 40점~59점 : 중증
 - 24점~63점 : 심한 우울 상태
 - 60점~88점 : 고도 중증

□ 벡(Beck)의 BDI 우울척도

- 개인적 위기에 해당하는 우울 측정 시 가족센터에서는 벡(Beck)의 BDI 우울척도(사전/사후 간편 검사-가족희망드림지원사업 서식 및 척도 5)를 사용하여 측정함(여성가족부, 2023)
 - (척도) 21개의 문항에 대하여 부여된 각 점수(0~3점)를 합하여 총점을 계산함(0~63점)
 - (증상 판정) 증상은 다음과 같이 점수별로 구분함
 - 0점 ~ 9점 : 우울하지 않은 상태
 - 10점~15점 : 가벼운 우울 상태
 - 16점~23점 : 중한 우울 상태
 - 24점~63점 : 심한 우울 상태

- (2022)의 ‘2022 사망원인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 42개 회원국 중 자살율 순위 1위를 기록함. 우리나라의 연도별 자살율은 2010년 이후로 감소 추세이지만 2020년 인구(연령표준화 값) 10만 명당 24.1명으로 OECD평균 자살률 11.1명의 2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남
 - 자료(2022a)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의 자살자 수는 13,352명으로 하루 36.5명이 자살하고 있고, 이로 인해 자살 유족이 한 해 8만 명에 이르며, 자살 시도자 약 13만 명, 자살 사고가 있는 사람 전 국민의 5.1%로 나타남
 - 자살은 결국 삶의 만족도와 관련되어 있어 한국의 사회 동향 2022(통계청, 2022c)에서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는 세계 59위로, 경제력은 세계 10위이나 OECD국가 중 최하위임
- 김상우(2004)의 연구에 의하면, 개인적 위기에서 죽음에 의한 헤어짐은 가장 견디기 어렵고 힘든 것으로, 남은 사람은 죽은 사람에 대한 죄의식과 슬픔, 죽음에 대한 분노, 마음의 허탈감과 공허감, 인간의 무력감 등으로 찾아오는 깊은 우울증과 함께 약물로 치료하기 힘든 심신증을 비롯한 큰 후유증에 시달리게 된다고 함(윤상철, 2003: 33-40)
 - 가족원의 사망, 죽음과 관련된 문제는 오히려 살아있는 사람에게 발생하고, 임종자가 사망한 이후 오랫동안 유가족들의 삶 속에서 영향을 미침
 - 죽음은 일상생활을 흔드는 위기로 다가오지만 죽음으로 인한 위기는 죽음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 사고로 인한 죽음은 가족들에게 짧은 기간에 강력한 위력을 지님
 - 오히려 사고사는 임종자의 사망 이전에 생기는 다양한 갈등이 죽음의 직·간접적인 영향이 되어 나타나기도 함
 - 질병으로 인한 죽음은 가족들에게 ‘위기의 일상화’를 강요함
 - 그 위기는 언제 끝날지 누구도 알 수 없는 위기이며, 그 위기로 인해 그 가족들은 경제적 곤란과 생활의 피폐함,
 - 간병 문제로 인한 가족구성원 간 갈등 등을 겪게 함
 - 유족들의 충격과 비통함은 죽음이라는 현상 자체보다는 고인과 유족 간의 생전의 관계, 죽음의 종류에 의해 더 많이 좌우됨

- 김창대(2023)는 근거이론을 기반으로 주요 타자의 자살 위기에 대한 경험을 분석함. 주요 타자인 가족과 친구의 사망으로 인하여 타자에 대한 미안함과 안타까움, 실망과 답답함과 함께, 자신에 대해서 책임감과 무기력함, 한계를 인식하고, 곧 나도 사라질 것에 대한 두려움과 죄책감 등의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대상) 주요 타자의 자살 사고, 자살 계획, 자살 시도를 경험한 성인 25명
 - (조사 방법) 개별 심층 면접을 통한 구성주의 근거이론 방법 사용
 - (조사 결과) 12개의 범주 도출. 두려움 관련 범주로 주요 타자의 사라짐, 곧 나의 사라짐, 두려움에 뒤이은 죄책감, 내적 반응 범주 중 자기 초점은 책임감, 무기력함, 익숙해짐, 한계 인식이었고, 타자 초점은 미안함, 안타까움, 실망함, 화가 남, 답답함 등임
- 개인적 위기 중 신체적 위기에 해당하는 중독과 질병, 장애 등과 관련된 척도와 선행연구는 가족학 분야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음. 주로 간호·보건학에서 중독과 질병을, 사회복지학의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장애를 가진 가족들의 가족기능상의 어려움 연구함. 일부 중 만성 질환과 장애가 있는 가족의 가족기능을 측정 도구 개발함으로써 일반가족과 만성질환자 가족의 가족기능 수행상의 차이를 연구함 (이영희, 1988; 이은옥 외, 1999; 이은옥 외, 2002)
 - 만성질환자가족의 경우 자녀의 치료비와 간병비로 인해 친가나 외가 등 외적 관계영역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요청하여 외부로 부터의 재정자원 유입이 많으며, 자녀의 만성질환으로 가족발달단계상 학령전기와 학령기 가족이 많았으나 가족기능 중 제 기능을 못하거나 조정되어야 하는 영역들이 발생하여 성취해야 하는 가족발달과업에서도 차이가 나타나며, 가족기능의 재조직화가 필요함(이인숙 외, 2002)
 - 고령화에 따른 노령 가족구성원이 증가로, 가족 내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이 있을 경우 가족은 오랜 기간의 스트레스 상황에 의해 긴장이 유발되고, 가족의 경제적, 심리적 신체적 자원이 소모되어, 가족기능을 저해할 수 있음을 제시함. 뇌졸중과 당뇨 등의 만성질환자 노인 가족이 그렇지 않은 가족에 비해 가족기능-정서적 기능, 의사소통 기능 정도가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남(이영희, 1988)

2. 관계적 위기 측정 관련 연구

□ 진미정 외(2013)의 가족관계 위기진단척도

- 관계적 위기를 측정하기 위한 연구는 진미정 외(2013)의 “가족관계 위기진단 척도개발 연구”에서 개발된 가족관계 문제 징후 척도와 가족스트레스척도가 가장 포괄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 척도는 이후 가족관계실태조사에서 분석되었음
 - (위기 징후 척도) 가족의 잠재적 위기를 반영하는 징후를 측정하는 척도임.
 - 18 문항에 대해 5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여, 총점 54점 이상(평균 3.0점 이상) 점수를 받은 가족은 현재 걸으로 드러나는 심각한 가족 문제가 없더라도 가족관계상의 문제가 잠재되어 있는 것으로 진단함
 - (가족스트레스 척도) 가족의 발달적·비발달적 생애사건의 경험 여부와 각 사건에 대한 스트레스 지각 수준을 측정하는 척도로, 지난 1년 동안 경험된 생애 사건으로 인해 주관적으로 지각되는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진단 척도임.
 - McCubbin 외(1987)의 가족생애사건 및 변화척도(FILE)를 기초로 하여 문항의 첨삭 및 수정을 통하여 구성함.
 - 발달적 사건(가족 형성(결혼 및 출산) 사건, 가족 돌봄 사건)과 비발달적 사건(가족 관계, 가정경제, 일탈 및 기타 사건) 등 총 45개의 생애 사건 문항으로 구성됨.
 - 척도는 총 45개 생애 사건의 경험 빈도 점수(범위 0~45점)와 스트레스 총합점수(해당 사건의 스트레스 수준 점수를 모두 더한 값: 범위 0~225점), 두 가지 값을 산출하여 활용함.
 - (가족관계위기실태조사)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는 2013년 개발된 가족관계위기진단척도에 근거하여 2014년 이후 ‘가족관계위기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17년 아래와 같은 내용을 끝으로 조사가 중단되었음.
 - (조사 대상) 63개소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101개소의 통합서비스 운영기관 이용자 중 기혼자
 - (표집 과정) 센터별로 15명 할당(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탈북자가족, 장애인가족, 수용자가족 등 취약 가족 7표본 이상 포함, 50% 이상은 상담 및 가족역량강화지원

참여자로 표집)

- (표본) 4,920표본 중 4,733표본 대상 조사(160개 센터 참여)
 - (조사 내용) 위기 진단과 관련된 가족관계 위기징후 척도 및 가족스트레스 척도와 건강가정 지원센터의 주요 성과인 건강가정 성과지표,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구성
- 가족 관계적 위기를 측정하는 척도로는 가족관계척도(IFR), 부모-자녀 관계 척도, 가족기능 평가 척도 등이 있으며, 이 중 가족관계척도(IFR)가 가장 널리 사용됨

3. 가족 구조적 위기 측정 관련 연구

- 구조적 위기는 사회경제적 발달, 도시화와 산업화 등의 현상 등 사회 환경적 변화로 인해 저출생·고령화 사회의 구조적 영향이 가족 내에서 발생함으로써 출산을 저하와 결혼 및 가족 가치관 변화 등 가족기능이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가족들이 경험하게 되는 구조적 위기 상황에 대한 서비스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짐.
- 대부분의 연구가 가족 구조적 위기에 대한 정책적 제안에 한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측정적도 관련 연구는 없으며, 1인 가구 대상 사회적 고립 현황 조사 도구의 개발연구가 유일함
 - 가족 규모의 축소와 핵화로 인한 1인 가구와 1세대 부부가구, 소자녀 2세대 가구
 - 직장과 학업 등의 이유로 따로 생활하는 분거가족의 증가
 - 저출생·고령화로 노부모 부양 및 돌봄 부담 가중
 - 맞벌이 가족의 자녀양육을 위한 일·가정 양립
 - 그리고 가족 해체에 따른 한부모가족 등의 돌봄 수요의 증가를 위기로 보고 이에 대한 대응 서비스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함
 - 최근 우리나라는 저출생·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자녀 출산을 저하와 함께 가족 규모가 줄어들면서 가족돌봄 기능의 공백 메우기 위한 서비스를 지역사회 단위에서 구축함으로써 지역사회돌봄(Community Care)체계를 도입하기 시작하여 이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위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음
- 저출생·고령화와 함께 가족 규모의 극단적인 축소에 따른 핵화 현상으로, 혼자 생활하는 1인 가구 수가 증가하면서(전국 가구 유형의 33.8%, 통계청 2020) 사회적 위험으로 이들의 고독사, 자기돌봄 역량의 부족 및 가족과 사회로부터의 고립과 은둔형 외톨이 등 가족 구조적 위기에 대한 지원 방안에 관심이 증가함.

□ 김성아 외(2022)의 외로움, 사회적 고립감, 우울증 진단 평가 도구

- 1 가구의 가족 구조적 위기는 주로 외로움, 우울증, 소원감, 고립감, 자기 가치감, 위축된 사교성 등의 하위 변인으로 측정됨
- 김성아 외(2022)의 연구에서는 서울시 1인 가구의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실태와 특성을 파악하고, 서울시 1인 가구 실태조사(2021) 결과를 활용하여 1인 가구의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유형별 맞춤형 대응 전략을 제안함
 - (방법) 양적 조사
 - (조사 대상) 서울시 거주 20세 이상 1인 가구 3,000명
 - (조사 내용) 1인 가구의 삶(일자리, 주거, 건강 등), 심리적 문제(외로움, 스트레스, 우울감, 자살 생각), 사회적 고립(사회적 관계망), 기존 관련 사업 인지 여부와 참여 여부, 정책 수요
 - (척도) 개인적 위기를 외로움, 사회적 고립감, 우울증 진단평가 도구 활용
 - (외로움) UCLA의 외로움 척도를 사용하여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됨. 9개의 역코딩 문항을 포함하여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43점 이상은 외로운 것으로 판정함
 - (우울 증상) PHQ-9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총 9개의 문항에 대해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함. 총 27점 중 10점 이상이면, 우울 증상이 있는 것으로 판정함
 - (사회적 고립감) 3가지 상황(낙담·우울로 이야기 상대 필요, 몸이 아파 도움 필요, 갑자기 많은 돈을 필요)이 발생하였을 때 도움 지원자(가족, 친척, 친구, 동료, 이웃 등)의 여부에 대한 가부 응답으로 3가지 상황 모두 지원자가 없을 시, 사회적 고립 상태로 판정함

□ 홍진표(2022)의 한국인의 사회적 고립 선별 측정 도구

- (2022)의 연구에서는 보편화할 수 있는 척도개발을 위해 한국인의 사회적 고립 및 은둔형 외톨이 현황을 조사하고, 은둔형 외톨이 등 사회적 고립 발굴모델과 함께 고립 선별 측정 도구를 개발함
- 3개 지역 1,000가구를 방문하여 무작위 추출된 대상자에서 사회적 고립 정도 평가와 은둔형 외톨이를 선별하고 CIDI를 이용한 주요 정신 질환 역학조사를 실시
- 사회적 고립 대상자 및 은둔형 외톨이 심층 면담 조사

- (방법) 한국인의 사회적 고립 수준과 욕구에 대한 질적 조사 및 은둔형 외톨이 실태에 관한 양적 조사
- (조사 대상) 양적 조사, 질적 조사
- (조사 내용)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사회적 고립 및 은둔형 외톨이 실태 조사 및 대상자 심층 면담을 통한 욕구 유형화를 통해 사회적 고립 발굴 방법 개발 및 선별도구 문항 구성
 - () 사회적 관계망, 사회적 지지, 외로움으로 구성되는 척도를 개발. 전문가 자문과 요인분석을 통해 총 14개의 문항이 추출됨
 - (외로움) UCLA 외로움척도의 한국어판 문항 사용. 얼마나 자주 외롭다고 느끼는가에 대한 LSIS(Loneliness and Social Isolation Scale)의 4개 문항 사용. 점수가 높을수록 외로움이 높음
 - (사회적 지지) LSIS의 4개 문항. 정서적 지지, 평가적 지지, 정보적지지, 물질적 지지 등 4개 항목에 대한 5점 리커트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음
 - (사회적 관계망) 사회적 관계망을 측정하는 Lubben이 1988년 개발한 한국판 척도로 6개 문항 사용. 가족 및 친척관계 3문항과 친구 및 지인 관계 3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5점 리커트 척도로 총점 30점 임. 총점 12점 미만일 때 사회적 고립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정
- 구조적 위기 중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노부모 돌봄 및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에 대한 연구는 주로 노부모-자녀 돌봄 위기 현황 파악과 이에 대한 정책적 방안 제시 연구가 대부분이며, 부양 및 돌봄 부담으로 인한 위기도를 측정하는 연구는 제시된 바 없음

4. 발달적 위기 측정 관련 연구

- 위기 유형 중 가족 발달적 위기에 대한 연구는 주로 가족생활주기 단계별 발달과업을 중심으로 가족구성원들이 이 발달과업을 수행하는 데 실패하여 가족 문제가 발생하고, 가족 문제가 장기적으로 해결되지 않거나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족위기로 발전된다고 설명함
- 가족위기를 초래하는 발달과업의 전제조건인 가족생활주기의 단계를 구분하는데 학자마다 차이가 있어, 발달과업과 이에 수반되는 발달단계별 가족위기의 내용도 다소 차이가 있음(조흥식 외, 2017)

[표 2-7] 듀발(Duvall)의 핵가족 중심 가족생활주기 8단계

단계	주기의 특성	발달과업
1. 신혼기	자녀 없이 결혼한 부부만의 단계	-상호 만족적 결혼 -임신에의 적응과 부모 됨에 대한 희망
2. 자녀 출산 및 양육기	첫 자녀가 0~30개월	-자녀 출산 및 양육에 적응하고 발달을 고무 -부모-자녀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가족 꾸미기
3. 자녀 아동기	첫 자녀가 2세 반~6세	-아동의 욕구와 관심을 성장지향적으로 적응시킴 -부모 역할로 인한 에너지 소모와 부부만의 시간이 없어지는 것에 대처하기
4. 자녀 학동기	첫 자녀가 6~13세	-건설적인 방법으로 학령기 아동의 가족 집단에 대한 적응 -아동의 교육적 성취 고무
5. 자녀 청소년기	첫 자녀가 13~20세	-10대 자녀의 성숙을 위해 책임과 자유의 균형 이루어 스스로 해방 -나이 들어가는 부모의 관심과 경력 설정
6. 자녀 독립기	자녀가 집을 떠나는 시기	-자녀의 직장, 군대, 대학, 결혼 등 독립에 적절한 격식과 도움을 줌 -지지적 가정 유지하기
7. 중년기	중년 부부만 남는 단계, 은퇴하기까지	-부부관계의 재정립 -젊은 자녀 세대와의 유대를 유지하기
8. 노년기	노년 부부의 단계. 은퇴에서 부부의 죽음까지	-은퇴에 적응하기 -유족 및 홀로 되기에 대한 대처 -가정을 마감하고 노화에 적응하기

: Duvall, E. M.(1977), Marriage and Family Development Lippincott, p.144

- 서구의 2세대 핵가족 중심 가족생활주기의 발달단계는 Duvall(1985)의 8단계와 발달과업이 가장 대표적임
- Duvall(1985)은 주로 소가족에서 첫 자녀의 출생, 성장, 독립과 이후 부부의 삶을 중심으로 발달단계를 구분하였고, 발달과업이 역시 각 단계에서 해결되지 못할 때 가족 내 어려움이 발생하며 과업과 관련된 문제가 지속되면 가족위기로 발전될 수 있음을 강조함
- 이에 반해 카터와 맥골드릭(1980)의 가족생활주기 단계와 발달과업을 3세대 이상의 대가족 체계를 중심으로 가족생활주기를 6단계로 개념화하고, 가족관계에 초점을 두고 다음 단계로의 이행에 필요한 가족의 정서적 과정의 변화를 통해 발달과업으로 제시함

[표 2-8] 카터와 맥골드릭의 가족생활주기 6단계와 발달과업

단계 명	정서적 과정	발달과업
1. 결혼 전기	자녀 없이 결혼한 부부만의 단계	-원가족 관련된 자아 분화 -친밀한 동년배 관계 확대 -직업에서의 자아 설정
2. 신혼기	새로운 체계에 관여하고 헌신	-결혼 체계의 형성 -배우자의 확대가족 및 친구와의 관계 정립
3. 자녀 아동기	새 구성원을 가족 체계로 수용하기	-자녀를 위한 공간 마련을 위해 결혼 체계에 적응 -부모 역할 수행하기 -부모-조부모 역할 포함한 확대 가족과의 관계 정립
4. 자녀 학동기	가족 경계의 융통성 증가시키기	-청소년이 가족 체계 안팎을 넘나들도록 부모-자녀 관계 변화시키기 -중년기 부부관계 초점 맞추기 -노후 준비 계획
5. 자녀 청소년기	가족 체계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것 수용하기	-2인 결혼 체계에 대한 재협상(부부관계 재정립) -부모-자녀 관계를 성인 관계로 발전시키기 -시부모와 손자녀와의 관계 설정 -부모(조부모)의 장애와 죽음에 대한 대처
6. 자녀 독립기	세대 간 역할 변화 수용하기	-노화에 적응하기(중년세대가 중심 역할, 노년 세대의 경험과 지혜 활용) -새로운 친밀한 관계 및 사회적 역할 탐구 -상실에 대한 대처 및 죽음 준비(생의 검토와 통합)

: Holman, A. M.(1983), Family Assessment, Beverly Hills/London/New Delhi: Sage Publication, p.49 ; 조흥식 외 (2017), 가족복지학-제5판, pp. 134-135 재인용.

- 가족생활주기 단계의 구분은 이외에도 [표 2-9]와 같이 다양하며, 서구 학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가족생활주기 단계를 우리나라의 가족 실정에 적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음
 - Duvall 가족생활주기 8단계는 초혼 연령, 출산 자녀 수, 출산 시기, 자녀 교육 시기, 수명의 차이로 인해 우리나라에 적용하기 부적절한 것으로 밝혀짐(옥선화, 1990)

[표 2-9] 학자별 가족생활주기 단계

학자	기준	단계
Solokin	가족구성원 수의 변화	1) 신혼부부단계, 2) 한명 이상 자녀 출산 양육하는 단계, 3) 자녀 독립하여 부모 떠나는 단계, 4) 노인부부단계
Kirkparrick	교육제도	1) 학령전기가족, 2) 학령기 가족 3) 고등교육기 가족, 4) 성인가족
Bigelow	수입과 지출의 재정적 유형변화 자녀들의 교육상황	1) 가족형성기, 2) 자녀출산 및 미취학아동기 3) 초등교육기, 4) 고등교육기 5) 대학교육기, 6) 회복기 7) 은퇴기
Hill, Duvall	첫 자녀의 발달단계와 은퇴기	1) 신혼부부가족, 2)자녀출산 및 영아기 가족 3) 유아기 가족, 4) 아동기 가족 5) 청년기 가족, 6) 독립기 가족 7) 중년기가족, 8) 노년기 가족
Rogers	Duvall의 3단계를 24단계로 세분화, 첫 자녀와 마지막 자녀의 발달단계	1) 학력 전기 ~ 출가기 24단계
Erickson	가족생활주기	1) 구애기, 2) 결혼 초기 3) 자녀양육기 4) 중년기 5) 자녀독립기 6) 노년기
Carter, MacGoldrick	미국의 일반적인 중산층 가족들의 생활주기	1) 독립된 젊은 성인단계, 2) 신혼부부단계 3) 자녀아동기, 4) 자녀 학동기 5) 자녀 청소년기, 6) 자녀 독립기

: 김유경 외(2009). 한국가족의 위기변화와 사회적 대응방안 연구-경제위기 이후 가족생애주기별 위기유형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p.30 재구성

- 카터와 맥골드릭의 가족생활주기 단계와 발달과업은 자녀 수가 많고 가족 유대와 전통이 강한 국가들과 우리나라의 과거 가족제도에서는 적절하였으나 최근 핵가족화와 가족생활주기 상의 변화가 심화되고 세계 최저 출산율로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맞고

우리나라에 적용하기 위해서 일부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유영주, 1984; 전효정, 2007; 최규련, 2008)

- (1984)는 외국 학자들이 제시한 가족생활주기 단계를 수정하여 한국형 가족생활주기 모형을 6단계로 제시함
 - 이는 한국인의 평균수명을 남성 65세, 여성 69세로 추정하여 작성한 것으로 ① 형성기 ② 자녀출산 및 양육기, ③ 자녀 교육기, ④ 자녀 성년기, ⑤ 자녀결혼기, ⑥ 노년기로 분류함.
- 최규련(2008)은 유영주(1984)와 전효정(2007)의 연구 결과를 절충하여 가족생활주기 단계를 7단계로 재구성하고, 가족 발달단계별 발달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함

[표 2-10] 최규련(2008)의 가족발달 단계와 발달과제

발달단계	시기	발달과제
신혼기 가족	결혼~자녀출산 전	1) 역할-책임 관계의 기준 설정 2) 만족스러운 소득과 지출 체계 수립 3) 상호 만족스러운 애정 표현과 성생활 체계 수립 4) 효율적인 대화 체계 수립 5) 친인척과의 원만한 관계 수립 6) 임신과 부모 됨에 적응 및 준비하기
유아기 자녀 가족	자녀출산~첫자녀6세	1) 영유아 자녀를 효율적으로 양육하기 2) 영유아 자녀의 부모 역할 적응 3) 시간, 에너지, 공간, 가사의 재조정 4) 만족스러운 부부관계 유지 노력
학령기 자녀 가족	첫 자녀 7세~12세	1) 자녀의 잠재력 개발에 대한 교육적 배려 2) 자녀의 학업성취 지원 3) 아동이 정서 안정과 소속감을 갖도록 환경조성 4) 만족스러운 부부관계 유지 노력
청소년기 자녀 가족	첫 자녀 13세~19세	1) 청소년 자녀의 자아 정체감 형성, 진로 선택 및 준비, 사회적 역할 획득, 학업성취, 정서적 독립지원 2) 자녀와의 생활에 적응하기 3) 재정 계획 및 실천 4) 만족스러운 부부관계 유지(중년기 준비)
성인기 자녀 가족	첫 자녀 20세 ~결혼 전	1) 자녀와의 인격적 관계 정립 2) 자녀의 진로, 취업 지원 3) 재정 계획 및 실천 4) 중·노년기 준비
자녀독립기 가족	첫 자녀결혼 ~막내 자녀 결혼	1) 자녀의 결혼과 독립지원 2) 부부관계 재정립 3) 건강 대책 세우기/중년기 위기감 극복하기 4) 조부모 역할수행/노년기 준비
노년기 가족	막내 자녀 결혼 후 ~배우자사망	1) 독립된 젊은 성인단계, 2) 신혼부부단계 3) 자녀아동기, 4) 자녀 학동기 5) 자녀청소년기, 6) 자녀 독립기

: 최규련(2008). 가족상담 및 치료

- 외(2020)는 가족센터의 이용자를 위한 건강가정사업을 위하여 가족생활 주기 단계별 특징과 발달과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6단계로 제시함
- 본 연구에서는 가족센터를 이용하는 대상자들이 주로 결혼과 함께 자녀 출산 후 양육기에 있는 부모-자녀 가족이 그동안 주 대상자가 되어 온 것을 고려하여 가족생활주기 단계를 총 6단계로 분류한 도미향 외(2020)의 연구를 기준으로 하여 단계별 주요 발달과제를 2개씩 제시하여 가족위기 수준을 측정함

[표 2-11] 가족생활주기 단계별 특징과 과업

가족생활주기		발달과업
형성기	형성기 (결혼~첫 자녀 출산 전)	-상호만족적인 결혼생활 정립 -부부체계 형성(효율적 대화 체계, 적절한 소득·지출 체계 수립) -가족계획 설계 및 출산 준비 -친인척과의 원만한 관계 형성
확대기	자녀 출산 및 양육기 (첫 자녀 출산 ~ 첫 자녀 입학 전)	-자녀 출산 및 양육에 적응(시간, 에너지, 공간, 가사의 재조정) -자녀-부모 건강한 관계 형성, 부모 역할에 적응 -초등학교 입학 준비 -자녀 중심의 부부 역할 조정
	자녀 교육기 (첫 자녀 입학 ~ 첫 자녀 고교졸업 전)	-자녀의 교육적 성취 격려하기 -자녀의 자아정체감과 사회성 발달에 관심(진로 선택, 사회적 역할, 자유-책임감 간 균형감 형성, 정서적 안정과 소속감 조성) -자녀의 원만한 지역사회 적응에 협조 -재정 계획 및 실천 -만족스러운 부부관계 유지, 중년기 준비
	자녀 성인기 (첫 자녀 고교졸업 ~첫 자녀 결혼 전)	-자녀의 성인으로 독립심 준비(진로 및 취업 지원)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격 갖추기 -예비 결혼자로서의 전반적인 교육 및 준비 -부부관계 재정비
축소기	자녀 결혼기 (첫 자녀 결혼 ~ 막내 자녀 결혼)	-자녀의 결혼과 독립지원 -원가족 및 형제 가족과의 관계 형성 -새로운 가족, 삶에 대한 지지, 책임감 형성 -건강 대책 수립, 중년기 위기감 극복하기 -조부모 역할수행, 노년기 준비
	노년기 (막내 자녀 결혼 후 배우자 사망)	-은퇴 및 노화에 적응 -부부관계에 재 집중(유지 및 증진) -성인 자녀, 인척, 가족, 친지와와의 유대감 유지 -배우자 죽음 및 홀로되기예의 수용

: 도미향 외 5인(2020), 건강가정론. 신정출판사 .p63 재인용 및 일부 수정

- 이러한 발달론적 접근은 모든 가족이 가족생활주기의 전 단계를 거치고, 이들 단계에 대한 적응 과정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며, 스트레스가 심할 경우 가족 문제의 근원이 되어 장기화 되면 가족위기가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함

[표 2-12] 가족생활주기 단계별 가족위기 관련 가족발달과업

가족 생활주기	가족발달과업	선정 발달과업 영역	발달과업 내용
신혼기	자녀나 본인의 혼인 및 적응 문제	부부체계 형성 및 신혼기 적응	결혼 및 적응에 어려움이 있다.
	임신(불임) 관련 문제	가족계획 설계	임신, 난임, 유산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다.
자녀출산 및 양육기	출산, 입양 관련 문제	자녀 출산	출산, 입양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다.
	자녀 양육 및 돌봄(영유아, 초등, 청소년) 문제	자녀 양육-부모 역할에 적응	자녀 양육 및 돌봄에 어려움이 있다.
자녀 교육기	자녀의 입학과 졸업, 학교생활 적응	자녀의 교육적 성취 격려	자녀의 진학과 학업에 어려움이 있다.
	부부-부모 역할 적응 관련	만족스러운 부부관계-부모 역할수행	부부-부모 역할 적응에 어려움이 있다.
자녀 성인기	자녀의 진로(대학, 취업, 군입대) 및 이성 교제 문제	자녀의 사회적 역할	진로 및 취업, 이성 교제로 인한 어려움이 있다.
	부부관계 재적응 문제	부부관계 재정립	부부관계 재적응에 어려움이 있다. (재혼, 분거, 자녀 독립 후 빈둥지기 등)
자녀 독립기	자녀의 결혼과 독립, 새로운 가족 관계 적응	자녀의 결혼/독립지원	자녀의 결혼과 독립에 어려움이 있다.
	은퇴로 인한 생활 적응 (사회적/경제적 축소)	은퇴에 적응	은퇴 후 생활 적응에 어려움이 있다.
노년기	건강 및 노화에 적응, 자녀-친지와 유대 유지	노화에 적응(건강관리)	신체적 쇠퇴 등 노화로 어려움이 있다.
	배우자의 사망, 홀로되기의 수용	배우자 죽음 및 홀로되기의 수용	배우자의 사망/홀로 되기에 어려움이 있다.

: 도미향 외 5인(2020). 건강가정론에서 제시된 발달과업 중 가족위기 관련 유사 특성별로 연구자가 재구성함

- 가족생활주기 단계별 가족 발달과업으로 인한 가족위기의 경험을 전체 발달단계에 걸쳐 규명한 연구는 국내외 모두 아직 없으며, 연구자의 관심에 따라 각 주요 단계별 발달과업 수행상의 문제로 인한 가족 또는 부부 위기 상태의 경험에 대한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져 옴
- 또한 가족발달주기 전체를 다루기보다 일반적으로 위기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

특정 발달단계(사춘기, 중년기, 은퇴기 등)에서의 스트레스를 측정하여 심리·정서적 안녕감(건강성)과 위기 관계를 설명하는 연구가 주로 이루어짐. 특히 청소년기 위기(본 연구의 발달단계 상 자녀 교육기), 중년기 위기(자녀 성인기), 노년기 위기 등 특정 단계에서의 심리·정서적 위기를 측정 분석한 연구들이 많음

- 단계에 있어서 신혼기의 발달과업에 관한 연구는 주로 발달과업 자체(신혼 적응과 임신 출산 갈등)에 관한 연구로 한정되어 있으며, 발달과업의 가족위기와의 관련성을 제시한 연구는 혼전임신으로 인한 이혼(위기)과정에 관한 연구만 있음
 - 발달과업과 관련된 연구들은 신혼기 적응에 있어서 결혼준비와 결혼 적응 경험에 관한 연구(김지미, 2014)와 신혼부부의 갈등 극복 및 결혼만족을 위한 프로그램 등 종교적 지원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연구(김점수, 2004; 마은주, 2010)로 국한됨
 - 또한 임신부 우울(김혜경, 2010)과 난임/불임 관련 여성의 정신적 고통(박춘선, 2013)과 슬픔(이윤정, 2008) 및 임신출산 위기 갈등과 선택(김지혜 외, 2021) 등 발달과업 자체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가족위기와의 관련성은 혼전 임신으로 인한 부부의 이혼 위기 과정에 대한 연구(김수지·최지원, 2017)로 한정됨
- 자녀 출산 및 양육기의 가족 발달과업에 관한 연구는 입양과 출산 관련 발달과업 자체에 대한 경험과 어려움에 대한 연구는 많으나, 이로 인한 가족위기와의 관련 척도 개발 연구는 없음. 주로 자녀 양육을 위한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과 취약계층 대상 임신 출산 및 양육 관련 위기 지원 방안 연구로 한정됨.
 - 출산·입양과 관련 발달과업과 위기에 대한 연구는 공개입양 관련 어려움(김의남, 2005; 강은미, 2021) 및 출산 양육 관련 취약계층 여성(김희주, 장연진, 2020)과 미혼모(성정현 외, 2015; 조한나, 2016), 청소년미혼모(김지연, 2013) 대상 임신·출산 관련 어려움과 위기 지원 방안에 초점이 맞추어짐
 - 자녀 양육 및 돌봄 관련 발달과업과 위기에 대한 연구는 주로 장애자녀를 둔 가족(한상일, 2004; 김정심, 2015; 성시현, 2023) 및 미혼모가족(이영호·박지윤, 2021), 한부모가족(최하영·김민영, 2020; 이만수·박정윤, 2022;)과 다문화가족(현은애·나종혜, 2009; 양시내 외, 2013; 오혜정, 2015) 등 취약·위기가족의 어려움(위기 상황)에 대한 연구가 많으며, 맞벌이가족(여성정책연구원, 2010, 2011; 우석대학교, 2014)과 양육 미혼모(박영혜, 2016; 정덕진, 2019)에 대한 위기 지원 방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짐.
 - 일반가정의 경우에는 자녀 양육과 돌봄 관련하여 영유아기, 학령기, 청소년기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및 돌봄과 관련하여 부모가 인지하는 위기감에 대한 연구들이

, 매우 세부적인 연령별 상황을 다루고 있음. 반면, 이들 자녀들의 연령별 세부적인 양육과 돌봄의 어려움이 부모-자녀 관계와 나아가 전체 가족위기로 파급되어 지는 과정을 측정하는 연구는 없음

- 교육기(자녀 초중고등학교 시기, 사춘기)의 가족 발달적 위기에 대한 연구는 학령기 자녀들의 입학과 졸업 등 학교/학업 생활에 대한 적응과 자녀 양육과 교육 과정에서 부모-부부로서의 역할 적응과 관련된 세부 주제의 연구는 많으나 자녀 교육으로 인한 전반적인 가족 발달적 위기를 측정한 척도 관련 연구는 없으며 청소년기 위기에 대한 척도 연구가 유일함. 부모-자녀 관계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상담 지원 프로그램이 많음. 학교폭력과 가정폭력의 피해 가족은 가족역량강화사업의 긴급위기 지원 대상으로 가족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 청소년기(자녀교육기) 위기에 대하여 이옥실(2009)의 연구에서는 가족건강성 척도와 위기 평정척도(위기 스크리닝 척도)를 통해 청소년의 위기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특성을 밝히고자 함
- (일탈행동 유형) 위기 청소년 일탈행동의 유형을 만연된 무기력과 좌절감 및 가치관 혼란, 가출·탈선·반사회적 행동, 학교폭력과 집단 따돌림 현상, 성 문제, 약물중독 등으로 구분
- (조사) 청소년의 위기 정도와 가족건강성 관계 조사
- (대상) 경기도 남부지역 소재의 일반 중학교의 일반 청소년 500명
- (가족건강성 척도) 가족원 간의 유대(10문항), 가족원 간의 의사소통(9문항), 가족의 문제 해결 수행 능력(6문항), 가족원 간의 가치체계 공유(9문항) 등 4개 요인으로 구성(어은주·유영주(1995)된 '가족의 건강성 척도' 사용)
- (위기 척도) 위기 스크리닝 척도(관찰과 면담)와 위기 평정척도(85개 문항)를 사용함

[표 2-13] 청소년 위기 요인에 영향 미치는 가족 특성

영역	구분	하위요인
개인	정서적 심리적 문제	우울 (6개 문항) 불안 (5개 문항) 공격성/충동성 (7개 문항) 부정적 자존감 (3개 문항)
	신체적 문제	신체적 자아 (5개 문항)
	체험 문제	흡연, 음주 경험 (4개 문항)
	스트레스 대처 문제	회피 중심 (6개 문항)
가정		학대 부모 (2개 문항) 부모-자녀 관계 (5개 문항) 양육 태도 (4개 문항) 반사회적 가족구성원 (5개 문항) 가정 결손 (5개 문항)
학교		학업 성적 (3개 문항) 학교에 대한 흥미 (4개 문항) 교사의 무관심 (4개 문항) 방과 후 시간 낭비 (4개 문항)
도래		도래의 비행 여부 (8개 문항)
지역 사회		주변 환경 (5개 문항)

: 이옥실(2009). 청소년의 가족위기요인에 영향 미치는 가족특성에 관한 연구

- 성인기의 발달적 위기에 대한 연구는 자녀의 진로(대학 진학, 취업, 군입대) 및 이성 교제 문제와 성인 남성과 여성, 즉 중년 부부의 관계 재적응과 관련된 위기 실태와 서비스 지원 방안에 대한 연구가 많은 편임. 이중 자녀 관련 발달적 위기인 자녀의 진로 및 이성 교제로 인한 가족위기 발생 관련 연구는 거의 없으며, 생활사건의 스트레스로 인한 중년 부모(남성, 여성)의 위기 측정 요인을 분석하는 연구가 많음
 - (2016)의 연구에서는 중년기 생활사건 스트레스가 위기감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함
 - (정의) 생활사건 스트레스를 증대한 생활사건(본인이나 가족, 가까운 사람들의 질병이나 죽음, 이별, 직장 상실 등 심리적인 충격과 생활상의 변화를 초래하는 생활사건)과 일상적 생활사건(외로움이나, 가족 간 불화, 업무 장애나 성적 하락 등 일상

흔히 겪을 수 있는 생활사건)으로 구분함. 또한 중년기 위기감은 개인이 중년기에 이르러 삶의 의미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삶의 공허함, 절망감, 침체감, 무기력감과 같은 부정적 감정을 겪으면서 삶의 재조정에 임하게 되는 정서적 상태로 정의

- (조사) 지난 3개월 동안 중년기 위기를 가져오는 일상생활에서 경험한 생활사건 스트레스 사건이 얼마나 힘들었는지의 정도를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함
 - (대상) 서울과 경기도,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40~60대 남녀2,000명
 - (생활사건 스트레스) 역할문제(4문항), 경제문제(5문항), 가족관계문제(6문항), 건강문제(5문항) 등 4개의 하위문제영역으로 분류하여, 총 20문항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
 - (중년기 위기감) 선행연구(김애순(1993), 이남주(2005))에 근거하여 중년기 위기감 척도 재구성함. 정서적 위기감(12문항), 결혼불만족도(8문항), 활력의 상실감(6문항), 자녀관계 불만족도(4문항), 생의 불만족도(4문항) 등 5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
- 발달적 위기와 관련된 연구는 주로 자녀의 독립과 새로운 가족 관계의 적응 실태와 은퇴로 인한 사회적 관계망 축소와 일상의 변화에 대한 위기 연구는 많으나 가족위기 측정 도구를 개발한 연구는 없음
- 노년기의 발달적 위기와 관련된 연구는 노화에의 적응 및 배우자 사망과 홀로됨으로 인한 적응위기 관련 논문들이 해당이 됨
- 김희영(2017)의 연구에서는 노년기 삶의 스트레스와 안녕감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성격 요인과 대처전략의 역할을 통합한 모형을 제시함
 - (조사)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노년기 삶의 스트레스, 안녕감, 대처전략, 성격요인 등에 대한 조사 진행
 - (노년기 스트레스 척도) 신체건강 스트레스(20문항), 심리적 스트레스(PWI-SF)(18문항), 사회적 스트레스(고독감)(10문항)
 - (스트레스 대처전략) 사전대처(proactive coping)(14문항), 선택·최적화·보상(SOC)(48문항), 가족지지(11문항)
 - 그 외 노년기 위기에 대한 연구들로 주로 종교적 측면에서의 노년기 위기 유형에 따른 극복하기 위한 상담과 치료프로그램의 적용(신동성, 2001; 조현옥, 2006)과 죽음 준비(윤득형, 2020) 등이 있으나, 노년기 위기 측정척도에 관한 연구는 부족함

5. 가족 외적 위기 측정 관련 연구

- 위기 유형 중 가족 외적 위기는 경제적 어려움, 전염병(코로나-19), 사회적 재난과 자연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돌발적 사건들을 경험함으로써 가족들이 느끼게 되는 위기들이 해당이 됨
 - 위기는 우리나라의 1997년 IMF나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등 국가적 차원의 경제위기 발생에 따른 가계 경제적 위기로 부도나 사기 등에 의한 개인파산 등이 포함됨
 - 전염병 역시 메르스나 코로나-19 등 국가차원의 방역 문제에 따른 위기이며 그 외의 개인 건강상의 질병은 개인적 위기에 포함됨.
 - 국가의 사회적 재난 기준에 따라 선포된 사회 재난(대형 화재와 교통사고 등)과 자연재해(태풍, 지진, 폭한, 폭설, 폭우 등)가 해당됨
- 이안나·박완주(2022)의 연구에서는 보건소 간호직 공무원들의 코로나19 스트레스, 충동성, 가족건강성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자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함
 - (코로나19 스트레스) Khalid 등(2016)의 메르스 바이러스 설문지(MERS-CoV questionnaire) 도구 중 스트레스 유발 요인(factor causing stress) 영역을 Park(2020)이 재구성한 도구를 사용함. 총 15문항으로 감염의 위험성(6문항: 나와 가족의 감염, 코로나19 종식의 불확실함 등), 업무량(4문항: 코로나19와 관련한 업무, 보상 등), 개인 보호구(3문항: 착·탈의 불편함, 수량부족 등), 코로나19 지침(2문항: 잦은 코로나19 지침변경 등)의 4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코로나19 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함.
 - (가족건강성) 어은주·유영주(1995)의 ‘한국형 가족건강성 척도’를 사용하여 가족원 간의 유대(10문항: 가족원 간 친밀감, 화목과 관심 등), 가족원 간의 의사소통(9문항: 표현의 자유, 의사소통의 개방성 등), 가족원의 문제 해결 수행능력(6문항: 문제해결을 위한 협력과 책임 분배 등), 가족의 가치체계 공유(9문항: 공통 관심사의 유무 등)의

- 4 하위영역 총 34문항으로 구성됨.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건강성이 높음을 의미함.
- (자살 생각 척도) Reynolds(1988)가 개발한 자살생각 척도(Suicidal Ideation Questionnaire)를 수정한 척도 사용함. 최근 1개월 간 주관적인 심리를 토대로 자살 생각을 묻는 총 15개 문항으로 죽고 싶은 이유(4문항), 죽음에 대한 관심(5문항), 죽고 싶은 생각(6문항)의 3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자살 생각 뿐 아니라 자살 의도와 자살 계획에 대한 문항이 포함됨.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살 생각이 높음을 의미함

Ⅲ. 가족위기 대응 자원과 지원 선행 연구

1. 가족위기 대응 자원 관련 연구

-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상황 속에서 살아간다. 이때 자신의 생활과업을 원만히 수행하고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요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개인적·사회적인 지원체계(support system)가 필요하며, 이와 같은 지원체계는 인간이 삶을 영위해가는 동안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자원(resources)임(엄윤서, 2009)
- 위기를 경험하는 가족은 위기 및 스트레스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며, 이 때 가족 문제와 갈등 상황이 위기로 심화 되지 않고 해결되어 위기에서 벗어나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이 자원임
 - (Resources)은 개인이나 가족이 살아가면서 삶을 안정적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활용하는 자연계의 일부이며(이준우·임원선, 2011), 가족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자원을 개발하고 활성화시키는 것은 위기가족을 돕기 위해 매우 중요함
 - 가족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생태체계 내의 구성요소로서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자원을 소비하며, 이러한 자원에는 인간이 생활을 유지하고 성장과 발달을 지속하려는데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는 사람이나 사회제도 즉, 사회와 자연환경이 인간에게 기여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해당됨
- 가족이 활용하는 자원(Family Resources)은 개인과 가족의 목표를 성취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고통을 덜고, 생활상의 과업을 달성하고, 또는 자신의 포부와 가치를 실현을 시키기 위해 활용되는 것으로써, 돈, 음식, 주거 등과 같은 유형 자원과 지식, 용기, 희망, 사랑, 지위 등과 같은 무형 자원으로 구분됨(Minahan & Pincus, 1977 : 347; 조만우, 2005).
 - 즉 가족 자원은 가족의 가치 실현과 욕구 충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원으로, 다른 자원과 마찬가지로 제한된 자원이며 관리의 대상으로서의 특성이 강조 됨(서지원, 2006)

[표 2-14] 자원의 속성과 지역사회복지 자원의 유형

구분	자원의 속성	세부 공급 주체(예시)
공공 자원	현금자원, 현물자원, 인적 자원	중앙정부, 지자체, 보건소, 자원봉사센터
민간 비영리자원	현물자원, 인적 자원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생활시설, 자활기관, 지역아동센터, 가족센터, 교육기관
민간 영리자원	현물자원, 자원(현금지원)	민간 보육시설, 사설 학원, 상담소, 기업
비공식 자원	현금자원, 현물자원, 인적 자원	및 여성단체, 종교단체, 개인적 관계망

: 박태영(2003). 지역사회복지론, 현학사 ; 신윤정 외(2007). p.60재인용

- 극복을 위한 대응 자원은 지역사회 내에서 자원의 본질, 원조 및 유용성에 따라 다음의 다양한 관점으로 분류됨(조만우, 2005)

개인이나 집단의 내적 자원과 외적 자원

② 공식적 자원과 비공식적 자원, 사회적 자원

③ 실재적 자원과 잠재적 자원

④ 목적 달성을 위해 어느 정도 통제 가능한 자원과 통제 불가능한 자원

- 개인의 내적 자원에는 지식, 정보, 기술, 신뢰성, 건강 등이 있으며, 외적 자원에는 재산, 친구, 직장 등이 해당됨
- 비공식적 자원에는 가족, 친척, 친구와 이웃, 동료, 자조집단과 자원봉사자 등이 포함되며, 공식적 자원에는 구청, 주민센터, 병원과 보건소,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 등과 사회복지 생활 및 이용시설과 복지기관, 적십자사 등의 공공법인과 민간출자의 유료 이용시설과 사회적 기업, 공동 모금회 등의 민간기관, YMCA, YWCA, 구세군과 족색가게와 아름다운 재단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NGO사회단체, 각종 사회복지 협의회와 협회 등의 공식 협의체, 노인회, 부인회, 공제회, 노동조합 등의 다양한 회원조직이 포함됨(이준우·최희철, 2016)
- 실재적 자원은 클라이언트의 니드 충족과 기능향상을 위해서 현재 활용하고 있는

, 잠재적 자원은 현재는 활용하고 있지 않지만 장래에 활용할 가치가 있는 자원임

● 가족이 활용하는 위기 대응자원은 체계론적 관점에서 서비스 공급주체를 중심으로 비공식적 자원체계, 공식적 자원체계, 자원체계 등으로 분류됨 (Minahan & Pincus, 1977 : 347; 김범수·신원우, 2005).

- 비공식적 자원체계는 정서적 지지, 애정, 충고, 정보제공, 금전대여, 보육, 서비스 안내, 행정 업무 대행 등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가족, 친척, 이웃, 동료, 자원봉사자 등이 해당됨
- 공식적 자원체계는 회원들의 이익을 위해 조직된 공식 협의회나 회원조직으로서 회원들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다른 사회체계와 교섭하도록 돕는 조직으로 노동조합, 사회복지사협회, 의사, 소비자보호협회 등이 포함됨
- 사회적 자원체계는 국민이나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국가기관이나 민간기관으로서 병원, 학교, 경찰서, 법원, 공공도서관, 시청, 동사무소, 회사, 사회복지기관 등이 포함됨
- 그리고 공식적 자원과 비공식적 자원으로 나누어 공식적 자원을 다시 공적자원(동사무소, 정신보건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사적 자원(사회복지관, 교회, 기업재단 등)으로, 비공식 자원을 자연적 도움제공자(가족, 친척, 이웃, 동호회 등)와 자원봉사자로 구분함(최옥채, 2003,p.267)

[표 2-15] 공식적 공급체계와 비공식적 공급체계

구 분	공식적 공급체계		비공식적 공급체계	
	공공형 공급조직	인가형 공급조직	시장형 공급조직	참여형(자발적) 공급조직
해당 주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사회복지법인 등	기업	개인 및 임의단체

: 신윤정 외(2007).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 대응-출산양육 관련 지역사회 자원 활용 방안 연구 p.58

[표 2-16] 공급 주체에 따른 지역사회복지 자원의 유형

구분	비공식적 자원	민간 영리자원	민간 비영리 자원	공공자원
제공 주체	가족 친지 이웃	영리목적의 개인, 단체 기업	영리추구목적이 배제된 자발적 단체나 개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재원	자발적 생산자원	자발적 생산자원	공식자원 자발적 생산자원	공식자원
속성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인적 자원 물적 자원
공식성	비공식	비공식	공식+비공식	공식

: 박태영(2003). 지역사회복지론, 현학사 ; 신윤정 외(2007). p.60재인용

- 대응자원의 소유 및 활용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가족분야에서 매우 부족한 상황이며, 대부분 출산·양육 및 아동 돌봄 지원과 관련된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에 관한 연구(신윤정 외, 2007; 서정아·조흥식, 2010; 서정아 외, 2017; 이희은, 2016)와 취약가족인 한부모가족(박정운·원아름, 2014)이나 다문화가족(차태규, 2013)에 대한 지역 자원 활용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짐
- 출산·양육과 관련된 가족위기 대응 자원의 활용과 관련하여, 현행 영유아보육지원 체계에서 보육시설의 양적 증가는 이루어졌으나 질적인 측면에서 부모의 취업 및 근무 형태의 변화에 부응하는 지역사회 내 자원의 부족함을 강조함(신윤정 외, 2007)
 - 보육서비스 및 보육 프로그램, 보육기관의 지원이 미흡한 상황으로 특수한 욕구·모성·영유아 건강관리 서비스 및 상담, 산모도우미 서비스 등은 지역사회의 민간 영리 및 비영리 자원의 활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지역사회 자원으로서 가족단위 여가문화, 가족생활 교육프로그램 등 가족구성원 간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상담클리닉, 여성상담센터, 부녀회, 친목회 등의 지역 여성단체 기관과의 네트워크가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함

[표 2-17] 출산·양육 지원 관련 지역사회자원

구분	세부 공급주체	지원 내용	자원 속성
공공	구청·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생활보장제도 한부모가정 지원(교육비, 양육비) 보육료 지원(장애아, 두 자녀 이상, 저소득층) 	현금자원 현물자원 (인적자원)
	보건소 (보건 분소, 주 민건강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산부등록관리, 건강검진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진료비 지원 불임부부지원 사업 임산부 영유아 건강검진, 신생아 난청 선별검사,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베이비 마사지, 임산부 위한 태교, 모유수유교육 미숙아 및 선천성성이상아등록 및 환아 관리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지원사업(WIC) 영유아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등 건강관리 영유아성장발달스크리닝 식생활정보센터 엄마교실, 각종건강교육프로그램 등 방문조건사업 	현물자원 (인적자원) 현금자원
	자원봉사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원봉사자 파견 및 활용 프로그램 	인적자원
민간 비영리	·보육시 설(은 공공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 보육 시간 연장 보육 장애통합보육 야간보육 및 24시간 보육 영아전담보육 방과 후 통합보육 	현물자원 (인적자원)
	방과 후 전담시 설(보육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과 후 보육(대개 종교기관, 교육기관 부설) 	현물자원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과후 교실, 급식, 지원프로그램 	현물자원
	사회복지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과 후 교실 및 지원 프로그램 아동 및 부모 상담, 교육 프로그램 학교연계 프로그램(부적응학생 프로그램, 학교 사회사업) 결식아동급식지원 결연사업, 재가복지서비스 및 기타 	현물자원 인적자원
	자활후견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소득층 취업, 창업, 돌보미사업 수혜 등 	현물자원 (인적자원)
	아동복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아원, 입양원 등 무의탁아동복지생활시설 요보호아동그룹홈, 아동상담소, 아동학대예방센터 	현물자원
	여성복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부자보호시설-생활시설, 가정폭력, 성폭력상담소 	현물자원
	건강가정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검사, 가족건강증진프로그램 등 	현물자원
	(대학교) 부속상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과후 보육, 결석학생지원/학교사회사업 대학 등 고등교육 연구기관 및 상담소의 검사 및 교육지원프로그램 	현물자원
	교육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지원프로그램, 자원봉사활동 	현물자원 (인적자원)
	의료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신 및 출산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신생아 및 영아 의료지원 교육지원 프로그램 및 자원봉사활동 등 	현물자원 (인적자원)
재단 등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후원 등 	현물자원 (인적자원)	

구분	세부 공급주체	지원 내용	자원 속성
민간 영리	사설상담소, 학원	• 민간영리형태의 학원이나 관련 상담소 혹은 특수 교육 프로그램 등	현물자원 (인적자원)
	사설산후조리원 등	• 출산 직후 산모에 대한 건강회복 등 지원과 신생아에 대한 초기 보호양육 지원	현물자원
	민간어린이집 (보육시설)	• 일반 보육(일부는 방과후, 야간, 통합 등 병행)	현물자원
	가정어린이집 (보육시설)	• 일반 보육(일부는 방과후, 야간, 통합 등 병행)	현물자원
	기업	• 기업사회공헌 • 후원 및 기부 활동 • 임직원 자원봉사	현금자원 인적자원 (현물자원)
민간 비공식	부녀회, 여성단체	• 부녀회, 자조집단 등 지역여성단체의 풀뿌리자조 활동 (공동체적 보육, 교육지원 및 자조모임)	현물자원 (인적자원)
	종교단체 등	• 종교단체 등에서 비공식적인 원조제공	인적자원 (현물자원)
	직능단체 등	• 소속 회원들의 자원봉사활동	인적자원 (현물자원)
	친인척, 지인 등 개인적관계망 지원	• 보육, 사적 이전 등 지원	현금자원 현물자원 인적자원

: 신윤정 외(2007).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 대응 연구-출산양육을 위한 지역사회자원의 활용방안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는 지역사회 자원으로서 실 사례를 분석한 결과, 특히 출산양육 관련 서비스 중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 욕구가 높은 서비스는 모성보호/신생아 건강분야: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정보, 상담, 도우미 지원 등), 육아인프라 확충분야: 영유아 보육과 초등저학년 방과 후 보육, 가족 친화적 사회문화조성분야: 가족생활 관련 상담 및 교육, 일·가정양립분야: 직업 관련 교육 및 훈련 등으로 나타남
- 중심의 아동가족 맞춤형지원서비스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서정아·조흥식, 2010; 서정아 외, 2017)에서는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가족 관련 지원서비스를 분류하고 이를 공공지원서비스 편람으로 작성함으로써 지역사회 가족지원 공공자원과 정보자원을 제시함
- 현재 국가차원에서 아동·가족지원서비스와 관련된 통합관리체계인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OK주민서비스),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여성취업지원 통합전산망 등을 소개함

[표 2-18] 지역사회 중심 아동·가족 공공지원서비스 목록

중앙 부처 여성가족부	아동·가족 공공지원서비스 목록
<p>관련 공공지원 서비스</p>	<p>·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HELP CALL 청소년전화1388 및 모바일상담#1388, 청소년동반자(YC) 프로그램, 위기청소년 자립지원아카데미'두드림존' 사업,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이용시설, 청소년유해매체환경 감시체계 강화 사업, 청소년유해생활환경 개선,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 청소년 통행금지(RED ZONE) 제한구역 지정운영, 청소년쉼터, 청소년종합지원센터(The Youth Center), 인터넷 위기채팅 상담 사업, 청소년선도(보호)시설, 청소년성문화센터 SAY(Sexuality About the Youth),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공부방, 청소년문화존, 청소년교류, 한국청소년진흥센터(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동아리활동 지원사업, 국립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청소년증 사업</p>
<p>여성가족관련 공공지원 서비스</p>	<p>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이주여성 쉼터(외국인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여성긴급전화 1366, 한부모가족 상담사업,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여성취업지원 통합전산망, 위민넷, 여성회관, 자립형 창업지원 복지자금, 가족친화기업 인증사업,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아이돌보미 사업</p>
<p>아동·여성 폭력관련</p>	<p>여성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아동성폭력 전담센터(해바라기 아동센터), 여성·아동 폭력 피해 중앙지원단,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여성·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전용쉼터, 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 운영사업</p>

:서정아·조홍식(2010). 지역사회중심 아동·가족 맞춤형지원서비스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p.78을 연구자가 재정리함

[표 2-19] 아동·가족 지원 서비스 유형

분	내 용
복지	(노인생활 및 신상에 대한 상담, 노인·보호자교육, 편의 제공), 양육 및 교육 서비스, 장애인·노인·만성질환자 등의 부양간병서비스, 취사·청소·세탁 등 가사지원서비스, 교육·상담 등 가족관계 증진서비스, 재활서비스, 재가복지서비스(가정방문·봉사서비스33), 주간·단기 보호서비스(34)), 활동보조지원서비스, 가족내·외 가족휴가(respite) 서비스, 가족생활관련정보제공서비스, 다문화가족 언어통역서비스, 다국어 서비스, 법률상담서비스, 행정지원서비스, 지원관련기관·단체서비스 연계,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적응교육서비스, 또래지원 및 심리상담서비스, 독거노인·장애인·아동 등 보호가 필요한 입주민을 위한 돌봄서비스 사업, 특수교육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한 가족상담, (장애인) 작업치료 등 치료지원, (특수교육대상자) 보조인력 제공, (장애인용) 각종 교구·장·종 학습보조기·보조공학기기 설비 제공, (장애인) 이동지원서비스(통학차량 지원·통학비 지원·통학 보조 인력의 지원), 각종정보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경제지원서비스, 지역·사회지원서비스(사회보험, 공공부조, 주·단기보호서비스), 가족관계지원서비스(부모교육 및 상담, 가족참여프로그램, 생계지원서비스(생계비지원, 아동수당지원, 세금 및 생활요금 감면), 가족상담서비스(부부상담, 자녀양육상담, 고부갈등 상담, 이혼전후상담, 재혼가족상담, 기타 가족관련 상담), 가족돌봄지원사업(장애아·가족아동양육지원사업, 맞벌이가정 방과후돌봄사업), 다양한 가족지원사업(다문화가족지원사업, 장애아·가족지원사업,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조손가족지원사업), 현금보조/재정적 지원서비스, 데이케어서비스, 가사도우미/수발자/케어서비스, 부모·가족 형제지지그룹, 부모 간(parent-to-parent)지원, 아동양육지원, 가정방문(home visit), 대인돌봄서비스(일어나기·잠자리 들기·목욕 등 돕기, 식사제공·청소·세탁·쇼핑·집안일 지원 등),
보건	초기발달검사(early developmental screening), 아동조기발달 및 건강검진 서비스,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장애인) 산전·산후도우미 파견, 산전·산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장애인) 성·연령 및 장애의 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보호·의료 서비스·재활훈련, 의료지원서비스, 행동관리, 진단과 평가 서비스, 보건(Health care) 서비스, 가족건강/보철장치제공서비스, 처치/치료서비스, 신체(균형 잡힌 영양, 최적의 신체발달조건, 적절한 활동능력 발달지원) 및 정신건강서비스(ADHD, 학습장애, 품행장애, 우울, 불안 등 학령기 아동의 행동장애에 대한 조기진단 및 개입, 학대·방임 발견 및 예방), 정서·행동, 사회성(긍정적 자아인식, 자존감, 자기효능감, 낙관성 및 행복감 발달지원, 안정적인 또래관계, 학교적응, 규칙과 질서 준수, 부모 및 성인과의 안정적인 관계 형성 지원 등), 의료돌봄서비스(약물처방·상처치료 등 외과적 처방, 전문적인 치료, 재활 및 치료 케어)
주거	주택관리서비스(주택 및 시설 개보수 제공, 긴급연락망(community alarm) 서비스), 주거지원서비스(주택의 확보 및 임차관계설정, 유지에 관련된 지원, 주택의 개량 및 수선 관련 상담), 입주자의 관리비 절감을 위한 사업,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한 사업, (장애인) 생활지도 및 보호를 위한 기숙사 설치·운영/생활지도원 배치, 건축·집 개조
고용	전직지원서비스(구인·창업 등 고용정보 제공, 취업알선, 자기소개서·이력서 작성과 면접방법 등의 지도, 교육훈련), 고용지원서비스(개인별 심층상담을 통한 직업경로 설계, 직업체험·직업능력 개발훈련을 통한 취업의욕과 능력 증진, 취업알선), 진로상담서비스,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 진로인식(삶의 문제와 방식에 대한 인식 증진)
문화	여가활동지원서비스(특별한 예시 없음)
관광	여가활동지원서비스(특별한 예시 없음)
체육	여가활동지원서비스(특별한 예시 없음)
교육	부모교육서비스, 교육지원서비스(교육, 재택 및 순회프로그램), 생애주기별 가족교육사업(결혼준비 교육, 부부관계증진교육, 부모·자녀관계 향상교육, 아버지교육, 가족의사소통증진교육, 기타 가족교육), 일반교육서비스, 특수교육서비스, 부모·가족훈련, 직업·기술교육 혹은 훈련, 아동인지·언어교육(기초학습능력의 습득, 창의성, 문제해결능력, 학습책략발달지원), 가사 및 생활기술 교육(가계관리 및 공공부조 등 정부보조금 신청방법, 기타 서비스와 관련한 상담·대면·접근 및 연락방법 등)
기타	가족친화문화조성사업(가족봉사단활동, 가족사랑 캠페인.), 지역사회네트워크사업(소식지개발 및 배포, 가족생활향상을 위한 정보제공, 가족지원네트워크 구축), 사례관리서비스, 지역사회아웃리치서비스, 학교연계서비스(school-linked services),

:서정아·조홍식(2010). 지역사회중심 아동·가족 맞춤형지원서비스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p.54

- 주민이 일일이 해당기관을 별도로 방문하여 필요한 주민생활 온라인(주민서비스, 서비스를 신청해야 하였으나, 이제는 온라인(주민서비스, www.oklife.go.kr)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체제가 갖추어짐.
 - 포털과 같은 정보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주민서비스의 종합적인 안내, 주민이 직접 원하는 서비스의 온라인 신청, 개인별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미리 알아보는 기능 외에 주민이 대국민 포털로 신청한 내역이 처리되는 모든 과정을 조회하고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민간시설에 서비스 등록과 이력 관리까지 할 수 있음
 - 서비스 안내 및 신청기능을 보면 현재 복지·보건·교육·고용·주거·관광·체육·문화 등 주민생활 8대 분야의 중앙서비스 281종과 232개 시·군·구의 지역자원 서비스 35만여 종을 안내하고 있으며, 이 중 3만여 건은 해당 기관의 방문 없이도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함. 또한 향후 공공 이외 민간영역의 지역자원 서비스를 민·관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국가차원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체계를 마련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는 위기청소년의 사회안전망 발굴·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체계적 발굴 시스템을 구축 하고, 위기 청소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함

[그림 2-1]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 지원 체계도



:서정아·조흥식(2010). 지역사회중심 아동·가족 맞춤형지원서비스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행복-e음)은 행정 내부망으로 한 번의 방문신청에 의해 개인과 가족의 복지욕구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가능한 모든 서비스를 안내, 상담, 연계하며, 사업별로 소득·재산조사방법 통일 및 공적자료 전산연계로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여 전국어디서나 관리망과 연계하여 지자체에서 서비스를 제공함
- 여성취업지원 통합전산망은 온라인상에서 여성취업지원자가 체감할 수 있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여성일자리 추진에 적합한 취업정보를 통합관리하기 위해 구축됨. 직업교육훈련, 취업정보, 사내 복지 프로그램 등을 통해 여성 취업기관의 취업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경력설계, 직업훈련, 취업 후 사후관리까지 하여 체계적으로 여성의 취업을 위한 경력관리까지 추진함
- 가족유형에 따른 아동의 지원서비스 욕구 차이를 살펴보면, 문화 관련 기관소개, 동네에서 운동할 수 있는 곳 마련, 장애아동을 위한 학습 지원에 대한 욕구가 가족유형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 주양육자는 자신과 초등학교 연령 자녀를 위해 아동심리상담서비스(52.9%)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가족과 함께 하는 문화경험(50.1%), 가족과 함께 하는 관광경험 지원서비스(49.8%), 아동건강검진 서비스(46.8%), 교육지원서비스(교육 순회프로그램)(42.1%) 순으로 나타남
- 지원 후발 자원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경우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이 무엇보다 시급하고 필요함을 강조함(이희은, 2016).
 - 인적·물적·문화적 자원의 활용이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의 확대가 높게 나타남
 - 지역사회 자원 연계 요구는 교육비스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정보제공서비스, 보육컨설팅서비스, 상담서비스 순으로 나타남
- 취약가족인 한부모가족의 경우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자원-개인자원, 가족자원, 발달환경자원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박정윤·원아름, 2014)
 - 한부모가족이 경험하는 내·외적문제, 경제적 문제, 사회적응 문제 등은 다양하며, 한부모가족이 갖고 있는 자원이나 역량에 따라 문제 상황을 보다 잘 극복하고 적응할

- 있기 때문에 한부모가족의 문제회복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자녀의 개인자원, 가족자원, 발달환경자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 한부모가족 아동의 경우 학교수업과 학교생활에 대한 일반적 적응을 잘 하지 못하고(김미숙 외, 2000), 여성 한부모가족의 경우 모와 자녀 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의 부족으로 자녀와의 관계가 불안정하고 애정 결핍이 있어 자녀들이 학교생활에 적절하게 적응하지 못하고 비행 및 일탈 등의 문제행동을 나타낸다고 함(최은미, 2007)
 - 한부모가족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자원 중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이, 가족자원 중에는 한부모가족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가구연간소득이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발달환경관련 자원 중에는 휴대전화 의존도와 중독 정도가 높을수록 학교생활과 학업 부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가족위기 대응을 위한 복지지원은 다문화가정이 한국사회 적응과정에서 문화언어차이에 따른 의사소통, 가정폭력, 자녀양육 및 교육 등의 문제를 일반 가정보다 더 경험하는 특성이 있어, 지역사회 기반의 복지네트워크를 통해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차태규, 2013)
 - 지역사회 복지네트워크는 함께 목표를 이룩하기 위해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기관들이 참여하여 상호적 이익을 얻기 위해 상호작용과 자원을 교환하는 것으로, 다문화가족의 문제 해결 및 위기 지원을 위해서는 둘 혹은 그 이상의 기관이 지역사회 내에서 네트워크를 통해 독자적으로 얻을 수 없는 목적의 성취할 수 있도록 어떤 종류의 자원(재정, 물질적 시설, 클라이언트의 의뢰, 기술적 지원서비스)을 교류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 또한 가족단위가 아닌 개인적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대응자원의 소유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정신장애인(박근우, 2015; 소영숙, 2003; 엄윤서, 2009)와 뇌성마비 장애인(조만우, 2005), 척수장애인(김강수, 2004)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원 활용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거동불편노인(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과 독거노인(채강숙, 2008), 장기요양보호 대상 노인(김은경 외, 2002)의 지역사회 자원 활용 및 지지망에 대한 연구가 많음. 그 외 빈곤아동(곽은정, 2003)에 대한 지역사회 지원 네트워크 활용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짐

2. 가족위기 서비스 연계 및 지원 관련 연구

- 시 경제자원의 지원과 연계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는 대표적으로 사회적 원인론(Social Causation Theory)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생활상의 불편과 스트레스 등을 야기하여 정신건강 상의 문제를 가져온다고 설명함(장신재, 2017)
 - IMF 같은 경제위기가 실업과 수입의 감소, 그리고 이에 대한 불안이 가족생활의 기초를 흔들며 높고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변화를 초래하여, 심한 경우 가족해체를 유발하게 됨(정진성, 2001)
 - 가족의 경제위기는 평상시 잘 드러나지 않던 가족적 삶의 여러 단면들을 노출시키는 효과를 보임. 위기 상황에서 평소 드러나지 않았던 가족생활의 우선순위가 표출될 수 있으며 가족생활을 지원하는 정서적·경제적 자원의 소재가 나타남
 - 경제적 어려움은 여성들의 취업을 고무하는 효과를 지니며, 가족원의 실업(주 부양자의 실업)은 실업자 가족원 또는 당사자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긍정적인 의사소통보다는 다툼과 적대적인 행동을 촉발하며, 가족 간의 응집력을 떨어뜨린다고 함. 특히 남편이 실직한 가정의 해체율이 높고, 응집력 감소와 적대적 분위기가 조성되는 이유는 소득감소 자체의 효과와 함께 일의 상실에서 오는 정체성 위기와 심리적 곤란이 공존하기 때문이라고 함
 - 경제적 위기 상황은 가족관계에 변화를 초래하여 부부 간의 폭력이나 해체의 가능성은 낮게 나타난 반면 자녀에 대한 폭력이 보다 높음. 또한 사회보장제도가나 친구에 비해 친족이 여전히 가장 중요한 경제적 의지의 대상이 됨.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경제 위기 시에 친척이 도움의 자원으로 가장 많이 나타남.
- 개인적 위기인 노인의 우울에 자녀로부터의 경제적 자원의 지원이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장신재, 2017)
 - 노인의 생활비는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자녀로부터 받은 경제적 지원 수준에 따라서 자녀로부터 받은 경제적 지원이 높을수록 생활비가 우울에 미치는 부적(-) 영향이 완화됨. 즉, 낮은 경제적 수준을 지닌 노인일수록 자녀로부터의 물질적 도움이 우울을 경감시키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됨.
- 자녀교육비 및 노부모에 대한 생활비 지원과 경제적 자원의 변화가 출산의도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이선형, 2009)

- 중년 세대의 부부들은 공적 연금체계가 늦게 갖추어지면서 노부모 부양부담으로 인해 자신의 노후준비가 미흡하여 본인이 노년기가 되었을 때 다시 자녀의 부양을 받아야 하는 상황임
- 경제적 상태를 불안정하게 인식할 경우 출산을 유보하거나 노후준비 또한 하지 않는 결정을 하게 될 수 있다고 함. 이는 중년기 가족에게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전망을 도울 수 있는 방안들이 제시된다면 출산의도를 높이고 노후준비 행동도 더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음을 의미함
- 자녀비용과 관련하여 자녀교육비 비중이 없고 노부모 생활비 지원을 안 하는 경우에 출산의도가 높아 추가 출산에는 교육비변수가 크게 작용하였고, 노후준비는 출산의도보다 노부모 부양비 지원과 같은 경제적 변수에 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사회적 지지는 독거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즉, 월평균생활비가 많을수록, 소득충분도가 높을수록, 주거편이도가 좋을수록, 친한 친구수가 많을수록, 연간여행회수가 많을수록,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는 사회관계망의 기능에 해당되는 것으로, 개인의 안녕으로부터 정신 장애, 스트레스 사건, 성폭력, 가족해체, 알코올 및 약물 남용, 이혼, 사별, 노인성 치매 암, 에이즈와 죽음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사회문제 및 가족위기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용됨(김광석, 2008)
 - 사회적 지지는 인간-환경간의 적합성(person-environmentfit)을 향상시키고, 효과적인 환경적 개입을 가능하게 할뿐 아니라, 개인의 안녕과 건강에 기여하여 아동, 청소년, 노인 등 여러 대상에게 실시됨
 - 도시노인의 가족 지지망, 이웃 지지망, 친구 지지망의 접촉빈도와 기간, 도움 정도가 클수록 노인의 신체건강 만족도와 경제적 만족도가 높았다고 하였으며(성규탁·박영란, 1988), 사회적 관계망이 노인의 생활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가족 결속도를 강화시키는 기능도 함(홍순혜, 1984)
 - 노인들이 맺고 있는 지원망의 범위에 따라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가족,

, 이웃, 친구 지원망 모두와 관계를 맺고 있는 노인일수록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생활만족도가 높았으며(최정아, 1991). 농촌노인의 사회적 지지망의 구조와 생활교류를 중심으로 생활만족도와와의 관계를 고찰한 결과 사회적 지지망의 형태 수가 많고 크기, 빈도가 높을수록 노인의 생활만족도가 높음을 밝힘(김유정, 1993)

- 박선영(1999)의 연구에서는 지지망 형태에 따른 유형별 사회적 지지와 생활만족도의 차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가족 및 친족의 지지, 의미 있는 타인의 지지, 공적인 지지 순으로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지 유형별로 가족의 정서적 지지가 가장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의미 있는 타인의 경우도 역시 정서적 지지를 많이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남

-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센터가 지역사회 사회복지기관 중 비교적 후발기관으로서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와 자원개발, 사업의 차별화를 통해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응해야 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오음(송혜림·김소영, 2006; 송혜림·김소영, 2007)

- 가족센터가 지방분권화 시대에 맞추어 지역사회의 가족서비스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지역 내의 사회복지 공급을 위한 복지자원의 개발과 다양화가 매우 중요함을 강조
- 특히 가족센터의 지역사회 자원개발은 해당 지역주민의 특화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전제조건이 되며, 지역주민 스스로가 중심이 되어 자신들의 욕구를 통합, 조정하고 해결해 나감으로써 주민조직화의 측면에서 스스로 하나의 자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민간 복지자원의 인적·물적 자원을 재구성하고 지원과 협조의 특을 만들어가는 시스템 개발이 필요함을 강조함(정민자, 2006)
- 가족센터의 지역사회 자원개발은 네트워크 사업의 한 사례로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 연계,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의 상호교환과 연계를 포함함
- 지역사회의 자원개발은 주민조직화의 한 범주로서 가족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의 다양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며, 한정된 예산과 자원으로 목표달성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자원 창출이 요구됨을 강조함

제3장 가족위기 수준 측정도구 설계

I. 측정도구 개발 체계의 설정

1. 도구 개발의 기본방향

- ‘가족기능의 약화로 가족 안정성이 위협받는 상황’으로 정의.
 - 말하는 위기가족, 즉 가족의 부양·양육·보호·교육 등 가족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로 생애주기 상의 변화와 위기, 가족 구성원의 내·외적으로 발생하는 어려움, 갑작스러운 사건에 의한 긴장과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어려움 등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 위기로 정의한 정영금 외(2022)의 정의를 적용.
 - 따라서 가족 안정성이 위협받는 상황은 ‘가족의 부양·양육·보호·교육 등 가족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로 나타남. 이때 본 연구에서는 가족 구조적 특성(저출생/고령화, 가족 핵화 또는 1인 가구 생활 증가 등)에 의한 가족구조가 가족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는 가족 안정성 위협 요인으로 추가함.
 - 결국 가족위기관, 개인이나 가족원의 내·외적으로 발생하는 어려움, 갑작스러운 사건에 의해, 겪는 어려움이 가족기능을 현저하게 저하시키거나 가족 안정성을 위협받는 상황.
- 가족위기 측정을 위해서 가족위기를 개인적 위기, 관계적 위기, 가족 구조적 위기, 발달적 위기, 가족 외적 위기로 유형화함
 - 개인적 위기는 개인이 가족원의 선택 또는 갑작스럽게 특정인에게 일어난 사건들로 인해 개인이나 이 사건을 경험한 가족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자살과 죽음, 실직, 중독, 질병과 장애, 폭력, 소외나 우울(고립감), 가출 등을 포함함.
 - 관계적 위기는 가정폭력, 학대, 성폭력, 이혼(별거, 외도문제 등), 가족 갈등, 가족 대화 단절 등을 포함함
 - 가족 구조적 위기는 저출생 심화, 고령화 사회로의 이전으로 인해 나타나는 가족 돌봄 취약성 등을 포함함, 즉 고령 돌봄 대상자의 증가, 돌봄 제공자의 고령화와 돌봄을 니룰 가족 수의 점진적 축소, 비혼 및 결혼 지연에 의한 1인 생활자의 증가 등 가족구조 자체가 가족의 일상 유지에 부담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있음. 이로 인해 나타나는

유지 관리의 어려움, 지역 인구 감소로 인한 사회 인프라 축소, 노부모 부양 기간의 증가, 손자녀 돌봄 부담, 일 가정 양립의 어려움 등을 포함함.

- 발달적 위기는 개인의 생애주기를 지나며 준비되거나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나게 되는 일련의 생애사적 사건들, 출산(출생), 입학, 졸업, 혼인(결혼), 은퇴, 임신, (노화에 의한) 사망 등을 포함함
- 가족 외적 위기 : 개인의 의지나 노력, 생각과 상관없이 나의 일상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경제적 어려움, 불경기, 사회적 범죄(살인 및 강도, 유괴, 사기, 폭행 등), 전염병(코로나19), 사회재난(화재, 환경오염, 사고), 자연재해(태풍, 홍수, 산사태, 지진 등)을 포함함.

● 측정은 가족위기 유형별 개인의 일상생활 유지의 어려움 경험 정도로 측정함.

- 개인의 일상생활 유지의 어려운 정도는 개인이 식사, 수면, 대인관계 등의 일상을 유지하는 어려움의 정도로 측정함.
- 가족위기는 5개 유형별 측정 문항을 선별하여 일상생활 유지의 어려움 정도(식사, 수면, 대인관계 등)를 측정하고, 5개 유형의 합산한 값으로 측정함.
- 이때, 가족위기 합산 값은 가족위기 유형별 측정 문항 수가 많은 유형이 그렇지 않은 유형에 비해 어려움 정도가 높은 걸로 나타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 개인적 위기, 관계적 위기, 가족 구조적 위기, 발달적 위기, 가족 외적 위기 유형별 잘못된 가중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형별 문항 수를 동일하게 맞추거나, 각 유형의 평균값을 사용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가족위기 측정 문항을 개발하고자 하므로 연구 설계부터 문항 수를 조정하기보다, 유형별 문항 수의 차이에 의한 영향력을 없애기 위해 유형별 평균값을 사용하고자 함. 본 연구에서는 측정도구 개발 자체가 목적으로 문항이 선별되기 전에 문항 수를 조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유형별 평균값을 선택하였으나, 향후 가족위기 측정 문항의 영향력이 파악되면, 이후 가중치 등을 검토가 필요하다 사료됨.
- 본 연구에서는 가족위기 유형별 해당 문항에 대한 경험 여부를 묻고, 유형별 경험한 위기에 대한 평균값의 합을 가족위기 값으로 보므로 가족위기 유형별 별도 가중치는

- 가족위기는 개인적 경험과 인식, 보유 자원에 따라 위기의 심각성 또는 어려움 정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인의 경험과 개인이 응답한 정도로, 가족위기 수준을 측정함.
- 대응자원 보유 점수 측정은 위기 상황에서 일상생활 유지를 해나가는데 유용한 자원 보유 정도를 측정함.
 - 가족위기 대응자원 요인은 개인 자원, 가족 자원, 개인과 가족 이외 사적 자원(친척, 이웃, 동료, 친구 등), 민간/공적 자원 4개 요인으로 구분함.
 - 개인 자원은 개인의 태도, 의지, 지식, 위기대처 물적 자원 등.
 - 가족 자원은 위기 극복력, 복원력, 회복력, 유연성 등.
 - 개인과 가족이외 사적 자원은 가족 네트워크, 친구 네트워크, 지역 네트워크, 직장 네트워크 등.
 - 민간/공적 자원은 지역자원, 민간자원(자선단체, 시민단체), 정부 및 지자체 등의 서비스, 공적 인프라 등.
- 가족 서비스 지원 및 서비스 연계 수요도 측정은 가족위기 수준과 가족 보유 자원 정도에 따라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가족서비스 지원이나 연계가 가능한 요인별 자원의 취약성(또는 서비스 수요도)을 측정함.
 - 가족 서비스 지원 및 연계 수요는 물적 자원, 인적 자원, 사회 자본 등 3개 요인으로 구분함.
 - 물적 자원은 동산, 현물/차량, 부동산 관련 자원 등.
 - 인적 자원은 시간 자원, 정보획득력, 가족지지(친밀감), 가족 탄력성(가족역량) 등.
 - 사회 자본은 사회적 네트워크에 의한 사람과 기관 등

2. 가족위기 측정도구 구성 절차

- 이용자 대상 가족위기 측정 필요성에 맞춘 위기 범위와 측정 문항 선별을 위해, 가족위기 유형을 기반으로 ‘가족위기’ 측정도구 개발을 위한 기본 틀을 설계하고, 가족위기 측정도구 예비문항 개발과 시범 조사 결과 분석을 거쳐 문항 확정

[표 3-1] 가족위기 수준 측정도구의 기본 틀과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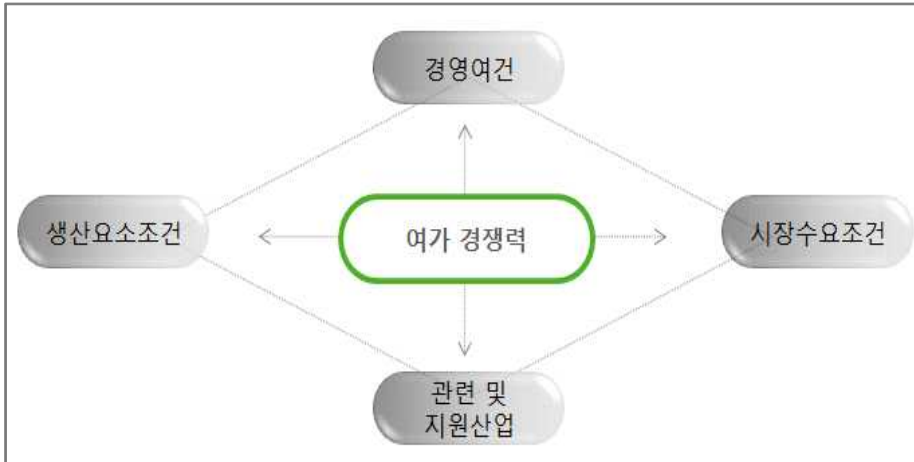
가족위기 수준 측정의 기본 틀		요인	측정
가족위기 유형	개인적 위기	자살과 죽음, 자녀/본인/부모실직, 중독, 질병과 장애, 학교폭력 등 소외나 우울, 가출	각 유형별 위기 경험과 스트레스 인지 정도
	관계적 위기	가정폭력, 학대, 성폭력, 이혼, 가족 갈등/싸움	
	가족 구조적 위기	일상생활 유지와 관리의 어려움, 사회 인프라 축소, 부양기간의 증가와 부담,	
	발달적 위기	출산(출생) 문제, 자녀의 입학/졸업, 자녀나 본인의 혼인, 은퇴, 임신, 노화에 의한 사망	
	가족 외적 위기	경제적 어려움, 전염병(코로나19), 사회재난, 자연재해	
가족위기 대응자원 요인	개인 자원, 가족 자원, 개인과 가족이외 사적 자원, 민간/공적 자원	가족위기 대응자원 보유 인식 정도	
가족 서비스 지원 및 연계 수요 요인	물적 자원, 인적 자원, 사회 자본	지원 및 연계 필요성 정도	

- () 가족위기의 5가지 유형(개인적 위기, 가족 구조적 위기, 관계적 위기, 발달적 위기, 가족 외적 위기)과 가족위기 대응자원, 가족위기 대응 서비스 지원 및 연계

기준으로 함

- (가족위기 수준 측정) 가족위기 유형은 5가지 유형별로 위기에 대한 경험과 스트레스 인지 정도로 측정하고, 가족위기 상황의 해소 및 지속 여부는 가족이 지나는 자원 소유 정도에 따라 빠르게 자체적으로 해소되거나 해소되지 않고 점차 위기가 심각해질 수 있으므로 가족 자원을 위기 대응을 위해 활용 가능한 자원 소유의 인지 수준(또는 정도)으로 측정함
 - (가족위기 대응자원 보유 정도 측정) 가족위기 대응자원 요인은 개인 자원, 가족 자원, 개인과 가족 이외 사적 자원(친척, 이웃, 동료, 친구 등), 민간/공적 자원 4개 요인으로 구분함
 - (가족 서비스 지원 및 연계 수요도 측정) 가족 서비스 지원 및 연계 수요는 물적 자원, 인적 자원, 사회 자본 3개 요인으로 구분함.
- () 가족위기 수준 측정도구 문항 개발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제시됨
 - 시차성: 측정 변수의 정태적·동태적 특성을 모두 반영하고자 함.
 - 대표성: 측정 항목은 너무 복잡하지 않으면서도 설득력이 있어야 함
 - 적용가능성: 측정 문항은 시범 조사 등을 통해 가족센터 등에서 적용가능한 내용으로 구성하며,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함
 - (분석 틀) Porter(1990)의 다이아몬드 모델을 활용한 가족위기 수준 측정
 - Porter(1990)의 다이아몬드 모델은 국가, 산업, 기업 등의 경쟁력 뿐 아니라 특정 개념, 현상 등을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사고의 틀을 제공하고, 전체 현상을 중첩 및 누락 없이(Mutually Exclusive and Comprehensive Exhaustive)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짐. 특히 경쟁력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방법으로 분석할 수 있는 틀로서 많은 연구를 통해서 그 유용성이 입증됨
 - Porter(1990)는 10개국을 대상으로 하여 각국에서 경쟁력이 가장 높은 산업을 추출해서 연구함으로써 이들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하게 만든 공통요인을 추출하였는데, 다이아몬드 모델은 요소 조건, 수요조건, 관련 및 지원산업, 경영 여건 등 4가지 요소가 국제경쟁력을 결정짓는 근본 요인이라고 함(조동성,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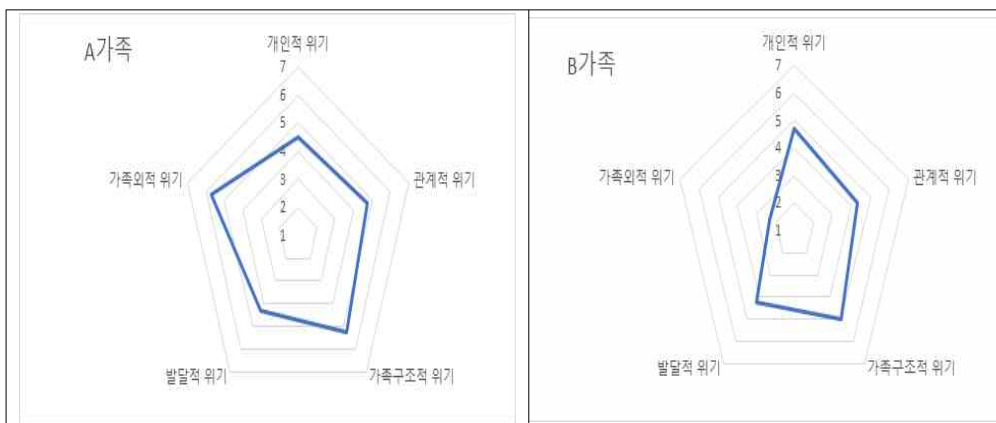
[그림 3-1] Porter의 다이아몬드 모델을 적용한 여가 경쟁력 구성요소



: Porter, M. E.(1990), The Competitive Advantage of Nation, New York: Free Pr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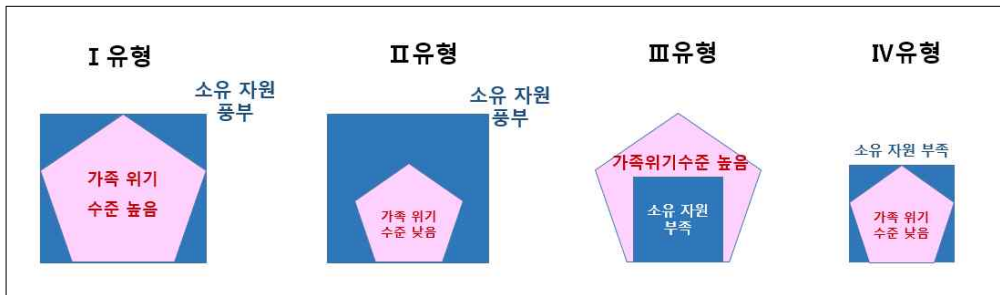
- (제시 계획) 본 연구에서는 5가지 위기 유형별 위기 점수, 가족위기 대응자
원 보유 점수를 토대로 가족위기의 수준을 측정하고, 추후, 가족 서비스 지원
및 수요도를 기반으로 가족서비스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이때 결과표는
아래 [그림 3-2]와 같이 유형별로 점수화하여 나타내 보고자 함

[그림 3-2] 가족위기 결과표 예시(A가족과 B가족)



- [3-2]는 A가족이나 B가족은 5가지 가족위기의 점수는 같으나 경험하는 위기의 종류가 다름을 보여주고 있음. 이는, 가족위기 유형에 따라 정책적 지원 방안이 달라야 함을 나타냄.
- 예를 들어, A가족이나 B가족은 가족위기 점수는 35점 중 24점으로 동일하고, 5가지 가족위기 점수가 모두 평균 이상임. 그러나 A가족은 가족 외적 위기에 의한 어려움의 정도가 크고, B가족은 개인적 위기와 가족구조적 위기 점수가 높게 나타남(1~7점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위기가 높음)
- 또한 가족이 소유한 가족 자원을 함께 조사함으로써, 가족 보유 자원 점수가 높을 경우 자체적으로 위기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가족 보유 자원 점수가 낮을 경우, 위기 대응에도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자원을 함께 측정하여 가족위기의 시급성과 심각도를 보다 다차원적으로 파악할 수 있음.

[그림 3-3] 가족위기와 가족위기대응자원 결과표 예시



- [그림 3-3]을 기준으로 I유형, II유형, III유형, IV유형별 지원 방안은 개념적 수준의 예시임. 두 척도의 기준이 다르므로 실제 분석에서 하나의 그림으로 통합할 수 없는 성격이나 이해를 돕기 위해 유형별 그림으로 나타냈으며 아래와 같이 설계할 수 있음.
 - I : 소유한 다양한 자원이 풍부하나 가족위기 수준 역시 높아, 가족서비스의 정책적 지원에 대한 욕구는 높으므로, 소유한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대상자 스스로 가족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위기 대처 역량을 높여야 함
 - II유형 : 소유한 다양한 자원이 풍부한 반면 가족위기 수준은 낮아, 가족서비스의 정책적 지원에 대한 욕구는 낮음.
 - III유형 : 가족위기 수준은 높는데 이를 해소할 소유 자원이 부족하여 위기에 처함.

지원 욕구가 가장 높으므로, 지역 내 다양한 자원 보유 기관과 네트워킹하여 서비스를 연계하고, 높은 가족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긴급한 지원이 필요함

- IV유형 : 소유 자원이 부족하나 가족위기 인식 수준도 낮아 가족서비스의 정책적 지원에 대한 욕구(긴급성)는 낮으므로, 위기 발생 시, 자원이 부족하여 보유 기관과의 서비스 연계 및 가족위기에 대한 대응 역량을 키워야 함.
- , 가족위기 측정도구가 개발되면, 이후 가족위기 점수가 높고, 가족 자원 보유 점수가 낮은 경우는 즉각적 개입 대상, 가족위기 점수가 낮고 가족 자원 보유 점수가 높은 경우는 가족위기 대응이 가족 자체적으로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하는 등 전체적인 가족위기 관리와 지원에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됨
- (개발 절차) 가족위기 수준을 산출하는 과정은 5개 위기 유형(개인적 위기, 가족 구조적 위기, 관계적 위기, 발달적 위기, 가족 외적 위기) 측정 문항과 위기에 대응하는 가족 대처자원 보유 수준 측정 문항, 가족서비스 지원 및 연계 수요 측정 문항으로 구분하여, [그림 3-4]의 절차에 따라 진행함.

[그림 3-4] 가족위기 측정도구 개발 절차



- 개발을 위한 예비문항 개발
 - 유형별 가족위기 점수 산출 예비문항 개발
 - 가족위기 대응자원의 요인별 충분도 점수 산출 예비문항 개발
 - 가족 서비스 지원 및 연계 요인별 수요도 점수 산출 예비문항 개발
 - 전문가 대상 문항의 타당성 및 적정성 조사를 통해 1차 문항 조정
 - 1차 조정된 문항에 대한 전문가 대상 2차 타당성 및 적정성 평가
 - 연구진과 자문진의 2차 문항 조정을 통해 시범 조사 문항 구성
 - 시범 조사 실시 후 요인 분석을 통해 최종 측정도구 제안
- 연구에서 개발한 가족위기 수준 측정 문항을 근거로 가족위기의 수준을 평가하고 분석하는 방법은 MADI (Measurement-Analysis-Direction-Implementation)의 단계를 따라 제시하고자 함
 - MADI는 아래와 같은 4가지 단계로 구성됨
 - 측정(Measurement) 단계 : 가족위기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을 개발하고 이를 측정하는 단계로, 가족센터에서 이용자별 가족위기 사정을 위한 초기면담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분석(Analysis) 단계 : 가족위기 요인을 분석하고 다양한 계층변인에 따라 가족위기 수준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가족위기 현황 파악을 할 수 있음.
 - 방향 설정(Direction) 단계 : 각 항목의 가족위기의 강·약점을 도출하여 선행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요인들을 추출 해낼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하여 시간과 중요도에 따른 향상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으므로, 위기 지원에 따른 사전-사후 검사를 통한 성과를 계량화할 수 있음
 - 전략제시(Implication) 단계 : 가족위기 수준을 측정하여 가족서비스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서비스 개선 전략을 도출할 수 있음

II. 측정도구의 구성

1. 가족위기 측정도구 문항 검토 범위

- 유형은 정영금 외(2022) 가족위기 지원체계 구축 전략 연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연구를 토대로 구분함
- 저출생, 가족 규모의 축소, 분거 형태의 증가, 1인 가구의 증가와 관련 가족기능 취약이 예측되는 가족 구조적 위기 유형을 추가함
- 이때 세부 문항은 2023년 가족사업 지침 외에 관련 연구들이 제시하는 가족위기, 가족기능, 가족 건강성, 가족 실태 조사 도구들에서 추출함.
 - 가족위기 지원 방향 및 가족센터의 가족위기 지원 수행 현황에 맞춘 문항 검토
 - 유사 서비스 관련 조사에서의 국내외 위기 및 가족위기 측정 관련 지표에서 문항 추출
 - 국내 위기 및 자원 측정 선행연구에서 문항 추출
 -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 및 2023년 가족사업 지침에서 제시된 가족관련 척도에서 문항 추출
 - 그 외 1인 가구, 한부모가구, 다문화가족 등의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영향력 있는 요인을 검토하여 문항 검토

2. 가족위기 수준 측정 예비 도구

1) 가족위기 유형별 측정 예비문항

- 유형은 개인적 위기, 관계적 위기, 가족 구조적 위기, 발달적 위기, 가족 외적 위기 유형별로 구분하여 문항을 구성함
- 개인적 위기 유형은 사망, 발달과업 실패, 질병/중독, 불안/비행, 폭력으로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문항을 구성함
 - : 자살시도나 죽음(사망) 관련 사건
 - 발달과업 실패:실직, 해고의 위험이나 경험, 시험, 진학이나 취업 등의 실패
 - 질병/중독:술이나 담배, 마약, 게임 등 중독문제, 만성질환이나 장애, 장기 입원 등 건강 문제
 - 불안/비행:소외감이나 우울 등 심리/정서적 문제, 가출, 비행 문제
 - 폭력: (학교)폭력, 왕따 피해, 폭력이나 범죄 발생 및 고소/고발 경험, 성폭력 및 성범죄 피해
- 관계적 위기 유형은 부부관계, 부모-자녀간 관계, 소통으로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문항을 구성함
 - 부부관계: 별거, 이혼, 외도, 가정폭력 문제
 - 부모-자녀간 관계: 학대, 가족 간 갈등
 - 소통: 가족 소통 부재나 어려움, 가족과의 단절, 가족내의 고립상태
- 가족 구조적 위기 유형은 가족핵화/축소, 저출생/고령화, 가족분거 생활증가 요인으로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문항을 구성함
 - 가족핵화/축소: 스스로 자기 돌봄 역량의 부족 또는 지원 부재, 사회와의 단절이나 고립, 은둔 상태
 - 저출생/고령화:고령세대 돌봄에 대한 부담(경제적, 신체적), 일과 가족 돌봄의 양립

- 가족분거 생활 증가: 직이나 이전에 의한 관계유지의 어려움이나 새로운 관계 맺기의 어려움, 근거리 거주 가족이나 지인 부재로 인한 어려움
- 위기 유형은 신혼기, 자녀 출산 양육기 자녀 교육기, 자녀 성인기, 자녀 결혼기, 축소/소멸기로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문항을 구성함
 - 신혼기 : 자녀나 본인의 혼인((결혼) 및 적응 문제, 임신(불임) 관련 문제
 - 자녀 출산 양육기 : 출산, 입양 관련 문제, 자녀양육 및 돌봄(영유아, 초등, 청소년) 문제
 - 자녀 교육기 : 자녀의 입학과 졸업, 학교생활 적응, 부부-부모 역할 적응 관련
 - 자녀성인기 : 자녀의 진로(대학, 취업, 군입대) 및 이성교제 문제, 부부관계 재적응 문제
 - 자녀결혼기 : 자녀의 결혼과 독립/새로운 가족관계 적응, 은퇴로 인한 생활 적응(사회적/경제적축소)
 - 축소/소멸기 : 건강 및 노화에 적응, 자녀-친지와 유대 유지, 배우자의 사망/홀로되기의 수용
- 가족 외적 위기 유형은 경제적 요인, 사회 불안 요인, 전염 불안 요인, 사회 재난 요인, 자연 재해 요인으로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문항을 구성함
 - 경제적 요인: 경제적 어려움(파산, 부채), 불경기
 - 사회 불안 요인: 사회적 범죄(살인 및 강도, 유괴, 사기, 폭행 등)
 - 전염 불안 요인:메르스나 코로나19 등 전염병 문제
 - 사회 재난 요인: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환경오염사고 등 피해
 - 자연 재해 요인:태풍, 홍수, 산사태, 지진 등 자연재해 피해

2) 가족위기 대응자원 요인 측정 예비문항

- 대응자원 요인은 일상생활에서의 자원 보유 정도를 측정하여, 위기 대응 수준과 역량을 확인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인 자원, 가족 자원, 개인과 가족 외 사적 자원, 민간/공적 자원 요인으로 분류하였음
- 개인 자원은 태도, 의지, 역량, 대처자원 측정 가능 문항으로 구성
 - 긍정적 성격(태도)
 - 나의 위기 극복 의지와 열정
 - 나의 위기 대처 역량(지식/기술)
 - 나의 위기 대처 자원(재정능력)
- 가족 자원은 위기 극복력, 복원력, 회복력, 유연성(적응력) 측정 문항으로 구성
 - 가족들이 위기에 적응하고 극복한 경험과 추진력
 - 위기 발생 시 가족 간의 유대감(친밀감)
 - 손상 회복을 돕는 가족원 간의 협력과 지지
 - 생활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는 능력
- 사적 자원은 가족, 친구, 지역, 직장 네트워크 측정 문항으로 구성
 - 가족이외 도와줄 수 있는 친척들
 - 가족이외 도와줄 수 있는 친구들
 - 가족이외 도와줄 수 있는 이웃들
 - 도움을 줄 동호회나 종교적 모임, 직장 동료들
- 민간/공적 자원은 지역자원, 민간 자원, 공적 자원, 공적 인프라로 구분
 - 지역사회 공동체 활동이나 봉사 모임들
 - 자선단체, 시민단체의 도움
 - 정부 및 지자체 지원(보조금, 물품, 서비스 등)

- 지원(경찰, 소방, 교육청)

3) 가족서비스 지원 및 연계 수요도 측정 예비문항

- 지원 및 연계 수요도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으로, 물적 자원, 인적 자원, 사회 자본 요인으로 구분하여 문항을 구성하였음
- 물적 자원 요인은 동산, 현물/차량, 부동산 요인으로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문항을 구성함
 - 동산: 생활비의 부족, 빚이나 부채 사채, 금전적 여유(저축, 예금, 투자, 껌돈 등) 없음
 - 현물/차량: 가정 설비(가전기기, 냉난방용품 등)나 차량 등의 물품 부족
 - 부동산: 의식주 생활 상태의 불안정
- 인적자원 요인은 시간 자원, 정보획득력, 가족지지, 가족탄력성(가족역량) 요인으로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문항을 구성함
 - 시간 자원 : 항상 시간에 쫓김, 가족이 함께 하는 시간의 부족, 집안일 처리 시간 부족
 - 정보획득력: 정보를 얻는데 어려움이 있음. 세상 돌아가는 사정에 어두움, 가족들의 생활 파악을 잘 못함
 - 가족지지: 가족간 의지, 가족간 상호 존중, 문제 해결을 위한 가족의 협력
 - 가족 탄력성(역량) : 가족의 지식이나 경험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 가족의 상황 통제 어려움, 막다른 골목에 와 있다는 생각
- 사회자본 요인은 관계와 네트워크 요인 문항으로 구성함
 - 고립 : 교류하는 이웃이 없음. 주변에 도움을 줄 사람이 없음
 - 관계의 멀어짐 :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과 멀어짐
 - 가족 간 상호 무관심

Ⅲ. 측정도구의 적정성 검토

1. 적절성 검토 절차

- 개발을 위해 구성된 예비문항의 적정성 조사는 동일 전문가 집단에게 2차례 걸쳐 1차 정량, 2차 정성 평가를 실시함
- 1차 평가에서는 가족위기 수준 측정을 위한 기본 틀과 문항 전반에 대한 타당성과 적정성을, 2차 평가에서는 1차 의견이 반영되어 조정된 문항에 대한 타당성과 적정성을 평가함
 - (1 조사) 1 조사는 개발된 문항 체계에 근거하여 문항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5점 리커트 척도로 조사
 - 문항 체계의 및 적정성 분석
 - 타당성: 가족위기 수준 및 자원과 관련하여 세부 지표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평가의 가능성과 적절성 여부(1: 평가불가 2: 평가어려움 3: 검토가능 4: 평가가능 5: 매우 적절)
 - 적정성: 가족위기 수준 및 자원과 관련하여 세부 지표가 적절하게 조사되어 데이터 집계가 가능한지 여부(1: 적용불가 2: 적용어려움 3: 검토가능 4: 적용가능 5: 매우 적절)
 - ② 각 지표의 대·중 분류의 구성 적절성(내용분석)
 - 대분류와 중분류를 제시하여, 각 영역 해당 문항이 측정되는지를 확인함
 - 대분류와 중분류를 통해 빠진 문항이 없는지 문항 구성의 타당성과 적절성을 확인하도록 함
- (2차 조사) 2차 조사는 1차 조사의 결과를 근거로 5점 만점 척도 중 4점 이상이 나온 문항으로만 구성하되, 1차 조사에서 4점 미만인 문항의 삭제 또는 일부 전문가 집단에게서 4점 미만이 나온 경우 문항의 수정 등을 통해 1차 조정된 문항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확인함
 - ① 1차 조사에서 제공되었던 대분류와 중분류의 기준은 측정 문항 구성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기준이었으므로, 중분류 용어에 대한 의견은 측정 문항 개선에 참조하고, 2차 질문지에서는 중분류를 제시하지 않고 정성 평가를 하도록 함

- 각 측정도구의 영역별 문항 평균이 4점이 넘었다 할지라도, 학계 전문가, 정책전문가, 현장전문가들 중 한 분야 이상에서라도 4점 미만이었던 문항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추가된 문항을 평가함.
- 질문지의 응답 순서를 개인, 가족, 사회적인 질문으로 구성을 변경하고, 위기 수준 또한 심각하지 않은 위기에서 매우 심각한 수준의 위기 등으로 질문 문항의 배열을 응답자가 답하기 쉬운 순서로 재배열하였음을 확인하도록 함.
- 그 외 이용자 설문 조사시 유의할 사항에 대한 기타 정성적 평가 의견을 받음

② 가족위기 측정도구 개발 제언

2. 전문가대상 문항 적정성 조사

1) 조사 개요

- 1 조사 기간 : 2023년 7월 24일 ~ 8월 1일
- 2차 조사 기간 : 2023년 8월 4일 ~ 8월 10일
- 조사 대상 : 학계(5명), 정책(6명), 현장(4명) 전문가 15명으로 구성
- 조사내용
 - (영역) 영역 측정 예비문항을 아래와 같이 대분류, 중분류에 따라 구성된 후 각 문항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평가함
 - : 가족위기 수준과 관련하여 측정도구를 적용하는데 있어서 평가의 가능성과 적절성 여부를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 (1: 평가불가 2: 평가어려움 3: 검토가능 4: 평가가능 5: 매우 적절)
 - 적정성 : 가족위기 수준과 관련하여 세부지표가 적절하게 조사되어 데이터 집계 가능한지 여부를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 (1: 적용불가 2: 적용어려움 3: 검토가능 4: 적용가능 5: 매우 적절)
 - (가족위기 대응자원 영역) 일상적으로 위기 발생기 가족들의 위기 대처시 사용하는 자원 요인별 측정도구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함
 - 타당성 : 일상생활 가족자원 영역과 관련하여 측정도구를 적용하는데 있어서 평가의 가능성과 적절성 여부를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 (1: 평가불가 2: 평가어려움 3: 검토가능 4: 평가가능 5: 매우 적절)
 - 적정성 : 일상생활 가족자원 영역과 관련하여 세부지표가 적절하게 조사되어 데이터 집계 가능한지 여부를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 (1: 적용불가 2: 적용어려움 3: 검토가능 4: 적용가능 5: 매우 적절)

[표 3-2] 가족위기 수준 영역별 측정 예비문항

대분류	중분류	측정 예비문항
발달적 위기	신혼기	자녀나 본인의 혼인(결혼) 및 적응 문제
		임신(불임) 관련 문제
	자녀 출산 양육기	출산, 입양 관련 문제
		자녀양육 및 돌봄(영유아, 초등, 청소년) 문제
	자녀교육기	자녀의 입학과 졸업, 학교생활 적응
		부부-부모 역할 적응 관련
	자녀성인기	자녀의 진로(대학, 취업, 군입대) 및 이성교제 문제
		부부관계 재적응 문제
자녀결혼기	자녀의 결혼과 독립/새로운 가족관계 적응	
	은퇴로 인한 생활 적응(사회적/경제적축소)	
축소/소멸기	건강 및 노화에 적응, 자녀-친지와 유대유지 등	
	배우자의 사망/홀로되기의 수용	
관계적 위기	부부/ 부모-자녀간 관계	가정폭력 문제
		학대 경험
		별거, 이혼, 외도 문제
		가족 간 갈등
소통	가족 소통 부재나 어려움	
	가족과의 단절, 가족내의 고립상태	
개인적 위기	사망	자살시도나 죽음(사망) 관련 사건
	발달과업 실패	실직, 해고의 위험이나 경험
		시험, 진학이나 취업 등의 실패
	질병/중독	술이나 담배, 마약, 게임 등 중독문제
		만성질환이나 장애, 장기입원 등 건강문제
	불안/비행	소외감이나 우울 등 심리/정서적 문제
가출, 비행 문제		
폭력	(학교)폭력, 왕따 피해	
	폭력이나 범죄 발생 및 고소/고발 경험	
	성폭력 및 성범죄 피해	
가족 외적 위기	경제적 요인	경제적 어려움(파산, 부채), 불경기
	사회 불안 요인	사회적 범죄(살인 및 강도, 유괴, 사기, 폭행 등)
	전염 불안 요인	메르스나 코로나19 등 전염병 문제
	사회 재난 요인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환경오염사고 등 피해
	자연재해 요인	태풍, 홍수, 산사태, 지진 등 자연재해 피해
가족 구조적 위기	가족해화 /축소	스스로 자기 돌봄 역량의 부족 또는 지원 부재
		사회와의 단절이나 고립, 은둔 상태
	저출생 /고령화	고령세대 돌봄에 대한 부담(경제적, 신체적)
		일과 가족돌봄의 양립 곤란
가족분거 생활증가	가족분거 생활증가	이직이나 이전에 의한 관계유지의 어려움이나 새로운 관계 맺기의 어려움
		근거리 거주 가족이나 지인 부재로 인한 어려움

[3-3] 가족위기 대응자원 측정 예비문항

대분류	중분류	측정 예비문항
물적 자원	동산	매달 생활비가 부족하다.
		빚, 부채, 사채 등이 있다.
		생활비 외에 가용(용통)할 금전적 여유가 없다(저축, 예금, 투자, 갯돈 등)
	현물/차량	가정 설비(가전기기, 냉난방용품 등)나 차량등의 물품이 부족하다
	부동산	의식주생활 상태가 불안정하다.
인적 자원	시간 자원	항상 시간에 쫓긴다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하다
		집안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정보 획득력	위기 시에 내가 얻는 정보에는 한계가 있다
		세상 돌아가는 사정을 잘 모른다.
		가족들의 생활을 파악하기 어렵다.
	가족 지지	우리 가족은 힘들 때 서로 의지가 된다.
		우리 가족은 서로를 존중한다
		우리 가족은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편이다
	가족 탄력성 (가족역량)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다
우리 가족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우리 가족은 막다른 골목에 와 있는 것 같다.		
사회 자본	관계와 네트워크	우리 가족만 사회에서 고립되어 있다.
		전에 잘 지내던 사람들과 관계가 멀어졌다.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무관심하다.

- (서비스 지원 및 연계 수요 측정 요인) 발생시 가족 서비스 지원과 연계가 필요한 영역을 파악하는 측정도구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함

- : 일상생활 가족자원 영역과 관련하여 측정도구를 적용하는데 있어서 평가의 가능성과 적절성 여부를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 (1: 평가불가 2: 평가어려움 3: 검토가능 4: 평가가능 5: 매우 적절)

- : 일상생활 가족자원 영역과 관련하여 세부지표가 적절하게 조사되어 데이터 집계 가능한지 여부를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 (1: 적용불가 2: 적용어려움 3: 검토가능 4: 적용가능 5: 매우 적절)

[3-4] 가족서비스 지원 및 연계 수요 측정 예비문항

대분류	중분류	측정 예비 문항
개인 자원	태도	나의 긍정적 성격(태도)
	의지	나의 위기 극복 의지와 열정
	지식	나의 위기 대처 역량(지식/기술)
	물적자원	나의 위기 대처 자원(재정능력)
가족 자원	극복력	가족들이 위기에 적응하고 극복한 경험과 추진력
	복원력	위기 발생시 가족간의 유대감(친밀감)
	회복력	손상 회복을 돕는 가족원간의 협력과 지지
	유연성	생활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는 능력
사적 자원	가족네트워크	가족이외 도와줄 수 있는 친척들
	친구네트워크	가족이외 도와줄 수 있는 친구들
	지역네트워크	가족이외 도와줄 수 있는 이웃들
	직장네트워크	도움을 줄 동호회나 종교적 모임, 직장 동료들
민간/ 공적 자원	지역자원	지역사회 공동체 활동이나 봉사 모임들
	민간자원	자선단체, 시민단체의 도움
	공적서비스	정부및 지자체지원(보조금, 물품, 서비스 등)
	공적인프라	공공기관 지원(경찰, 소방, 교육청)

2) 1차 적정성 조사 결과

- 측정도구의 세 개 영역, 가족위기 유형별 측정도구, 가족위기 대응자원 측정도구, 가족서비스 지원 및 연계 수요 측정도구 5점 리커트 형 척도로 평가한 결과 모두 4점 이상으로 전체 평균값으로 보았을 때, 전체 문항의 타당성과 적정성 적합한 것으로 평가됨.
 - , 타당성 평균값은 가족위기 유형> 가족위기 대응자원> 가족서비스 지원 및 연계 수요 측정 문항 순이었으며, 적정성 평균값은 가족위기 대응자원 측정 문항>가족위기 대응자원 측정 문항> 가족위기 유형별 측정 문항 순으로 이었음.
 - 전문가 집단은 타당성과 적정성 모두 학계 전문가 집단의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가족서비스 지원 및 연계 수요 측정 문항은 4점 미만(타당성 3.66, 적정성 3.67)임

[3-5] 가족위기 측정도구 예비문항 타당성과 적정성 1차 평가 결과

가족위기 측정 예비 도구	타당성				적정성			
	학계	정책	현장	평균	학계	정책	현장	평균
가족위기 유형별 측정 문항	4.12	4.54	4.78	4.48	4.04	4.39	4.78	4.40
가족위기 대응자원 측정 문항	4.13	4.59	4.72	4.47	4.15	4.74	4.53	4.47
가족서비스 지원 및 연계 수요 측정 문항	3.66	4.15	4.59	4.13	3.67	4.3	4.4	4.12
계	3.97	4.43	4.70	4.36	3.95	4.48	4.57	4.33

- 그러나, 세 개 측정도구 세부 문항별 평균값과 전문가 집단별 평가 평균값을 비교하여, 세부 문항 조정을 통해 문항을 개선하고자 각 측정도구별 세부 항목 점수를 비교함

□ 가족위기 유형별 측정도구

- 유형별 측정 예비문항의 타당성과 적정성에 대한 5점 척도에 의한 정량 평가 결과 모든 문항의 평균이 4점 이상으로 평가됨

[표 3-6] 가족위기 유형별 측정 예비문항의 타당성과 적정성

가족위기 유형별 측정 예비문항	타 당 성			문항별 평균	적 정 성			문항별 평균
	학계	정책	현장		학계	정책	현장	
자녀나 본인의 혼인(결혼) 및 적응 문제	3.4	4.2	4.75	4.07	3.8	4.4	5.0	4.36
임신(불임) 관련 문제	3.6	4.6	4.25	4.14	3.4	4.6	4.5	4.14
출산, 입양 관련 문제	3.8	4.6	4.25	4.21	3.4	4.6	4.5	4.14
자녀양육 및 돌봄(영유아, 초등, 청소년) 문제	4.2	5.0	4.75	4.64	3.6	4.6	4.75	4.26
자녀의 입학과 졸업, 학교생활 적응	4.2	4.2	4.75	4.36	3.8	4.4	5.0	4.36
부부-부모 역할 적응 관련	3.8	4.0	4.75	4.14	3.6	4.2	4.75	4.14
자녀의 진로(대학, 취업, 군입대) 및 이성교제 문제	4.0	4.4	4.25	4.21	4.0	4.6	4.50	4.36
부부관계 재적응 문제	4.0	4.2	4.5	4.21	4.0	4.4	4.75	4.36
자녀의 결혼과 독립/새로운 가족관계 적응	3.8	4.2	5.0	4.29	3.8	4.4	5.0	4.36
은퇴로 인한 생활 적응(사회적/경제적축소)	5.0	4.6	5.0	4.56	4.6	4.6	5.0	4.71
건강 및 노화에 적응, 자녀-친지와 유대유지 등	4.6	4.8	4.75	4.71	4.2	4.6	5.0	4.57
배우자의 사망/홀로되기의 수용	4.6	4.8	4.75	4.71	4.6	4.4	5.0	4.64
가정폭력 문제	3.4	5.0	5.0	4.43	3.4	4.4	5.0	4.21
학대 경험	2.8	5.0	5.0	4.21	3.0	4.2	5.0	4.0
별거, 이혼, 외도 문제	3.2	5.0	5.0	4.36	3.2	4.4	5.0	4.14
가족 간 갈등	3.6	4.2	4.75	4.14	3.8	4.4	5.0	4.36
가족 소통 부재나 어려움	3.6	4.8	5.0	4.43	3.6	4.8	5.0	4.42
가족과의 단절, 가족내의 고립상태	3.6	5.0	4.75	4.43	3.6	4.4	5.0	4.29

가족위기 유형별 측정 예비문항	타 당 성			문항별 평균	적 정 성			문항별 평균
	학계	정책	현장		학계	정책	현장	
자살시도나 죽음(사망) 관련 사건	4.4	4.2	5.0	4.20	4.2	4.0	4.75	4.29
실직, 해고의 위험이나 경험	4.6	4.4	4.75	4.57	4.6	4.0	4.5	4.36
시험, 진학이나 취업 등의 실패	4.4	4.2	4.75	4.43	4.4	4.0	4.5	4.29
술이나 담배, 마약, 게임 등 중독문제	4.4	4.8	5.0	4.71	4.2	4.0	4.75	4.29
만성질환이나 장애, 장기입원 등 건강문제	4.4	4.2	5.0	4.5	4.2	4.4	4.75	4.43
소외감이나 우울 등 심리/정서적 문제	4.8	4.6	4.75	4.71	4.4	4.2	4.5	4.36
가출, 비행 문제	4.6	4.4	4.75	4.57	4.0	4.4	4.5	4.29
(학교)폭력, 왕따 피해	4.2	4.4	5.0	4.50	4.0	4.0	4.75	4.11
폭력이나 범죄 발생 및 고소/고발 경험	4.0	4.0	4.75	4.21	4.0	3.8	4.25	4.00
성폭력 및 성범죄 피해	4.0	4.4	4.75	4.36	4.2	4.0	4.5	4.21
경제적 어려움(파산, 부채), 불경기	4.6	4.8	5.0	4.79	4.6	4.4	5.0	4.64
사회적 범죄(살인 및 강도, 유괴, 사기, 폭행 등)	4.6	4.8	4.75	4.71	4.2	4.4	5.0	4.50
메르스나 코로나19 등 전염병 문제	5.0	4.8	4.5	4.79	4.6	4.8	4.25	4.57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환경오염사고 등 피해	4.4	4.8	5.0	4.71	4.6	4.8	5.0	4.79
태풍, 홍수, 산사태, 지진 등 자연재해 피해	4.6	4.8	4.75	4.71	4.6	4.8	4.75	4.71
스스로 자기 돌봄 역량의 부족 또는 지원 부재	3.6	4.2	4.5	4.07	3.6	4.0	4.5	4.0
사회와의 단절이나 고립, 은둔 상태	4.8	4.8	4.5	4.71	5.0	4.2	4.5	4.57
고령세대 돌봄에 대한 부담(경제적, 신체적)	4.8	4.8	4.75	4.79	4.6	4.0	4.75	4.64
일과 가족돌봄의 양립 곤란	3.8	4.8	5.0	4.50	4.6	4.8	5.0	4.79
이직이나 이전에 의한 관계유지의 어려움이나 새로운 관계 맺기의 어려움	3.6	4.2	5.0	4.21	4.0	4.6	5.0	4.50
근거리 거주 가족이나 지인 부재로 인한 어려움	3.8	4.0	5.0	4.21	3.8	4.6	5.0	4.43
전체 평균	학계	정책	현장	4.48	학계	정책	현장	4.40
	4.12	4.54	4.78		4.04	4.39	4.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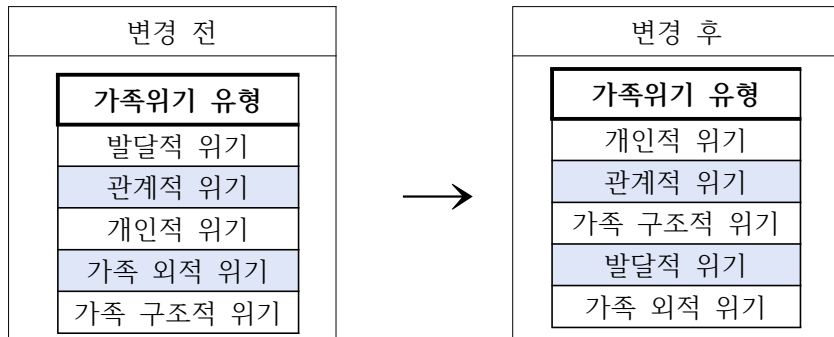
-
- 5 리커트 척도에서 중간 점수인 3점을 기준으로 해서 4점이 넘는 문항에 대해서는 타당성과 적정성 있는 문항이라고 판단함.
 - 가족위기 유형별 측정도구의 전체 평균은 타당성 4.48, 적정성 4.40점으로 가족위기 유형 측정도구의 모든 문항이 타당하고 적정한 것으로 나타남.
 - 타당성의 평균값이 가장 높게 나타난 문항(고령 세대 돌봄에 대한 부담)의 값은 4.79점이었으며, 가장 낮은 값의 문항(자녀나 본인의 혼인 및 적응 문제)은 4.07점으로 나타남. 가장 타당도가 낮았던 문항은 응답자가 자녀인지 부모인지에 따라 응답과 해석이 달라질 여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문항별 적정성의 평균값이 가장 높게 나타난 문항의 값은 4.79점으로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환경오염 사고 등 피해' 문항과 일과 가족 돌봄의 양립 곤란'이 가장 측정하기 적절한 문항으로 나타남. 반면 스스로 자기 돌봄 역량의 부족 또는 지원 부재는 4.0점으로 문항별 가장 낮은 평균값을 나타냈으며 이는 한 항목에서 두 개 질문이 포함된 데 따른 문제로 확인됨
 - 그 외 적정성 평가 점수가 4.0으로 낮게 나타난 또 다른 문항은 학대 경험, 폭력이나 범죄 발생 및 고소/고발 경험으로 유사 항목의 중복 측정 문제가 확인됨
 - 가족 외적 위기 유형 문항을 제외하고 개인적 위기, 관계적 위기, 가족 구조적 위기, 발달적 위기 유형 모두 학계 전문가는 세 집단 중 유일하게 문항별 4.0미만의 평균값을 나타낸 문항들이 확인됨. 학계 전문가들의 문항에 대한 기술 의견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 대분류, 중분류, 문항간의 논리적 연계성이나 용어 정의에 대한 의견으로 1차 문항 조정에 반영함
 - 1차 전문가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2차 조사지를 다음과 같이 조정함
 - 일부 전문영역별 4점 미만을 받은 항목에 대해 문항의 조정 또는 삭제, 유지를 검토한 결과, 학계 쪽에서 중분류 영역의 용어와 맞지 않는 측정도구에 대한 의견이 주로 나타났으며, 정책전문가와 현장전문가들의 측정도구에 대한 타당성과 적정성을 살펴본 결과 1개 문항(폭력이나 범죄 발생 및 고소/고발 경험)을 제외하고 모두 4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학계전문가가 의견을 준 중분류 영역 용어는, 문항 구성의 기준으로 삼는데 필요한 것이었으므로, 2차 전문가 조사지에서는 제외하고, 중복 유사 문제 배제, 응답자의 가족원으로서의 위치가 포함되지 않는 중립적 표현 등 문항을 조정함.
 - 발달적 위기 문항을 구성할 때,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응답 가능한 항목이 되도록 하고, 그 외 유사한 문항의 통합, 위기나 어려움이 특정되는 용어를 사용한 간략한 표현 방향으로 21개 문항으로 조정함

[표 3-7] 가족위기 유형별 측정예비 도구 1차 조정 결과

예비문항	1차 조정 문항	비고
실직, 해고의 위험이나 경험	실직과 해고	조정
시험, 진학이나 취업 등의 실패	시험, 진학, 취업의 실패	조정
소외감이나 우울 등 심리/정서적 문제	소외감, 우울, 불안	조정
폭력이나 범죄 발생 및 고소/고발 경험	범죄, 폭력(행), 고소/고발 경험	조정
가족 소통 부재나 어려움	가족 소통 부재	조정
가족과의 단절, 가족내의 고립상태	가족 내 고립, 단절(은둔형 외톨이)	조정
학대 경험	가정폭력문제 (학대, 방임 포함)	조정
가정폭력문제		
별거, 이혼, 외도 문제	별거, 이혼, 재혼	조정
스스로 자기 돌봄 역량의 부족 또는 지원 부재	일상생활 유지 관리의 어려움	조정
고령 세대 돌봄에 대한 부담 (경제적, 신체적)	고령 세대 부양·돌봄 부담 (경제적, 신체적)	조정
일과 가족돌봄의 양립 곤란	일, 가정 양립의 어려움	조정
자녀나 본인의 혼인(결혼) 및 적응 문제	결혼 및 적응 문제	조정
임신(불임), 관련 문제	임신, 난임, 유산 관련 문제	조정
자녀 양육 및 돌봄(영유아, 초등) 문제	자녀 양육 및 돌봄 문제	조정
자녀의 입학과 졸업, 학교생활 적응	자녀의 진학과 학업 문제	조정
부부-부모 역할 적응 관련	부부-부모 역할 적응 문제	조정
자녀의 진로(대학, 취업, 군입대) 및 이성교제 문제	진로 및 이성교제 문제	조정
자녀의 결혼과 독립/새로운 가족관계 적응	자녀의 결혼과 독립 관련 문제	조정
은퇴로 인한 생활 적응(사회적/경제적축소)	은퇴로 인한 생활 적응 관련 문제	조정
건강 및 노화에 적응, 자녀-친지와 유대유지 등	건강 및 노화 적응 관련 문제	조정
배우자의 사망/홀로되기의 수용	배우자의 사망/홀로되기의 수용 관련 문제	조정

- 중복의 지적과 위기 영역에 대한 모호함을 지적받은 경제적 어려움(파산, 부채) 문항은 가족 외적 위기 영역에서 개인적 위기 영역으로 이동하여 추가되고, 가족 외적 위기 영역 내 경제적 어려움(파산, 부채), 불경기 문항 중 불경기 내용만 남김.
- 외도 등의 부부 갈등은 이혼이나 별거와 구별하여 별도 문항 구성이 적절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별거, 이혼, 외도문제라는 문항을 별거, 이혼 문항과 부부 갈등(외동 등)의 문항으로 분리하여 1개 문항이 추가됨
- 이외, 전문가들이 각 영역별 문항 수가 다른 데 따른 위기 측정 수준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이용자 대상 위기 측정 각 문항에 대한 해당 유무를 묻는 문항을 삽입하여, 영역별 문항 수와 상관없이 '해당'이라 표시한 항목 수로 나눈 위기 수준 평균값 계산 필요하므로, 이용자 질문지 구성할 때 반영하기로 함.
- 전문가 제안에 따라, 영역별 문항 순서도 개인적인 영역을 먼저 응답하게 구성하고, 가족 외적 위기 영역을 마지막에 응답하도록 조정함.

[3-5] 가족위기 유형 측정도구 배열 변경 전 후 비교



□ 가족위기 대응자원 측정도구

- 대응자원 요인별 측정 예비 도구의 타당성 및 적정성
 - 5점 리커트 척도에서 중간 점수인 3점을 기준으로 해서 4점이 넘는 문항에 대해서는 타당성과 적정성 있는 문항이라고 봄

- 대응자원 요인의 타당성 평균값은 4.47, 적정성 평균값은 4.47로 나타났으며, 타당성은 문항별 평균값이 4.21~4.79 사이였으며, 적정성은 문항별 평균값이 4.25~4.71로 나타남
- 전문가 집단별 평균을 살펴보면, 가족위기 대응자원 요인 문항의 적정성 평균값은 현장 전문가(4.72)>정책 전문가(4.59)> 학계 전문가(4.13)순이었으며, 타당성 평균값은 정책 전문가(4.74)> 현장 전문가(4.53)>학계 전문가(4.15)순으로 확인됨
- 그러나, 이 항목에서도 학계 전문가 집단에서만 타당성과 적정성에서 둘 중 하나라도 4점 미만을 받은 항목 5개가 확인됨
 - 위기 대처 자원(재정능력)
 - 가족들이 위기에 적응하고 극복한 경험과 추진력
 - 위기 시 가족 간 유대감(친밀감)
 - 손상 회복을 돕는 가족원 간 협력과 지지
 - 생활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는 능력
- 학계전문가들 의견을 살펴본 결과 학계 전문가의 가족 자원영역 측정도구의 타당성과 적정성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부분에 있어, 중분류 영역 용어와 문항 간 관련성에 대한 의견이 많았음. 추후 분류는 문항 요인 분석을 통해 문항 내 요인값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정성적 의견으로 사적자원 내 지역네트워크와 민간/공적 자원 요인과 지역 자원간 중복성이 지적됨에 따라, 지역과 직장 네트워크 관련 중분류 용어를 이웃과 직장네트워크로 기준을 삼아 직장 동료만 남기는 것으로 조정
- 민간/공적 자원의 중분류 용어 조정에 맞춰 활용 가능성이 높은 복지관(시설), 가족센터, 상담(트라우마)센터 문항을 추가함

[표 3-8] 가족위기 대응자원 요인별 측정도구의 타당성과 적정성

가족위기 대응자원 측정 예비문항	타 당 성			타당성 평균	적 정 성			적정성 평균
	학계	정책	현장		학계	정책	현장	
나의 긍정적 성격(태도)	4.2	4.6	4.5	4.43	4.0	4.8	4.25	4.36
나의 위기 극복 의지와 열정	4.0	4.6	4.5	4.36	4.0	4.8	4.25	4.36
나의 위기 대처 역량(지식/기술)	4.2	4.6	4.5	4.43	4.0	4.8	4.5	4.43
나의 위기 대처 자원(재정능력)	3.6	4.4	4.75	4.21	3.8	4.8	4.5	4.36
가족들이 위기에 적응하고 극복한 경험과 추진력	3.4	4.2	4.75	4.07	3.2	4.8	4.5	4.14
위기 발생시 가족간의 유대감(친밀감)	3.6	4.8	4.5	4.29	3.2	4.8	4.25	4.07
손상 회복을 돕는 가족원간의 협력과 지지	3.4	4.8	4.5	4.21	3.2	4.8	4.25	4.07
생활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는 능력	4.0	4.6	4.75	4.43	3.8	4.8	4.5	4.36
가족이외 도와줄 수 있는 친척들	4.2	4.8	5.0	4.64	4.6	4.8	4.75	4.71
가족이외 도와줄 수 있는 친구들	4.2	4.8	5.0	4.64	4.6	4.8	4.75	4.71
가족이외 도와줄 수 있는 이웃들	4.2	4.8	5.0	4.64	4.6	4.8	4.75	4.71
도움을 줄 동호회나 종교적 모임, 직장 동료들	4.2	4.8	4.75	4.57	4.2	4.8	4.5	4.5
지역사회 공동체 활동이나 봉사 모임들	4.8	4.0	4.75	4.5	4.8	4.6	4.5	4.64
자선단체, 시민단체의 도움	4.4	4.2	4.75	4.43	4.8	4.6	4.75	4.71
정부및 지자체지원(보조금, 물품, 서비스 등)	4.8	4.6	4.75	4.71	4.8	4.4	4.75	4.64
공공기관 지원(경찰, 소방, 교육청)	4.8	4.8	4.75	4.79	4.8	4.6	4.75	4.71
전체 평균	학계	정책	현장	4.47	학계	정책	현장	4.47
	4.13	4.59	4.72		4.15	4.74	4.53	

[3-9] 가족위기 대응자원 요인 측정 1차 조정 문항

예비문항	1차 조정 문항	비고
도움을 줄 동호회나 종교적 모임, 직장 동료들	도움을 줄 직장 동료들	조정
지역사회 공동체 활동이나 봉사 모임들	지역사회 공동체 활동이나 봉사 단체	조정
자선단체, 시민단체의 도움	자선단체, 시민단체, 복지관(시설)	조정
	가족센터, 상담(트라우마)센터	추가

□ 가족서비스 지원 및 연계 수요 측정도구

- 가족서비스 지원 및 연계 수요와 관련된 가족의 취약 자원을 확인하여, 서비스 연계 영역을 살피기 위한 측정 예비 도구의 타당성 및 적정성 문항은 타당성 4.13, 적정성 4.12로 나타남
 - 문항별 타당성 평균값은 3.14~4.43사이였으며, 적정성 평균값은 3.43~4.5 사이로 나타났음.

[3-10] 가족서비스 지원 및 연계 수요 요인별 측정 예비문항의 타당성과 적정성

가족서비스 지원 및 연계 수요 측정 예비문항	타 당 성			타당성 평균	적 정 성			적정성 평균
	학계	정책	현장		학계	정책	현장	
매달 생활비가 부족하다.	4.6	3.6	4.5	4.21	4.8	3.8	4.25	4.28
빚, 부채, 사채 등이 있다.	3.8	4.4	4.75	4.29	4.2	4.6	4.75	4.50
생활비 외에 금전적 여유가 없다	3.6	4.2	4.75	4.14	4.2	4.4	4.75	4.43
가정 설비(가전기기, 냉난방용품 등)나 차량등의 물품이 부족하다	3.8	3.6	4.25	3.86	4.2	4.0	4.0	4.07
의식주생활 상태가 불안정하다.	2.2	3.4	4.0	3.14	2.8	3.6	4.0	3.43
항상 시간에 쫓긴다	4.4	4.0	4.25	4.21	4.4	3.8	4.0	4.07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하다	3.4	4.4	4.75	4.14	3.2	4.6	4.5	4.07
집안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4.0	4.2	4.75	4.29	3.6	4.0	4.5	4.0
위기 시에 내가 얻는 정보에는 한계가 있다	4.0	3.6	4.75	4.07	3.4	3.6	4.75	3.86
세상 돌아가는 사정을 잘 모른다.	3.6	4.0	4.5	4.0	3.2	4.2	4.75	4.0
가족들의 생활을 파악하기 어렵다.	2.8	4.0	4.5	3.7	2.6	4.2	4.25	3.64
우리 가족은 힘들 때 서로 의지가 된다.	4.0	4.6	4.75	4.43	4.0	4.8	4.5	4.43
우리 가족은 서로를 존중한다	4.0	4.6	4.75	4.43	4.0	4.8	4.75	4.5
우리 가족은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편이다	4.0	4.4	4.75	4.36	4.0	4.8	4.75	4.5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다	3.8	4.2	4.5	4.14	3.2	4.2	4.25	3.86
우리 가족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없다	3.6	4.2	4.5	4.07	3.4	4.4	3.75	3.86
우리 가족은 막다른 골목에 와 있는 것 같다.	3.0	4.8	4.5	4.07	2.8	4.6	3.75	3.71
우리 가족만 사회에서 고립되어 있다.	3.6	4.4	4.75	4.21	4.0	4.6	4.75	4.43
전에 잘 지내던 사람들과 관계가 멀어졌다.	3.8	4.0	4.75	4.14	4.0	4.6	4.75	4.43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무관심하다.	3.2	4.4	4.75	4.07	3.4	4.4	4.25	4.0
전체 평균	학계	정책	현장	4.13	학계	정책	현장	4.12
	3.66	4.15	4.59		3.67	4.3	4.4	

- 문항중 타당성과 적정성의 평균값이 4점 미만으로 나타난 문항은 7개 문항으로 이 중 타당성도 4점 미만인 두 개 문항은 측정 문항 조정시 삭제가 필요함.
 - 설비(가전기기, 냉난방용품 등)나 차량 등의 물품이 부족하다(타당성 3.86)
 - 의식주 생활 상태가 불안정하다. (타당성 3.14, 적정성 3.43)
 - 위기 시에 내가 얻는 정보에는 한계가 있다(적정성 3.86)
 - 가족들의 생활을 파악하기 어렵다. (타당성 3.7, 적정성 3.64)
 -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다(적정성 3.86)
 - 우리 가족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없다(적정성 3.86)
 - 우리 가족은 막다른 골목에 와 있는 것 같다.(적정성 3.71)
- 가족서비스 지원 및 연계 수요 측정문항의 전체 타당성과 적정성 평균값은 4점 이상으로 나타났으나, 학계전문가로 부터만 4점 미만을 받은 문항은 아래와 같음
 - 빛, 부채, 사채 등이 있다.
 - 생활비 외에 가용
 - 우리 가족만 사회에서 고립되어 있다.
 - 전에 잘 지내던 사람들과 관계가 멀어졌다.
 -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무관심하다
- 5점 리커트 척도에서 중간 점수인 3점을 기준으로 해서 4점이 넘지 않는 문항의 조정 또는 삭제 검토.
- 삭제한 5개 문항은 아래와 같음
 -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다
 - 우리 가족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없다
 - 우리 가족은 막다른 골목에 와 있는 것 같다.
 -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무관심하다.
 - 우리 가족만 사회에서 고립되어 있다.
- 추가한 문항은 사회자본 영역에 2개 문항이 추가됨
 - 주변에 교류하는 이웃이 없다.
 - 주변에 도움을 청할 사람이나 기관이 없다

－ 조정한 문항 5개 항목으로 아래와 같음

[3-11] 가족서비스 지원 및 연계 수요 요인 측정 1차 조정 문항

예비문항	1차 조정 문항	비고
생활비 외에 가용(용통)할 금전적 여유가 없다 (저축, 예금, 투자, 깃돈 등)	매달 생활비가 부족하다.	조정
가정 설비(가전기기, 냉난방용품 등)나 차량등의 물품이 부족하다	냉난방등의 가정설비가 열악하다	조정
의식주생활 상태가 불안정하다.	주거 상태가 불안정하다(전세, 월세)	조정
위기 시에 내가 얻는 정보에는 한계가 있다	위기시 어디에서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모르겠다.	조정
가족들의 생활을 파악하기 어렵다.	새로운 정보나 기술에 접근하는 게 어렵다 (키오스크, Chat GPT, Being, 인터넷, 모바일 접속 등)	조정

3) 2차 적정성 조사 결과

- 2 전문가 조사지는 1차 전문가 의견조사에서 측정도구별 문항의 타당성 및 적정성 평가를 통해, 5점 척도에서 평균 4점 이상의 문항들은 타당하고 측정하기에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정성적인 의견들을 반영하여, 측정 문항을 일부 조정, 삭제, 영역 이동, 대체 문항 추가를 하여 완성함
- 전체적으로 1차 조사 때에 비해 문항의 내용이 명확하게 개선되었다고 평가됨
 - “ 변경하면서 각 항목별로 훨씬 더 내용이 명확해 졌습니다. ”
 - “이 척도들을 현장에서 활용하면 각 개인 또는 가족이 갖고 있는 위기 수준을 보다 명확하게 측정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가족센터가 접근해야 하는 방식도 보다 구체적으로 수립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 “기존의 중분류는 삭제하신 건가요? 오히려 명확하게 정리된 느낌이 들어서 더 나은 것 같습니다.”
 - 또한 전체적으로 이용자 조사지 문항 서술 관련 제안 의견이 나와 시범조사 설문지 문항 구성시 의견 검토후 반영 필요
 - “문항을 전반적으로 응답자의 입장에서 검토를 한번 하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각 문항의 주어가 명확한가? 주어가 생략되었다면 생략된 주어는 응답자가 맞는가? 각 문항의 톤이 비슷한가?각 문항이 연구진이 의도하지 않은 바로 해석되는 부분은 없는가?(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한 내용 추가)”
 - “응답지의 구성에 따라 척도의 타당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응답지 구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미 검토를 끝내셨을지도 모르지만, 척도 개발 시 응답지 형식에 따라 척도가 측정하려고 하는 것을 더 잘 또는 제대로 측정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예/ 아니오, 3점 평정, 5점 평정, 중분류에 따라 응답지 형식이 달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가족센터에서 가족지원 수요측정을 위한 조사지로 사용한다면 평가3 항목의 위기 시 지원이 필요한 가족지원 영역을 인적, 시간, 물적, 사회자본 순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센터가 지원가능한 순서에 가깝도록 배치하면 좋겠습니다”

□ 가족위기 유형별 측정도구

- 평가항목 3개는 가족위기 유형별 위기점수 측정 문항, 가족위기 대응자원 측정 문항, 가족서비스 지원 및 연계 필요 측정 문항이었으며, 3개 평가항목 모두 변경 전, 변경 후에 대한 조정, 추가, 삭제에 의한 문항 변동 사항을 표기하고, 전문가들에게 이에 대한 의견을 기술하도록 하였음. 이때 전문가들이 기술한 내용에 비추어 측정도구가 1차 조사 때보다 개선되었음을 확인함
 - 1 조사 때 가족위기 유형, 위기 대응 가족 자원 요인, 가족 서비스 지원 및 연계 요인 등에 대한 문항이 이미 평균 4.0 이상인 문항들에 대한 일부 개선, 또는 평균 4.0미만인 문항에 대한 삭제나 조정된 문항들로 구성된 2차 조사 문항에 대해 전체적인 개선이 확인되었음
 - “ 위기 영역의 ‘경제적 어려움(파산, 부채)’ 문항 좋습니다”
 - “다양한 측면에서 가족위기를 파악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잘 구성된 것 같습니다”
 - “다시 변경하면서 각 항목별로 훨씬 더 내용이 명확해졌습니다. 이 척도들을 현장에서 활용하면 각 개인 또는 가족이 갖는 위기 수준을 보다 명확하게 측정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기존의 중분류는 삭제하신 건가요? 오히려 명확하게 정리된 느낌이 들어서 더 나은 것 같습니다.”
 - “변경 전보다 변경 후 조정 또는 추가 문항들 역시 좋습니다.”
- 가족위기 수준 측정도구는 변경 전, 변경 후에 대한 조정, 추가, 삭제 등의 문항 변동사항은 아래와 같음

[3-12] 가족위기 유형별 수준 측정 1차 조정 문항

영역	1차 조정 문항	비고
개인적 위기 (10→ 11문항)	실직과 해고	조정
	경제적 어려움(파산, 부채)	추가
	시험, 진학, 취업의 실패	조정
	술, 담배, 마약, 게임 등 중독 문제	
	만성질환, 장애, 장기입원 등 건강 문제	
	소외감, 우울, 불안	조정
	가출, 비행 문제	
	학교폭력, 왕따 피해	
	성폭력 및 성범죄 피해	
	범죄, 폭력(행), 고소/고발 경험	조정
	자살시도나 죽음(사망) 관련 사건	
관계적 위기	가족 소통 부재	조정
	가족 내 고립, 단절 (은둔형 외톨이)	조정
	가족 간 갈등	
	부부 갈등 (외도 등)	추가
	가정폭력문제 (학대, 방임 포함)	조정
	별거, 이혼, 재혼	조정
가족 구조적 위기 (6→4문항)	일상생활 유지·관리의 어려움	조정
	사회와의 단절이나 고립, 은둔 상태	
	고령 세대 부양, 돌봄 부담 (경제적, 신체적)	조정
	일, 가정 양립의 어려움	조정
발달적 위기	결혼 및 적응 문제	조정
	임신, 난임, 유산 관련 문제	조정
	출산, 입양 관련 문제	
	자녀 양육 및 돌봄 문제	조정
	자녀의 진학과 학업 문제	조정
	부부-부모 역할 적응 문제	조정
	진로 및 이성교제 문제	조정
	부부관계 재적응 문제	
	자녀의 결혼과 독립 관련 문제	조정
	은퇴로 인한 생활 적응 관련 문제	조정
	건강 및 노화 적응 관련 문제	조정
	배우자의 사망/홀로되기의 수용 관련 문제	조정
	가족 외적 위기	장기적 경기 침체, 불경기
사회적 범죄 팽배(무차별 흉기난동, 스토킹, 보이스피싱, 사이버범죄 등)		조정
메르스나 코로나19 등 전염병 문제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환경 오염 사고 등 피해		
태풍, 홍수, 산사태, 지진 등 자연재해 피해		

- 가족 내에서 개인에게 해당하는 경우인지, 가족구성원에 해당했을 때 느끼는 위기인지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본인, 자녀 유무와 상관없이 해당 문제로 인해 ‘내’가 겪는 어려움의 정도를 스스로 표기하도록 문장의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 “ 본인인지, 자녀인지 문항에서 자녀에 관한 것은 일관되게 자녀를 넣어주면 좋겠습니다.(‘진로 및 이성교제 문제’-->‘자녀의 진로 및 이성교제 문제’)”
 - “설문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 고려되어야 할 문항 있음. (발달적 위기) ‘진로 및 이성교제’: 응답자 자신의 진로는 아니므로 ‘자녀의 진로 및 연애’로 수정 필요”
 - “가족 내에서 개인에게 해당하는 경우인지, 가족구성원에 해당했을 때 느끼는 위기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 “개인적 위기 : 여기서 언급하는 개인이 “응답자 본인”만을 의미하는지, 가족구성원을 의미하는지 분명해야 함. 다른 문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여기서의 개인은 ‘가족구성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다만 가족구성원일 경우, 가구조사라면 응답이 가능하지만, 개별 응답자가 가족구성원의 경험을 모두 응답하기는 어려울 것 같음. “
 -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문항을 질문할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상에 따라 (가구주 대상 질문, 가구원 대상, 미성년 가족, 성인가족 등) 질문이 구분하는게 어떨지요? “
 - “가족의 발달적 위기 중 자녀의 내·외재적 문제(ADHD 등 질병이나 발달상의 장애나 문제) 항목을 추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계적 위기에서 추가된 부부갈등 문항에 ()부분은 내용을 더 추가하거나 빼거나 해서 인식의 정도를 외도에 한정하지 않고 다양하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별거, 이혼, 외도 문제가 마지막 문항에 있기도 하고...”

□ 가족위기 대응자원 측정도구

- 극복을 위한 나와 가족의 대응자원 측정도구는 변경 전, 변경 후에 대한 조정, 추가, 삭제 등의 문항 변동사항을 표기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기술하도록 함.
 - 1 조사 문항에 비해 자원 구분이 더 잘 이루어졌다는 긍정적인 평가 결과가 나옴
 - “ /공적자원에 새로 추가된 문항 너무 좋네요. 그리고 사적자원과 민간/공적자원이 확실하게 구분이 잘 됩니다”
 - “민간/공적 자원에서 새롭게 복지관, 가족센터, 상담센터 등이 들어간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 “ 변경 전보다 변경 후 조정 또는 추가 문항들 역시 좋습니다.”

[3-13] 가족위기 대응자원 측정 1차 조정 문항

영역	1차 조정 문항	비고
개인 자원	나의 긍정적 성격(태도)	
	나의 위기 극복 의지와 열정	
	나의 위기 대처 역량(지식/기술)	
	나의 위기 대처 자원(재정 능력)	
가족 자원	위기에 적응하고 극복한 경험과 추진력	조정
	위기 발생 시 가족 간 유대감(친밀감)	
	손상 회복을 돕는 가족원 간의 협력과 지지	
사적 자원	생활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는 능력	
	가족이외 도와줄 수 있는 친척들	
	가족이외 도와줄 수 있는 친구들	
	가족이외 도와줄 수 있는 이웃들	
민간/ 공적 자원	도움을 줄 직장 동료들	조정
	지역사회 공동체(주민자치회, 부녀회), 봉사 단체	조정
	자선단체, 시민단체	
	복지관(시설), 가족센터, 상담(트라우마)센터	추가
	정부및 지자체지원(보조금, 물품, 서비스 등)	
공공기관 지원(경찰, 소방, 교육청)		

- 2 조정시 문항 조정에 대한 의견도 아래와 같이 제시되어 시범조사 설문 문항에 반영 하여 조사 후 요인값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 , 시민단체, 복지관(시설), 가족센터, 상담센터’ 등은 같은 카테고리(범주)의 사회적 지지체계임”
- “ 따라서 추가된 문항들은 하나의 문항 내 포함되어 제시되는 것이 적절함. 또한 ‘자선단체’라는 단어는 최근 쓰이지 않는 용어이므로, 이를 삭제하고 ‘사회복지관련 기관 or 시설’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함.”
- “공공기관 지원에 학교도 포함시키면 좋을 듯 합니다.”
- “‘위기에 적응하고 극복한 경험과 추진력’ 문항의 경우, 위기에 적응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기에 적응이 매우 부정적인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어서, 위기 대처가 더 적절하지 않을까요. 대처는 개인의 주체적이고 주도적인 특성을 포함하는데, 적응은 수동적인 의미여서. 생활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는 능력--> 여기서 적응은 의미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

□ 가족서비스 지원 및 연계 수요 측정도구

- 가족서비스 지원이나 연계가 필요한 요인에 대한 측정도구도, 1차 문항과 비교하여 변경 전후 문항의 변동사항을 표기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기술하도록 함. 변경 후 제시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3-14] 가족위기 지원 수요 측정 1차 조정 문항

영역	1차 조정 문항	비고
물적 자원	매달 생활비가 부족하다.	
	빚, 부채, 사채 등이 있다.	
	생활비 외에 금전적 여유가 없다	조정
	냉난방등의 가정설비가 열악하다	조정
	주거 상태가 불안정하다(전세, 월세)	조정
시간 자원	항상 시간에 쫓긴다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하다	
	집안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인적 자원 (9->6문 항)	위기시 어디에서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모르겠다.	조정
	세상 돌아가는 사정을 잘 모른다.	
	새로운 정보나 기술에 접근하는 게 어렵다 (키오스크, Chat GPT, Being, 인터넷, 모바일 접속 등)	조정
	우리 가족은 힘들 때 서로 의지가 된다.	
	우리 가족은 서로를 존중한다	
사회 자본	우리 가족은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편이다	
	주변에 교류하는 이웃이 없다.	추가
	주변에 도움을 청할 사람이나 기관이 없다.	추가
	전에 잘 지내던 사람들과 관계가 멀어졌다.	

- 1 조사 문항에 비해 자원간 구분이 더 잘 이루어졌다는 긍정적인 평가 결과가 나옴
 - “ 삭제문항 좋습니다”
 - “조정을 통해 변경된 문항들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2차 조정시 문항 조정에 대한 의견도 아래와 같이 제시되어 시범조사 설문 문항에 반영 또는 시범조사 후 요인분석에 의한 내용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인적자원의 앞의 세 문항은 ‘인적 자원’ 보다는 ‘정보접근성’에 가까움. 굳이 여기서 나누자면 사회자본에 더 가까움”

- “ ‘ ’ 역시 수위가 맞지 않음. 사회자본 개념을 차용하려면 구분을 인적 자본, 물질 자본, 사회 자본으로 분류하는 것이 나으며, 시간 자원 등을 사용하려면 사회적 자원 정도로 사용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더 적절함. 실제 사회자본은 현행 측정문항에서 언급한 사회적 네트워크 보다는 큰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음”
- “자원은 긍정적 개념으로 여겨지는데 시간자원과 사회자본은 부정적 측면으로 문항이 서술되어 있어 긍정적으로 제시하는 것에 대한 검토 제안”
- “새로운 정보나 기술에 접근하는 게 어렵다 (키오스크, Chat GPT, Bing, 인터넷, 모바일 접속 등)=>(인터넷, 스마트폰, 키오스크 사용 등) 정도로 하면 어떨지?”
- “이 평가문항이 앞의 문항들과 어떻게 연결하여 활용될지가 매우 궁금합니다. 앞의 자원과 위기에 대한 문항을 해석하여 가족자원을 지원할 영역에 대해서 활용하는 방향이 좋을 듯 합니다.”
- “3번 “가족들의 생활을 파악하기 어렵다” 와 “새로운 정보나 기술에 접근하는게 어렵다”는 연계성이 없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항같습니다“

3. 측정도구 조정안 도출

1) 자문회의를 통해 조사 문항 점검

- 측정도구 개발을 위한 1차 조정 문항과 1, 2차 전문가 의견을 갖고 자문회의를 통해 이용자 대상 시범 조사를 실시할 2차 조정 질문지를 작성함. 이때 전체적으로 응답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재구성함.
 - 대상 시범조사 설문 문항은 2차 전문가 의견과 자문가 의견을 토대로 척도,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차 문항 조정, 가족서비스관련 질문 문항들을 검토함.
 - 이용자 거주지역 및 가족유형, 경제적 상태 문항
 - 가족위기와 일상의 어려움에 대한 경험 여부 조사 및 현재 식사, 수면 대인관계 등의 일상생활 유지의 어려움 정도를 7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
 - 위기 극복을 위한 나와 가족의 대응자원 문항은 가족위기를 극복하기에 자원이 충분한지를 7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
 - 가족센터 이용자의 경우 가족센터 이용서비스를 모두 표시하게 하여, 실제 다문화가족 서비스, 1인 가구 서비스, 한부모가족서비스, 가족희망드림 등 사례관리 서비스 이용자 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문항을 포함함
 - 위기 발생 시 가족서비스 지원이나 연계가 필요한 자원을 응답자의 생각이나 상황과 일치하는 정도를 7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함.
 - 그 외 본인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서비스를 3가지 선택하도록 하여, 조사 이후 가족센터 서비스 연계나 해석에 활용할 수 있는 문항을 추가함
 - 기타, 본인과 동거가족의 성별, 연령, 소득활동여부, 최종 학력을 기입할 수 있는 문항 추가, 월평균 소득, 경제적 안정성, 정부 지원 받는 항목, 본인에게 보호받는 돌봄 대상자 수를 묻는 문항을 통해,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함.

□ 가족위기 유형별 측정도구

- 나와 가족 중 누군가가 해당 문항의 어려움을 경험했는지의 경험 여부를 묻고, 경험이 있다면, 그 경우 내가 현재 일상생활 유지(식사, 수면, 대인관계등)의 어려움 정도를 7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구성함

[표 3-15] 가족위기 수준 측정 7점 척도

나와 가족 중 누군가는....	경험 여부		현재 일상생활 유지의 어려움 정도 (식사, 수면, 대인관계 등)						
	있다	없다	전혀 심각 하지 않다	거의 심각 하지 않다	심각 하지 않다	보통 이다	조금 심각 하다	심각 하다	매우 심각 하다

- 이렇게 함으로써, 가족이 겪는 어려움으로 인해 가족체계 내에서 가족전체 또는 어려움 당사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가족구성원으로서 ‘개인’이 겪는 어려움을 응답하도록 함
 - 겪는 개인적 위기 유형의 2차 조정안은 아래와 같이, 개인적 위기로 인한 일상 어려움을 서술하는 문장형으로 문항을 수정하였음
 - 우울 문항은 보다 가족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이나 가족원의 정신건강(치매, 정신질환, 발달장애 등) 문항과 기타 소외감, 우울, 불안 문항으로 분류함

[표 3-16] 개인적 위기 유형 2차 조정 문항

영역	1차 조정 문항	2차 조정 문항
개 인 적 위 기	실직과 해고	실직, 해고로 어려움을 느낀다.
	경제적 어려움(파산, 부채)	경제적 어려움과 부채, 신용불량, 파산 등으로 어려움을 느낀다.
	시험, 진학, 취업의 실패	시험, 진학, 취업 실패로 어려움을 느낀다.
		이전, 이직, 이사로 인한 부적응과 어려움을 느낀다.
	술, 담배, 마약, 게임 등 중독 문제	술, 담배, 마약, 게임 등 중독으로 어려움을 느낀다.
	만성질환, 장애, 장기 입원 등 건강 문제	만성질환, 신체장애, 장기 입원 등으로 어려움을 느낀다.
	소외감, 우울, 불안	정신건강(치매, 정신질환, 발달장애 등)문제로 어려움을 느낀다.
		소외감, 우울, 불안으로 어려움을 느낀다.
	가출, 비행 문제	가출, 비행으로 어려움을 느낀다.
	학교폭력, 왕따 피해	학교폭력, 왕따 피해로 어려움을 느낀다.
	성폭력 및 성범죄 피해	성폭력 및 성범죄 피해로 어려움을 느낀다.
	범죄, 폭력(행), 고소/고발 경험	범죄, 폭력(행), 고소/고발로 인해 어려움을 느낀다.
자살시도나 죽음(사망) 관련 사건	자살 시도나 죽음(사망)으로 어려움을 느낀다.	

- 가족 관계의 어려움에 대한 상황은 가족 소통 부재는 가족 내 고립, 단절을 느끼는 문항과의 중복성이 있어 삭제하고, 가족간 갈등을 조부모-부모-자녀간의 갈등으로 예시를 추가함.
- 별거, 이혼, 재혼 문항에서 '별거'를 부부 갈등 문항으로 이동함

[표 3-17] 가족 관계적 위기 유형 2차 조정 문항

영역	1차 조정 문항	2차 조정 문항
관계적 위기	가족 소통 부재	
	가족내 고립, 단절(은둔형 외톨이)	가족 내 고립, 단절(은둔형 외톨이)을 느낀다.
	가족 간 갈등	가족(조부모-부모-자녀) 간 갈등으로 힘들다.
	부부 갈등(외도 등)	부부 갈등, 외도, 별거로 힘들다
	가정폭력문제(학대, 방임 포함)	가정 폭력 (학대, 방임)으로 힘들다
	별거, 이혼, 재혼	이혼, 재혼으로 힘들다.

- 구조적 위기 유형에서는, 사회와의 단절이나 고립은 관계적 위기에서 다루어진 가족내 고립, 단절(은둔형 외톨이) 문항과 중복성이 지적되어 삭제하고, 지역 인구 및 인프라 축소 문항으로 문항 내용을 차별화함
- 고령세대 돌봄, 부양의 부담은 고령화 시대 고령자에 대한 부양 부담 이외에, 고령임에도 돌봄을 수행하게 되는 상황을 나누어 질문 문항을 구성함

[표 3-18] 가족 구조적 위기 유형 2차 조정 문항

영역	1차 조정 문항	2차 조정 문항
가족 구조적 위기	일상생활 유지·관리의 어려움	일상생활(의식주 생활)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사회와의 단절이나 고립, 은둔 상태	지역 인구 감소, 인프라(병원, 학교 등) 축소로 인해 어려움이 있다.
	고령 세대 부양, 돌봄 부담 (경제적, 신체적)	노부모 부양 (경제적, 신체적) 기간의 증가로 어려움이 있다. 손자녀 돌봄 부담(경제적, 신체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일, 가정 양립의 어려움	일, 가정 양립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 가족이 생애주기 상에서 수행하거나 겪게 되는 가족의 어려움에 대한 상황은 서술형 문장으로만 조정함
- 특히 발달적 위기에서 많이 나타났던 응답자 본인 혹은 본인이 속한 가족원의 문제에 대한 정도 표시가 아닌, 본인과 가족원의 해당 발달적 위기로 인해 본인이 느끼는 어려움만을 표시하도록 질문과 척도를 구성함

[표 3-19] 발달적 위기 유형 2차 조정 문항

영역	1차 조정 문항	2차 조정 문항
발 달 적 위 기	결혼 및 적응 문제	결혼 및 적응에 어려움이 있다
	임신, 난임, 유산 관련 문제	임신, 난임, 유산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다
	출산, 입양 관련 문제	출산, 입양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다
	자녀 양육 및 돌봄 문제	자녀 양육 및 돌봄에 어려움이 있다
	자녀의 진학과 학업 문제	자녀의 진학과 학업에 어려움이 있다
	부부-부모 역할 적응 문제	부부-부모 역할 적응에 어려움이 있다
	진로 및 이성교제 문제	진로 및 이성 교제로 인한 어려움이 있다
	부부관계 재적응 문제	부부관계 재적응에 어려움이 있다(재혼, 분거, 자녀 독립 후 빈둥지기 등)
	자녀의 결혼과 독립 관련 문제	자녀의 결혼과 독립에 어려움이 있다
	은퇴로 인한 생활 적응 관련 문제	은퇴 후 생활 적응에 어려움이 있다
	건강 및 노화 적응 관련 문제	신체적 쇠퇴 등 노화로 어려움이 있다
	배우자의 사망/홀로되기의 수용 관련 문제	배우자의 사망/홀로되기로 어려움이 있다

- 외부 환경과 요인에 의해 가족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상황은 문장으로 질문의 이해력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된 불안이 있는지를 질문하도록 조정함.

[표 3-20] 가족 외적 위기 유형 2차 조정 문항

영역	1차 조정 문항	2차 조정 문항
가족 외적 위기	장기적 경기 침체, 불경기	장기적 경기 침체, 불경기 상황으로 어려움과 불안이 있다.
	사회적 범죄 팽배 (무차별 흉기 난동, 스토킹, 보이스피싱, 사이버범죄 등)	사회적 범죄 증가(무차별 흉기 난동, 스토킹, 보이스피싱, 사이버범죄)로 어려움과 불안이 있다.
	메르스나 코로나19 등 전염병 문제	메르스나 코로나19 등 전염병으로 어려움과 불안이 있다.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환경오염 사고 등 피해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어려움과 불안이 있다.
	태풍, 홍수, 산사태, 지진 등 자연재해 피해	태풍, 홍수, 산사태, 지진 등 자연재해 피해로 어려움과 불안이 있다.

□ 가족위기 대응자원 측정도구

- 내가 가족위기를 극복하기에 갖고 있는 자원의 충분도에 대해서 7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구성함

[3-21] 가족위기 대응자원 측정 7점 척도

항목	가족위기를 극복하기에 자원이 충분하다							
	전 없 다	허 다	상 당 히 부 족 하 다	조 금 부 족 하 다	보 통 이 다	조 금 있 다	많 이 있 는 편 이다	매 우 많 다

- 대응자원에 대한 2차 조정 항목은 위기 적응이라는 용어에서 적응을 삭제하고, 직장 동료들을 문던 문항을 동호회, 종교모임, 직장동료를 포함한 문항으로 조정함
- 자선단체 보다 활동이 많은 민간시민단체로 문항을 조정함
- 공공기관 지원에 학교를 추가함. 2차 조정 문항은 다음과 같음.

[표 3-22] 가족위기 대응자원 2차 조정 문항

영역	1차 조정 문항	2차 조정 문항
가족위기대응자원	나의 긍정적 성격(태도)	나의 긍정적 성격(태도)
	나의 위기 극복 의지와 열정	나의 위기 극복 의지와 열정
	나의 위기 대처 역량(지식/기술)	나의 위기 대처 역량(지식/기술/경험)
	나의 위기 대처 자원(재정 능력)	나의 위기 대처 자원(재정 능력)
	위기에 적응하고 극복한 경험과 추진력	우리 가족의 위기 극복 경험과 추진력
	위기 발생 시 가족 간 유대감(친밀감)	가족 간 위기 발생 시 유대감(친밀감)
	손상 회복을 돕는 가족원 간의 협력과 지지	가족원 간의 손상 회복을 돕는 협력과 지지
	생활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는 능력	우리 가족의 생활 변화에의 적응력/유연성
	가족이외 도와줄 수 있는 친척들	가족 외에 도와줄 수 있는 친척들
	가족이외 도와줄 수 있는 친구들	가족 외에 도와줄 수 있는 친구들
	가족이외 도와줄 수 있는 이웃들	가족 외에 도와줄 수 있는 동네 이웃들
	도움을 줄 직장 동료들	동호회, 종교모임, 직장 동료
	지역사회 공동체(주민자치회, 부녀회), 봉사 단체	지역사회 공동체(주민자치회, 부녀회), 봉사 단체
	자선단체, 시민단체	민간시민단체(로타리, 라이온스, 재단, 후원회, 협회)
	복지관(시설), 가족센터, 상담(트라우마) 센터	복지관(시설), 가족센터, 상담(트라우마)센터
	정부및 지자체지원(보조금, 물품, 서비스 등)	정부 및 지자체지원(보조금, 물품, 서비스 등)
	공공기관 지원(경찰, 소방, 교육청)	경찰서, 소방서, 교육청, 학교

□ 가족서비스 지원 및 연계 수요 측정도구

- 지원 및 연계 수요 측정 문항은 1차 조정안을 유지하되 척도는 7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구성함

[표 3-23] 가족 서비스 지원 및 연계 수요 측정 7점 척도

항목	가족이 일상 생활하는 데 필요한 지원						
	전 그렇지 않 다	혀 그렇지 않 다	상당히 그렇지 않 다	약 간 그렇지 않 다	보 통 이 다	조 금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표 3-24] 가족서비스 지원 및 연계 수요 1차 조정안 유지 문항

1차 조정안 유지
매달 생활비가 부족하다.
빚, 부채, 사채 등이 있다.
생활비 외에 금전적 여유가 없다.
냉난방등의 가정설비가 열악하다.
주거 상태가 불안정하다(전세, 월세).
항상 시간에 쫓긴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하다.
집안일을 제대로 처리할 시간이 없다.
위기시 어디에서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모르겠다.
세상 돌아가는 사정을 잘 모른다.
새로운 정보나 기술에 접근하는 게 어렵다 (인터넷, 스마트폰, 키오스크 사용 등)
우리 가족은 힘들 때 서로 의지가 된다.
우리 가족은 서로를 존중한다.
우리 가족은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편이다.
주변에 교류하는 이웃이 없다.
주변에 도움을 청할 사람이나 기관이 없다.
전에 잘 지내던 사람들과 관계가 멀어졌다.

IV. 측정도구 시범조사와 결과

1. 조사 개요

- 2023 가족위기 조사는 가족의 위기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도구를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260명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조사되었음
- 조사방법은 가족센터의 종사자를 통해 센터 프로그램 운영 시 또는 가족센터 서비스를 이용 중인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음.

1) 조사대상자 추출 방법

- 개발된 가족위기 측정도구의 활용과 해석 결과 도출을 위해 가족센터 이용자 대상 260명에 한해 시범조사를 실시함
 - 대한 경험 여부를 기준으로 집단 간 비교 분석을 위하여 일반가족은 가족센터의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이용자 누구나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위기가족은 가족상담사업, 가족역량강화사업, 다문화사례관리사업 등 위가가족지원 서비스를 경험한 가족을 대상으로 동일한 비율(260부 중 40%:40%)로 배포되었음. 또한, 최근 1인 가구의 증가(현재 2022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전국 가구 유형의 33%를 초과함) 추세를 반영하여 전체 설문지 중 20%(54부)의 설문지가 1인 가구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배포됨. 전국 28개 지역 가족센터의 협조를 통해 260개 가구가 참여함
 - 가족위기에 대한 집단 간 비교 분석을 위하여 각 지역 가족센터별로 배부된 10부의 설문지 중 일반 서비스 이용자 가족 각 4부와 가족위기 서비스 이용자 가족 4부, 1인 가구 대상 2부를 대상으로 조사되었으며, 일부 센터에서 1인 가구 사업을 수행하지 않거나 위가가족지원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지역의 다른 가족센터 이용자의 도움을 받아 응답이 이루어짐

- 연구가 가족위기 수준 측정도구 개발을 위한 시범 조사이나 전국적 인구 분포와 가족 유형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가족위기의 조사 대상자를 임의 선별 표집 방식으로 수행함
- 인구 분포를 고려하여 서울 수도권 10개 센터에 100부(서울 4개 센터 40부, 경기도 6개 센터 60부) 및 16개 시군구 각 10부씩 160부, 총 260부를 배포하였으며, 100% 수집됨
- 서비스 이용자별 가족위기 특성이 차이가 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세 그룹으로 구분하여 조사 함
 - 가족역량(가족희망드림) 서비스, 한부모가족 서비스, 다문화가족 서비스 등을 통한 사례관리 서비스 이용자
 - 2022년 시범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제공되고 있는 1인 가구 서비스 이용자
 - 기타 위 두 개 영역 이외의 가족서비스만 이용하는 이용자 등
- 전국 가족희망드림 서비스와 1인 가구 서비스를 제공 중인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전국 광역시도가 포함될 수 있도록 설문지를 배포함
- 서울, 경기도에 인구가 집중된 분포를 고려하여 설문지를 배포함.

2) 조사 방법

- 조사 기간
 - 2023년 8월 22일 ~ 9월 22일
- 조사 대상
 - 가족센터 이용자 중 사례관리 서비스를 받고 있는 가족위기 지원 서비스 이용자(취약가족 서비스 이용자), 일반 가족역량 강화 교육 등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 이용자(일반가족 서비스 이용자), 1인 가구 서비스 이용자 통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이용자(1인 가구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방법

- 12개시도 23개 가족센터의 협조를 받아 서비스 이용자별 할당된 설문지를 센터로 261개 배포 후 260개 취함
- 본 연구의 측정도구가 가족위기 집단 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구별하고는데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 대상자를 위기가족과 그렇지 않은 가족으로 구분하여 표집함
- 이를 위해 가족센터 서비스 이용자중 위기가족 지원 서비스인 취약위기 사례관리 대상자를 의도적으로 1/3이상 포함되도록 표집함.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일반적 특성

- 조사에 응답한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음

[표 3-25]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1)

(N=260)

구분		빈도(명)	구성비 (%)	구분		빈도(명)	구성비 (%)	
성별	남성	46	17.7	시도	서울	38	14.6	
	여성	201	77.3		부산	10	3.8	
	결측	13	5.0		대구	25	9.6	
연령	20대	23	8.8		인천	20	7.7	
	30대	80	30.8		경기	50	19.2	
	40대	83	31.9		강원	11	4.2	
	50대	36	13.9		충북	20	7.7	
	60대	10	3.8		충남	20	7.7	
	70세 이상	7	2.7		전북	10	3.8	
	결측	21	8.1		전남	25	9.6	
	학력	중졸 이하	20		7.7	경남	17	6.5
고졸		51	19.6		제주	14	5.4	
초대졸		21	8.1		월평균 가족소득	200만원 미만	99	38.1
대졸		113	43.5			201~400만원 미만	79	30.4
대학원 이상	25	9.6	401~600만 원 미만			37	14.3	
결측	30	11.6	601~800만 원 미만	22		8.4		
본인 소득 동부 여부	한다	171	65.8	901~1000만 원미만		8	3.1	
	하지 않는다	64	24.6	1천만원 이상		8	3.1	
	결측	25	9.6	결측		7	2.7	
서비스 이용성 특성	취약가족 서비스	89	34.2	가족 유형	부모자녀 가정	118	45.4	
	일반가족 서비스	107	41.2		부부가정 (무자녀가정)	9	3.5	
	1인 가구 서비스	64	24.6		한부모 가정	73	28.1	
다문화 가족 여부	다문화 가족	41	15.8		조손 및 3세대 가정	6	2.4	
	비다문화 가족	219	84.2		1인 가구	54	20.8	

[표 3-26]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2)

구분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수준	1 (매우 불안정)	5 (매우 안정적)	2.60	1.060
돌봄대상자수(명)	0	6	1.53	1.246
구분			빈도(명)	구성비(%)
나와 가족간 경제적인 상태	나와 가족은 경제적으로 서로 독립적인 상태이다		111	42.7
	나는 가족에게 전적으로 지원받는다		14	5.4
	나는 가족에게 부분적으로 지원받는다		45	17.3
	나는 가족을 부양하고 생활비를 지원한다		90	34.6

- 조사의 응답자들은 여성비율(77.3%)이 남성비율(17.7%)보다 훨씬 많았으며, 40대와 30대 연령이 전체의 62.7% 수준임.
- 전체 응답자 가운데 65.8%는 본인이 소득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가 전체의 38.1% 수준으로 높게 나타남. 이는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수준과 관련해서 중간인 보통(3점)보다 낮게 평균 2.6점을 응답한 것과 일맥상 통함
- 응답자와 가족간의 경제적인 상태는 ‘서로 독립적이다’는 응답이 42.7%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응답자 자신이 ‘가족을 부양하고 생활비를 지원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34.6%로 높음
- 가족센터를 통해 이용하는 서비스는 일반가족서비스 이용자들이 전체의 41.2%이고, 그 다음으로 취약가족 서비스 이용자들이 전체의 34.1%, 1인가구 서비스 이용자 24.6% 순으로 나타남. 다만, 본 조사에서 1인 가구는 54가구였으나, 1인가구 서비스 이용 경험자는 64명으로 나타나, 일반 가족이나 취약 가족 중에서도 1인가구 서비스를 이용했거나, 분거 형태의 1인가구 생활자가 1인가구 서비스는 이용하되 1인 가구 형태가 아닌 원가족의 가족 유형으로 응답했을 가능성이 있음.

- 부모자녀가정이 전체의 45.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한부모 가정 28.1%, 1인 가구 20.8% 수준이었음. 다문화가족 비율은 전체의 15.8% 수준임
- 서울과 경기 지역의 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대상자들은 전체 33.8%로 다른 시도 지역보다 많은 비중을 나타냄
- 가족 중 동거 여부와 상관없이 응답자가 돌봐야 하는 가족원수는 최대 6명까지 응답되었으며, 평균 1.53명으로 응답됨. 응답자 중에서 돌봄대상자수가 4인 이상인 경우도 5.4%(14명)로 나타남
- 가족 중 돌봐야 하는 가족으로는 초등자녀(32.7%), 영유아자녀(25.8%), 중고등자녀(19.2%) 등 자녀와 함께, 요보호고령자(7.7%), 요보호환자(6.2%), 장애가족(5.8%) 등이 있었으며, 기타 돌봄 대상자로는 부모님(시부모와 친정부모 포함), 취업준비생, 친손주, 형제, 강아지 등이 응답되었음

[표 3-27] 가족 중 돌봐야 하는 사람

구분		빈도(명)	구성비(%)
가족 중 돌봐야 하는 사람	영유아자녀	67	25.8
	초등자녀	85	32.7
	중고등자녀	50	19.2
	요보호환자	16	6.2
	장애가족	15	5.8
	요보호고령자	20	7.7
	기타	25	9.6

참고 : 다중응답 결과임

2) 정부지원 수급 내용

- 조사에 응답한 조사대상자들은 정부지원 서비스 중 교육비지원(23.5%)을 가장 많이 받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기초생활수급(21.5%), 주거지원(19.2%), 의료지원(16.5%) 등의 지원을 받고 있음
- 기타 공공서비스 지원으로는 아동키움수당, 육아수당, 장애아동수당 등을 포함한 육아지원, 그리고 돌봄서비스 등의 돌봄지원 등이 제시됨

[표 3-28] 조사대상자의 정부지원 수급 내용

구분		빈도(명)	구성비(%)
정부지원 수급 여부	기초생활수급	56	21.5
	의료수급	43	16.5
	교육비지원	61	23.5
	주거지원(LH공공임대)	50	19.2
	공공근로	7	2.7
	기타	24	9.2

참고 : 응답자 중에서 각 지원서비스에 해당하는 비율만 제시함

3. 가족위기 수준 조사 결과

1) 가족위기 유형별 개별 위기수준

- 수준을 5가지 유형별로 측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개인적 위기) 개인적 위기와 관련해서 13개 지표에 대해 경험여부와 현재 일상생활 유지의 어려움 정도를 응답한 결과, 개인적 위기 중 가장 많이 경험하는 내용은 경제적 어려움(56.2%)이며, 그 다음으로는 시험, 진학, 취업실패의 어려움(51.5%), 소외감이나 우울, 불안의 어려움(49.6%), 생활변화(이전, 이직, 이사)로 인한 부적응(48.8%), 실직과 해고의 어려움(47.3%) 순으로 경험하고 있다고 응답함
 - 정도의 수준을 살펴보면 생활변화(이전, 이직, 이사)로 인한 부적응(2.51점), 경제적 어려움(2.08점), 만성질환의 어려움(2.05점), 소외감이나 우울, 불안의 어려움(2.02점) 순으로 응답함
 - 이 중 각 개인적 위기별로 4점 이상의 심각성을 보고한 빈도는 경제적 어려움(27.2%), 소외감이나 우울, 불안의 어려움(22.7%)이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생활상의 변화(이전, 이직, 이사)로 인한 어려움(19.6%)과 시험이나 진학 실패로 인한 어려움(19.2%)이 높은 비율로 응답함
 - 특히 경제적 어려움과 실직이나 해고로 인한 어려움은 경험한 사람과 비교해 위기수준이 심각하다고 인식한 경우(경제적 어려움 71명/146명, 실직이나 해고 어려움 56명/123명)가 45% 이상으로 나타남

[표 3-29] 가족위기 유형별 수준 측정 결과(1) - 개인적 위기

구분	경험여부		어려움정도*		심각하다**	
	빈도 (명)	구성비 (%)	평균	표준 편차	빈도 (명)	구성비 (%)
실직, 해고로 어려움을 느낀다.	123	47.3	0.47	.500	56	21.5
경제적 어려움과 부채, 신용불량, 파산 등으로 어려움을 느낀다.	146	56.2	2.08	2.478	71	27.3
시험, 진학, 취업 실패로 어려움을 느낀다.	134	51.5	0.56	.497	50	19.2
이전, 이직, 이사로 인한 부적응과 어려움을 느낀다.	127	48.8	2.51	2.576	51	19.6
술, 담배, 마약, 게임 등 중독으로 어려움을 느낀다.	68	26.2	0.52	.501	17	6.5
만성질환, 신체장애, 장기 입원 등으로 어려움을 느낀다.	97	37.3	2.05	2.329	42	16.2
정신건강(치매, 정신질환, 발달장애 등)문제로 어려움을 느낀다.	67	25.8	0.49	.501	33	12.7
소외감, 우울, 불안으로 어려움을 느낀다.	129	49.6	2.02	2.361	59	22.7
가출, 비행으로 어려움을 느낀다.	34	13.1	0.26	.440	6	2.4
학교폭력, 왕따 피해로 어려움을 느낀다.	46	17.7	0.96	1.821	7	2.8
성폭력 및 성범죄 피해로 어려움을 느낀다.	33	12.7	0.37	.485	8	3.1
범죄, 폭력(행), 고소/고발로 인해 어려움을 느낀다.	52	20.0	1.63	2.357	24	9.2
자살 시도나 죽음(사망)으로 어려움을 느낀다.	54	20.8	0.26	.438	25	9.6

* 어려움 정도는 7점척도(1: 전혀심각하지 않다 ~ 7: 매우심각하다)로 측정함
 ** 심각하다는 응답은 7점 척도 중에 5점 이상(5:조금심각하다, 6:약간심각하다, 7: 매우심각하다) 응답한 사람의 빈도(명)와 구성비(전체 260명 대비 %)를 제시함

- (위기) 관계적 위기와 관련해서 5개 지표에 대해 경험여부와 현재 일상생활 유지의 어려움 정도를 응답한 결과, 관계적 위기 중 가장 많이 경험하는 내용은 가족간 갈등의 어려움(42.7%)이며, 그 다음으로 부부갈등의 어려움(31.5%), 가족 내 고립이나 단절의 어려움(28.5%), 이혼과 재혼의 어려움(25.4%), 가정폭력의 어려움(16.9%) 순으로 나타남

[표 3-30] 가족위기 유형별 수준 측정 결과(2) - 관계적 위기

구분	경험여부		어려움정도*		심각하다**	
	빈도 (명)	구성비 (%)	평균	표준 편차	빈도 (명)	구성비 (%)
가족 내 고립, 단절(은둔형 외톨이)을 느낀다.	74	28.5	1.17	2.210	36	13.8
부부 갈등, 외도, 별거로 힘들다	82	31.5	0.50	.501	29	11.1
가족(조부모-부모-자녀) 간 갈등으로 힘들다.	111	42.7	2.17	2.450	43	16.5
가정 폭력 (학대, 방임)으로 힘들다.	44	16.9	0.13	.338	21	8.0
이혼, 재혼으로 힘들다.	66	25.4	0.45	1.277	29	11.1

* 어려움 정도는 7점 척도(1: 전혀심각하지 않다 ~ 7: 매우심각하다)로 측정함

** 심각하다는 응답은 7점 척도 중에 5점 이상(5:조금심각하다, 6:약간심각하다, 7: 매우심각하다) 응답한 사람의 빈도(명)와 구성비(전체 260명 대비 %)를 제시함

- 정도의 수준을 살펴보면 가족간 갈등으로 인한 어려움(2.17점), 가족내 고립이나 단절의 어려움(1.17점), 부부갈등(0.50점), 이혼이나 재혼의 어려움(0.45점), 가정폭력의 어려움(0.13점) 순으로 응답함
- 이 중 각 관계적 위기별로 4점 이상의 심각성을 보고한 빈도는 가족간 갈등의 어려움(16.5%), 가족내 고립이나 단절의 어려움(13.8%), 부부갈등(11.1%)이나 이혼과 재혼(11.15)의 어려움. 그리고 가정폭력의 어려움(8.0%)의 순으로 나타남
- 특히 가정폭력의 어려움의 경우 경험건수는 전체의 16.9%(44명)이며, 이 중 절반 가량(21명)이 심각하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구조적 위기) 가족 구조적 위기와 관련해서 5개 지표에 대해 경험 여부와 현재 일상생활 유지의 어려움 정도를 응답한 결과, 가족 구조적 위기 중 가장 많이 경험하는 내용은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60%)이며, 그 다음으로 일상생활 유지 관리의 어려움(47.3%), 노부모 부양 기간 증가로 인한 어려움(35.8%), 지역 인구감소로 인한 어려움(34.6%), 손자녀 돌봄의 어려움(26.9%)으로 나타남

[표 3-31] 가족위기 유형별 수준 측정 결과(3) - 가족 구조적 위기

구분	경험여부		어려움정도*		심각하다**	
	빈도 (명)	구성비 (%)	평균	표준 편차	빈도 (명)	구성비 (%)
일상생활(의식주 생활)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123	47.3	0.18	.382	54	20.5
지역 인구 감소, 인프라(병원, 학교 등) 축소로 인해 어려움이 있다.	90	34.6	0.58	1.397	35	13.5
노부모 부양(경제적, 신체적) 기간의 증가로 어려움이 있다.	93	35.8	0.13	.334	27	10.4
손자녀 돌봄 부담(경제적, 신체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70	26.9	0.45	1.319	25	9.7
일, 가정 양립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156	60.0	0.20	.401	77	29.6

* 어려움 정도는 7점척도(1: 전혀심각하지 않다 ~ 7: 매우심각하다)로 측정함

** 심각하다는 응답은 7점 척도 중에 5점 이상(5:조금심각하다, 6:약간심각하다, 7: 매우심각하다) 응답한 사람의 빈도(명)와 구성비(전체 260명 대비 %)를 제시함

- 정도의 수준을 살펴보면 지역인구 감소로 인한 어려움(0.58점), 손자녀 돌봄 부담의 어려움(0.45점),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0.20점) 순으로 나타남
- 이 중 각 가족 구조적 위기별로 4점 이상의 심각성을 보고한 빈도는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29.6%), 일상생활 유지관리의 어려움(20.5%), 지역인구 감소로 인한 어려움(13.5%) 순으로 나타남
- 특히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경험한 사람(156명) 가운데 4점 이상 어려움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사람(77명)은 약 50% 수준으로 나타남
- (위기) 발달적 위기와 관련해서 12개 지표에 대해 경험여부와 현재 일상생활 유지의 어려움 정도를 응답한 결과, 발달적 위기 중 가장 많이 경험하는 내용은 자녀양육 및 돌봄의 어려움(55.4%)이며, 그 다음으로 부부-부모 역할적응의 어려움(49.6%), 자녀의 진학과 학업의 어려움(46.9%), 노화로 인한 어려움(44.2%), 결혼 및 적응의 어려움(37.3%), 진로 및 이성교제로 인한 어려움(30.4%), 배우자의 사망/홀로되기의 어려움(26.2%) 순으로 나타남

[표 3-32] 가족위기 유형별 수준 측정 결과(4) - 발달적 위기

구분	경험여부		어려움정도*		심각하다**	
	빈도 (명)	구성비 (%)	평균	표준 편차	빈도 (명)	구성비 (%)
결혼 및 적응에 어려움이 있다.	97	37.3	0.86	1.926	35	13.5
임신, 난임, 유산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다.	59	22.7	0.21	.406	16	6.2
출산, 입양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다.	56	21.5	0.88	1.875	15	5.9
자녀 양육 및 돌봄에 어려움이 있다.	144	55.4	0.28	.452	66	25.4
자녀의 진학과 학업에 어려움이 있다.	122	46.9	1.20	2.118	52	19.9
부부-부모 역할 적응에 어려움이 있다.	129	49.6	0.32	.466	52	19.9
진로 및 이성 교제로 인한 어려움이 있다.	79	30.4	1.27	2.095	24	9.2
부부관계 재적응에 어려움이 있다.(재혼, 분거, 자녀 독립 후 빈둥지기 등)	62	23.8	0.43	.496	27	10.4
자녀의 결혼과 독립에 어려움이 있다.	60	23.1	1.69	2.252	27	10.4
은퇴 후 생활 적응에 어려움이 있다.	65	25.0	0.17	.376	28	10.7
신체적 쇠퇴 등 노화로 어려움이 있다.	115	44.2	0.73	1.763	46	17.7
배우자의 사망/홀로되기로 어려움이 있다.	68	26.2	0.25	.436	28	10.7

* 어려움 정도는 7점척도(1: 전혀심각하지 않다 ~ 7: 매우심각하다)로 측정함

** 심각하다는 응답은 7점 척도 중에 5점 이상(5:조금심각하다, 6:약간심각하다, 7: 매우심각하다) 응답한 사람의 빈도(명)와 구성비(전체 260명 대비 %)를 제시함

- 정도의 수준을 살펴보면 자녀의 결혼과 독립의 어려움(1.69점), 진로 및 이성교제로 인한 어려움(1.27점), 자녀의 진학과 학업의 어려움(1.20점), 출산 및 입양으로 인한 어려움(0.88점), 결혼 및 적응의 어려움(0.86점) 순으로 나타남
- 이 중 각 발달적 위기별로 4점 이상의 심각성을 보고한 빈도는 자녀 양육 및 돌봄의 어려움(25.4%), 자녀의 진학과 학업의 어려움(19.9%), 부부-부모 역할 적응에 어려움(19.9%), 노화로 인한 어려움(17.7%) 순으로 나타남
- 특히 자녀양육 및 돌봄에 대한 어려움의 심각성을 보고한 경우(66명)는 경험비율도 가장 많고(55.4%), 그 중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비율(66명/144명, 약 45.8%)도 높게 나타남

- (외적 위기) 가족 외적 위기와 관련해서 5개 지표에 대해 경험여부와 현재 일상생활 유지의 어려움 정도를 응답한 결과, 가족 외적 위기 중 가장 많이 경험하는 내용은 장기적 경기침체와 불경기로 인한 어려움(60.8%)이며, 그 다음으로 메르스나 코로나19 등 전염병으로 인한 어려움(55.0%), 사회적 범죄 증가로 인한 어려움(53.1%), 화재나 교통사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어려움(48.5%),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와 어려움(41.5%)으로 나타남
 - 정도의 수준을 살펴보면 전염병으로 인한 어려움(2.05점),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와 어려움(1.43점), 장기적 경기침체와 불경기로 인한 어려움(1.08점) 순으로 나타남
 - 이 중 각 가족 외적 위기별로 4점 이상의 심각성을 보고한 빈도는 장기적 경기침체나 불경기 상황으로 인한 어려움(29.3%), 사회적 범죄 증가로 인한 어려움(21.9%) 등임
 - 특히 장기적 경기침체나 불경기 상황을 경험한 사람(158명) 중에서 심각하다고 인식한 사람(76명)의 비율은 약 48% 수준이며, 사회적 범죄증가로 인한 어려움과 불안을 경험한 사람(138명) 중에서 심각하다고 인식한 사람(57명)의 비율은 약 41% 수준으로 나타남

[표 3-33] 가족위기 유형별 수준 측정 결과(5) - 가족 외적 위기

구분	경험여부		어려움정도*		심각하다**	
	빈도 (명)	구성비 (%)	평균	표준 편차	빈도 (명)	구성비 (%)
장기적 경기 침체, 불경기 상황으로 어려움과 불안이 있다.	158	60.8	1.08	2.057	76	29.3
사회적 범죄 증가(무차별 흉기 난동, 스토킹, 보이스피싱, 사이버범죄)로 어려움과 불안이 있다.	138	53.1	0.47	.500	57	21.9
메르스나 코로나19 등 전염병으로 어려움과 불안이 있다.	143	55.0	2.05	2.382	49	18.9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어려움과 불안이 있다.	126	48.5	0.35	.477	48	18.5
태풍, 홍수, 산사태, 지진 등 자연재해 피해로 어려움과 불안이 있다.	108	41.5	1.43	2.118	27	10.4

* 어려움 정도는 7점척도(1: 전혀심각하지 않다 ~ 7: 매우심각하다)로 측정함

** 심각하다는 응답은 7점 척도 중에 5점 이상(5:조금심각하다, 6:약간심각하다, 7: 매우심각하다) 응답한 사람의 빈도(명)와 구성비(전체 260명 대비 %)를 제시함

2) 가족위기 유형별 위기수준 산출 결과

- 수준을 5가지 유형으로 합산하여 평균 점수로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유형별로 지표 개수가 다르므로 유형별로 가족위기 점수를 합산하여 해당 지표 값으로 나눈 평균값을 각 가족위기의 유형별 점수로 산출함

[표 3-34] 가족위기 유형별 위기 평균 점수

(N=2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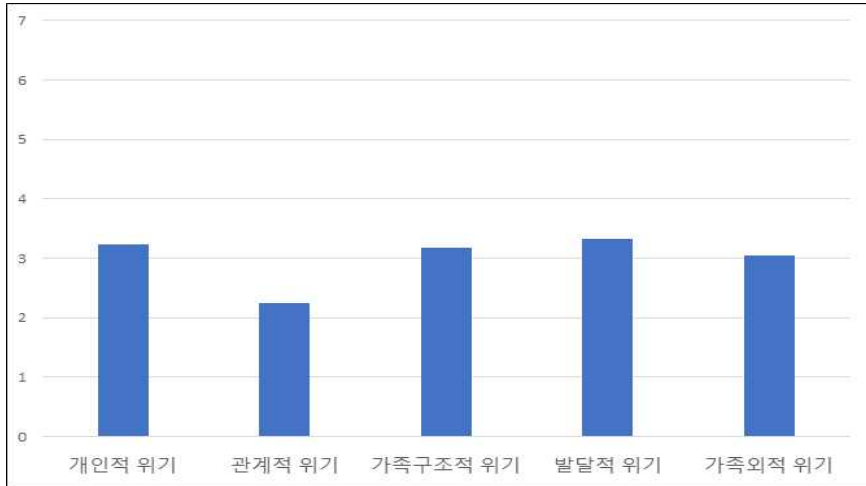
구분	위기점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개인적 위기	0.00	7.00	3.2270	2.10648
관계적 위기	0.00	7.00	2.2492	2.32145
가족 구조적 위기	0.00	7.00	3.1837	2.17524
발달적 위기	0.00	7.00	3.3220	2.05152
가족 외적 위기	0.00	7.00	3.0431	2.17665

* 0점은 각 유형별 가족위기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의 값임

** 개인적 위기점수 = (개인적 위기 13개 항목 점수)/13, 관계적 위기점수 = (관계적 위기 5개 항목 점수)/5, 가족 구조적 위기점수 = (가족 구조적 위기 5개항목 점수)/ 5, 발달적 위기점수 = (발달적 위기 12개항목 점수)/12, 가족 외적 위기점수 = (가족 외적 위기 5개 항목 점수)/5

- 가족위기 수준을 유형별로 산출한 결과는 0점에서 7점 사이에 약 2.25점에서부터 3.32점까지 분포되어 있음
 - 개인적 위기 3.23점, 관계적 위기 2.25점, 가족 구조적 위기 3.18점, 발달적 위기 3.32점, 그리고 가족 외적 위기 3.04점의 평균점수를 나타냄
 - 점수가 7점에 가까울수록 위기수준이 높다고 분석되므로, 본 연구대상자들의 평균적인 가족위기 수준은 유형별로 발달적 위기 수준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개인적 위기, 가족 구조적 위기, 가족 외적 위기, 그리고 관계적 위기 순으로 나타남

[그림 3-6] 가족위기 유형별 위기 평균 점수(1)



[그림 3-7] 가족위기 유형별 위기 평균 점수(2)



3) 가족위기 유형별 위기수준 산출 결과(특성별)

- 수준을 특성별로 산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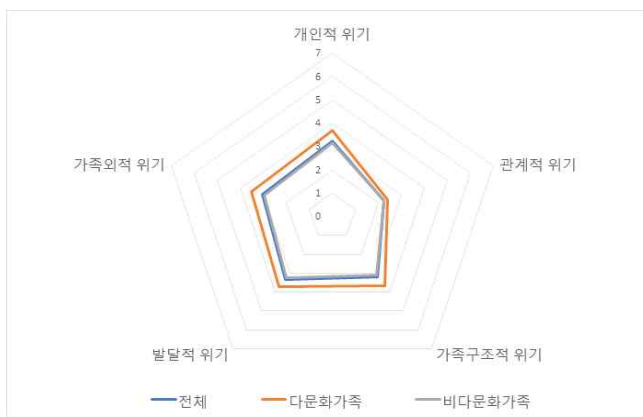
□ 다문화가족 여부

- 다문화가족 여부에 따른 유형별 가족위기 점수를 산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가족위기 모든 유형에서 평균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남
 - 다문화가족의 가족위기 수준은 발달적 위기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개인적 위기, 가족 구조적 위기, 가족 외적 위기 순으로 나타남

[표 3-35] 다문화가족 여부에 따른 가족위기 유형별 위기 점수

구분	위기점수			
	다문화가족(n=41)		비다문화가족(n=219)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개인적 위기	3.6836	1.67279	3.1416	2.17067
관계적 위기	2.3846	2.34318	2.2239	2.32188
가족 구조적 위기	3.6760	1.98754	3.0916	2.20060
발달적 위기	3.7295	1.69997	3.2457	2.10546
가족 외적 위기	3.5171	1.94038	2.9544	2.21085

[그림 3-8] 다문화가족 여부에 따른 가족위기 유형별 위기 점수



□ 한부모가족 여부

- 여부에 따른 유형별 가족위기 점수를 산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가족위기 모든 유형에서 평균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남
 - 한부모가족의 가족위기 수준은 개인적 위기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발달적 위기, 가족 외적 위기 순으로 나타남. 특히 개인적 위기, 발달적 위기, 가족 외적 위기 수준은 4점이 넘는 수준으로 높게 나타남
 - 한부모가족이 비한부모가족에 비해 관계적 위기의 점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남(1.92 점 차)

[표 3-36] 한부모가족 여부에 따른 가족위기 유형별 위기 점수

구분	위기점수			
	한부모가족(n=75)		비한부모가족(n=185)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개인적 위기	4.3353	1.57862	2.7777	2.13074
관계적 위기	3.6171	2.08291	1.6947	2.18382
가족 구조적 위기	3.6942	1.99362	2.9768	2.21644
발달적 위기	4.1825	1.72477	2.9732	2.07454
가족 외적 위기	4.0540	1.85734	2.6333	2.16707

[그림 3-9] 한부모가족 여부에 따른 가족위기 유형별 위기 점수



□ 서비스이용 특성별

- 이용 특성에 따른 유형별 가족위기 점수를 산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서비스 이용자들이 1인 가구 및 일반가족 서비스 이용자 보다 모든 유형별 가족위기 점수가 높게 나타남
 - 취약가족 서비스 이용자들의 가족위기 수준은 개인적 위기, 발달적 위기, 가족 외적 위기, 가족 구조적 위기, 관계적 위기 순으로 나타남. 특히 취약가족의 개인적 위기와 발달적 위기 점수는 4점대 이상으로 높게 나타남
 - 1인 가구와 일반가구 서비스 이용자들은 비슷한 정도로 가족위기 점수가 나타나지만, 1인 가구 서비스 이용자들의 경우 개인적 위기와 가족 외적 위기 점수가 높으며, 일반가구 서비스 이용자들은 관계적위기, 가족 구조적위기, 발달적 위기 점수가 높게 나타남

[표 3-37] 서비스이용 특성별 가족위기 유형별 위기 점수

구분	위기점수					
	취약가족 서비스 (n=89)		1인가구 서비스 (n=64)		일반가족 서비스 (n=107)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개인적 위기	4.2622	1.59063	2.7650	2.24630	2.6424	2.09020
관계적 위기	2.9994	2.25294	1.6893	2.37902	1.9601	2.20089
가족 구조적 위기	3.7315	2.03713	2.6622	2.45188	3.0400	2.02639
발달적 위기	4.0702	1.68412	2.5699	2.43902	3.1495	1.88461
가족 외적 위기	3.8369	1.97536	2.8565	2.36592	2.4945	2.03867

[그림 3-10] 서비스이용 특성별 가족위기 유형별 위기 점수



□ 성별

- 다른 유형별 가족위기 점수를 산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남성과 비교해 관계적 위기 점수를 제외하고 모든 유형에서 가족위기 점수가 높게 보고됨
 - 관계적 위기 점수는 남성이 여성보다 약간 높게 나타남

[표 3-38] 성별 가족위기 유형별 위기 점수

구분	위기점수			
	남성(n=46)		여성(n=201)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개인적 위기	2.8742	2.28288	3.3182	2.02878
관계적 위기	2.3949	2.54523	2.2179	2.25536
가족 구조적 위기	3.1449	2.32207	3.1813	2.13617
발달적 위기	3.3288	2.33572	3.3312	1.97571
가족 외적 위기	2.6286	2.18881	3.1583	2.15739

[그림 3-11] 성별 가족위기 유형별 위기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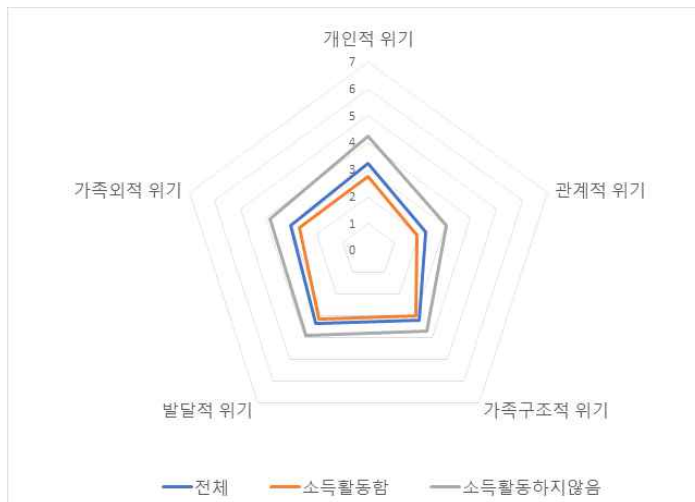
□ 소득활동 여부

- 소득활동 참여여부에 따른 유형별 가족위기 점수를 산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응답자들이 소득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응답자들과 비교해 모든 가족위기 유형에서 점수가 높게 나타남

[표 3-39] 소득활동여부에 따른 가족위기 유형별 위기 점수

구분	위기점수			
	소득활동하고 있음(n=171)		소득활동하지않음(n=64)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개인적 위기	2.7623	2.03169	4.2578	1.84210
관계적 위기	1.9002	2.16936	3.0589	2.50723
가족 구조적 위기	2.9794	2.11444	3.7049	2.20813
발달적 위기	3.1309	2.03275	3.9117	1.88275
가족 외적 위기	2.7047	2.05689	3.8583	2.17813

[그림 3-12] 소득활동여부에 따른 가족위기 유형별 위기 점수



□ 연령별

- 연령대별로 유형별 가족위기 점수를 산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20~30 , 40~50대, 60대 이상으로 재분류하여 살펴본 결과, 20~30대 연령집단의 가족위기 점수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유형별로 가장 낮게 나타남
 - 40~50대 연령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개인적 위기와 관계적 위기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남
 - 60대 이상 연령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족 구조적 위기, 발달적 위기, 가족 외적 위기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남

[표 3-40] 연령별 가족위기 유형별 위기 점수

구분	위기점수					
	20~30대(n=103)		40~50대(n=119)		60대이상(n=17)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개인적 위기	2.7369	2.01637	3.5938	2.02416	3.4121	2.49747
관계적 위기	1.8029	2.28331	2.6120	2.30324	2.1765	2.45549
가족 구조적 위기	2.7141	2.15905	3.3751	2.17066	4.1676	1.68845
발달적 위기	2.8538	2.11068	3.5819	1.96137	3.9399	1.64372
가족 외적 위기	2.6874	2.17672	3.3164	2.11641	3.4755	2.06788

[그림 3-13] 연령별 가족위기 유형별 위기 점수



4. 가족위기 대응자원 조사 결과

1) 가족위기 대응자원의 척도 타당성 검증

-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위기극복을 위한 대응자원과 관련하여 개인자원 4문항, 가족자원 4문항, 이웃자원 4문항, 공적자원 5문항 등 17개 문항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EFA: 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함
 - 요인분석은 서로 상관되어 있는 많은 변수들 사이의 복잡한 구조를 서로 강하게 상관되어 있는 변수들을 몇 개의 공통요인으로 단순화하여 분석하는 통계적 기법임.
 - 사회과학분야에서 순서형 리커트 척도로 구성된 설문문항들의 상관구조를 설명하고자 할 때 자주 쓰임
 - 본 연구에서는 가족위기 대응자원과 관련된 17개 문항의 7점 리커트 척도의 결과를 통해 몇가지 상관있는 자원으로 중분류하는데 사용됨
- 요인분석에서 공통의 수를 결정하기 위한 방법은 주성분방법을 이용하였으며, 요인의 수는 선행연구를 통해 4개로 정해서 검토함. 각 문항을 검토한 결과 요인 부하량이 0.5 이상인 문항은 같은 요인으로 묶음.
 -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해석할 때는, 요인부하량의 경우 그 절대값이 클수록 요인과의 상관성이 높다고 해석하는데 절대값 0.3이상이면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며, 0.5 이상이면 매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함(김석우, 2015; 노경섭, 2015).
- 당초 개인자원 4문항, 가족자원 4문항, 이웃자원 4문항, 공적자원 5문항으로 설계되었으나 요인분석 결과 개인자원 5문항, 가족자원 3문항, 이웃자원 4문항, 공적자원 5문항으로 조정되었음
- 이때, “우리 가족의 위기 극복 경험과 추진력” 문항은 요인부하량 절대값이 0.5이상이면 개인자원에, 그리고 0.3이상이면 가족자원에도 포함되어 하나의 요인으로 결정하기 어려워서 삭제하기로 결정함

[표 3-41] 가족위기 대응자원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구분	성분			
	1	2	3	4
나의 위기 대처 역량(지식/기술/경험)	.843	.220	.035	.256
나의 위기 극복 의지와 열정	.772	.122	.063	.395
나의 위기 대처 자원(재정 능력)	.743	.381	.159	.031
나의 긍정적 성격(태도)	.722	.121	.099	.446
가족외에 도와줄 수 있는 친구들	.245	.810	.077	.265
가족외에 도와줄 수 있는 동네 이웃들	.143	.782	.250	.175
가족외에 도와줄 수 있는 친척들	.283	.773	.089	.206
동호회, 종교모임, 직장동료	.203	.743	.217	.185
정부 및 지자체 지원(보조금, 물품, 서비스 등)	-.007	-.007	.849	.118
지역사회 공동체(주민자치회, 부녀회), 봉사단체	.014	.409	.761	-.005
민간시민단체(로타리, 라이온스, 재단, 후원회, 협회)	.051	.358	.734	-.133
복지관(시설), 가족센터, 상담(트라우마)센터	.218	-.180	.692	.308
경찰서, 소방서, 교육청, 학교	.149	.364	.619	.130
가족원간의 손상회복을 돕는 협력과 지지	.294	.243	.145	.817
가족간 위기 발생시 유대감(친밀감)	.377	.246	.056	.801
우리 가족의 생활 변화에의 적응력과 유연성	.326	.274	.111	.793
고유값	7.496	2.581	1.549	0.893
분산	44.095	15.180	9.110	5.254
누적률	44.095	59.274	68.385	73.639
요인명	개인자원	이웃자원	공적자원	가족자원

* 가족위기를 극복하기에 자원이 충분하다는 수준은 전혀없다(1)~매우많다(7)까지 7점 척도로 응답함

- 본 연구에서는 최종 16개 문항에 대해 개인자원 5문항, 가족자원 3문항, 이웃자원 4문항, 공적자원 5문항으로 가족위기 대응자원을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함

2) 가족위기 대응자원의 산출 결과

- 대응자원을 4가지 요인으로 합산하여 평균 점수로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요인별로 지표 개수가 다르므로 요인별로 가족위기 대응점수를 합산하여 해당 지표값으로 나눈 평균값을 각 가족위기 대응자원의 요인별 점수로 산출함

[표 3-42] 가족위기 대응자원의 요인별 평균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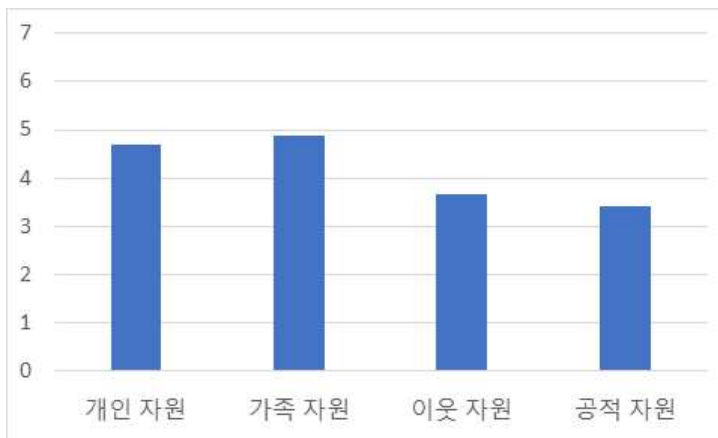
(N=260)

구분	가족위기 대응자원 총분도 점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개인 자원	0.00	7.00	4.7019	1.22360
가족 자원	0.00	7.00	4.8692	1.40202
이웃 자원	0.00	7.00	3.6731	1.52326
공적 자원	0.00	7.00	3.4308	1.27899

* 0점은 각 항목에 응답하지 않은 사람들의 값임

** 개인자원 점수 = (개인자원 4개 항목 점수)/4, 가족자원 점수 = (가족자원 3개 항목 점수)/3, 이웃자원 점수 = (이웃자원 4개항목 점수)/ 4, 공적자원 점수 = (공적자원 5개항목 점수)/5

[그림 3-14] 가족위기 대응자원의 요인별 평균 점수(1)



[그림 3-15] 가족위기 대응자원의 요인별 평균 점수(2)



- 대응자원의 4가지 요인에 대한 점수를 산출한 결과는 0점에서 7점 사이에 약 3.43점에서부터 4.87점까지 분포되어 있음
 - 자원 4.87점, 개인 자원 4.70점, 이웃 자원 3.67점, 공적 자원 3.43점의 평균 점수를 나타냄
 - 점수가 7점에 가까울수록 가족위기를 극복하기에 자원이 충분하다고 분석되므로, 본 연구대상자들의 평균적인 가족위기 대응자원은 가족자원의 충분도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개인 자원, 이웃 자원, 공적 자원 순으로 나타남

3) 가족위기 대응자원의 산출 결과(특성별)

- 대응자원의 충분도를 특성별로 산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다문화가족 여부

- 다문화가족 여부에 따른 요인별 가족위기 대응자원의 충분도 점수를 산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가족위기 대응자원의 충분도에서 평균 점수가 다소 높게 나타남

[표 3-43] 다문화가족 여부에 따른 가족위기 대응자원 충분도 점수

구분	가족위기 대응자원 충분도 점수			
	다문화가족(n=41)		비다문화가족(n=219)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개인 자원	4.7805	.87356	4.6872	1.27960
가족 자원	5.0163	1.35391	4.8417	1.41216
이웃 자원	3.7561	1.50363	3.6575	1.52981
공적 자원	3.7854	1.37287	3.3644	1.25282

[그림 3-16] 다문화가족 여부에 따른 가족위기 대응자원 충분도 점수



□ 한부모가족 여부

- 여부에 따른 요인별 가족위기 대응자원의 충분도 점수를 산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비한부모가족과 비교해 개인 자원, 가족 자원, 이웃 자원, 공적 자원 등 가족위기 대응자원의 충분도 점수가 낮게 나타남
 - 특히 한부모 가족은 이웃 자원 점수(2.95점)가 가장 낮게 나타남

[표 3-44] 한부모가족 여부에 따른 가족위기 대응자원 충분도 점수

구분	가족위기 대응자원 충분도 점수			
	한부모가족(n=75)		비한부모가족(n=185)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개인 자원	4.2167	1.30639	4.8986	1.13411
가족 자원	4.4667	1.26277	5.0324	1.42575
이웃 자원	2.9500	1.47215	3.9662	1.44740
공적 자원	3.3947	1.30404	3.4454	1.27198

[그림 3-17] 한부모가족 여부에 따른 가족위기 대응자원 충분도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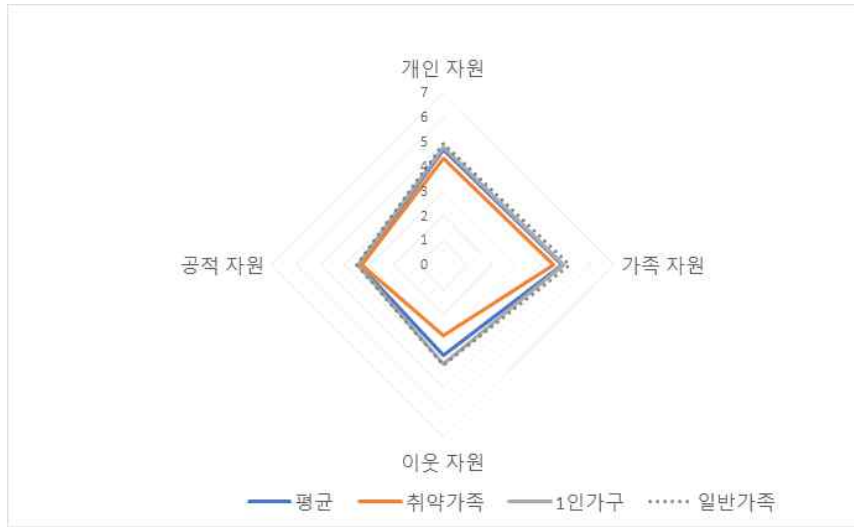
□ 서비스이용 특성별

- 이용 특성에 따른 요인별 가족위기 대응자원 충분도 점수를 산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자원, 가족 자원 이웃 자원, 공적 자원 등 모든 가족위기 대응자원 영역에서 일반가족 서비스 이용자들의 점수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1인 가구 서비스 이용자이며, 취약가족 서비스 이용자들의 대응자원 충분도는 가장 낮음
 - 취약가족 서비스 이용자들은 이웃 자원의 점수가 가장 낮고, 그 다음은 공적 자원, 개인 자원, 가족 자원 순으로 나타남
 - 1인 가구 서비스 이용자들은 공적 자원 점수가 가장 낮고, 그 다음으로 이웃 자원, 개인 자원, 가족 자원 순으로 점수가 높게 나타남
 - 일반가구 서비스 이용자들은 공적 자원 점수가 가장 낮고, 가족 자원의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남

[표 3-45] 서비스이용 특성별 가족위기 대응자원 충분도 점수

구분	가족위기 대응자원 충분도 점수					
	취약가족 서비스 (n=89)		1인가구 서비스 (n=64)		일반가족 서비스 (n=107)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개인 자원	4.3483	1.20935	4.7734	1.12133	4.9533	1.23488
가족 자원	4.5131	1.41694	4.9010	1.42004	5.1464	1.32401
이웃 자원	2.8961	1.43555	4.0195	1.38823	4.1121	1.42800
공적 자원	3.3303	1.33590	3.4500	1.13641	3.5028	1.31676

[그림 3-18] 서비스이용 특성별 가족위기 대응자원 충분도 점수



□ 성별

- 다른 요인별 가족위기 대응자원의 충분도 점수를 산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비교해 남성이 모든 가족위기 대응자원 요인에 대해 충분도 점수가 높게 나타남
 - 이웃 자원과 공적 자원은 남성과 여성 모두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표 3-46] 성별 가족위기 대응자원 충분도 점수

구분	가족위기 대응자원 충분도 점수			
	남성(n=46)		여성(n=201)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개인 자원	4.9783	1.08887	4.6256	1.23949
가족 자원	4.8478	1.51976	4.8458	1.37274
이웃 자원	3.7554	1.22983	3.6256	1.56127
공적 자원	3.5043	1.24346	3.3861	1.27382

[그림 3-19] 성별 가족위기 대응자원 충분도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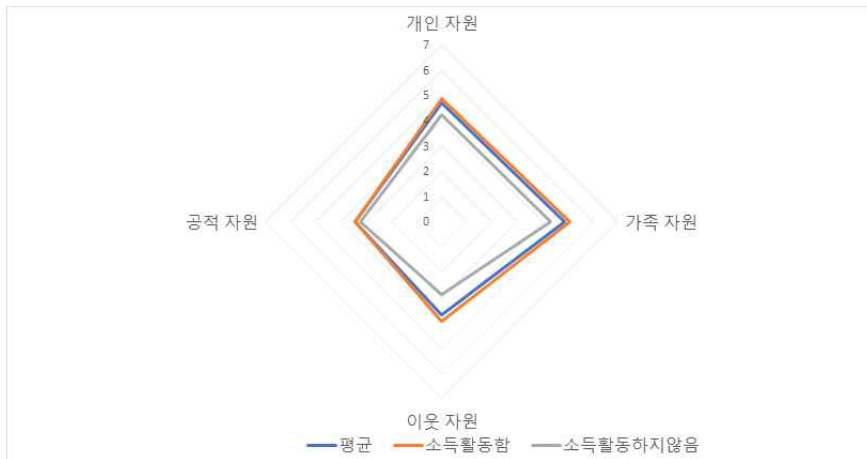
□ 소득활동 여부

- 소득활동 참여여부에 따른 가족위기 대응자원의 충분도 점수를 산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참여하지 않은 응답자들이 소득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응답자들과 비교해 가족위기 대응자원의 충분도 점수가 모든 요인에서 낮게 나타남
 - 특히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응답자들은 이웃 자원의 충분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3-47] 소득활동여부에 따른 가족위기 대응자원 충분도 점수

구분	가족위기 대응자원 충분도 점수			
	소득활동하고 있음(n=171)		소득활동하지않음(n=64)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개인 자원	4.8743	1.16927	4.2578	1.14258
가족 자원	5.0604	1.31938	4.3333	1.42663
이웃 자원	3.9327	1.43302	2.8984	1.34793
공적 자원	3.4632	1.28200	3.2313	1.17876

[그림 3-20] 소득활동여부에 따른 가족위기 대응자원 충분도 점수



□ 연령별

- 연령대별로 가족위기 대응자원 충분도 점수를 산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20~30 , 40~50대, 60대 이상으로 재분류하여 살펴본 결과, 20~30대 연령집단의 가족위기 대응자원 충분도 점수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대부분 높게 나타남
 - 40~50대 연령은 다른 연령집단과 비교해 개인 자원 점수가 높게 나타나며, 이웃 자원과 공적 자원은 가장 낮게 나타남
 - 60대 이상 연령은 40~50대 연령집단과 비교해 개인 자원과 가족자원 충분도 점수는 상대적으로 낮고, 이웃 자원과 공적 자원 충분도 점수는 약간 높은 편임

[표 3-48] 연령별 가족위기 대응자원 충분도 점수

구분	가족위기 대응자원 충분도 점수					
	20~30대(n=103)		40~50대(n=119)		60대이상(n=17)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개인 자원	4.7112	1.11461	4.7605	1.18402	4.5147	1.35920
가족 자원	5.0809	1.21220	4.7171	1.43840	4.5686	1.66569
이웃 자원	3.7621	1.44735	3.6008	1.51871	3.6029	1.44714
공적 자원	3.5825	1.20785	3.2941	1.29610	3.4824	1.34547

[그림 3-21] 연령별 가족위기 대응자원 충분도 점수



5. 가족서비스 지원 및 연계 수요 조사 결과

1) 가족서비스 지원 및 연계 수요 척도 타당성 검증

- 발생시 가족서비스 지원이나 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요인을 찾아내기 위해 선행연구 자료를 기초로 17개 문항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EFA: 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함
 - 요인분석은 서로 상관되어 있는 많은 변수들 사이의 복잡한 구조를 서로 강하게 상관되어 있는 변수들을 몇 개의 공통요인으로 단순화하여 분석하는 통계적 기법임.
 - 사회과학분야에서 순서형 리커트 척도로 구성된 설문문항들의 상관구조를 설명하고자 할 때 자주 쓰임
 - 본 연구에서는 가족서비스 지원과 연계에 대한 수요를 분석하기 위해 17개 문항의 7점 리커트 척도의 결과를 통해 몇가지 상관있는 지원서비스를 중분류 하는데 사용됨
- 요인분석에서 공통의 수를 결정하기 위한 방법은 주성분방법을 이용하였으며, 요인의 수는 표본상관행렬의 고유값 중에서 1보다 큰 고유값을 갖는 요인을 선택함. 요인 수 결정시 고유값이 1 이상이면서 기울기가 급격하게 변하는 지점을 고려했을 때, 요인의 수는 5개로 결정하는 것이 적합하며, 각 문항을 검토한 결과 요인 부하량이 0.5 이상인 문항은 같은 요인으로 묶음.
 -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해석할 때는, 요인부하량의 경우 그 절대값이 클수록 요인과의 상관이 높다고 해석하는데 절대값 0.3이상이면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며, 0.5 이상이면 매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함(김석우, 2015; 노경섭, 2015).
- 17개 문항 중 “위기시 어디에서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모르겠다” 문항은 요인부하량 절대값이 0.5이하이므로 제외하고, “주거상태가 불안정하다” 문항은 (5)성분에서 요인부하량 절대값이 0.5이상인긴 하나 (2) 성분에서도 0.4 이상의 값을 가지고 있어 제외하기로 결정함

[표 3-49] 가족서비스 지원 및 연계 수요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구분	성분				
	1	2	3	4	5
우리가족은 서로를 존중한다**	.931	.094	.085	.140	.081
우리 가족은 힘들 때 서로 의지가 된다**	.913	.115	.051	.158	.077
우리 가족은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편이다**	.906	.084	.058	.178	.085
생활비 외에 금전적 여유가 없다	.083	.804	.175	.220	.241
빚, 부채, 사채 등이 있다	.127	.773	.239	.161	-.039
매달 생활비가 부족하다	.104	.750	.239	.218	.331
집안일을 제대로 처리할 시간이 없다	.005	.102	.895	.171	.103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하다	.111	.144	.818	.078	.235
항상 시간에 쫓긴다	.069	.343	.793	.048	.076
주변에 교류하는 이웃이 없다	.125	.082	.035	.795	.028
주변에 도움을 청할 사람이나 기관이 없다	.126	.190	.199	.746	.146
전에 잘 지내던 사람들과 관계가 멀어졌다	.206	.154	.037	.715	.235
새로운 정보나 기술에 접근하는데 어렵다	.046	.011	.202	.286	.756
세상 돌아가는 사정을 잘 모른다	.148	.078	.287	.411	.689
냉난방 등의 가정설비가 열악하다	.040	.513	.004	.036	.668
교유값	6.531	2.276	1.462	1.374	1.020
분산	38.418	13.389	8.602	8.080	5.998
누적률	38.418	51.808	60.409	68.489	74.487
요인명	가족 지지	경제 지원	시간 지원	사회적 관계망	정보·기술 지원

* 가족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원이 필요한 수준은 전혀그렇지않다(1)~매우그렇다(7)까지 7점 척도로 응답함

** 이 문항은 역코드하여 처리함

- 본 연구에서는 최종 15개 문항에 대해 가족 지지, 경제 지원, 시간 지원, 사회적 관계망, 정보·기술 지원 등 5개 요인에 대해 3개 문항씩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함

2) 가족서비스 지원 및 연계 수요 산출 결과

- 일상 생활하는데 지원이 필요한 요인을 5개로 구분하여 평균점으로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요인별로 지표 개수가 다르므로 요인별로 가족위기 대응점수를 합산하여 해당 지표값으로 나눈 평균값을 각 가족위기 대응자원의 요인별 점수로 산출함

[표 3-50] 가족서비스 지원 및 연계 수요의 요인별 평균 점수

(N=260)

구분	가족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원이 필요한 수준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가족 지지	1.00	7.00	2.9372	1.63742
경제 지원	1.00	7.00	4.1244	1.78256
시간 지원	1.00	7.00	3.9179	1.63013
사회적 관계망	1.00	7.00	3.3474	1.48531
정보·기술 지원	1.00	7.00	3.0103	1.51607

* 가족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원이 필요한 수준은 전혀그렇지않다(1)~매우그렇다(7)까지 7점 척도로 응답함

** 각 요인의 점수는 관련 항목 3개의 점수를 합산하여 3으로 나누어 산출함

[그림 3-22] 가족서비스 지원 및 연계 수요의 요인별 평균 점수



- 지원 및 연계 수요의 5가지 요인 점수 산출 결과는 1점에서 7점 사이에 약 2.94점에서부터 4.12점까지 분포되어 있음
 - 7점에 가까울수록 가족서비스 지원 및 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되므로, 본 연구대상자들은 일상생활을 하는데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경제 지원(4.12점)을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시간 지원(3.92점), 사회적 관계망(3.35점), 정보·기술 지원(3.01점) 순으로 나타남. 가족 지지는 2.94점으로 가장 낮게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3) 가족서비스 지원 및 연계 수요 산출 결과(특성별)

- 지원 및 연계의 필요성을 특성별로 산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다문화가족 여부

- 다문화가족 여부에 따른 요인별 가족서비스 지원 및 연계의 필요성 점수를 산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비교해 다문화 가족은 정보·기술 지원 요인에서만 필요성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다른 서비스 지원들은 오히려 비다문화가족이 더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표 3-51] 다문화가족 여부에 따른 가족서비스 지원 및 연계 필요성 점수

구분	가족서비스 지원 및 연계 필요성 점수			
	다문화가족(n=41)		비다문화가족(n=219)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가족 지지	2.3902	1.30150	3.0396	1.67565
경제 지원	4.0163	1.66492	4.1446	1.80663
시간 지원	3.6016	1.77360	3.9772	1.59924
사회적 관계망	3.2846	1.40941	3.3592	1.50190
정보·기술 지원	3.4797	1.37649	2.9224	1.52771

[그림 3-23] 다문화가족 여부에 따른 가족서비스 지원 및 연계 필요성 점수



□ 한부모가족 여부

- 여부에 따른 요인별 가족서비스 지원 및 연계의 필요성 점수를 산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비한부모가족과 비교해 가족 지지, 경제 지원, 시간 지원, 사회적 관계망, 정보·기술 지원에 대한 필요성 점수가 높게 나타남
 - 특히 한부모 가족은 경제 지원 점수(5.08점)가 가장 높게 나타남

[표 3-52] 한부모가족 여부에 따른 가족서비스 지원 및 연계 필요성 점수

구분	가족서비스 지원 및 연계 필요성 점수			
	한부모가족(n=75)		비한부모가족(n=185)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가족 지지	3.4222	1.70702	2.7405	1.57078
경제 지원	5.0800	1.52933	3.7369	1.73463
시간 지원	4.0000	1.42163	3.8847	1.70992
사회적 관계망	3.8711	1.54599	3.1351	1.40964
정보·기술 지원	3.8756	1.37084	2.6595	1.43202

[그림 3-24] 한부모가족 여부에 따른 가족서비스 지원 및 연계 필요성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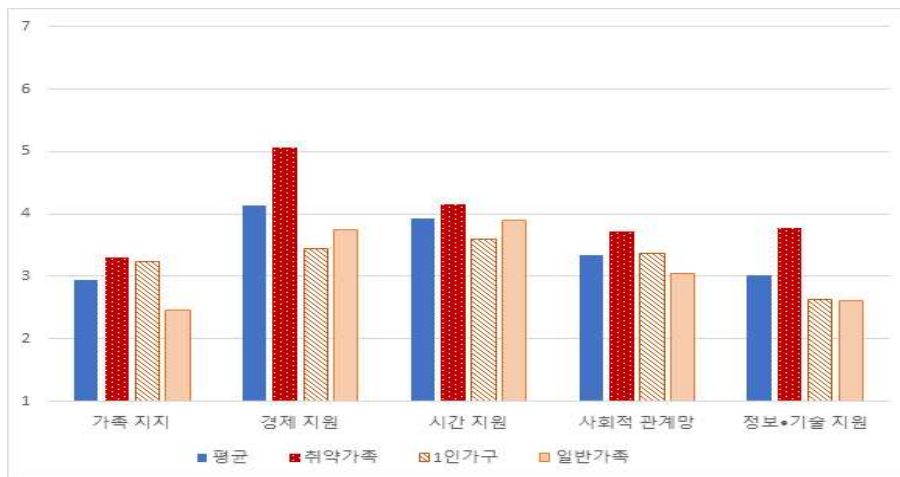
□ 서비스이용 특성별

- 이용 특성에 따른 요인별 가족서비스 지원 및 연계의 필요성 점수를 산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서비스 이용자들은 가족 지지, 경제 지원, 시간 지원, 사회적 관계망, 정보·기술 지원 등 모든 서비스지원 요인에 대해 필요성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남. 특히 경제 지원(5.06점)의 점수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시간 지원(4.16점), 정보·기술 지원(3.78 점), 사회적 관계망(3.71점), 가족 지지(3.31점) 순으로 나타남
 - 1인 가구 서비스 이용자들은 일반 가족 서비스 이용자와 비교해 사회적 관계망과 가족 지지, 그리고 정보·기술 지원 등에서 필요성 점수가 높게 나타남

[표 3-53] 서비스이용 특성별 가족서비스 지원 및 연계 필요성 점수

구분	가족서비스 지원 및 연계 필요성 점수					
	취약가족 서비스 (n=89)		1인가구 서비스 (n=64)		일반가족 서비스 (n=107)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가족 지지	3.3071	1.67364	3.2344	1.77845	2.4517	1.39274
경제 지원	5.0599	1.48440	3.4427	1.84788	3.7539	1.65868
시간 지원	4.1610	1.57803	3.5990	1.69986	3.9065	1.61154
사회적 관계망	3.7079	1.43708	3.3646	1.56315	3.0374	1.42037
정보·기술 지원	3.7753	1.42025	2.6302	1.44642	2.6012	1.39664

[그림 3-25] 서비스이용 특성별 가족서비스 지원 및 연계 필요성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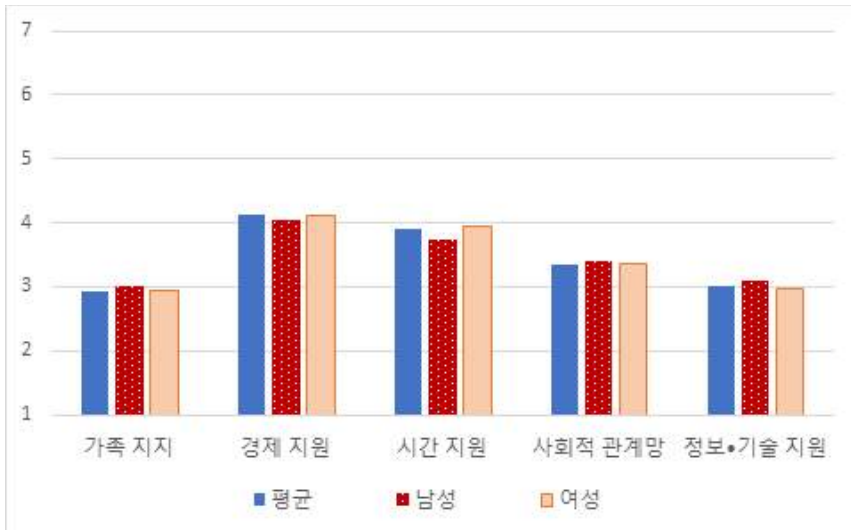
□ 성별

- 다른 요인별 가족서비스 지원 및 연계의 필요성 점수를 산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가족 지지, 사회적 관계망, 정보·기술 지원에 대한 필요성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여성은 경제 지원, 시간 지원에 대한 필요성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3-54] 성별 가족서비스 지원 및 연계 필요성 점수

구분	가족서비스 지원 및 연계 필요성 점수			
	남성(n=46)		여성(n=201)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가족 지지	3.0072	1.84791	2.9303	1.58171
경제 지원	4.0507	1.74408	4.1128	1.79799
시간 지원	3.7246	1.38119	3.9552	1.70805
사회적 관계망	3.4058	1.36248	3.3516	1.51884
정보·기술 지원	3.0870	1.50298	2.9619	1.49487

[그림 3-26] 성별 가족서비스 지원 및 연계 필요성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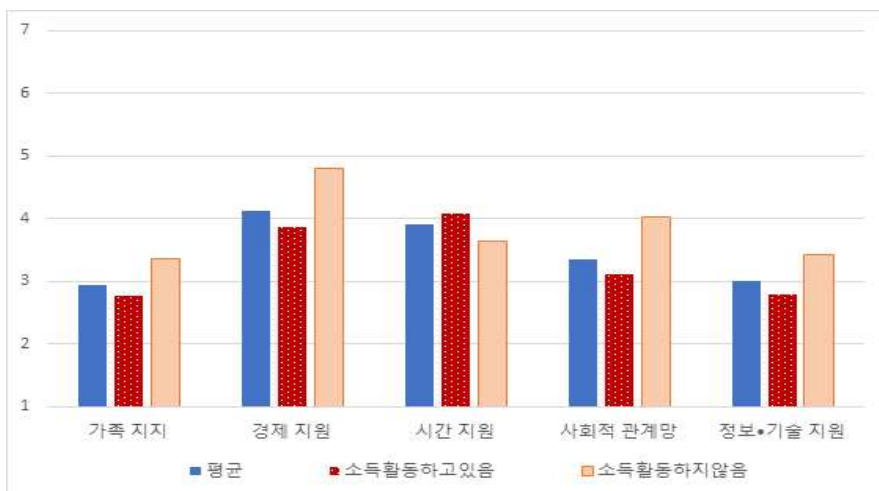
□ 소득활동 여부

- 소득활동 참여여부에 따른 요인별 가족서비스 지원 및 연계의 필요성 점수를 산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참여하지 않은 응답자들이 소득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응답자들과 비교해 시간 지원만 제외하고 다른 4가지 요인에 대해 가족서비스 지원 및 연계 필요성 점수가 높게 나타남
 -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시간 지원에 대한 필요성 점수가 가장 높음

[표 3-55] 소득활동여부에 따른 가족서비스 지원 및 연계 필요성 점수

구분	가족서비스 지원 및 연계 필요성 점수			
	소득활동하고 있음(n=171)		소득활동하지않음(n=64)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가족 지지	2.7661	1.55041	3.3594	1.80564
경제 지원	3.8674	1.77767	4.8021	1.50099
시간 지원	4.0799	1.66336	3.6302	1.49793
사회적 관계망	3.1189	1.42646	4.0365	1.42430
정보·기술 지원	2.7992	1.44325	3.4323	1.47128

[그림 3-27] 소득활동여부에 따른 가족서비스 지원 및 연계 필요성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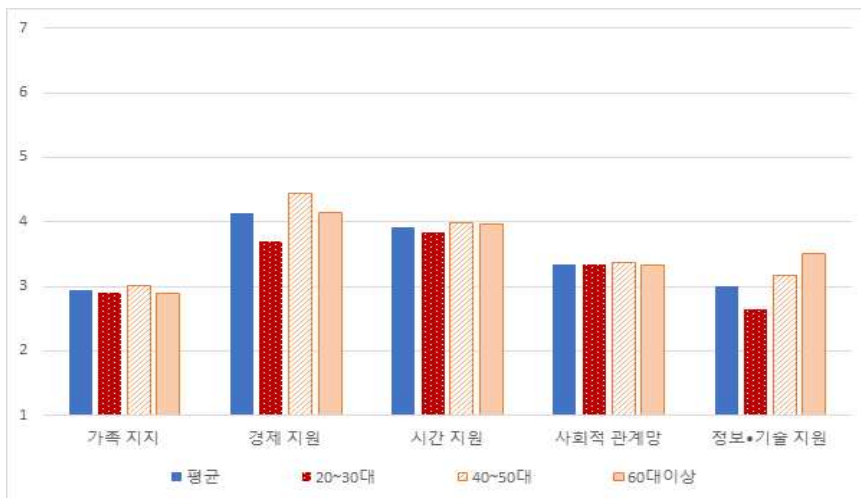
□ 연령별

- 연령대별로 요인별 가족서비스 지원 및 연계의 필요성 점수를 산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기술 지원을 제외하고 40~50대 연령집단이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가족서비스 지원 및 연계 필요성 점수가 높게 나타남. 특히 40~50대 연령집단에서 가장 필요성이 높다고 보고된 가족서비스 지원 및 연계 요인은 경제 지원임
 - 정보·기술 지원을 가장 필요로 하는 집단은 60대 이상 연령집단으로 나타남

[표 3-56] 연령별 가족서비스 지원 및 연계 필요성 점수

구분	가족서비스 지원 및 연계 필요성 점수					
	20~30대(n=103)		40~50대(n=119)		60대이상(n=17)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가족 지지	2.8932	1.65895	3.0028	1.63846	2.9020	1.60626
경제 지원	3.7023	1.82807	4.4482	1.74042	4.1373	1.32842
시간 지원	3.8317	1.78585	3.9832	1.55250	3.9608	1.56295
사회적 관계망	3.3301	1.37476	3.3782	1.59974	3.3333	1.62874
정보·기술 지원	2.6472	1.29758	3.1765	1.58609	3.5098	1.31824

[그림 3-28] 연령별 가족서비스 지원 및 연계 필요성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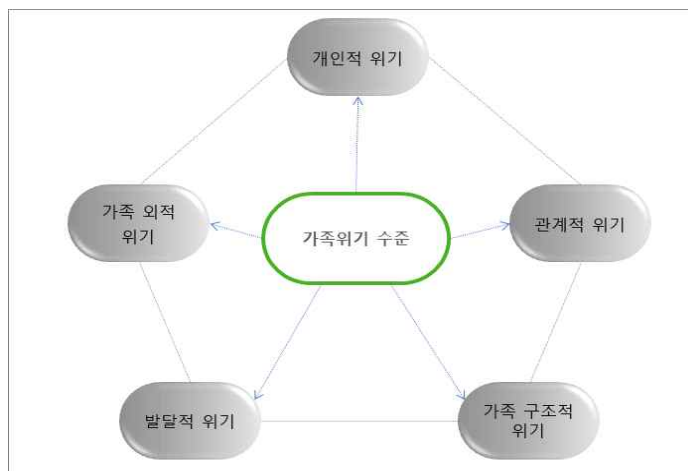
제4장 가족위기
측정도구와
기대성과

I. 가족위기 측정도구 제안

1. 가족위기 수준 측정

- 연구는 가족의 위기 수준을 측정할 도구로 5가지 유형(개인적 위기, 관계적 위기, 가족 구조적 위기, 발달적 위기, 가족 외적 위기)을 제시함
 - 위기 : 개인이 가족원의 선택 또는 갑작스럽게 특정인에게 일어난 사건들로 인해 개인이나 이 사건을 경험한 가족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위기 상황
 - 관계적 위기 : 가정폭력, 학대, 성폭력, 이혼(별거, 외도문제 등), 가족 갈등, 가족 대화 단절 등 가족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위기 상황
 - 가족 구조적 위기 : 저출생·고령화 등 가족 구조적인 변화로 인해 가족의 돌봄이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위기상황
 - 발달적 위기 : 개인의 생애주기를 지나며 준비되거나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나게 되는 일련의 생애사적 위기 상황
 - 가족 외적 위기 : 개인의 의지나 노력, 생각과 상관없이 개인과 가족의 일상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위기 상황

[그림 4-1] 가족위기 수준 측정 단위



- 위기 수준은 각 위기 상황에 대해 개인 또는 가족이 경험한 상황에 대해 ‘현재 어려움을 어느 정도 경험하고 있는가?’에 대해 7점 척도로 측정함
 - 위기 상황에 대해 경험이 없는 사람은 0점, 경험한 사람들은 1점(전혀 심각하지 않다)에서부터 7점(매우 심각하다)까지 응답함
- 5가지 유형별 점수 측정은 각 요인별 개인이 응답한 항목의 점수를 합산한 것을 요인의 개수값으로 나누어 산정함. 이 과정은 5가지 가족위기의 유형별 지표값에 대해 표준화(Normalization)하는 작업임.
 - 개인적 위기점수 = (개인적 위기 13개 항목 합산점수) / 13
 - 관계적 위기점수 = (관계적 위기 5개 항목 합산 점수) / 5
 - 가족 구조적 위기점수 = (가족 구조적 위기 5개 항목 합산 점수) / 5
 - 발달적 위기점수 = (발달적 위기 12개 항목 합산 점수) / 12
 - 가족 외적 위기점수 = (가족 외적 위기 5개 항목 합산 점수) / 5
- 5가지 유형별 지표값의 기초값에 대해서 가중치는 동일하게 부여함. 즉 개인적 위기 점수의 표준화 값이 5점인 수준과 구조적 위기 점수의 표준화값이 5점인 수준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함
 - 따라서 가족위기의 유형별로 최소값 0에서 최대값 7점까지 산정되며, 각 위기 유형별로 점수가 7점에 가까울수록 위기수준이 높다고 분석됨
- 본 연구에서 제안된 가족위기 수준 측정도구와 5가지 위기 유형별 구분은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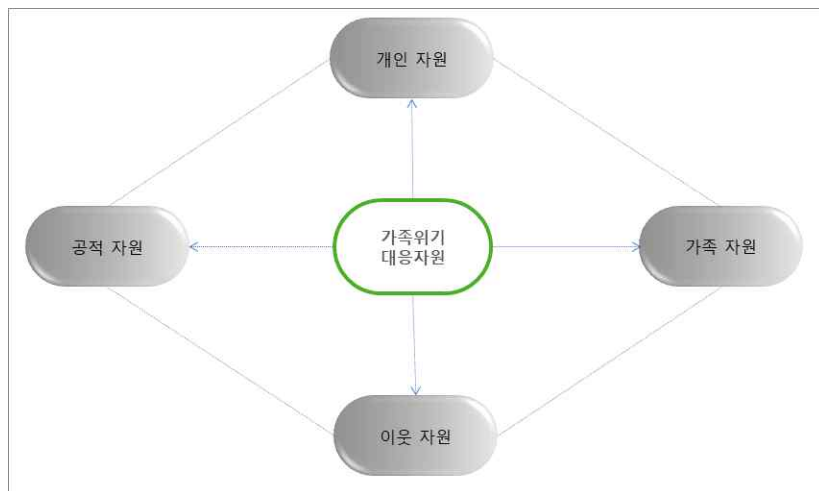
[표 4-1] 본 연구에서 제안된 가족위기 수준 측정도구

가족위기 유형		경험있음							
유형	문항	없음	경험있음						매우 심하다
			심각 하다	거 심각 하다	심각 하다	보통 이다	조 심각 하다	심각 하다	
개인 적 위 기	실직, 해고로 어려움을 느낀다.	0	1	2	3	4	5	6	7
	경제적 어려움과 부채, 신용불량, 파산 등으로 어려움을 느낀다.	0	1	2	3	4	5	6	7
	시험, 진학, 취업 실패로 어려움을 느낀다.	0	1	2	3	4	5	6	7
	이전, 이직, 이사로 인한 부적응과 어려움을 느낀다.	0	1	2	3	4	5	6	7
	술, 담배, 마약, 게임 등 중독으로 어려움을 느낀다.	0	1	2	3	4	5	6	7
	만성질환, 신체장애, 장기 입원 등으로 어려움을 느낀다.	0	1	2	3	4	5	6	7
	정신건강(치매, 정신질환, 발달장애 등)문제로 어려움을 느낀다.	0	1	2	3	4	5	6	7
	소외감, 우울, 불안으로 어려움을 느낀다.	0	1	2	3	4	5	6	7
	가출, 비행으로 어려움을 느낀다.	0	1	2	3	4	5	6	7
	학교폭력, 왕따 피해로 어려움을 느낀다.	0	1	2	3	4	5	6	7
	성폭력 및 성범죄 피해로 어려움을 느낀다.	0	1	2	3	4	5	6	7
	범죄, 폭력(행), 고소/고발로 인해 어려움을 느낀다.	0	1	2	3	4	5	6	7
자살 시도나 죽음(사망)으로 어려움을 느낀다.	0	1	2	3	4	5	6	7	
관 계 적 위 기	가족 내 고립, 단절(은둔형 외톨이)을 느낀다.	0	1	2	3	4	5	6	7
	부부 갈등, 외도, 별거로 힘들다	0	1	2	3	4	5	6	7
	가족(조부모-부모-자녀) 간 갈등으로 힘들다.	0	1	2	3	4	5	6	7
	가정 폭력(학대, 방임)으로 힘들다.	0	1	2	3	4	5	6	7
	이혼, 재혼으로 힘들다.	0	1	2	3	4	5	6	7
가 족 구 조 적 위 기	일상생활(의식주 생활)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0	1	2	3	4	5	6	7
	지역 인구 감소, 인프라(병원, 학교 등) 축소로 인해 어려움이 있다.	0	1	2	3	4	5	6	7
	노부모 부양(경제적, 신체적) 기간의 증가로 어려움이 있다.	0	1	2	3	4	5	6	7
	손자녀 돌봄 부담(경제적, 신체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0	1	2	3	4	5	6	7
	일, 가정 양립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0	1	2	3	4	5	6	7
발 달 적 위 기	결혼 및 적응에 어려움이 있다.	0	1	2	3	4	5	6	7
	임신, 난임, 유산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다.	0	1	2	3	4	5	6	7
	출산, 입양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다.	0	1	2	3	4	5	6	7
	자녀 양육 및 돌봄에 어려움이 있다.	0	1	2	3	4	5	6	7
	자녀의 진학과 학업에 어려움이 있다.	0	1	2	3	4	5	6	7
	부부-부모 역할 적응에 어려움이 있다.	0	1	2	3	4	5	6	7
	진로 및 이성 교제로 인한 어려움이 있다.	0	1	2	3	4	5	6	7
	부부관계 재적응에 어려움이 있다(재혼, 분거, 자녀 독립 후 빈둥지기 등)	0	1	2	3	4	5	6	7
	자녀의 결혼과 독립에 어려움이 있다.	0	1	2	3	4	5	6	7
	은퇴 후 생활 적응에 어려움이 있다.	0	1	2	3	4	5	6	7
	신체적 쇠퇴 등 노화로 어려움이 있다.	0	1	2	3	4	5	6	7
배우자의 사망/홀로되기 어려움이 있다.	0	1	2	3	4	5	6	7	
가 족 외 적 위 기	장기적 경기 침체, 불경기 상황으로 어려움과 불안이 있다.	0	1	2	3	4	5	6	7
	사회적 범죄 증가(무차별 흉기 난동, 스토킹, 보이스피싱, 사이버 범죄)로 어려움과 불안이 있다.	0	1	2	3	4	5	6	7
	메르스나 코로나19 등 전염병으로 어려움과 불안이 있다.	0	1	2	3	4	5	6	7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어려움과 불안이 있다.	0	1	2	3	4	5	6	7
	태풍, 홍수, 산사태, 지진 등 자연재해 피해로 어려움과 불안이 있다.	0	1	2	3	4	5	6	7

2. 가족위기 대응자원 측정

- 연구는 가족의 위기 수준과 함께 가족위기에 대한 대응자원을 측정할 도구로 4가지 요인(개인 자원, 가족 자원, 이웃 자원, 공적 자원)을 제시함
 - 자원 : 일상생활에서 개인이 보유한 자원(태도, 의지, 지식, 물질자원)
 - 가족 자원 : 일상생활에서 가족이 보유한 자원(복원력, 회복력, 유연성)
 - 이웃 자원 : 일상생활에서 가족 이외 도와줄 수 있는 사적자원(가족네트워크, 친구네트워크, 지역네트워크, 직장네트워크)
 - 공적 자원 : 일상생활에서 가족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공적자원(지역자원, 민간자원, 공적서비스)

[그림 4-2] 가족위기 대응자원 측정 단위



- 가족위기에 대한 대응자원에 대해 ‘가족위기를 극복하기에 자원이 어느 정도 충분한가?’에 대해 7점 척도로 측정함
 - 가족위기를 극복하기에 자원이 충분하다는 수준은 ‘전혀 없다’(1점)에서 부터 ‘매우 많다’(7점)까지 응답함

- 4개 항목에 대해 17개 문항을 요인분석한 결과 1개의 문항을 제외한 16개 문항이 최종 포함됨
 - 절대값을 고려하여 “우리 가족의 위기 극복 경험과 추진력” 문항을 제외함
- 4가지 요인 점수 측정은 각 요인별 개인이 응답한 항목의 점수를 합산한 것을 요인의 개수값으로 나누어 산정함. 이 과정은 4가지 가족위기 대응자원의 요인별 지표값에 대해 표준화(Normalization)하는 작업임.
 - 개인 자원 점수 = (개인 자원 4개 항목 합산 점수) / 4
 - 가족 자원 점수 = (가족 자원 3개 항목 합산 점수) / 3
 - 이웃 자원 점수 = (이웃 자원 4개 항목 합산 점수) / 4
 - 공적 자원 점수 = (공적 자원 5개 항목 합산 점수) / 5
- 4가지 요인별 지표값의 기초값에 대해서 가중치는 동일하게 부여함. 즉 개인자원 점수의 표준화 값이 5점인 수준과 관계자원 점수의 표준화값이 5점인 수준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함
- 따라서 가족위기 대응자원의 요인별로 최소값 0에서 최대값 7점까지 산정되며, 각 자원점수가 7점에 가까울수록 충분하다고 분석됨
- 본 연구에서 제안된 가족위기 대응자원 수준 측정도구와 4가지 자원 요인별 구분은 다음과 같음

[표 4-2] 본 연구에서 제안된 가족위기 대응자원 충분도 측정도구

가족위기 대응자원 구분		극복 자원 보유 정도						
요인	문항	혀 없다	부 족 하 다	조 금 족 하 다	보 통 이 다	조 금 있 다	많 이 있 는 편 이 다	매 우 많 다
개인 자원	나의 위기 대처 역량(지식/기술/경험)	1	2	3	4	5	6	7
	나의 위기 극복 의지와 열정	1	2	3	4	5	6	7
	나의 위기 대처 자원(재정 능력)	1	2	3	4	5	6	7
	나의 긍정적 성격(태도)	1	2	3	4	5	6	7
가족 자원	가족원간의 손상회복을 돕는 협력과 지지	1	2	3	4	5	6	7
	가족간 위기 발생시 유대감(친밀감)	1	2	3	4	5	6	7
	우리 가족의 생활 변화에의 적응력과 유연성	1	2	3	4	5	6	7
이웃 자원	가족외에 도와줄 수 있는 친구들	1	2	3	4	5	6	7
	가족외에 도와줄 수 있는 동네 이웃들	1	2	3	4	5	6	7
	가족외에 도와줄 수 있는 친척들	1	2	3	4	5	6	7
	동호회, 종교모임, 직장동료	1	2	3	4	5	6	7
공적 자원	정부 및 지자체 지원(보조금, 물품, 서비스 등)	1	2	3	4	5	6	7
	지역사회 공동체(주민자치회, 부녀회), 봉사단체	1	2	3	4	5	6	7
	민간시민단체(로타리, 라이온스 재단, 후원회, 협회)	1	2	3	4	5	6	7
	복지관(시설), 가족센터, 상담(트라우마)센터	1	2	3	4	5	6	7
	경찰서, 소방서, 교육청, 학교	1	2	3	4	5	6	7

3. 가족서비스 지원 및 연계 필요성 측정

- 연구는 가족서비스 지원 및 연계가 필요한 분야를 측정할 도구로 4가지 요인(가족지지, 경제지원, 시간지원, 사회적관계망 지원, 정보·기술 지원)을 제시함
 - 가족지지 : 가족이 일상생활하는데 필요한 가족간의 지지와 협조의 정도
 - 경제지원 : 가족이 일상생활하는데 필요한 경제적 자원의 지원 정도
 - 시간지원 : 가족이 일상생활하는데 필요한 시간 자원의 지원 정도
 - 사회적관계망 : 가족이 일상생활하는데 필요한 사회 자본의 지원 정도
 - 정보·기술 지원 : 가족이 일상생활하는데 필요한 정보나 기술의 지원 정도
- 위기 발생시 가족 서비스 지원이나 연계가 필요한 항목에 대해 ‘가족이 일상생활하는데 필요한 지원의 정도’에 대해 7점 척도로 측정함
 - 가족이 일상 생활하는데 지원이 필요한 수준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7점)까지 응답함
- 당초 5개 항목에 대해 17개 문항을 요인분석한 결과 2개의 문항을 제외한 15개 문항이 최종 포함됨
 - 요인부하량 절대값을 고려하여 “위기시 어디에서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모르겠다”와 “주거상태가 불안정하다” 문항을 제외함
- 5가지 요인 점수 측정은 각 요인별 개인이 응답한 항목의 점수를 합산한 것을 요인의 개수값으로 나누어 산정함. 이 과정은 5가지 가족서비스 지원 및 연계 수요의 요인별 지표값에 대해 표준화(Normalization)하는 작업임.
 - 가족지지 점수 = (가족지지 3개 항목 합산 점수) / 3
 - 경제지원 점수 = (경제 지원 3개 항목 합산 점수) / 3
 - 시간지원 점수 = (시간 지원 3개 항목 합산 점수) / 3
 - 사회적 관계망 점수 = (사회적 관계망 3개 항목 합산 점수) / 3

- 기술 지원 점수 = (정보·기술 지원 3개 항목 합산 점수) / 3
- 5 요인별 지표값의 기초값에 대해서 가중치는 동일하게 부여함. 즉 가족지지 점수의 표준화 값이 5점인 수준과 사회적관계망 점수의 표준화값이 5점임 수준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함
- 따라서 가족서비스 지원 및 연계 수요의 요인별로 최소값 1에서 최대값 7점까지 산정되며, 점수가 7점에 가까울수록 가족서비스 지원 및 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됨
- 본 연구에서 제안된 가족서비스 지원 및 연계 필요성 측정도구와 5가지 요인별 구분은 다음과 같음

[표 4-3] 본 연구에서 제안된 가족서비스 지원 및 연계 필요성 측정도구

가족서비스 지원 및 연계 영역 구분		일상생활하는데 필요한 지원						
요인	문항	허 그렇지 않 다	상당히 그렇지 않 다	약 간 그렇지 않 다	보 통 이 다	조 금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매 우 그렇다
가족 지지	우리가족은 서로를 존중한다*	1	2	3	4	5	6	7
	우리 가족은 힘들 때 서로 의지가 된다*	1	2	3	4	5	6	7
	우리 가족은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편이다*	1	2	3	4	5	6	7
경제 지원	생활비 외에 금전적 여유가 없다	1	2	3	4	5	6	7
	빚, 부채, 사채 등이 있다	1	2	3	4	5	6	7
	매달 생활비가 부족하다	1	2	3	4	5	6	7
시간 지원	집안일을 제대로 처리할 시간이 없다	1	2	3	4	5	6	7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하다	1	2	3	4	5	6	7
	항상 시간에 쫓긴다	1	2	3	4	5	6	7
사회적 관계망	주변에 교류하는 이웃이 없다	1	2	3	4	5	6	7
	주변에 도움을 청할 사람이나 기관이 없다	1	2	3	4	5	6	7
	전에 잘 지내던 사람들과 관계가 멀어졌다	1	2	3	4	5	6	7
정보· 기술 지원	새로운 정보나 기술에 접근하는데 어렵다	1	2	3	4	5	6	7
	세상 돌아가는 사정을 잘 모른다	1	2	3	4	5	6	7
	냉난방 등의 가정설비가 열악하다	1	2	3	4	5	6	7

* 이 문항은 다른 문항과 묻는 방식이 다르므로 역코딩하여 처리함

II. 가족위기 수준 측정도구 기대성과

1. 가족위기 수준 구분과 특성 파악

1) 가족위기 수준 구분

- 5개 유형별로 응답한 점수 값(표준화값)을 모두 합산하여 위기수준을 3개 집단으로 구분함
 - 위기 점수=개인적 위기점수+관계적 위기점수+가족 구조적 위기점수+발달적 위기점수+가족 외적 위기점수
 - 전체 위기 점수는 최소 0점에서 최대 35점으로 분포됨. 조사 대상 표집시 위기 가족과 위기가 아닌 가족을 가족센터 위기서비스 이용 여부에 따라 이미 구별하여 조사하였으므로, 표집된 조사대상자수와 위기점수대를 고려하여 위기 집단을 구분함
 - 위기점수 분포에 따라 (1)위기점수낮은집단(0~15점), (2)위기점수보통집단(15.01~20점), (3) 위기점수높은집단(20.01~35점) 등으로 구분함

[표 4-4] 가족위기 수준별 집단 구분

구분	가족 전체 위기 점수		
	위기점수 낮은집단	위기점수 보통집단	위기점수 높은집단
위기점수 분포(점)	0 ~ 15.0	15.01 ~ 20.0	20.01 ~ 35.0
빈도(명)	118	65	77
구성비(%)	45.4	25.0	29.6

- 위기 점수 보통집단은 0점에서 35점 구간중 15점~20점사이에 해당하는 구간으로서 향후 위기 지원 서비스 대상자이지만 위기 수준이 낮아진 상태이거나, 또는 가족위기 수준이 높지만, 위기 지원 서비스에는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이 위기 서비스 대상자로서 관찰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구간을 구분한 결과임.

2)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가족위기 수준 비교

□ 성별

- 수준의 집단별로 성별 특성에 대한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가족위기 수준별로 성별 특성의 비율에 차이가 없음

[표 4-5] 가족위기 수준과 성별의 교차분석

성별 위기수준	남성		여성		전체*	
	빈도(명)	구성비(%)	빈도(명)	구성비(%)	빈도(명)	구성비(%)
위기점수 낮은집단	24	21.4	88	78.6	112	100.0
위기점수 보통집단	9	14.5	53	85.5	62	100.0
위기점수 높은집단	13	17.8	60	82.2	73	100.0
χ^2 (p)	1.304 (.521)					

* 인해 전체 빈도의 차이가 있음

□ 소득활동 여부

- 가족위기 수준의 집단별로 소득활동 여부에 대한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가족위기 수준별로 소득활동 여부의 비율에 차이가 있음($p < .001$)
- 응답자 본인이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는 가족위기 점수가 높은 집단에 많이 분포되어 있음

[표 4-6] 가족위기 수준과 소득활동 여부의 교차분석

소득활동 여부 위기수준	소득활동 하고있음		소득활동 하지않음		전체*	
	빈도(명)	구성비(%)	빈도(명)	구성비(%)	빈도(명)	구성비(%)
위기점수 낮은집단	91	84.3	17	15.7	108	100.0
위기점수 보통집단	44	75.9	14	24.1	58	100.0
위기점수 높은집단	36	52.2	33	47.8	69	100.0
χ^2 (p)	22.244 (.000)					

* 인해 전체 빈도의 차이가 있음

□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수준

- 안정적인 수준에 대해서도 가족위기 점수가 높은 집단일수록 불안정하다고 응답하고 있음

[표 4-7] 가족위기 수준별 경제적 안정 수준 점수 차이

위기수준	경제적 안정 수준	평균	표준편차	Duncan	
위기점수 낮은집단 (n=116)		3.21	.919	c	
위기점수 보통집단 (n=65)		2.37	.911	b	
위기점수 높은집단 (n=76)		1.88	.832	a	
F(p)		53.670(.000)			

* 5점 척도로 응답(1: 매우 불안정하다 ~ 5: 매우 안정적이다)

** 결측치로 인해 전체 빈도의 차이가 있음

*** Duncan test : a < b < c

□ 연령

- 수준의 집단별로 연령별 특성에 대한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가족위기 수준별로 연령별 특성의 비율에 차이가 있음(p<.05)
- 응답자가 40~50대인 경우가 가족위기 점수가 높은 집단에 많이 분포되어 있음

[표 4-8] 가족위기 수준과 연령별 특성의 교차분석

연령별 위기수준	20~30대		40~50대		60대 이상		전체*	
	빈도 (명)	구성비 (%)	빈도 (명)	구성비 (%)	빈도 (명)	구성비 (%)	빈도 (명)	구성비 (%)
위기점수 낮은집단	59	53.6	47	42.7	4	3.6	110	100.0
위기점수 보통집단	19	32.8	31	53.4	8	13.8	58	100.0
위기점수 높은집단	25	35.2	41	57.7	5	7.0	71	100.0
χ^2 (p)	12.967 (.011)							

* 인해 전체 빈도의 차이가 있음

- 이는 가족위기 수준별 집단에 따라 응답자의 연령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위기점수가 낮은 집단의 평균 연령은 39.27세인데, 위기점수가 높은집단(평균 43.9세)과 위기점수가 보통인 집단(평균 45.86세)은 평균 40대 중반으로 나타난 결과로도 확인됨

[표 4-9] 가족위기 수준별 평균 연령의 차이

위기수준	연령	평균	표준편차	Duncan
위기점수 낮은집단 (n=110)		39.27	10.541	a
위기점수 보통집단 (n=58)		45.86	11.166	b
위기점수 높은집단 (n=71)		43.90	10.704	b
F(p)		8.341(.000)		

* 결측치로 인해 전체 빈도의 차이가 있음

** Duncan test : a < b

3) 가족서비스 이용자별 가족위기 수준 비교

- 수준의 집단별로 가족서비스 이용 특성에 대한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가족위기 수준별로 서비스 이용 특성의 비율에 차이가 있으므로($p < .001$) 추후 가족서비스의 성과를 가족위기 수준의 감소 점수로 확인할 수 있음
- 취약가족 서비스 이용자 가족이 가족위기 점수가 높은 집단에 많이 분포되어 있음

[표 4-10] 가족위기 수준과 서비스이용 특성의 교차분석

서비스 이용 특성 위기수준	취약가족서비스		1인가구 서비스		일반가족서비스		전체*	
	빈도 (명)	구성비 (%)	빈도 (명)	구성비 (%)	빈도 (명)	구성비 (%)	빈도 (명)	구성비 (%)
위기점수 낮은집단	19	16.1	37	31.4	62	52.5	118	100.0
위기점수 보통집단	26	40.0	13	20.0	26	40.0	65	100.0
위기점수 높은집단	44	57.1	14	18.2	19	24.7	77	100.0
χ^2 (p)	36.626 (.000)							

4) 돌봄 대상자의 수와 가족위기 수준 비교

- 가족위기 수준의 집단별로 돌봄 대상자 수의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남($p < .01$). 따라서 향후, 돌봄 대상자 수에 따라 가족정책적 지원 범위와 위기 수준을 파악하는데 활용할 수 있음
- 가족위기 점수가 낮은 집단이 보통인 집단과 높은 집단에 비해 돌봄대상자수가 적게 나타남

[표 4-11] 가족위기 수준별 돌봄대상자수의 차이

위기수준 \ 돌봄대상자수(명)	평균	표준편차	Duncan
위기점수 낮은집단 (n=111)	1.23	1.118	a
위기점수 보통집단 (n=58)	1.86	1.382	b
위기점수 높은집단 (n=76)	1.72	1.229	b
F(p)	6.583(.002)		

* 인해 전체 빈도의 차이가 있음

** Duncan test : a < b

5) 가족 유형별 가족위기 수준 비교

- 수준을 가족 유형별로 파악하여, 가족유형에 따라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할 취약한 기능과 위기 영역을 파악하는데 활용할 수 있음
- 가족위기 수준 높은 대상 우선 파악과 지원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음

□ 다문화가족 여부에 따른 가족위기 수준

- 가족위기 수준의 집단별로 다문화가족 여부에 대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가족위기 수준과 다문화가족 여부의 비율에 차이는 없음
- 다문화가족과 비다문화가족간 가족위기 수준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됨

[표 4-12] 가족위기 수준과 다문화가족의 교차분석

다문화가족 유무 \ 위기수준	다문화가족		비다문화가족		전체*	
	빈도(명)	구성비(%)	빈도(명)	구성비(%)	빈도(명)	구성비(%)
위기점수 낮은집단	13	11.0	105	89.0	118	100.0
위기점수 보통집단	13	20.0	52	80.0	65	100.0
위기점수 높은집단	15	19.5	62	80.5	77	100.0
χ^2 (p)	3.681 (.159)					

□ 한부모가족 여부에 따른 가족위기 수준

- 수준의 집단과 한부모가족 여부에 대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가족위기 수준별로 한부모가족의 비율에 차이가 있음($p < .001$)
- 한부모 가족이 가족위기 점수가 높은 집단에 많이 분포되어 있음

[표 4-13] 가족위기 수준과 한부모가족의 교차분석

한부모가족 유무	한부모가족		비한부모가족		전체*	
	빈도(명)	구성비(%)	빈도(명)	구성비(%)	빈도(명)	구성비(%)
위기수준 낮은집단	14	11.9	104	88.1	118	100.0
위기수준 보통집단	21	32.3	44	67.7	65	100.0
위기수준 높은집단	40	51.9	37	48.1	77	100.0
χ^2 (p)	36.980 (.000)					

6) 가족위기 수준에 따른 가족위기 유형별 위기점수

- 가족위기 수준의 집단별로 5가지 가족위기 유형의 점수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남 ($p < .001$)
- 위기점수가 보통집단과 비교해 위기점수가 높은 집단은 개인적 위기, 관계적 위기, 가족 구조적 위기, 발달적 위기, 가족 외적 위기 등 모든 영역의 가족위기 점수가 평균 1점 이상씩 차이남

[표 4-14] 가족위기 수준별 위기유형의 점수 차이

위기 유형 위기수준	개인적 위기		관계적 위기		가족 구조적 위기		발달적 위기		가족적 위기		Duncan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위기점수 낮은집단 (n=118)	1.68	1.77	0.55	1.07	1.64	1.85	1.94	1.87	1.47	1.67	a
위기점수 보통집단 (n=65)	3.93	1.39	2.52	1.94	3.81	1.45	3.67	1.25	3.53	1.56	b
위기점수 높은집단 (n=76)	4.98	1.16	4.61	1.80	4.99	1.29	5.14	1.10	5.03	1.32	b
F(p)	118.466 (.000)		158.865 (.000)		107.335 (.000)		103.884 (.000)		127.106 (.000)		

* Duncan test : a < b

7) 가족위기 수준에 따른 가족위기 대응 자원 충분도

- 수준의 집단별로 개인 자원, 가족 자원, 이웃 자원의 충분도 점수는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게 차이가 나타났으며, 공적 자원은 $p < .05$ 수준에서 유의하게 차이가 나타남
- 위기점수가 높은 집단은 개인 자원, 가족 자원, 이웃 자원, 공적 자원 등 모든 가족위기 대응자원의 충분도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남
- 특히 가족위기 수준 낮은 집단, 보통 집단, 높은 집단 모두 가족 자원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다른 자원에 비해 이웃 자원 점수가 가장 낮았음
- 가족위기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고자 할 때, 가족위기 대응 자원 충분도를 함께 고려하여, 서비스 지원 방향을 설계하는데 활용할 수 있음

[표 4-15] 가족위기 수준별 가족위기 대응자원 충분도 점수 차이

가족위기 대응자원 위기수준	개인 자원			가족 자원			이웃 자원			공적 자원		
	평균	표준 편차	D*	평균	표준 편차	D*	평균	표준 편차	D*	평균	표준 편차	D*
위기점수 낮은집단 (n=118)	5.13	1.01	c	5.33	1.16	b	4.36	1.40	c	3.67	1.29	b
위기점수 보통집단 (n=65)	4.54	1.76	b	4.68	1.40	a	3.57	1.37	b	3.37	1.28	ab
위기점수 높은집단 (n=77)	4.16	1.34	a	4.33	1.52	a	2.71	1.28	a	3.12	1.19	a
F(p)	17.273(.000)			13.894(.000)			34.399(.000)			4.534(.012)		

* Duncan test : a < b < c

8) 가족위기의 수준에 따른 가족서비스 지원 및 연계 수요 차이

- 수준의 집단별로 5가지 가족서비스 지원 및 연계의 필요성 점수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남(p<.001)
- 위기점수가 높은 집단은 가족 지지, 경제 지원, 시간 지원, 사회적 관계망, 정보·기술 지원 등 모든 가족서비스 지원과 연계 필요성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위기점수가 보통집단은 시간 지원의 필요성이 위기점수가 높은 집단과 같은 수준으로 높게 나타남
- 가족서비스 지원 및 연계 수요를 확인하여 가족위기 수준에 맞춘 서비스 계획을 설계하는데 활용할 수 있음

[표 4-16] 가족위기 수준별 가족서비스 지원 및 연계 필요성 점수 차이

서비스 지원 및 연계 위기 수준	가족 지지		경제 지원		시간 지원		사회적 관계망		정보·기술 지원		Duncan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위기점수 낮은집단 (n=118)	2.43	1.38	3.14	1.67	3.34	1.74	2.78	1.32	2.22	1.20	a
위기점수 보통집단 (n=65)	3.08	1.67	4.43	1.46	4.26	1.26	3.29	1.24	3.23	1.19	b
위기점수 높은집단 (n=77)	3.58	1.73	5.36	1.26	4.50	1.43	4.24	1.48	4.03	1.52	c
F(p)	12.831 (.000)		52.268 (.000)		15.277 (.000)		27.045 (.000)		46.051 (.000)		

* Duncan test : a < b < c

2. 가족위기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파악

1) 전체 가족위기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 가족위기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함
- 전체 가족위기 수준에 한부모 가족, 취약가족, 소득활동하는 경우, 연령, 경제적인 안정적 수준, 개인자원, 가족자원, 관계자원, 시설자원, 돌봄대상자수 등의 요인이 가족위기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F=15.099$, $p<.001$),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약 41.8%로 나타남.
- Durbin-Watson 통계량은 1.942로 2에 근사한 값을 보여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가 없으며,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tor: VIF)도 모두 10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됨

[표 4-17] 전체 가족위기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독립변수	B	S.E	β	t	p
(상수)	24.672	3.140		7.858	.000
한부모가족#	2.108	1.278	.109	1.649	.101
취약가족#	-.130	1.199	-.007	-.109	.914
소득활동 안함#	1.174	1.085	.062	1.081	.281
응답자 본인 연령(만)	.105	.041	.137	2.543	.012
경제적 안정적인 수준	-2.582	.513	-.321	-5.037	.000
개인 자원	-.680	.528	-.094	-1.288	.199
가족 자원	-.250	.448	-.041	-.558	.577
이웃 자원	-1.076	.417	-.186	-2.584	.010
공적 자원	-.030	.404	-.004	-.074	.941
돌봄대상자수(명)	.886	.379	.130	2.341	.020

$F=15.099(p<.001)$, $R^2=.418$ $_{adj}R^2=.391$, $D-W=1.942$

한부모가족(1:한부모가족, 0: 비한부모가족), 취약가족(1:취약가족, 0:일반가족,1인 가구), 소득활동 안함(1:소득활동 안함, 0:소득활동 함) 등의 변수는 더미변수로 처리함

- 가족위기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응답자본인 연령($p<.05$), 경제적 안정적인 수준($p<.001$), 관계자원($p<.05$), 돌봄대상자 수($p<.05$) 등이 있음
- 즉, 연령이 높고, 경제적인 수준이 불안정할수록, 그리고 관계자원이 부족할수록, 돌봄대상자 수가 많을수록 전체 가족위기 수준이 높게 나타남

2) 가족위기 유형별 가족위기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 개인적 위기

- 개인적 위기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경제적 안정적인 수준($p<.001$)만 유의하게 나타남
- 즉, 경제적인 수준이 불안정할수록 개인적 위기 수준이 높게 나타남

[표 4-18] 개인적 위기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독립변수	B	S.E	β	t	p
(상수)	5.581	.821		6.800	.000
한부모가족#	.005	.326	.001	.016	.987
취약가족#	.315	.306	.070	1.027	.305
소득활동 안함#	.542	.277	.115	1.954	.052
응답자 본인 연령(만)	.017	.011	.089	1.600	.111
경제적 안정적인 수준	-.764	.131	-.384	-5.836	.000
개인 자원	-.048	.135	-.027	-.356	.722
가족 자원	-.096	.114	-.064	-.843	.400
이웃 자원	-.199	.106	-.139	-1.868	.063
공적 자원	-.033	.103	-.020	-.325	.746
돌봄대상자수(명)	.096	.097	.057	.991	.323

F=12.987($p<.001$), $R^2=.382$ $_{adj}R^2=.353$, D-W=1.923

#한부모가족(1:한부모가족, 0:비한부모가족), 취약가족(1:취약가족, 0:일반가족,1인 가구), 소득활동 안함(1:소득활동안함, 0:소득활동 함) 등의 변수는 더미변수로 처리함

□ 관계적 위기

- 위기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한부모가족 여부($p<.001$), 경제적 안정적인 수준($p<.05$), 가족자원($p<.01$), 관계자원($p<.05$), 돌봄대상자수($p<.05$) 등이 있음
- 즉, 한부모 가족일수록, 경제적인 수준이 불안정할수록, 가족자원과 관계자원이 부족할수록, 돌봄대상자 수가 많을수록 관계적 위기 수준이 높게 나타남

[표 4-19] 관계적 위기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독립변수	B	S.E	β	t	p
(상수)	4.570	.943		4.849	.000
한부모가족#	1.357	.375	.255	3.621	.000
취약가족#	-.617	.352	-.124	-1.753	.081
소득활동 안함#	.169	.318	.032	.530	.596
응답자 본인 연령(만)	.017	.012	.079	1.373	.171
경제적 안정적인 수준	-.316	.150	-.143	-2.100	.037
개인자원	.016	.155	.008	.101	.920
가족자원	-.412	.131	-.244	-3.135	.002
관계자원	-.314	.122	-.197	-2.573	.011
시설자원	.075	.118	.040	.631	.529
돌봄대상자수(명)	.272	.111	.145	2.453	.015

F=10.889($p<.001$), $R^2=.341$ $_{adj}R^2=.310$, D-W=1.977

한부모가족(1:한부모가족, 0:비한부모가족), 취약가족(1:취약가족, 0:일반가족, 1인 가구), 소득활동 안함(1:소득활동안함, 0:소득활동 함) 등의 변수는 더미변수로 처리함

□ 가족 구조적 위기

- 가족 구조적 위기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응답자 본인의 연령($p<.05$), 경제적 안정적인 수준($p<.001$) 등이 있음
- 즉, 연령이 높을수록, 경제적인 수준이 불안정할수록 가족 구조적 위기 수준이 높게 나타남

[표 4-20] 가족 구조적 위기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독립변수	B	S.E	β	t	p
(상수)	5.484	.952		5.763	.000
한부모가족#	-.357	.378	-.073	-.944	.346
취약가족#	.041	.355	.009	.116	.908
소득활동 안함#	.032	.321	.007	.099	.921
응답자 본인 연령(만)	.025	.012	.126	2.005	.046
경제적 안정적인 수준	-.559	.152	-.275	-3.685	.000
개인 자원	-.292	.156	-.159	-1.865	.064
가족 자원	.042	.133	.027	.316	.753
이웃 자원	-.132	.123	-.090	-1.068	.287
공적 자원	-.108	.120	-.063	-.906	.366
돌봄대상자수(명)	.140	.112	.081	1.249	.213

F=5.427(p<.001), R²=.205 adjR²=.168, D-W=1.987

#한부모가족(1:한부모가족, 0: 비한부모가족), 취약가족(1:취약가족, 0:일반가족,1인 가구), 소득활동 안함(1:소득활동안함, 0:소득활동 함) 등의 변수는 더미변수로 처리함

□ 발달적 위기

- 위기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응답자 본인 연령(p<.01), 경제적 안정적인 수준(p<.01), 이웃 자원(p<.05), 돌봄대상자 수(p<.05) 등이 있음
- 즉, 연령이 높을수록, 경제적인 수준이 불안정할수록, 이웃 자원이 부족할수록, 돌봄대상자 수가 많을수록 발달적 위기 수준이 높게 나타남

[표 4-21] 발달적 위기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독립변수	B	S.E	β	t	p
(상수)	3.753	.840		4.465	.000
한부모가족#	.640	.334	.140	1.914	.057
취약가족#	.022	.314	.005	.069	.945
소득활동 안함#	.010	.284	.002	.034	.973
응답자 본인 연령(만)	.031	.011	.173	2.897	.004
경제적 안정적인 수준	-.388	.134	-.205	-2.898	.004
개인 자원	-.097	.138	-.057	-.702	.484
가족 자원	.036	.117	.025	.305	.761
이웃 자원	-.276	.109	-.202	-2.537	.012
공적 자원	-.006	.106	-.003	-.052	.958
돌봄대상자수(명)	.246	.099	.153	2.482	.014

F=8.462(p<.001), R²=.287 adjR²=.253, D-W=2.181

#한부모가족(1:한부모가족, 0: 비한부모가족), 취약가족(1:취약가족, 0:일반가족,1인 가구), 소득활동 안함(1:소득활동안함, 0:소득활동 함) 등의 변수는 더미변수로 처리함

□ 가족 외적 위기

- 외적 위기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경제적 안정적인 수준($p < .01$)만 있음
- 즉, 경제적인 수준이 불안정할수록 가족 외적 위기 수준이 높게 나타남

[표 4-22] 가족 외적 위기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독립변수	B	S.E	β	t	p
(상수)	4.110	.927		4.432	.000
한부모가족#	.462	.369	.095	1.254	.211
취약가족#	.109	.346	.024	.315	.753
소득활동 안함#	.422	.313	.088	1.346	.180
응답자 본인 연령(만)	.016	.012	.081	1.316	.190
경제적 안정적인 수준	-.554	.148	-.273	-3.744	.000
개인 자원	-.259	.152	-.142	-1.699	.091
가족 자원	.181	.129	.117	1.399	.163
이웃 자원	-.155	.120	-.106	-1.290	.199
공적 자원	.043	.117	.025	.367	.714
돌봄대상자수(명)	.132	.109	.077	1.209	.228

F=6.658($p < .001$), $R^2 = .241$, $adjR^2 = .205$, D-W=1.803

#한부모가족(1:한부모가족, 0:비한부모가족), 취약가족(1:취약가족, 0:일반가족, 1인 가구), 소득활동 안함(1:소득활동안함, 0:소득활동 함) 등의 변수는 더미변수로 처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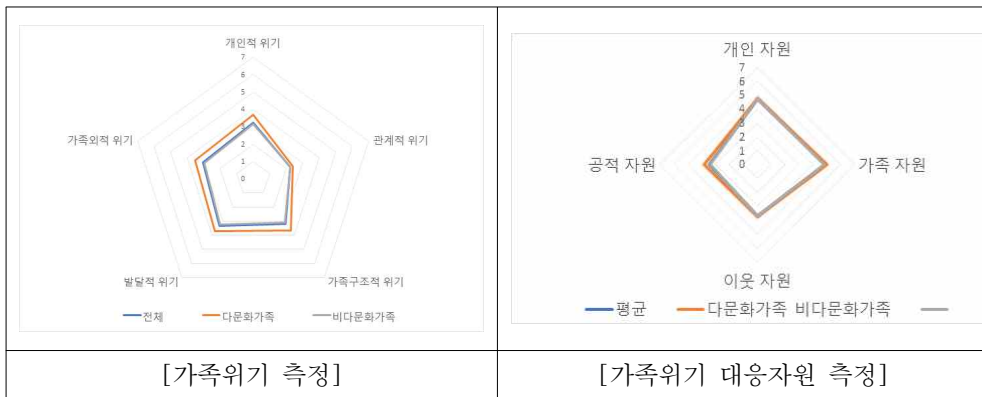
3. 가족위기 수준과 대응자원의 충분도 파악

- 연구는 각 가족의 위기수준을 진단하기 위해 가족위기 수준 측정 결과와 가족위기 대응자원 측정결과를 대응하여 종합적으로 진단함

□ 다문화 가족의 진단

- 다문화 가족은 비다문화 가족에 비해 가족위기 점수가 모두 높게 나타나며, 발달적 위기, 개인적 위기, 가족 구조적 위기, 가족 외적 위기 순으로 나타남
- 그러나 다문화 가족은 가족위기에 대처하는 대응자원의 충분도에서 비다문화 가족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냄
- 따라서, 다문화 가족의 경우 비다문화 가족과 비교해 가족위기에 처할 위험도가 높은 편이나, 이러한 가족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개인 자원, 가족 자원, 이웃 자원, 공적 자원이 충분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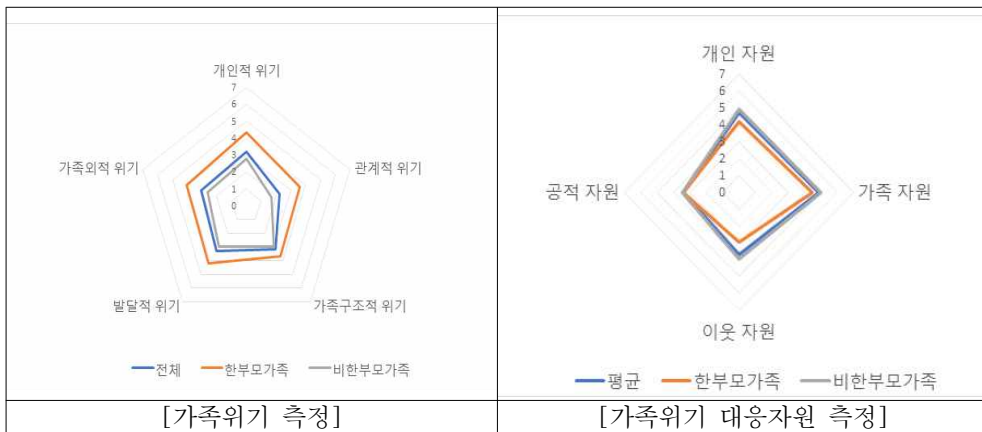
[그림 4-3] 다문화 가족의 가족위기 수준과 대응자원의 충분도 대응



□ **한부모 가족의 진단**

- 가족은 가족위기 점수가 모두 높게 나타나며, 특히 개인적 위기, 발달적 위기, 가족 외적 위기는 매우 높은 수준임. 그리고 비한부모 가족과 비교해 한부모 가족의 관계적 위기의 점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남
- 가족위기에 대처하는 대응자원의 충분도도 매우 낮게 나타나며, 특히 이웃 자원의 충분도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남
- 따라서, 한부모 가족의 경우 가족위기에 처할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다른 가족에 비해 가족간의 관계적 위기나 갈등이 높지만 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가족외 친구나 동네 이웃, 친척이나 직장동료 등 이웃 자원이 가장 열악한 상황임

[그림 4-4] 한부모 가족의 가족위기 수준과 대응자원의 충분도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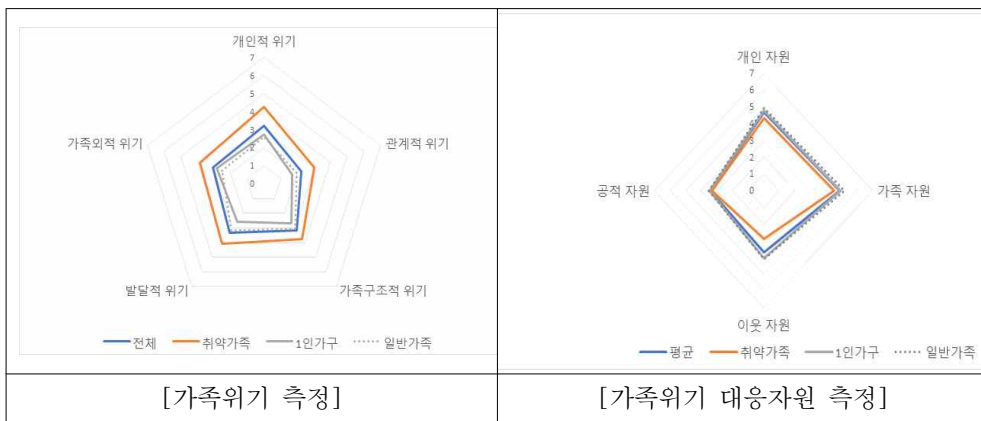


□ **취약 가족의 진단**

- 취약가족 서비스 이용자들은 1인 가구 및 일반가족 서비스 이용자와 비교해 모든 가족위기 유형에서 점수가 높게 나타나며, 특히 개인적 위기와 발달적 위기 수준이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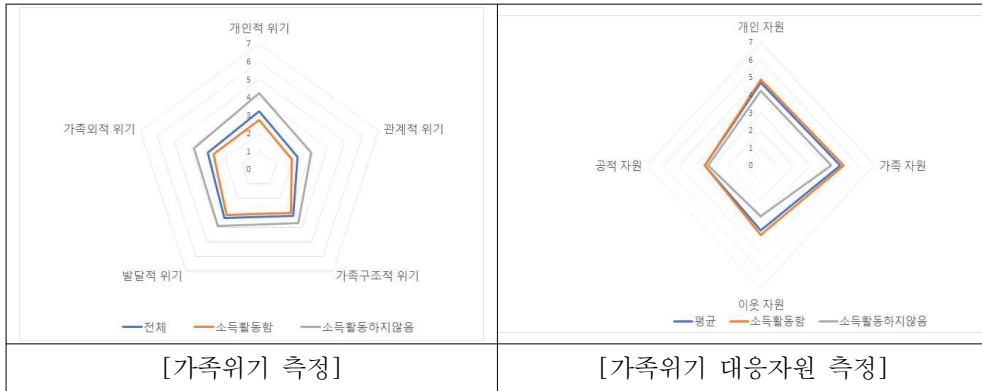
- 충분도 측면에서도, 취약가족 서비스 이용자들의 대응자원이 가장 부족한 상황이며, 특히 이웃 자원의 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대부분 경제적으로 취약한 취약가족 서비스 이용자들은 개인적인 사건들로 인한 개인적 위기와 개인의 생애주기를 통해 경험하는 발달적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만한 대부분의 자원도 부족한 상황임

[그림 4-5] 취약 가족의 가족위기 수준과 대응자원의 충분도 대응



- 이러한 경제적 취약 가족 서비스 이용자들의 가족위기 수준과 대응자원의 충분도 점수는 소득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응답자들의 수준과 같은 결과를 나타냄
 - 참여하지 않은 응답자들이 소득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응답자들과 비교해 모든 가족위기 유형에서 점수가 높게 나타남
 - 소득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응답자들이 소득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응답자들과 비교해 가족위기 대응자원의 충분도 점수가 모든 요인에서 낮게 나타남. 특히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응답자들은 이웃 자원의 충분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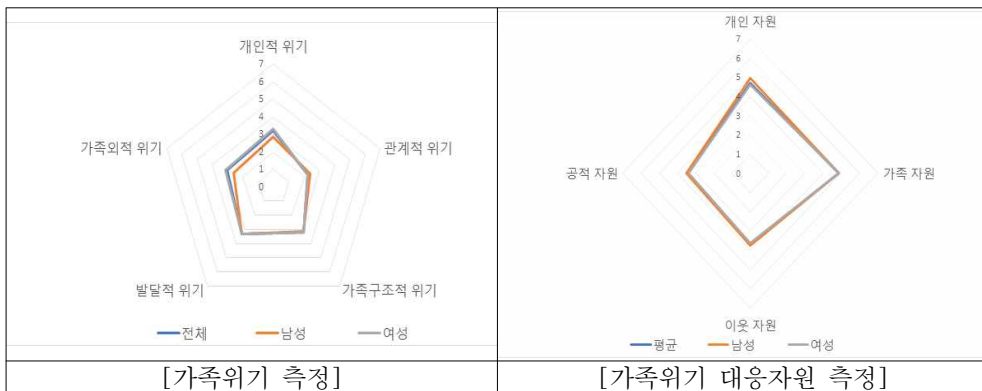
[그림 4-6] 소득활동 여부에 따른 가족위기 수준과 대응자원의 충분도 대응



□ 성별에 따른 진단

- 따라 살펴보면, 여성은 개인적 위기, 가족 구조적 위기, 발달적 위기, 가족 외적 위기 수준이 모두 높았으며, 남성은 관계적 위기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남
- 한편, 여성은 개인 자원, 가족 자원, 이웃 자원, 공적 자원 등 모든 가족위기 대응자원 요인에 대해 남성에 비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 그러나 남성과 여성 모두 이웃 자원과 공적 자원이 충분하다고 인식하는 수준은 다른 자원에 비해 낮은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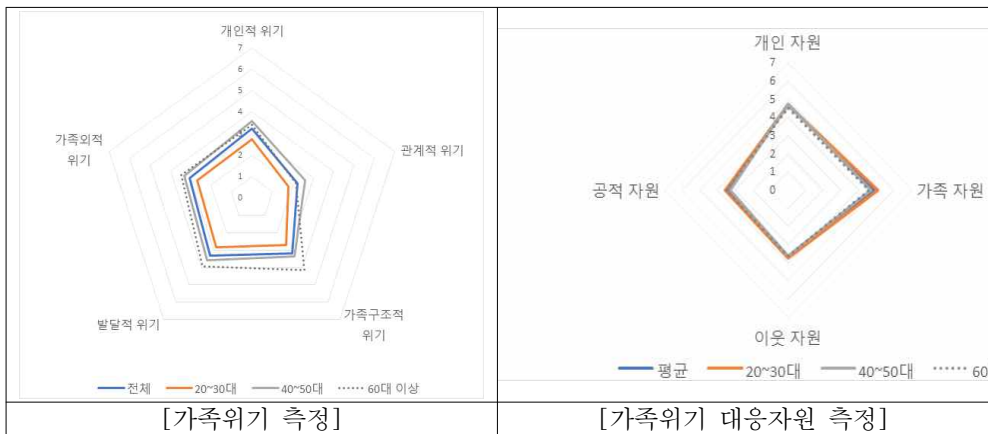
[그림 4-7] 성별에 따른 가족위기 수준과 대응자원의 충분도 대응



□ 연령별 진단

- 수준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40~50대 연령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개인적 위기와 관계적 위기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나며, 60대 이상 연령은 가족 구조적 위기, 발달적 위기, 가족 외적 위기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이러한 가족위기 대응자원의 충분도를 살펴보면, 40~50대 연령은 다른 연령집단과 비교해 개인 자원 점수가 높게 나타나며, 이웃 자원과 공적 자원은 가장 낮게 나타남. 그리고 60대 이상 연령은 40~50대 연령집단과 비교해 개인 자원과 가족자원 충분도 점수는 상대적으로 낮고, 이웃 자원과 공적 자원 충분도 점수는 약간 높은 편임

[그림 4-8] 연령별 가족위기 수준과 대응자원의 충분도 대응



- 즉 40~50대 연령대는 개인적 사건이나 가족간의 관계로 인한 갈등으로 인해 개인적 위기와 관계적 위기 수준이 높으며,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가족외의 이웃(친척, 친구, 동료 포함)이나 공적자원의 매우 부족한 상황임, 현재 40~50대 연령대는 이러한 위기에 대해 개인적인 의지와 역량, 대처자원 등의 개인 자원으로 극복하는 것으로 분석됨

- 60 이상의 연령대는 가족 구조적 위기, 발달적 위기, 가족 외적 위기 등 위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인의 역량이나 대처자원이 부족하고 가족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족 자원도 부족한 상황임

□ 가족위기 수준과 대응자원의 충분도 대응을 통한 진단

- 결국, 가족의 위기 수준은 유형별 가족위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은 위기수준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가족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응자원이 어느 정도 충분한가 또는 어느 정도 부족한가에 따라 그 가족이 실제 대응하거나 위기로 인식하는 수준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함
- 이에 본 연구는 가족위기 진단시 대응자원의 충분도를 대응하여 진단하여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이에 근거하여 세부적인 처방이나 연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 가족위기 측정을 통한 가족위기 지원 방안

- 연구는 가족센터의 모든 서비스 이용자의 가족위기의 경험과 수준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파악하고 가족이 지나는 가족위기 대응자원 충분도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위기가족 서비스지원 및 연계수요 요인을 제시할 수 있는 가족위기 측정도구를 개발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음.
- 궁극적으로 가족위기 측정도구는 가족위기 지원 서비스 대상인 위기가족 발굴 및 지원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도구이며, 이 도구를 통해 가족위기 수준, 가족위기 유형을 파악하고, 적절히 가족 위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이러한 성과를 기대하며, 본 연구에서는 측정 도구의 적절성과 타당성을 검증하면서 지역사회 내 가족센터의 이용자 및 잠재적 이용자인 위기가족의 신속한 발굴과 적절한 지원까지 고려한 가족위기 측정도구를 개발 하였음.
- 가족위기 측정 도구 개발 과정은 다음과 같음
 - , 다양한 가족위기 유형을 기반으로 가족위기의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세부 문항을 개발함
 - 둘째, 가족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가족위기 수준 측정 문항의 적정성을 파악하기 위한 시범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가족위기 수준 측정도구를 개발함.
 - 셋째, 가족위기 측정도구를 통해 가족 서비스 이용자 관련 가족위기 데이터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한 서비스 제공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그림 5-1] 과 같은 절차에서 나타나듯이, 본 연구의 가족위기 측정도구는 문항의 적정성과 타당성의 검토를 위한 시범조사를 통해 적절한 측정 문항을 확정된 상태로서, 가족위기 진단과 가족위기 서비스 계획 수립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역, 다양한 연령대의 대규모 자료 수집과 분석을 요함

[그림 5-1] 가족위기 측정도구 개발 절차



- 본 연구의 가족위기 측정도구는 바로 가족위기 대상자의 가족위기 수준과 서비스 수요를 파악하는데에는 활용이 가능함
- 또한 가족위기 측정도구를 활용한 데이터 축적이 이루어진다면 추후 지역적, 연령별, 성별 등 다양한 가족위기 수준의 비교를 통해, 위기 상황 예측도 가능함.
- 따라서, 가족위기 측정 도구는 가족위기 실질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족의 지원 방안이 될 수 있으며, 나아가 가족정책의 특정 가족유형이나 선별적인 대상이 아닌 가족위기 수준별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적용 확대 방안을 제안함

1. 가족위기 수준별 지원 대상 분류

- 측정 도구는 가족위기 대상자의 특성 파악과 선별에 유용하므로 가족위기 대상자 발굴의 기준을 정하는 데 활용 가능함
 - , 현재 가족센터에서는 한부모 가족 혹은 다문화 가족, 사회재난 발생시 등에 한정하여 가족위기를 지원하고 있으며, 임신 출산 위기, 가족갈등 위기 등을 겪는 가족에 대한 가족위기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고 있음
 - 이러한 정책 방향에 맞춰, 본인이 가족위기를 자각하지 못하고 가족위기 서비스 대상자임을 알게 하는데 있어, 가족위기 측정 도구를 활용한 진단이 유용하며, 특히 자가진단이 이루어질 경우 가족위기 대상자로서의 본인 인식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음
 - 가족센터 입장에서도, 타 기관 사례관리자가 가족위기 대상자를 연계해 왔을 때, 지금과 같이 한부모가족이나 다문화가족 같은 특정 가족유형이 아니라 할지라도, 가족위기 수준을 파악하여 가족센터가 줄 수 있는 서비스 대상자 인지 여부를 판별할 수 있음
 - 특히 가족위기 서비스 대상자의 기준이 특정 가족유형이거나 특정 사건 관련으로만 되어 있을 경우, 지역 사례관리협의체 또는 사례관리 판정 회의 등을 통해 대상자를 선별해야 하나, 객관적 가족위기 수준 이 파악된다면 보다 객관적인 기준을 갖고 가족위기 서비스 대상자를 분류 관리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 전체 가족위기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을 때, 경제적 요인(취약가족, 소득활동 여부, 경제적인 안정적 수준 등), 가족 유형별 요인(취약가족, 한부모 가족), 자원 요인(개인자원, 가족자원, 관계자원, 시설자원), 개인적 특성 요인(연령, 돌봄대상자수)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각 특징에 맞는 서비스 지원이 가능함
 - 한부모 가족이 비한부모 가족에 비해 가족위기에 취약함
 - 취약가족(경제적, 경제적 이외 취약)이 가족위기에 취약함
 - 본인이 소득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가족위기에 취약함
 - 전 연령층중 중년층이 가족위기에 취약함

- 수준이 열악할 때 가족위기에 취약함
- 돌봄대상자가 많을수록 가족위기에 취약함
- 가족위기 대응자원(개인자원, 가족자원, 관계자원, 시설자원)이 적을수록 가족위기에 취약함
- 특성에 비추어 보면 가족위기는 취약가족, 소득활동여부, 경제적인 열악 수준, 가족위기 대응자원이 적은 경우 등 대다수가 경제적인 어려움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다문화가족보다는 한부모가족이 가족위기 수준이 높을 것으로 예측되며, 중년층이 돌봄대상자가 많고 가족위기 대응 자원이 약한 경우도 가족위기 수준이 높을 것으로 예측됨.
 - 갑작스러운 실직, 일시적인 경제활동 중단 등도 가족기능을 위협하고 가족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으므로, 가족위기 대응 자원 지원을 통해 빠른 회복을 지원할 수 있음
 - 따라서, 위기가족 지원이 장기화되기 전에 대상자를 발굴하고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지원이나 구직활동 지원 등과 동시에 가족지원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이러한 가족지원을 위해서는 가족위기 대상자를 고위험군, 중위험군, 저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지원할 때, 위기가족에 대한 선제적 대응, 또는 장기화되기 전의 예방적 지원이라는 효과도 기대되며, 가족정책에서 추구하는 생애주기상 나타나는 위험에 대응하는 보편적 위기 지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함
- 이는, 현재 가족위기가 특정 대상, 특정 사건에 국한되어 지원될 때 발생하던 가족위기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건이나 상황별로 지원되던 서비스를 통합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음.
- 따라서 기존 가족센터의 다문화가족 여부, 한부모가족 여부로 구분되던 가족위기 지원대상을 가족위기 수준에 따라 가족위기 고위험 대상자, 중위험 대상자, 저위험 대상자로 분류하고 그에 맞춘 서비스 설계와 지원을 제안함

2. 가족위기 유형별 서비스 지원

- 측정도구를 활용하면 가족위기는 5개 유형으로 분류되며 각 위기를 경험하는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지원 계획 수립이 가능함
 - 위기는 경제적 수준이 불안정할수록 높게 나타나는 위기임
 - 관계적 위기는 한부모가족의 위기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위기이며, 돌봄대상자 수가 많은 경우 나타나기 쉬운 위기임
 - 가족 구조적 위기는 연령이 높을수록, 경제적인 수준이 불안정할수록 위기 수준이 높게 나타나는 특성을 갖고 있음
 - 발달적 위기는 응답자 본인 연령이 높을수록, 경제적인 수준이 불안정할수록, 이웃 자원이 부족할수록, 돌봄대상자 수가 많을수록 커지는 위기임
 - 가족 외적 위기는 경제적 상황이 열악한 대상에게 나타는 위기로 가족 외적 위기가 나타난 경우, 개인적 위기, 관계적 위기, 가족 구조적 위기, 발달적 위기가 모두 함께 나타나고 있음.
- 가족위기는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수준과 매우 관련이 높으나, 가족정책에서는 경제적인 지원을 직접적으로 지원하지 않기에 가족위기 지원 대상에서 조차도 배제되고 있었음. 그러나 가족위기 유형별 특성에 따라 대상자에게 가족위기 수준과 유형을 점검한다면, 가족센터에서 경제적인 지원 서비스 연계나 정보제공과 함께 가족센터가 직접 제공할 수 있는 가족위기 상담, 돌봄, 생활관리 역량, 관계 개선 등의 서비스 지원이 가능하게 됨
 - 개인적 위기 지원을 위해서 가족센터는 우선적으로 경제적 수준 안정화를 위한 서비스 연계와 소득/지출 분석, 재무관리 교육, 돌봄서비스 무료 연계 등이 가능함
 - 관계적 위기 지원을 위해서 가족센터는 ‘나의 성격 유형 검사’, 소통 교육, 갈등 해결 집단 상담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돌봄대상자가 많은 위기가족의 경우는 정책적으로 돌봄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서비스 지원이 적합함
 - 가족 구조적 위기 지원을 위해서는 가족센터는 연령이 높아짐에 따른 경제적인 안정성

경제적인 소득 감소 예측에 대한 사전 준비 교육 등이 적합할 것으로 보임. 특히 가족 구조적 위기는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더 커지고 있으므로, 가족센터는 은퇴 후나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자로서의 생활 안정을 위한 준비 교육, 노화와 죽음에 대한 수용과 타인과의 좋은 관계를 위한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발달적 위기와 관련해서 가족센터는 예비부부교육, 신혼기 교육 등을 이미 지원해오고 있으나, 중년기와 노년기 교육에 대한 서비스 확대와 준비가 필요함. 특히, 중년기는 고령화시대 수명 연장에 따른 은퇴이후 경제적이 삶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장기적인 재무 설계와 생활관리 지원이 확대되어야 함. 70세 이후 신체 활동량이 많은 노인 대상 발달과업을 지원하는 교육과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될 필요가 있으며, 스스로 자기돌봄 역량과 생활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가 확대되어야 함
- 가족 외적 위기는 경제적 수준의 불안정성이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요인이나 가족 외적 위기는 가장 강력한 가족위기 사례관리 대상으로 지속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며, 모든 서비스 지원과 연계가 통합적으로 지원되어야 하는 대상임

● 유형별 지원을 위해서는 가족위기 측정도구의 다음과 같은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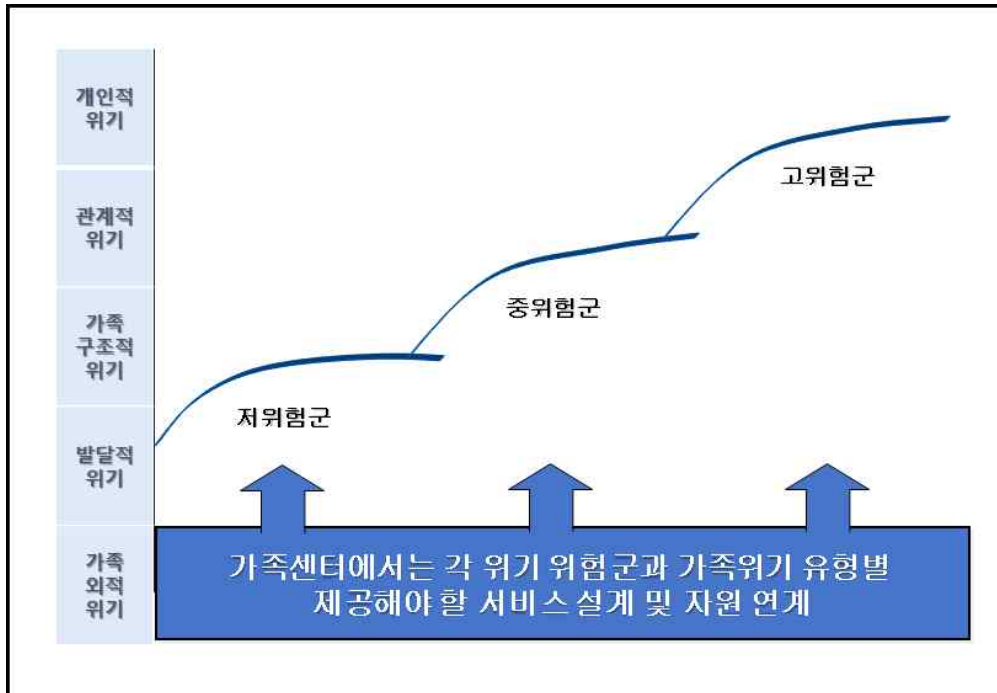
- (개인적 위기) 어려움 정도의 수준을 살펴보면 가족간 갈등으로 인한 어려움(2.17점), 가족내 고립이나 단절의 어려움(1.17점), 부부갈등(0.50점), 이혼이나 재혼의 어려움(0.45점), 가정폭력의 어려움(0.13점) 순으로 응답함. 특히 가정폭력의 어려움의 경우 경험건수는 전체의 16.9%(44명)이며, 이 중 절반 가량(21명)이 심각하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관계적 위기) 중 가장 많이 경험하는 내용은 가족간 갈등의 어려움(42.7%)이며, 그 다음으로 부부갈등의 어려움(31.5%), 가족내 고립이나 단절의 어려움(28.5%), 이혼과 재혼의 어려움(25.4%), 가정폭력의 어려움(16.9%) 순으로 나타남
- (가족 구조적 위기) 가족 구조적 위기와 관련해서 5개 지표에 대해 경험 여부와 현재 일상생활 유지의 어려움 정도를 응답한 결과, 가족 구조적 위기 중 가장 많이 경험하는 내용은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60%)이며, 그 다음으로 일상생활 유지 관리의 어려움

(47.3%), 부양 기간 증가로 인한 어려움(35.8%), 지역인구감소로 인한 어려움(34.6%), 손자녀 돌봄의 어려움(26.9%)으로 나타남. 특히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경험한 사람(156명) 가운데 4점 이상 어려움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사람(77명)은 약 50% 수준으로 나타남

- (발달적 위기) 발달적 위기와 관련해서 12개 지표에 대해 경험여부와 현재 일상생활 유지의 어려움 정도를 응답한 결과, 발달적 위기 중 가장 많이 경험하는 내용은 자녀양육 및 돌봄의 어려움(55.4%)이며, 그 다음으로 부부-부모 역할적응의 어려움(49.6%), 자녀의 진학과 학업의 어려움(46.9%), 노화로 인한 어려움(44.2%), 결혼 및 적응의 어려움(37.3%), 진로 및 이성교제로 인한 어려움(30.4%), 배우자의 사망/홀로되기 어려움(26.2%) 순으로 나타남. 이 중 각 발달적 위기별로 4점 이상의 심각성을 보고한 빈도는 자녀 양육 및 돌봄의 어려움(25.4%), 자녀의 진학과 학업의 어려움(19.9%), 부부-부모 역할 적응에 어려움(19.9%), 노화로 인한 어려움(17.7%) 순으로 나타남
- (가족 외적 위기) 가족 외적 위기와 관련해서 5개 지표에 대해 경험여부와 현재 일상생활 유지의 어려움 정도를 응답한 결과, 가족 외적 위기 중 가장 많이 경험하는 내용은 장기적 경기침체와 불경기로 인한 어려움(60.8%)이며, 그 다음으로 메르스나 코로나19 등 전염병으로 인한 어려움(55.0%), 사회적 범죄 증가로 인한 어려움(53.1%), 화재나 교통사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어려움(48.5%),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와 어려움(41.5%)으로 나타남. 이 중 각 가족 외적 위기별로 4점 이상의 심각성을 보고한 빈도는 장기적 경기침체나 불경기 상황으로 인한 어려움(29.3%), 사회적 범죄 증가로 인한 어려움(21.9%) 등임

- 가족위기 유형별 특성에 맞춘 서비스와 가족위기 고위험군, 중위험군, 저위험군의 취약한 가족기능 보완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가 설계된다면, 가족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가족위기 예방과 지원, 사후관리의 특성을 갖는 일련의 서비스로 재편되게 됨

[그림 5-2] 가족위기 수준과 가족위기 유형을 고려한 지원



3. 가족위기 특성화 가족센터 지정 운영

- 조사 결과 전체 대상자 가족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가족 형태, 연령에 따라 가족위기 유형과 수준이 달라짐이 확인됨. 따라서 매해 가족정책 계획 수립 시, 또는 센터별 지역 특성에 맞춘 가족위기 지원 대상자를 특정한 특성화 사업 개발과 운영 가능 선별
- 일 예로 가족위기 유형 중 가장 많이 나온 발달적 위기 유형 지원은 전국 가족센터에서 모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운영하되, 노인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노인들의 발달위기 유형에 맞춘 가족위기 지원 서비스를 중점 지원하여 노인 위기 특성화 센터로 사업을 개발하고 운영. 다문화가족이 많은 지역은 발달적 위기 지원을 하되 다문화 위기 특성화 센터로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가족센터의 가족위기 브랜드와 지역 특성별 위기 지원을 할 수 있음
 - 연구의 결과 조사대상자들은 전체적으로 발달적 위기 수준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개인적 위기, 가족 구조적 위기, 가족 외적 위기, 그리고 관계적 위기 순으로 나타남.
 - 따라서, 가족센터는 발달적 위기 수준에 대한 서비스를 검토하고, 특히 기존에 센터 서비스 주 이용자가 아니었던, 노인가구나 1인 가구의 발달적 위기 지원을 통한 일상생활 어려움 맞춤 서비스 등을 계획할 수 있음

4. 경제적 취약자와 한부모 위기관리 패키지 구성

- 조사에서는 다문화가족에 비해 한부모가족의 가족위기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부모가족은 특히 경제적 지원과 함께 관계적 위기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한부모가족 가족위기 지원 패키지는 경제적 지원과 관계적 지원을 함께 제공할 것을 제안함
 - 가족위기 지원 주력 대상인 다문화가족과 한부모가족을 비교해 보았을 때, 한부모가족의 위기가 높게 나타남
 - 다문화가족의 가족위기도 모든 유형에서 평균 점수가 비다문화가족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나, 전체 대상자와 유사하게 발달적 위기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개인적 위기, 가족 구조적 위기, 가족 외적 위기 순으로 나타났으나 한부모가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책 지원에 대한 충분도 점수가 높게 나타났음
 - 반면, 한부모가족의 가족위기 수준은 경제적 열악함의 영향을 많이 받는 개인적 위기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발달적 위기, 가족 외적 위기 순으로 나타났고, 특히 개인적 위기, 발달적 위기, 가족 외적 위기 수준은 4점이 넘는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음
 - 그리고, 한부모가족이 비한부모가족에 비해 관계적 위기의 점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1.92점 차), 공적지지 체계에 대한 필요도가 상대적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해 높았음.
- 경제적 취약 대상자는 모든 가족위기 영역에서 위험군으로 확인되나 일차적으로 가족센터의 가족위기 사례관리 대상으로 연계되어, 타기관의 경제적 지원 대상이라 할지라도 일상생활 영위를 지원하기 위한 행정망을 통해 가족서비스와 통합적 지원이 필요
 - 취약가족 서비스 이용자들이 1인 가구 및 일반가족 서비스 이용자 보다 모든 유형별 가족위기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소득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응답자들이 소득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응답자들과 비교해 모든 가족위기 유형에서 점수가 높게 나타남

- 서비스 이용자들의 공통적 특성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소득활동을 하지 않거나 물적 자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 가족위기 수준은 개인적 위기, 발달적 위기, 가족 외적 위기, 가족 구조적 위기, 관계적 위기 순으로 나타남. 특히 취약가족의 개인적 위기와 발달적 위기 점수는 4점대 이상으로 높아, 선제적으로 취약가족에게는 가족지원이 동시에 제공될 수 있는 종합 서비스 지원 패키지 적용.
- 1인 가구와 일반가구 서비스 이용자들은 비슷한 정도로 가족위기 점수가 나타나지만, 1인 가구 서비스 이용자들의 경우 개인적 위기와 가족 외적 위기 점수가 높으며, 일반가구 서비스 이용자들은 관계적위기, 가족 구조적위기, 발달적 위기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므로, 정책적으로는 경제적 취약 1인 가구 발굴을 위한 행정망에 가족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함

5. 인구학적 특성을 고려한 가족위기 대응자원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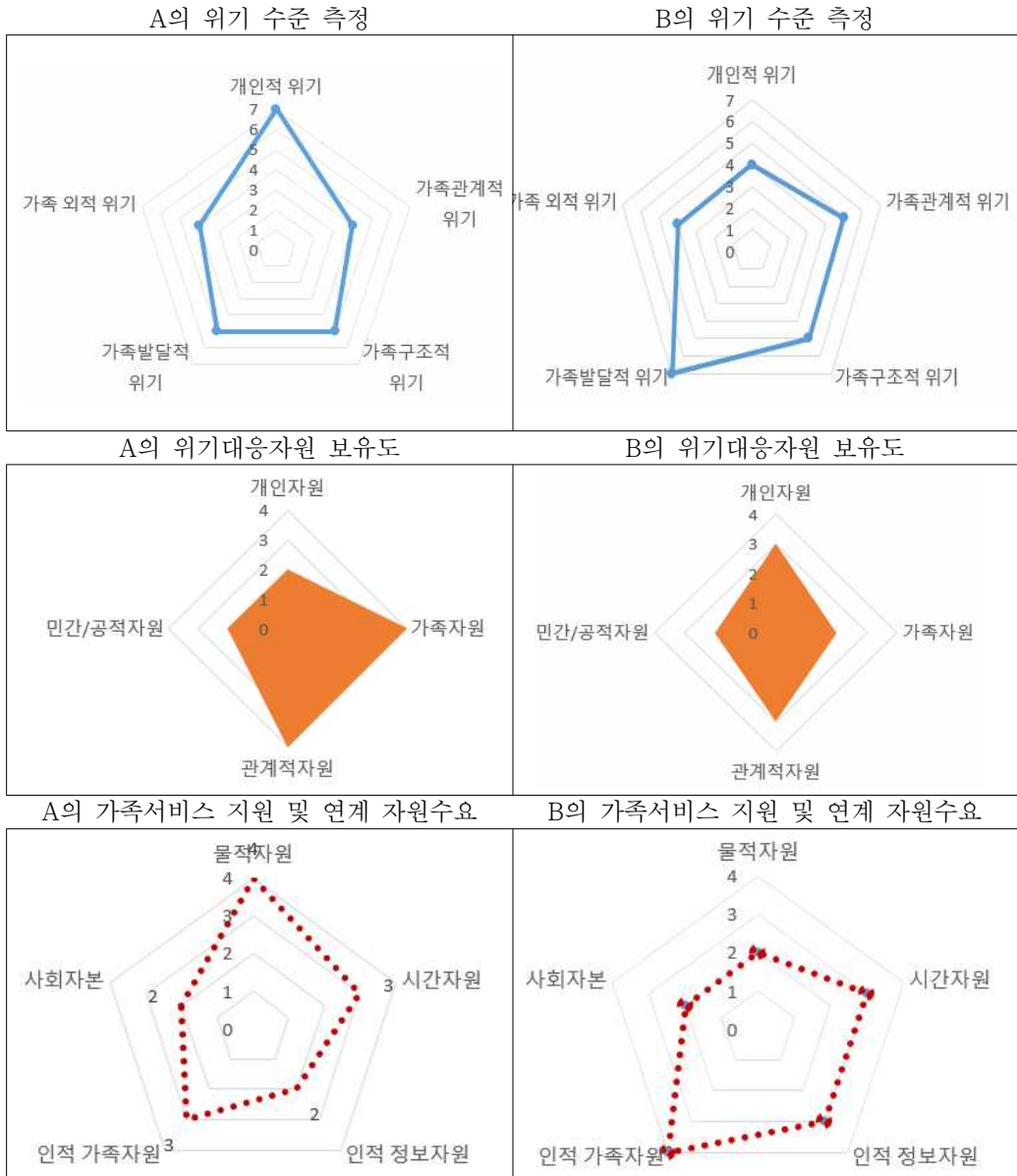
- 관계적 위기 지원이 우선 될 경우 가족위기 예방 효과가 기대됨
 - 다른 유형별 가족위기 점수를 산출한 결과, 여성은 남성과 비교해 관계적 위기 점수를 제외하고 모든 유형에서 가족위기 점수가 높게 보고되었으며, 관계적 위기 점수는 남성이 여성보다 약간 높게 나타남
- 연령에 따라서도 가족위기 유형은 차이가 있어, 중년세대는 개인적 위기와 관계적 위기가 같이 오는 경우, 노년 세대는 구조적 위기와 발달적 위기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가족위기 측정도구를 통해 이러한 복합적 위기 정도를 파악해서 연령별 맞춤 가족 위기 지원 서비스가 가능함
 - 연령별로는 20~30대, 40~50대, 60대 이상으로 재분류하여 살펴본 결과, 20~30대 연령집단의 가족위기 점수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유형별로 가장 낮게 나타남
 - 40~50대 연령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개인적 위기와 관계적 위기 점수가 높게 나타남
 - 60대 이상 연령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족 구조적 위기, 발달적 위기 점수가 높게 나타남

6. 가족위기 진단과 정보 제공

- 측정도구를 통해 가족위기 값이 진단되고 해석될 수 있게 될 경우, 가족위기 수준, 가족위기 대응 보유 자원, 가족위기 서비스 지원 영역 확인을 아래와 같이 파악할 수 있게 됨
 - [5-3]은 A나 B의 진단 결과 예시로 5가지 가족위기 수준의 총점수는 같으나(전체 면적) 가족위기 유형별 위기 수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나타내는 사례임
 - A와 B는 5가지 가족위기 유형별 점수가 모두 보통(3.5점) 이상으로 위기 수준이 높으나, A는 특히 개인적 위기 수준이 높은 반면(1~7점 척도 중 7점, 점수가 높을수록 위기가 높음), B는 가족 발달적 위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음
 - 그러나 두 사람의 경우 소유한 가족위기 대응자원 보유도에 차이가 있음. A는 개인적 위기 수준이 높고 개인 대응자원이 부족한(2점) 반면, 가족 대응자원과 관계적 대응자원이 높아 위기대응 자원 보유도 총량(면적)이 상대적으로 B보다 많음. B는 개인 대응자원(3점)은 더 많으나 가족 발달적 위기 수준이 높고 가족 대응자원과 관계적 대응자원이 부족하여 총자원보유량이 상대적으로 적음
 - A와 B의 가족위기 수준의 전체적 점수는 동일하지만, 가족위기대응 자원 보유도의 차이로 가족위기 해소 자체 역량에서의 차이가 나타나므로 가족센터의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시, A는 개인 대응자원 역량을 향상시키고, B는 가족 발달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가족자원과 관계적 자원 지원에 대한 정보를 주거나 서비스를 계획 할 수 있음
 - 또한 A와 B의 현재 일상생활 유지를 위하여 지원 및 연계 자원의 수요를 파악한 결과, 두 사람 간에 요구 자원의 종류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남. A는 물질 자원과 시간 자원, 인적가족자원에 대한 수요가 높은 반면, B는 시간자원과 인적가족자원 외에 인적정보자원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렇듯, 가족위기 측정이 추후 진단과 해석이 가능한 수준 까지 정보과 축적되고 분석된다면, 위의 그림과 같이 스스로의 위기 수준과 위기 유형, 보유한 대응 자원의 충분도, 가족서비스 지원 및 연계 수요를 조합하여 개인에게 스스로의

결과에 대한 대응안이나 서비스 연계를 할 수 있음. 특히 위기 수준이 낮은 집단에게는 가족서비스 지원 및 연계 수요에 맞는 정보제공이 매우 유용한 서비스가 될 수 있음

[그림 5-3] 가족위기 수준과 대응자원의 충분도 대응을 통한 진단 결과표 예시



II. 가족위기 지원을 위한 정책 제언

- “가족기능의 약화로 인해 가족 안정성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사회 변화의 속도와 가족 관계의 느슨해짐, 기술의 발달은 가족위기를 더욱 확대시키고 있어, 이제 가족위기는 특정 상황, 특정 사람에게 지엽적으로 확인되는 것이 아닌 더 빈번하게, 살아가면서 어느 상황에서든지 나타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임
- 이러한 사회 구조속에서, 이제 고립이나 고독이라는 관계성의 위기까지 위기에 대한 정책 지원범위는 확대되고 있어,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체계적 가족위기 지원을 위해 가족위기 지원 범위와 지원 대상, 지원 방법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상황임
- 본 연구에서 개발된 가족위기 측정 도구는 가족위기와 관련된 개별적 문제나 단편적 문제가 아닌 가족위기 전반을 통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으며, 나아가, 가족센터가 제공하고 있는 가족서비스가 가족위기를 예방하고 지원하는 데 적절하게 연계되고, 적극적인 서비스 지원과 연계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아래와 같은 성과가 기대됨.
 - 개발된 도구를 활용한다면 이용자의 단편적 호소 문제를 넘어, 가족센터가 다각도의 적절한 서비스 계획 수립과 제공을 할 수 있음.
 - 본 도구는 가족위기와 보유 자원, 서비스 지원 연계라는 구성이 필요하였으며 나아가 가족위기 수준을 측정하였으므로, 전국 데이터가 축적된다면 한국 가족의 행복 또는 한국 가족의 위기 파악과 예측에 활용 가능함
 - 기존 학교 폭력, 성폭력, 화재, 재난 등의 위기 상황에서 발생하는 가족위기에 대해 누구에게 어떤 부분의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지 파악할 수 있음.
 - 나아가, 성과가 높은 방향으로 가족센터 내 가족위기를 지원하는 다양한 서비스 간 연계 강화, 또는 지역사회 내 민관 유관 기관과의 연계 체계 확대와 로드맵을 고도화함

, 가족센터 중심의 지역사회 가족위기 지원체계를 구체화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 개발된 가족위기 측정 도구를 개발하여 위기가족과 일반가족의 위기 수준 측정 도구의 적정성과 타당성만이 입증된 상태로, 이 도구로 진단과 정보제공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후속 조치가 필요함
 - 가족위기 측정 도구는 측정 문항의 타당성과 적합성 검증을 위한 시범조사만 이루어진 상태의 도구이므로 대규모의 조사와 다각도의 분석이 후속으로 이루어져야 함
 - 본 연구에서는 위기서비스 이용대상자와 그 외 가족서비스 이용자를 조사하여 가족위기 수준의 위기점수 높은 집단, 위기점수 낮은 집단의 점수 구간을 제안하였으므로, 이 점수 구간에 대한 검증을 통해 적절한 기준값 설정과 종단적 추이 분석이 필요함
 - 본 연구에서는 성별, 가족유형별 측정값 비교와 분석을 통해 일상 생활 기능이 원활한 사람들의 평균값을 구해내고, 특정 상황이나 사건 발생 직후, 가족 유형에 따른 증감하는 위기 값을 파악해 보았으나 표본수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지역별 특성은 분석하지 못하였음. 후속으로 대규모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지역별 특성에 따른 지역특성화 위기 파악도 가능할 수 있음. 이때, 특정 표집 집단 대상 종단 조사를 통해 특정 상황 이전과 후의 값의 변화를 추적하는 것도 가족위기 관리 연구에 유용한 정책 자료가 될 수 있는 과제임
 - 본 조사 도구를 작성하는데 있어 다문화가족이 답변하는 데 제한점이 없었는지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이용자가 이 모든 문항 응답하는데 대한 어려움 등을 확인하지 못하였음. 추후 간단하게 응답할 수 있는 영향력있는 간단 진단 문항과 종사자용으로 분리 사용에 대한 판단과 다문화가족의 문항 이해도 등에 대한 조사 도구의 고도화 연구도 기대함.
 - 특히 가족위기 측정도구는 위기가족을 사전에 발굴하고 위기 지원의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하는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위기수준에 따른 고위험군 위기가족외에, 위기 유형별 점수가 높은 대상, 또는 7점 척도 도구에서 극단의 6~7점의 응답을 한 대상자에 대한 선별이나 가중치 등을 추후 후속과제에서 검토하길 제안함.
- 향후, 가족위기 측정 도구가 진단과 결과 해석 까지 고도화 되면,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다음과 같은 후속 과제를 제안함

- , 가족위기 조사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축적되고 분석됨으로써, 가족위기 점수를 갖고 고위기 집단, 저위기 집단등이 구별되는 기준값이 제시될 수 있어야 하며, 이 기준값은 향후 가족위기 대상자 발굴과 예측 및 해석에 활용되도록 가족위기 도구를 지표로 정비해 성별, 지역별 위기 변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이후 가족위기 수준과 대응자원 충분도를 다차원적으로 파악한 내용을 실제 현장에서 활용하기 위한 프로세스나 매뉴얼 개발을 통해, 이 자료를 컨설팅에 활용하거나 대상자에게 직접적인 맞춤 정보제공, 또는 가족센터 대상자 연계 등 즉각적으로 연동되는 서비스 개발이 가능함.
 - 이 가족위기 진단 지표가 정비되면, 누구나, 스스로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가진단 시스템의 개발을 통해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가족위기 조사에 참여할 수 있어, 스스로의 가족위기 상태를 점검할 수 있음. 이를 통해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는 자가진단 후 간단 해석지와 서비스 연계 및 정보제공이 시스템에서 바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 조사 참여자에게 주기적으로 서비스 안내와 정보제공을 함으로써,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가족위기 대상자 발굴과 지원에 기여할 수 있음
 - 특히 시스템상에서 가족위기별 제공할 정보에 대한 분석과 제공 방법등이 같이 조사되고 계속 고도화될 수 있다면, 넘치는 정보속에서 오히려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연계함으로써, 가족센터의 위기 가족 서비스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음
- , 가족센터의 서비스도 가족위기 대응에 맞춰 개편 또는 전환 모델을 제안할 수 있음
 - 가족위기 진단 도구의 활용 후 가족센터를 통해 적절히 서비스가 연계되고 제공되기 위해서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저출생/고령화 사회 변화 속에서 가족위기 대응 기관으로 가족센터의 서비스를 분석하고 개편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이후, 가족위기 고위기집단에는 사례관리와 필요한 지역내 서비스가 적극적으로 연계되도록 조치한다거나, 일반대상자에게는 지역참여 활동을 확대하는 등 위기 수준에 다른 서비스 지원체계를 설계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가족센터에서는 고위기 집단, 중위기 집단, 위기관찰 집단, 일반 집단 등 위기수준에 따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 일반 집단에게는 지역활동 참여가 확대되고 새로 필요한 역량을 지원하거나, 중위기 집단에는 상담과 미흡한 역량 지원을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등의 차별화된 접근이 가능하고, 연계가 용이하도록 가족센터 서비스를 매뉴얼화 하길 제안함

- 본 연구에서 개발된 도구의 활용과 정책적 성과 확대를 위해 자가진단 지표 개발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필수적으로 다루어지길 제안함
 - 가족위기 자가진단이 가능하도록 이번에 개발된 측정 도구가 시스템 상에서 제공될 문항의 구별, 진단과 결과값 제시 방법, 진단값 활용 방법과 시스템 개발에 대한 프로세스나 매뉴얼 개발을 위한 후속과제가 필요함
 - 가족센터의 서비스는 가족위기 유형별 지원 서비스가 모두 갖춰지도록 개편되어야 하며, 모든 생애주기별 가족위기 지원 서비스가 있는지 검토하길 제안함.
 - 현재의 가족위기 정책에서는 한부모가족과 다문화가족에게만 지원이 집중된 경향이 있으므로, 자녀가 없는 가족, 자녀가 성인인 가족과, 초고령화 사회에서 3세대를 넘어 4세대간의 가족위기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길 제안함

참고문헌

- 박수선(2013). 가족중심사례관리의 지역사회 체계구축을 위한 탐색적 연구-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적용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7(3). pp.125-144.
- 강연정(2008). 위기유형 및 대처양식에 따른 한부모 가정 자녀상담. 복음과 상담. pp. 140-164.
- 강은미(2021). 입양사실 공개과정에서 입양모의 심리적 경험 연구 : -초기아동기 입양자녀 대상으로-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곽은정(2003). 빈곤아동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조직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구로건강복지센터 아동지원사업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강수(2004). 척수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활용에 관한 연구-남원지역을 중심으로 한일장신대학교 기독교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광석(2008). 사회적 지지가 독거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목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경(2003) 중장년층의 노년기복지욕구도조사. 경희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범수·신원우(2005). 지역사회복지론. 도서출판 공동체.
- 김상용(2004). 죽음으로 인한 유가족들의 일상적 삶의 위기와 재편. 부산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 김상우(2004). 죽음으로 인한 유가족들의 일상적 삶의 위기와 재편.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성아·박민진(2022) 외로움 서울시 1인가구의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및 정신건강 문제의 특성과 유형: 서울시 1인가구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성아·박민진·김정아(2021). 서울시 1인가구 외로움·사회적 고립 실태와 대응전략. 서울연구원.
- 김수지·최지원(2017). 혼전 임신 부부의 이혼 과정에 대한 해석현상학적 연구. 가족과 가족치료. pp. 863 - 882.

- 윤진(1993). 중년기 위기감(1) : 그 시기 확인 및 사회경제적 변인들이 중년기 위기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13(1). 1-16.
- 김유경 외(2009) 한국가족의 위기변화와 사회적 대응방안 연구-경제위기 이후 가족생애주기별 위기유형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p.30.
- 김유경·이여봉·손서희·조성호·박신아(2016). 사회 환경 다변화에 따른 가족위기 진단과 대응전략.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유정(1993). 농촌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경·장현숙·박경숙·홍현숙·하명주·김인국(2002). 장애요양보호 대상 노인의 건강유지 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모델 개발 연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김의남(2005). 공개입양 부모의 만족도와 인식에 관한 연구. 한일장신대학교 기독교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점수(2004). 신혼 부부 갈등 극복을 위한 목회적 돌봄. 전주대학교 선교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심(2015). 장애자녀돌봄에 대한 가족의 역할갈등 : 장애자녀 어머니의 증언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주미(2017). 돌봄 위기 가구 지원을 위한 동 단위 지역사회안전망 구축-동작구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7권 1호. 83-96.
- 김지미(2014). 신혼기 여성의 결혼준비 및 결혼적응 경험에 관한 연구. 신라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연(2013).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 II: 청소년 한부모 유형 및 생활주기별 대응방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12).
- 김지혜·이선혜·조성희·박지혜(2021). 임신출산갈등을 경험한 여성의 위기갈등과 선택에 관한 질적 연구. 가족과 가족치료. pp. 453-487.
- 김혜경(2010). 임신부의 우울경향에 따른 Draw-a-Story 검사연구. 가천의과학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희영(2017). 노년기 삶의 스트레스와 안녕감의 관계에서 성격요인과 대처전략의 역할. 영남대학교. 심리학과 박사학위논문.
- 김희주·장연진(2020). 취약계층 여성의 임신·출산 및 초기양육 지원에 대한 질적 연구. 가족과 문화 32(@). 1-30. 한국가족학회.

- (2019). 위기이후, 가족의 존엄한 삶과 가족복지의 역할. 2019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자료 99-112.
- 도미향 외(2020). 건강가정론. 도서출판 신정.
- 마은주(2010). 크리스찬 신혼부부의 결혼 만족을 위한 프로그램효과에 관한 연구.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근우(2015).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자원 활용이 가족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인지적 평가의 매개효과. 경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병현(2021). 코로나19로 인한 가족의 위기와 가족복지정책의 방향: 위기와 기회. 2021년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자료. 3-16.
- 박선영(1999). 사회적 지지가 저소득층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박영준(2016). 베이비붐 세대의 자원분배 유형화에 관한연구-자녀 경제적 지원, 노부모 부양, 노후 준비도를 중심으로-. 한서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영혜(2016). 재가와 시설의 양육미혼모 정부지원 차이에 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1). pp. 493-502.
- 박정윤(2011). 위기가족의 향후전망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2011.05). 23-34.
- 박정윤(2012). 위기가족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7권 4호. 35-62.
- 박정윤·원아름(2014). 한부모가족 자녀의 학교생활적응: 개인자원, 가족자원, 발달환경 자원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18(2). pp.121-141.
- 박춘선(2013). 난임 여성의 정신적 고통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태영(2003). 지역사회복지론. 서울: 현학사.
- 서정아·조홍식(2010). 지역사회 중심 아동·가족 맞춤형지원서비스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 10-R02.
- 서정아·조홍식·이정빈·최은희·유현옥(2010). 아동·가족 공공지원서비스 편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0-R02-1.
- 서지원(2006). 사회 자본으로서의 가족자원에 대한 이해와 활용방안.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3).
- 성규탁·박영란(1997). 노인의 사회적 지원망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 p.22.
- 성시현(2023). 발달장애자녀 돌봄 부담이 중장년기 부모의 심리적 위기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성정현·김지혜·신옥주(2015). 미혼모의 임신출산위기 경험과 위기해소를 위한 지원시스템 개선 방안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7(2). pp. 277 - 309.
- 소영숙(2003). 정신장애인 가족의 지역사회 자원 활용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임파워먼트 요인을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은주(2009). 위기청소년의 부모교육과 상담 사례연구. 총신대학교 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혜림·김소영(2006). 건강가정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자원개발의 가능성- 주민조직화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10(2). pp.1-18.
- 송혜림·김소영(2007).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네트워크 구축.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11(2). pp.95-110.
- 신동성(2001). 농촌교회노인을 위한 위기상담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연구.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윤정·이현주·윤홍식·남기철·김필숙(2007).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 대응 연구-출산·양육 관련 지역사회자원 활용 방안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7-18-0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신은혜·김창대(2023). 주요 타자의 자살 위기에 대한 경험 분석: 가족과 친구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24(3). pp.29 - 59.
- 양시내·김우영·김영옥(2013). 다문화 가정 어머니들의 자녀양육 경험 이야기 열린유아교육연구. 18(1). pp. 71 - 94.
- 양은심(2004). 치매노인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을 위한 지역사회자원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어은주·유영주(1995). 가족의 건강도 측정을 위한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1). 145-155.
- 엄윤서 (2010).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자원 활용정도가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여성가족부(2021). 2020년 가족실태조사 분석 연구.
- 여성가족부(2023). 2023가족사업안내(Ⅱ)
- 여성가족부(2023). 2023가족사업안내(Ⅰ)

- 김혜진(2020).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저출산 관련 연구 동향 분석: 정부의 저출산 정책 추진 과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40(3). 492-533.
- 오혜정(2015). 다문화가정 어머니가 자녀양육에서 경험하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에 관한 연구 특수아동교육연구. pp. 215-237.
- 우석대학교(2014). 한국사회 맞벌이부부의 일과 삶. 우석대학교(2014-08).
- 유근춘·홍석표·윤문구·김선희·최요한(2014). 미래위기 대응을 위한 해외 사례연구-보건복지적 대응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유영주(1984). 한국도시가족의 가족생활주기 모형 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 111-129.
- 윤득형(2020). 상실의 관점에서 보는 노년기 위기와 실천신학의 과제로서 죽음준비교육. 신학과실천. 501-526.
- 윤상철(2003). 가족상실과 위기상담. 도서출판 한글.
- 은현정 외(2005). 정신건강론. 도서출판 신정
- 이남주(2006). 중년기 위기감과 대처에 따른 사회활동 참여욕구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만수·박정운(2022). 부자가족 아버지의 자녀 양육 자원에 대한 사례연구: 이혼한 남성을 중심으로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26(4). pp. 1 - 13
- 이선형(2009). 자녀교육비 및 노부모에 대한 생활비 지원이 둘째자녀 출산의도와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20~45 기혼여성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3(2). pp. 43-64.
- 이안나·박원주(2022). 간호직 공무원의 코로나19 스트레스, 충동성, 가족건강성이 자상생각에 미치는 영향요인. 한국보건간호학회지 36(3). 323-333
- 이영호(2018). 정신건강론. 서울:도서출판 공동체 p.126
- 이영호·박지윤(2021). 청소년부모의 지원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연구 -10대에 첫 자녀를 임신한 미혼한부모를 대상으로-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25(1). pp. 113 - 132
- 이영희(1988). 만성질환이 있는 가족과 정상가족의 가족기능 비교 연구: 노인 가족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옥실((2009). 청소년의 위기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특성에 관한연구. 강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연실·이준엽(2021). 위기가정의 재기경험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자치행정학보 35권 3호. 201-232.
- 이윤정(2008). 불임여성의 슬픔에 대한 문화기술지.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은옥 박영숙 송미순 이인숙, 최경원 진영란 김대회(2002). 한국형 가족 기능 측정도구 개발을 위한 연구-만성질환아 가족을 대상으로. 대한간호학회지 32(3). pp.395-405
- 이은옥·박영숙·송미순·이인숙·박연환(1999). 만성질환으로 인한 가족 기능 변화 모형-완성된 확장기 가족을 대상으로. 대한간호학회지. 29(3). pp.467-484
- 이준우·임원선(2011). 전문사회복지실천론. 서울:인간과 복지.
- 이준우·최희철(2016). 사례관리론. 서울: 도서출판 신정. pp168-169.
- 이혜경(2012). 부모들이 지각한 청소년 행동문제들과 위기문제 실태. 청소년학연구. 한국청소년학회 청소년학연구 19(3). 165-192.
- 이혜숙(2005). 부부의 위기에 대한 용서경험과 결혼만족도의 관계연구. 한일장신대학교 기독교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희은(2016). 전북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지역사회 자원 연계실태와 요구 분석. 우석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인교원(2012) 중년기 성인의 중년기 위기감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서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경섭(2011). 위험회피 시대의 사회재생산: 가족출산에서 여성출산으로. 가족과 문화 23(3). 1-23.
- 장경섭(2018). 가족자유주의, 위험가족, 인구위기: 21세기 한국사회의 딜레마. 지식의지평 24. 1-13.
- 장신재(2017). 노인의 생활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비동거 자녀로부터 경제적 지원의 조절효과. 한국융합학회논문지 8(4). pp.239-245.
- 전효정(2007). 생태학적 가족복지모형을 적용한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심리적 복지. 대한가정학회. 25(5). 121-133.
- 정덕진(2019). 양육미혼모의 위기지원 프로그램 참여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9(4). pp. 241-255.
- 정민자(2006). 지역사회네트워크와 건강가정사업. 제3기 건강가정사 양성교육 자료집 5-57.

- 강기정·박정운·정지영·조성은(2008). 가정경영아카데미.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 정영금·정지영·김현·손동기(2022). 가족위기 지원체계구축 전략 연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정윤주(2016). 생활사건 스트레스가 중년기 위기감에 미치는 영향-심리사회 성숙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성산효대학원대학교 가족상담전공 석사학위논문.
- 정진성(2001). 경제위기와 가족생활. 한국인구학 24(1). 91-121.
- 조만우(2005). 뇌성마비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원활용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성은(2022). 1인가구 사회적관계망 형성지원 방안 연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조성호(2017). 가족의 경제위기 대응 현황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2017.10). 29-46.
- 조한나(2016). 미혼임부와 양육미혼모의 위기개입과 PTSD반응의 관계연구 : 한국교회 의 선교상담 및 지원방안을 중심으로. 총신대학교 선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현옥(2005). 노년기 위기극복을 위한 목회상담적 접근.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흥식 외(2017). 가족복지학-제5판. 서울: 도서출판 학지사. pp.134-135.
- 조희금·정영금·민하영·서지원·이재림(2010). 가족정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진단과 과제. 2010 가족정책포럼 자료집.
- 진미정·조은숙(2013). 가족관계 위기진단 척도개발 연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진미정·조은숙·지혜·최슬민(2013). 가족관계 위기진단 척도개발 연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차태규(2013). 다문화복지정책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복지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연구 -서울시를 중심으로 선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채강숙(2008). 독거노인의 사회적 지지망 실태에 관한 연구 상지대학교 사회복지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규련(2008).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경기: 도서출판 공동체.
- 최옥채(2003).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자원 만들기과 활용; 개인자원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회 2003년 춘계자료집.
- 최정아(1991). 사회적 지원망과 노인의 생활만족도.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민영(2020). 학령기 자녀를 둔 여성한부모의 빈곤과 자녀양육 어려움에 관한 연구-빈곤심도와 다차원적 요인들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8(3). pp. 675 - 687.
- 최희진·유영주(2003). 한국형 가족기능도 척도개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3). 15~28
- 통계청(2021). 2020 인구주택총조사.
- 통계청(2022a). 2022 사망원인통계.
- 통계청(2022b). 2022 통계로 보는 1인 가구.
- 통계청(2022c). 한국의 사회 동향 2022.
- 통계청(2023). 2022 사망원인통계.
- 한국건강가정진흥원(2016). 2016 가족관계위기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 한국건강가정진흥원(2017). 2017 가족관계위기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 한국건강가정진흥원(2023). 2022 가족지원사업 연간결과보고서.
- 한국건강가정진흥원(2023). 202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별도지원사업 연간결과보고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0). 취업부모의 자녀양육지원서비스 효율화 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0-12).
-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1). 맞벌이가구 자녀돌봄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돌봄네트워크 모델 개발.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1-12) .
- 한상일(2004). 장애아 부모의 위기극복에 관한연구. 한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현은애·나종혜(2009). 여성결혼이민자의 자녀양육 어려움과 적응 프로그램 요구도 한국 생활과학회지 18(3). pp. 675-687.
- 홍순혜(1984). 활동이론에 따른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진표(2022). 사회적 고립 현황 조사·분석 및 발굴방법 개발-삼성서울병원. 보건복지부.
- Cater B., &McGoldrick, M.(1989). The changing Family Life cycle : A Framework for family therapy, therboston: Allyn &Bzcon.
- Duval, E. M.(1985), Marriage and Family Development Lippincott. p.144.

부록.

1. 전문가 의견 조사지 (1차)
2. 전문가 의견 조사지(2차)
3. 이용자 설문지

가족위기 수준 측정을 위한 전문가 의견 조사 (1차)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가족위기 수준 측정을 통한 가족위기 지원 강화 방안 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본 조사는 가족의 일상 생활 유지를 어렵게 하거나 중단하는 모든 관련 요소나 사건의 정도, 활용가능한 자원을 파악하여 가족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가족센터의 역할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 가족위기관, 가족기능의 약화로 가족 안정성이 위협받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것은 말하는 위기가족, 즉 ‘가족의 부양·양육·보호·교육 등 가족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에서부터 생애주기상의 변화와 위기, 가족구성원의 내·외적으로 발생하는 어려움, 갑작스러운 사건에 의한 긴장과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어려움, 가족구조의 축소에 따른 가족체계의 취약성 등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 위기 개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 가족위기의 유형과 특성에 근거함
- 새로운 사회적 위험 속에서 파악해야 함
- 결국, 가족위기를 정책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가족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것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사회의 유지와 안녕에 기여하게 되는 것임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저출생, 초고령화, 가족규모의 축소등)내에서 가족위기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 발달적 위기 : 출산(출생), 입학, 졸업, 혼인(결혼), 은퇴, 임신, 사망 등
- 관계적 위기 : 가정폭력, 학대, 성폭력, 이혼, 가족갈등 등
- 개인적 위기 : 자살과 죽음, 실직, 중독, 질병과 장애, 폭력, 소외나 우울(고립감), 가출 등
- 가족 외적 위기 : 경제위기, 불경기, 전염병(코로나19), 사회재난(화재, 환경오염, 사고), 자연재해 (태풍, 홍수, 산사태, 지진), 국가 간 전쟁이나 테러, 사회적 범위(유괴) 등
- 가족 구조적 위기 : 가족해체, 저출생 고령화에 의한 가족 변화, 가족의 분거 생활 증가 등

이때 가족센터는 이러한 가족위기에 처해있는 가족들에게 ‘원활한 가족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긴급하게 필요한 범위에서 지원’하는 가족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주관기관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정책연구센터 02-3479-7631

여주대학교 정지영 교수 e-mail) 4riff@naver.com ☎ 070-7767-2378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 ①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②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평가항목 1> 가족위기 영역별 측정도구의 타당성 및 적정성_발달적위기

- : 수준과 관련하여 측정도구를 적용하는데 있어서 평가의 가능성과 적절성 여부 (1: 평가불가 2: 평가어려움 3: 검토가능 4: 평가가능 5: 매우 적절)
- **적정성:** 가족위기 수준과 관련하여 세부지표가 적절하게 조사되어 데이터 집계 가능한지 여부 (1: 적용불가 2: 적용어려움 3: 검토가능 4: 적용가능 5: 매우 적절)

대분류	중분류	측정도구	타 당 성					적 정 성				
			평가불가----- 매우 적절					적용불가----- 매우 적절				
			1	2	3	4	5	1	2	3	4	5
발달적 위기	신 혼 기	자녀나 본인의 혼인(결혼) 및 적응 문제										
		임신(불임) 관련 문제										
	자녀 출산 양육기	출산, 입양 관련 문제										
		자녀양육 및 돌봄(영유아, 초등, 청소년) 문제										
	자녀교육기	자녀의 입학과 졸업, 학교생활 적응										
		부부-부모 역할 적응 관련										
	자녀성인기	자녀의 진로(대학, 취업, 군입대) 및 이성교제 문제										
		부부관계 재적응 문제										
	자녀결혼기	자녀의 결혼과 독립/새로운 가족관계 적응										
		은퇴로 인한 생활 적응(사회적/경제적축소)										
	축소/소멸기	건강 및 노화에 적응, 자녀-친지와 유대유지 등										
		배우자의 사망/홀로되기의 수용										

<평가항목 1> 가족위기 영역별 측정도구의 타당성 및 적정성_가족 외적/구조적위기

- : 수준과 관련하여 측정도구를 적용하는데 있어서 평가의 가능성과 적절성 여부 (1: 평가불가 2: 평가어려움 3: 검토가능 4: 평가가능 5: 매우 적절)
- **적정성:** 가족위기 수준과 관련하여 세부지표가 적절하게 조사되어 데이터 집계 가능한지 여부 (1: 적용불가 2: 적용어려움 3: 검토가능 4: 적용가능 5: 매우 적절)

대분류	중분류	측정도구	타 당 성					적 정 성				
			평가불가----- 매우 적절					적용불가----- 매우 적절				
			1	2	3	4	5	1	2	3	4	5
가족 외적 위기	경제적 요인	경제적 어려움(파산, 부채), 불경기										
	사회불안 요인	사회적 범죄(살인 및 강도, 유괴, 사기, 폭행 등)										
	전염불안 요인	메르스나 코로나19 등 전염병 문제										
	사회재난요인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환경오염사고 등 피해										
	자연재해 요인	태풍, 홍수, 산사태, 지진 등 자연재해 피해										
가족 구조적 위기	가족해화 /축소	스스로 자기 돌봄 역량의 부족 또는 지원 부재										
		사회와의 단절이나 고립, 은둔 상태										
	저출생 /고령화	고령세대 돌봄에 대한 부담(경제적, 신체적)										
		일과 가족돌봄의 양립 곤란										
	가족분거 생활증가	이직이나 이전에 의한 관계유지의 어려움이나 새로운 관계 맺기의 어려움										
		근거리 거주 가족이나 지인 부재로 인한 어려움										

<평가항목 1> 가족위기 영역별 측정도구의 타당성 및 적정성

추가 되어야 할 문항	문항관련 기타 의견

<평가항목 2> 일상생활 가족자원 영역별 측정도구의 타당성 및 적정성_인적자원/사회자본

- : 일상생활 가족자원 영역과 관련하여 측정도구를 적용하는데 있어서 평가의 가능성과 적절성 여부 (1: 평가불가 2: 평가어려움 3: 검토가능 4: 평가가능 5: 매우 적절)
- 적정성: 일상생활 가족자원 영역과 관련하여 세부지표가 적절하게 조사되어 데이터 집계 가능한지 여부 (1: 적용불가 2: 적용어려움 3: 검토가능 4: 적용가능 5: 매우 적절)

대분류	중분류	측정도구	타 당 성					적 정 성				
			평가불가----- 매우 적절					적용불가----- 매우 적절				
			1	2	3	4	5	1	2	3	4	5
인적 자원	가족 지지	우리 가족은 힘들 때 서로 의지가 된다.										
		우리 가족은 서로를 존중한다										
		우리 가족은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편이다										
	가족 탄력성 (가족역량)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다										
		우리 가족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우리 가족은 막다른 골목에 와 있는 것 같다.										
사회 자본	관계와 네트워크	우리 가족만 사회에서 고립되어 있다.										
		전에 잘 지내던 사람들과 관계가 멀어졌다.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무관심하다.										

추가 되어야 할 문항	문항관련 기타 의견

<평가항목 3> 가족위기시 서비스 수요 파악 도구의 타당성 및 적정성

추가 되어야 할 문항	문항관련 기타 의견

[기타 질문지와 관련하여 자유롭게 전문가의 의견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위기 수준 측정을 위한 전문가 의견 조사 (2차)

안녕하십니까?.

1차 전문가 의견조사에서 측정도구별 문항의 타당성 및 적정성 평가를 통해, 5점 척도에서 평균 4점 이상의 문항들은 타당하고 측정하기에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정성적으로 주신 의견들을 반영하여, 측정 문항을 일부 조정, 삭제, 영역 이동, 대체 문항 추가를 하여 수정한 2차 조사지를 보내드립니다.

평가항목 1은 가족위기 측정 문항 입니다.

평가항목 2는 가족위기 대응 자원 측정 문항입니다.

평가항목 3은 가족지원 수요 측정 문항입니다.

변경된 문항에 대한 문항별 의견, 혹은 전체적인 의견이 있으시면 해당간에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관기관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정책연구센터 02-3479-7631

여주대학교 정지영 교수 e-mail) 4riff@naver.com ☎ 070-7767-2378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 ①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②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응답자 정보 ★

■	명	
■	소 속	

<평가항목 1> 가족위기 수준 측정도구_개인적 위기

영역	변경 전 문항	변경 후 문항	비고
개인적 위기 (10→11문항)	실직, 해고의 위험이나 경험	실직과 해고	조정
		경제적 어려움(파산, 부채)	추가
	시험, 진학이나 취업 등의 실패	시험, 진학, 취업의 실패	조정
	술이나 담배, 마약, 게임 등 중독 문제	술, 담배, 마약, 게임 등 중독 문제	
	만성질환이나 장애, 장기입원 등 건강 문제	만성질환, 장애, 장기입원 등 건강 문제	
	소외감이나 우울 등 심리/정서적 문제	소외감, 우울, 불안	조정
	가출, 비행 문제	가출, 비행 문제	
	(학교)폭력, 왕따 피해	학교폭력, 왕따 피해	
	성폭력 및 성범죄 피해	성폭력 및 성범죄 피해	
	폭력이나 범죄 발생 및 고소/고발 경험	범죄, 폭력(행), 고소/고발 경험	조정
	자살시도나 죽음(사망) 관련 사건	자살시도나 죽음(사망) 관련 사건	

[가족위기 수준 측정도구의 타당성과 적정성 개선을 위한 의견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항목 1> 가족위기 수준 측정도구_관계적위기

영역	변경 전 문항	변경 후 문항	비고
관계적 위기	가족 소통 부재나 어려움	가족 소통 부재	조정
	가족과의 단절, 가족내의 고립상태	가족 내 고립, 단절 (은둔형 외톨이)	조정
	가족 간 갈등	가족 간 갈등	
		부부 갈등 (외도 등)	추가
	학대 경험	가정폭력문제 (학대, 방임 포함)	조정
	가정폭력문제		
	별거, 이혼, 외도 문제	별거, 이혼, 재혼	조정

[가족위기 수준 측정도구의 타당성과 적정성 개선을 위한 의견을 작성해 주시기바랍니다.]

<평가항목 1> 가족위기 수준 측정도구_가족 구조적위기

영역	변경 전 문항	변경 후 문항	비고
가족 구조적 위기 (6->4문항)	스스로 자기 돌봄 역량의 부족 또는 지원 부재	일상생활 유지·관리의 어려움	조정
	사회와의 단절이나 고립, 은둔 상태	사회와의 단절이나 고립, 은둔 상태	
	고령 세대 돌봄에 대한 부담 (경제적, 신체적)	고령 세대 부양, 돌봄 부담 (경제적, 신체적)	조정
	일과 가족돌봄의 양립 곤란	일, 가정 양립의 어려움	조정
	이직이나 이전에 의한 관계유지의 어려움이나 새로운 관계 맺기의 어려움		삭제
	근거리 거주 가족이나 지인 부재로 인한 어려움		삭제

[가족위기 수준 측정도구의 타당성과 적정성 개선을 위한 의견을 작성해 주시기바랍니다.]

<평가항목 1> 가족위기 수준 측정도구_발달적위기

영역	변경 전 문항	변경 후 문항	비고
발달적 위기	자녀나 본인의 혼인(결혼) 및 적응 문제	결혼 및 적응 문제	조정
	임신(불임), 관련 문제	임신, 난임, 유산 관련 문제	조정
	출산, 입양 관련 문제	출산, 입양 관련 문제	
	자녀 양육 및 돌봄(영유아, 초등) 문제	자녀 양육 및 돌봄 문제	조정
	자녀의 입학과 졸업, 학교생활 적응	자녀의 진학과 학업 문제	조정
	부부-부모 역할 적응 관련	부부-부모 역할 적응 문제	조정
	자녀의 진로(대학, 취업, 군입대) 및 이성교제 문제	진로 및 이성교제 문제	조정
	부부관계 재적응 문제	부부관계 재적응 문제	
	자녀의 결혼과 독립/새로운 가족관계 적응	자녀의 결혼과 독립 관련 문제	조정
	은퇴로 인한 생활 적응(사회적/경제적축소)	은퇴로 인한 생활 적응 관련 문제	조정
	건강 및 노화에 적응, 자녀-친지와 유대유지 등	건강 및 노화 적응 관련 문제	조정
	배우자의 사망/홀로되기의 수용	배우자의 사망/홀로되기의 수용 관련 문제	조정

[가족위기 수준 측정도구의 타당성과 적정성 개선을 위한 의견을 작성해 주시기바랍니다.]

<평가항목 1> 가족위기 수준 측정도구_가족 외적위기

영역	변경 전 문항	변경 후 문항	비고
가족 외적 위기	경제적 어려움(파산, 부채), 불경기	장기적 경기 침체, 불경기	조정
	사회적 범죄(살인 및 강도, 유괴, 사기, 폭행 등)	사회적 범죄 팽배 (무차별 흉기 난동, 스토킹, 보이스피싱, 사이버범죄 등)	조정
	메르스나 코로나19 등 전염병 문제	메르스나 코로나19 등 전염병 문제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환경 오염 사고 등 피해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환경 오염 사고 등 피해	
	태풍, 홍수, 산사태, 지진 등 자연재해 피해	태풍, 홍수, 산사태, 지진 등 자연재해 피해	

[가족위기 수준 측정도구의 타당성과 적정성 개선을 위한 의견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항목 2> 위기 극복을 위한 나와 가족의 대응 자원 측정도구

영역	변경 전 문항	변경 후 문항	비고
개인 자원	나의 긍정적 성격(태도)	나의 긍정적 성격(태도)	
	나의 위기 극복 의지와 열정	나의 위기 극복 의지와 열정	
	나의 위기 대처 역량(지식/기술)	나의 위기 대처 역량(지식/기술)	
	나의 위기 대처 자원(재정 능력)	나의 위기 대처 자원(재정 능력)	
가족 자원	가족들이 위기에 적응하고 극복한 경험과 추진력	위기에 적응하고 극복한 경험과 추진력	조정
	위기 발생시 가족간의 유대감(친밀감)	위기 발생 시 가족 간 유대감(친밀감)	
	손상 회복을 돕는 가족원 간의 협력과 지지	손상 회복을 돕는 가족원 간의 협력과 지지	
	생활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는 능력	생활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는 능력	
사적 자원	가족이외 도와줄 수 있는 친척들	가족이외 도와줄 수 있는 친척들	
	가족이외 도와줄 수 있는 친구들	가족이외 도와줄 수 있는 친구들	
	가족이외 도와줄 수 있는 이웃들	가족이외 도와줄 수 있는 이웃들	
	도움을 줄 동호회나 종교적 모임, 직장 동료들	도움을 줄 직장 동료들	조정
민간/ 공적 자원	지역사회 공동체 활동이나 봉사 모임들	지역사회 공동체(주민자치회, 부녀회), 봉사 단체	조정
	자선단체, 시민단체의 도움	자선단체, 시민단체	
		복지관(시설), 가족센터, 상담(트라우마)센터	추가
	정부및 지자체지원(보조금, 물품, 서비스 등)	정부및 지자체지원(보조금, 물품, 서비스 등)	
	공공기관 지원(경찰, 소방, 교육청)	공공기관 지원(경찰, 소방, 교육청)	

[가족위기 대응 자원 측정도구의 타당성과 적정성 개선을 위한 의견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A large, empty rectangular box with a black border, intended for the respondent to write their opinions on the validity and appropriateness of the family crisis response resource measurement tool.

<평가항목 3> 위기시 지원이 필요한 가족자원 측정도구_물적자원/시간자원

영역	변경 전 문항	변경 후 문항	비고
물적 자원	매달 생활비가 부족하다.	매달 생활비가 부족하다.	
	빚, 부채, 사채 등이 있다.	빚, 부채, 사채 등이 있다.	
	생활비 외에 가용(용통)할 금전적 여유가 없다 (저축, 예금, 투자, 갯돈 등)	생활비 외에 금전적 여유가 없다	조정
	가정 설비(가전기기, 냉난방용품 등)나 차량등의 물품이 부족하다	냉난방등의 가정설비가 열악하다	조정
	의식주생활 상태가 불안정하다.	주거 상태가 불안정하다(전세, 월세)	조정
시간 자원	항상 시간에 쫓긴다	항상 시간에 쫓긴다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하다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하다	
	집안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집안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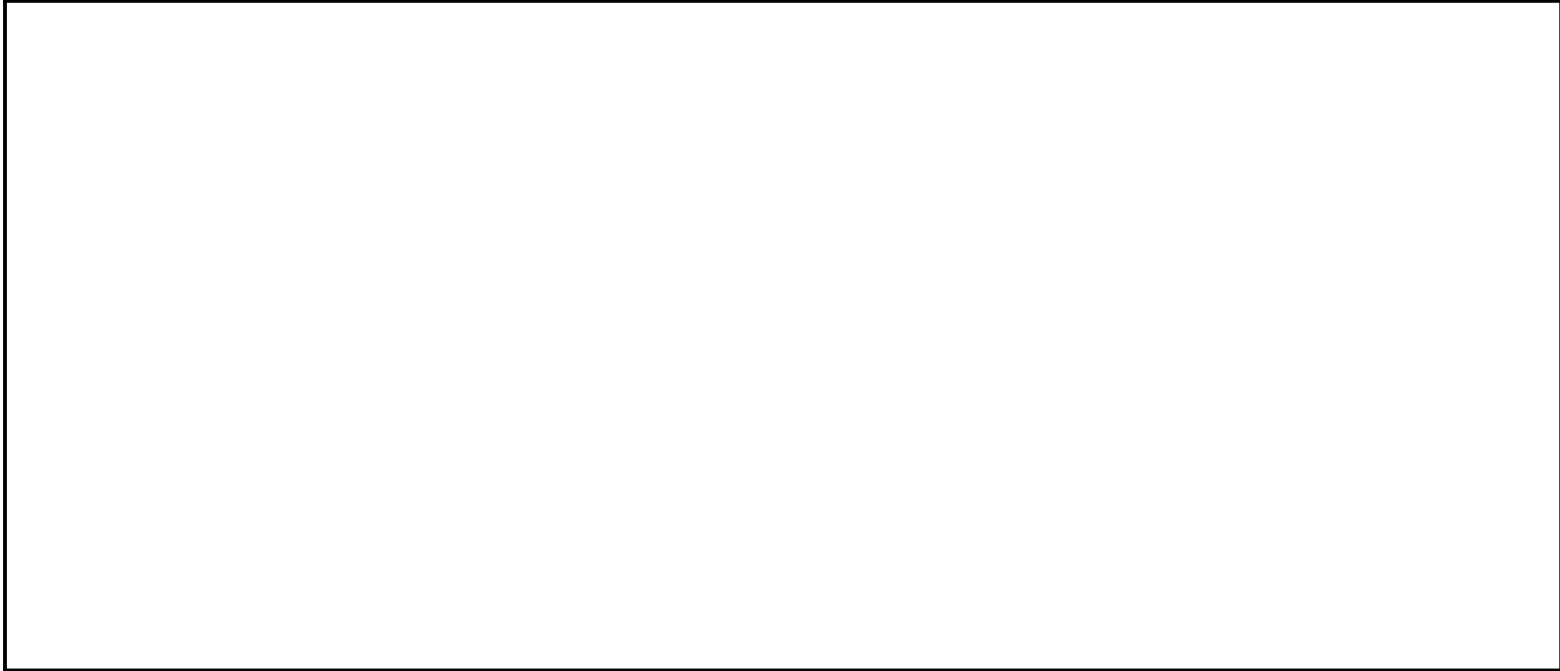
[위기시 지원이 필요한 가족자원 측정도구의 타당성과 적정성 개선을 위한 의견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항목 3> 위기시 지원이 필요한 가족자원 측정도구_인적자원/사회자본

영역	변경 전 문항	변경 후 문항	비고
인적 자원 (9->6 문항)	위기 시에 내가 얻는 정보에는 한계가 있다	위기시 어디에서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모르겠다.	조정
	세상 돌아가는 사정을 잘 모른다.	세상 돌아가는 사정을 잘 모른다.	
	가족들의 생활을 파악하기 어렵다.	새로운 정보나 기술에 접근하는 게 어렵다 (키오스크, Chat GPT, Bing, 인터넷, 모바일 접속 등)	조정
	우리 가족은 힘들 때 서로 의지가 된다.	우리 가족은 힘들 때 서로 의지가 된다.	
	우리 가족은 서로를 존중한다	우리 가족은 서로를 존중한다	
	우리 가족은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편이다	우리 가족은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편이다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다		삭제
	우리 가족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삭제
사회 자본	우리 가족은 막다른 골목에 와 있는 것 같다.		삭제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무관심하다.		삭제
	우리 가족만 사회에서 고립되어 있다.		삭제
		주변에 교류하는 이웃이 없다.	추가
		주변에 도움을 청할 사람이나 기관이 없다.	추가
	전에 잘 지내던 사람들과 관계가 멀어졌다.	전에 잘 지내던 사람들과 관계가 멀어졌다.	

[위기시 지원이 필요한 가족자원 측정도구의 타당성과 적정성 개선을 위한 의견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질문지와 관련하여 자유롭게 전문가의 의견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A large, empty rectangular box with a black border, intended for the respondent to write their free-form opinions or answers to the questionnaire questions.

- 감사합니다 -

이용자 설문지

가족위기 수준 측정을 위한 조사

ID				
----	--	--	--	--

안녕하세요.

본 설문지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가족위기 측정을 통한 가족위기 지원 강화 방안 연구”를 위한 것입니다. 본 연구에서 가족위기란, 가족기능의 약화로 가족 안정성이 위협받는 상황을 말합니다.

조사항목 1은 가족위기 수준을 측정하는 문항입니다.

조사항목 2는 가족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보유하고 계신 자원 측정 문항입니다.

조사항목 3은 가족 지원이 필요한 항목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입니다.

응답자 본인의 상태와 견해를 해당 항목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답변은 가족위기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귀하께 사용될 예정이니,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본 조사에 응답해 주신 모든 자료는 통계적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응답자의 신상정보와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와 제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에 따라 일체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주관기관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정책연구센터 02-3479-7631

여주대학교 정지영 교수 e-mail) 4riff@naver.com ☎ 070-7767-2378

1] 귀하의 거주 지역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시/도 ()군(구)

2] 귀하가 거주하시는 지역의 특성은 어디에 해당하는지 해당 칸에 V 표시를 해주십시오.

() ① 도시지역 () ② 농어촌지역

3] 귀하의 가족 유형은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해당 칸에 V 또는 기입하여 주십시오.

() ① 부모자녀가정 () ② 부부(무자녀)가정 () ③ 한부모가정 () ④ 조손가정

() ⑤ 1인 가구 () ⑥ 3세대(확대) 가정 () ⑦기타(기입 : _____)

4] 귀하와 가족 간 경제적인 상태의 해당 칸에 V 표시를 해주십시오.

() ① 나와 가족은 경제적으로 서로 독립적인 상태이다.

() ② 나는 경제적으로 가족에게서 전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다.

() ③ 나는 경제적으로 가족에게서 부분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다.

() ④ 나는 경제적으로 가족을 부양하거나 생활비를 지원하는 위치에 있다.

[1] 가족위기와 일상의 어려움

1. 다음은 나와 가족이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상황입니다.

(가) 이러한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나)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현재** 어려움을 어느 정도 경험하고 계십니까?

(가)와 (나)의 일치하는 곳에 **V표시**를 해주십시오.

나와 가족 중 누군가는....	(가)		(나)						
	경험 여부		현재 일상생활 유지의 어려움 정도 (식사, 수면, 대인관계 등)						
	있었다	없었다	전혀 심각 하지 않다	거의 심각 하지 않다	심각 하지 않다	보통 이다	조금 심각 하다	심각 하다	매우 심각 하다
실직, 해고로 어려움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경제적 어려움과 부채, 신용불량, 파산 등으로 어려움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시험, 진학, 취업 실패로 어려움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이전, 이직, 이사로 인한 부정응과 어려움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술, 담배, 마약, 게임 등 중독으로 어려움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만성질환, 신체장애, 장기 입원 등으로 어려움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정신건강(치매, 정신질환, 발달장애 등)문제로 어려움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소외감, 우울, 불안으로 어려움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가출, 비행으로 어려움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학교폭력, 왕따 피해로 어려움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성폭력 및 성범죄 피해로 어려움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범죄, 폭력(행), 고소/고발로 인해 어려움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자살 시도나 죽음(사망)으로 어려움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다음은 나와 가족관계의 어려움에 대한 상황입니다.

(가) 이러한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나)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현재** 어려움을 어느 정도 경험하고 계십니까?

(가)와 (나)의 일치하는 곳에 V표시를 해주십시오.

나와 가족 중 누군가는....	(가)		(나)						
	경험 여부		현재 일상생활 유지의 어려움 정도 (식사, 수면, 대인관계 등)						
	있었다	없었다	전혀 심각 하지 않다	거의 심각 하지 않다	심각 하지 않다	보통 이다	조금 심각 하다	심각 하다	매우 심각 하다
가족 내 고립, 단절(은둔형 외톨이)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부부 갈등, 외도, 별거로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가족(조부모-부모-자녀) 간 갈등으로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가정 폭력 (학대, 방임)으로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이혼, 재혼으로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다음은 저출생·고령화 사회에서 가족 수가 줄어들면서 발생하는 가족 어려움에 대한 상황입니다.

(가) 이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나)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현재** 어려움을 어느 정도 경험하고 계십니까?

(가)와 (나)의 일치하는 곳에 V표시를 해주십시오.

나와 가족 중 누군가는....	(가)		(나)						
	경험 여부		현재 일상생활 유지의 어려움 정도 (식사, 수면, 대인관계 등)						
	있었다	없었다	전혀 심각 하지 않다	거의 심각 하지 않다	심각 하지 않다	보통 이다	조금 심각 하다	심각 하다	매우 심각 하다
일상생활(의식주 생활)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지역 인구 감소, 인프라(병원, 학교 등) 축소로 인해 어려움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노부모 부양 (경제적, 신체적) 기간의 증가로 어려움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손자녀 돌봄 부담(경제적, 신체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일, 가정 양립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다음은 개인이나 가족이 생애주기 상 수행하거나 겪게 되는 가족 어려움의 상황입니다.

(가) 이러한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나)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현재 어려움을 어느 정도 경험하고 계십니까?

(가)와 (나)의 일치하는 곳에 V표시를 해주십시오.

나와 가족 중 누군가는....	(가)		(나)						
	경험 여부		현재 일상생활 유지의 어려움 정도 (식사, 수면, 대인관계 등)						
	있었다	없었다	전혀 심각 하지 않다	거의 심각 하지 않다	심각 하지 않다	보통 이다	조금 심각 하다	심각 하다	매우 심각 하다
결혼 및 적응에 어려움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임신, 난임, 유산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출산, 입양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자녀 양육 및 돌봄에 어려움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자녀의 진학과 학업에 어려움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부부-부모 역할 적응에 어려움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진로 및 이성 교제로 인한 어려움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부부관계 재적응에 어려움이 있다.(재혼, 분거, 자녀 독립 후 빈둥지기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자녀의 결혼과 독립에 어려움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은퇴 후 생활 적응에 어려움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신체적 쇠퇴 등 노화로 어려움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배우자의 사망/홀로되기로 어려움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다음은 외부 환경과 요인에 의해 가족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상황입니다.

(가) 이러한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나)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현재** 어려움을 어느 정도 경험하고 계십니까?

(가)와 (나)의 일치하는 곳에 V표시를 해주십시오.

나와 가족 중 누군가는....	(가)		(나)						
	경험 여부		현재 일상생활 유지의 어려움 정도 (식사, 수면, 대인관계 등)						
	있다	없다	전혀 심각 하지 않다	거의 심각 하지 않다	심각 하지 않다	보통 이다	조금 심각 하다	심각 하다	매우 심각 하다
장기적 경기 침체, 불경기 상황으로 어려움과 불안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사회적 범죄 증가(무차별 흉기 난동, 스토킹, 보이스피싱, 사이버범죄)로 어려움과 불안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메르스나 코로나19 등 전염병으로 어려움과 불안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환경 오염으로 어려움과 불안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태풍, 홍수, 산사태, 지진 등 자연 재해 피해 로 어려움과 불안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위기 극복을 위한 나와 가족의 대응 자원

6. 다음은 가족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정도를 알아보는 문항입니다. 귀하와 가족이 아래 항목별 자원들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 일치하는 곳에 V 표시를 해주십시오.

항목	가족위기를 극복하기에 자원이 충분하다						
	전혀 없다	상당히 부족하다	조금 부족하다	보통 이다	조금 있다	많이 있는 편이다	매우 많다
나의 긍정적 성격(태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나의 위기 극복 의지와 열정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나의 위기 대처 역량(지식/기술/경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나의 위기 대처 자원(재정 능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우리 가족의 위기 극복 경험과 추진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가족 간 위기 발생 시 유대감(친밀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가족원 간의 손상 회복을 돕는 협력과 지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우리 가족의 생활 변화에의 적응력/유연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가족 외에 도와줄 수 있는 친척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가족 외에 도와줄 수 있는 친구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가족 외에 도와줄 수 있는 동네 이웃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동호회, 종교모임, 직장 동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지역사회 공동체(주민자치회, 부녀회, 봉사단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민간시민단체(로타리, 라이온스, 재단, 후원회, 협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복지관(시설), 가족센터, 상담(트라우마)센터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정부 및 지자체지원(보조금, 물품, 서비스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경찰서, 소방서, 교육청, 학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현재 귀하가 가족센터에서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일치하는 곳에 V 표시를 해주시고 ⑧ 그 외 가족센터의 이용서비스는 직접 기입하여 주십시오.

- () ① 희망드림(가족역량)서비스 () ② 1인 가구서비스
 () ③ 가족 상담 서비스 () ④ 가족교육(부부, 부모, 부모-자녀)
 () ⑤ 다문화가족 서비스 () ⑥ 한부모가족 서비스
 () ⑦ 공동육아등 돌봄서비스 () ⑧ 기타(기입: _____)

8. 현재 귀하가 개인적인 문제나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전체 몇 명입니까? 가족이나 가족 이외의 사람을 모두 포함해서 몇 명인지 기입하여 주십시오.

⇒ 나의 개인적인 문제나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총 () 명이다.

[3] 위기 발생 시 가족 서비스 지원이나 연계가 필요한 항목

9. 다음의 문항에 대해 귀하의 생각이나 상황과 일치하는 곳에 V 표시를 해주십시오.

항목	가족이 일상 생활하는 데 필요한 지원						
	전혀 그렇지 않다	상당히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매우 그렇다
매달 생활비가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빚, 부채, 사채 등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생활비 외에 금전적 여유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냉난방등의 가정설비가 열악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주거 상태가 불안정하다(전세, 월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항상 시간에 쫓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집안일을 제대로 처리할 시간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위기 시 어디에서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세상 돌아가는 사정을 잘 모른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새로운 정보나 기술에 접근하는 게 어렵다 (인터넷, 스마트폰, 키오스크 사용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우리 가족은 힘들 때 서로 의지가 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우리 가족은 서로를 존중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우리 가족은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주변에 교류하는 이웃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주변에 도움을 청할 사람이나 기관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에 잘 지내던 사람들과 관계가 멀어졌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현재 귀하 또는 귀하 가족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아래의 보기 번호를 참조하여 **필요한 순서대로 3가지만 선택**하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	-----------	-----------

- | | | |
|-------------------------------------|-----------------|-----------|
| ① 갈등/문제상담 | ② 심리정서지원 | ③ 부부/부모교육 |
| ④ 가족관계 향상교육 | ⑤ 아이돌봄지원 | ⑥ 가족돌봄지원 |
| ⑦ 병원동행지원 | ⑧ 생활역량(가사 관리)교육 | ⑨ 말벗서비스 |
| ⑩ 지역참여활동지원 | ⑪ 지역모임지원 | ⑫ 정책정보제공 |
| ⑬ 타 기관 서비스 연계(일자리, 의료, 주거, 법률 지원 등) | | |

[4] 일반적 특성

11. 귀하와 일상을 함께 하는 동거가족은 몇 명입니까? 총(_____)명

가족원	성별	연령		최종 학력(재학, 중퇴 포함)
응답자 본인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만()세	<input type="checkbox"/> 함/ <input type="checkbox"/> 안함	<input type="checkbox"/> 중졸이하 <input type="checkbox"/> 초대졸 <input type="checkbox"/> 대졸 <input type="checkbox"/> 대학원이상
배우자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만()세	<input type="checkbox"/> 함/ <input type="checkbox"/> 안함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 중졸이하 <input type="checkbox"/> 고졸 <input type="checkbox"/> 초대졸 <input type="checkbox"/> 대졸 <input type="checkbox"/> 대학원이상
자녀 1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만()세	<input type="checkbox"/> 함/ <input type="checkbox"/> 안함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 중졸이하 <input type="checkbox"/> 고졸 <input type="checkbox"/> 초대졸 <input type="checkbox"/> 대졸 <input type="checkbox"/> 대학원이상
자녀 2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만()세	<input type="checkbox"/> 함/ <input type="checkbox"/> 안함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 중졸이하 <input type="checkbox"/> 고졸 <input type="checkbox"/> 초대졸 <input type="checkbox"/> 대졸 <input type="checkbox"/> 대학원이상
자녀 3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만()세	<input type="checkbox"/> 함/ <input type="checkbox"/> 안함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 중졸이하 <input type="checkbox"/> 고졸 <input type="checkbox"/> 초대졸 <input type="checkbox"/> 대졸 <input type="checkbox"/> 대학원이상
조부모1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만()세	<input type="checkbox"/> 함/ <input type="checkbox"/> 안함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 중졸이하 <input type="checkbox"/> 고졸 <input type="checkbox"/> 초대졸 <input type="checkbox"/> 대졸 <input type="checkbox"/> 대학원이상
조부모2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만()세	<input type="checkbox"/> 함/ <input type="checkbox"/> 안함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 중졸이하 <input type="checkbox"/> 고졸 <input type="checkbox"/> 초대졸 <input type="checkbox"/> 대졸 <input type="checkbox"/> 대학원이상
동거1()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만()세	<input type="checkbox"/> 함/ <input type="checkbox"/> 안함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 중졸이하 <input type="checkbox"/> 고졸 <input type="checkbox"/> 초대졸 <input type="checkbox"/> 대졸 <input type="checkbox"/> 대학원이상
동거2()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만()세	<input type="checkbox"/> 함/ <input type="checkbox"/> 안함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 중졸이하 <input type="checkbox"/> 고졸 <input type="checkbox"/> 초대졸 <input type="checkbox"/> 대졸 <input type="checkbox"/> 대학원이상

12. 귀하 가족의 월 평균 소득은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해당 칸에 V 표시를 해주십시오.

- | | |
|-------------------|------------------|
| () ① 200만 원 미만 | () ② 201~300만 원 |
| () ③ 301~400만 | () ④ 401~500만 원 |
| () ⑤ 501~ 600만 원 | () ⑥ 601~700만 원 |
| () ⑦ 701~800만 원 | () ⑧ 801~900만 원 |
| () ⑨ 901~1000만 원 | () ⑩ 1천만 원 이상 |

13. 귀하와 가족의 월 평균 소득을 합하여 가족생활을 하시기에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편입니까?

- () ① 매우 불안정하다 () ② 불안정하다
() ③ 보통이다. () ④ 안정적이다
() ⑤ 매우 안정적이다

14. 귀하와 가족은 다음의 정부 지원을 받고 계십니까? 지원 받는 항목에 모두 V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 () ① 기초생활수급 () ② 의료수급 () ③ 교육비지원
() ④ 주거지원(LH공공임대) () ⑤ 공공근로 () ⑥ 기타(기입: _____)

15. 동거 여부와 상관없이 나 또는 배우자의 가족 중 돌봐야 하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해당하는 항목에 모두 V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 () ① 영유아 자녀 () ② 초등학교 자녀
() ③ 중/고생 자녀 () ④ 만성질환, 장기요양 등 요보호 환자
() ⑤ 장애가 있는 가족 () ⑥ 거동불편 요돌봄 고령자
() ⑦ 기타(기입 _____)

⇒ 동거 여부와 상관없이 내가 돌봐야 하는 사람은 총 (_____) 명이다.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위기 측정을 통한 가족위기 지원 강화 방안 연구

발행일 | 2023년 11월

발행처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173 남산스퀘어빌딩 21, 24층

전화 | 02-3479-7600

팩스 | 02-3479-7798

홈페이지 | www.kihf.or.kr

기획·편집 | 소통협력실 가족정책연구센터

수행기관 | 미래가족연구소

인쇄처 | 조은인쇄

※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승인 없이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용·발췌하거나 무단 복제하는 것을 금합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

KOREAN INSTITUTE FOR HEALTHY FAMILY